

1985 人口 및 住宅센서스

人口綜合分析報告書

1989. 11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42761



머 리 말

人口 및 住宅센서스 資料는 廣範圍한 國家基本統計로서 모든 統計의 基礎가 될 뿐 아니라, 經濟·社會·教育·文化等 諸般政策의 評價資料와 여러 學術研究에서도 널리 活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人口 및 住宅센서스 資料等 人口關聯 統計資料를 利用한 深層的이고 專門的인 分析이 貧弱하여 各種 政策樹立에 적절히 對處하지 못하였으며 資料活用에서도 微弱한 實情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局에서는 來年에 열네번째로 實施하게 되는 1990年 人口 및 住宅센서스의 質的 向上을 圖謀하고, 現在 우리나라의 主要 社會問題가 되고 있는 地域間 均衡開發, 人口의 老齡化, 人力開發 및 保健·醫療等의 政策樹立에 새로운 方向을 提示하고자 1985年 人口 및 住宅센서스 資料를 利用, 아래 5個 主題에 대한 綜合分析을 關聯 學術研究機關에 依賴하여 深層分析을 試圖하였으며 同 研究結果의 活用性 提高를 위하여 分析結果를 綜合한 報告書를 發刊하게 되었습니다.

- 主題 • 韓國經濟의 成長과 人口要因
 - 最近 出産力 減少要因과 展望
 - 人口移動의 類型과 決定要因에 關한 研究
 - 韓國人의 死亡水準推定
 - 老齡人口의 特性 및 變化 樣相에 對한 基礎 研究

앞으로도 人口 및 住宅센서스의 改善을 위한 努力과 結果를 利用한 分析事業을 繼續 推進하여, 센서스 資料의 活用을 더욱 活性化하고 國家 基本政策樹立을 위한 基礎資料 提供을 위해 最善을 다 할 것이며, 아울러 利用者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指導와 助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研究事業에 參與하여 주신 研究機關 및 研究者 여러분의 勞苦에 깊은 感謝를 드리며, 이 報告書 內容이 利用者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89. 11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長 李 康 雨

目 次

(主題 1) 韓國經濟의 成長과 人口要因	3
I. 序 論	7
II. 理論的 背景과 分析方法	11
III. 出産力과 生涯勞動供給	30
IV. 出産力과 消費支出 및 子女教育	68
V. 人口要因의 變動이 미친 總計的 經濟效果	98
VI. 結 論	113
附錄. 統計表	117
(主題 2) 最近 出産力 減少要因과 展望	149
I. 序 論	153
II. 出産率의 減少要因에 관한 先行研究의 檢討	156
III. 出産率의 變動推移 (1960 ~ 1985)	170
IV. 出産率 變化要因에 대한 多變數 分析	184
V. 要約 및 意見	199
附錄. 統計表	207
(主題 3) 人口移動의 類型과 決定要因에 관한 研究	241
I. 序 論	245
II. 人口移動量의 比較 및 移動方向	249
附錄. 統計表	333

(主題 4) 韓國人的 死亡水準推定	359
I. 死亡水準推定과 人口動態統計	363
II. 理論的 背景과 研究方法	367
III. 研究의 結果 및 討議	375
附錄. 統計表	387
(主題 5) 老齡人口의 特性 및 變化樣相에 대한 基礎研究	409
I. 老齡人口의 變化趨勢	413
II. 老齡人口의 社會·人口學的 特性	418
III. 老齡人口의 經濟的 特性	426
IV. 老人福祉實態와 對策	446

韓國經濟의 成長과 人口要因

延世大學校 商經大學

윤석범·구성열

目 次

I. 序 論	7
1. 研究의 目的과 範圍	7
2. 研究의 內容	9
II. 理論的 背景과 分析方法	11
1. 理論的 背景	11
2. 分析體系와 方法	14
3. 資料	27
III. 出産力과 生涯勞動供給	30
1. 生涯勞動供給：最近의 分析傾向	30
2. 分析 模型과 資料	36
3. 推定結果	44
IV. 出産力과 消費支出 및 子女教育	68
1. 家計消費函數	68
2. 家計消費函數의 推定	72
3. 消費支出分析 結果의 應用	91
V. 人口要因의 變動이 미친 總計的 經濟效果	98
1. 家口形成 推移와 展望	98
2. 經濟活動, 所得, 消費 및 子女教育에 미친 總計的 效果	102
3. 人口要因의 變動이 미친 總體 經濟的 效果	110

VI. 結 論	113
1. 分析結果 要約	113
2. 示唆點과 限界	115
〈附 錄〉	117
I. 勞動供給 函數의 推定 參考 資料	119
II. 品目別 消費支出函數의 推定 結果	122
III. 「그루핑」(grouping)시 消費函數의 推定 結果	131
IV. 家口數, 家口員 構成 및 家口의 經濟·人口 特性	138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발전상을 한마디로 특징지운다면 “고도 성장과 급속한 산업화”라 할 수 있다. 지난 25년간 GNP는 연평균 8% 이상 증가하여 80년대 후반의 GNP는 60년대초에 비하여 10배 이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인구증가율이 1~3%로 비교적 높은 수준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GNP는 5배 이상 증가하였다. 산업구조도 급속히 탈바꿈을 하여 경제개발의 초기에 노동집약산업에 있던 비교우위가 자본 및 질적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이행되었다. 또 경제개방 이래 오랜 숙원이던 국제수지의 흑자도 달성함으로써 한국은 이제 명실상부하게 선진산업국가의 대열에 들게 되었다.

경제의 성장 및 산업화와 함께 사회 인구학적 변동도 병진되었다. 특히 인구의 출생율은 급격히 저하(25년간 합계 출산력은 6에서 2 이하로 격감)되어 인구증가율이 3%에서 1%내외로 안정되게 되었다. 출산력의 저하에 핵가족화추세가 가미되어 개별가구의 규모는 더욱 소규모화되었고 이제 인구 변천과정도 드디어 완료단계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급속한 사회·경제발전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흔히 한국경제의 성장요인으로서 수요측면에서 수출수요의 지속적 증가, 공급측면에서 원료 및 자본재의 수입을 통한 공급능력의 확충을 들고 한국을 대외지향(의존)적 경제개발전략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대내적요인으로서의 인적자원의 역할이다. 흔히 우리는 개발초기 한국경제에서의 인적자원을 거의 자유재 (free goods) 로 간주하고 있으며 한국경제의 성공을 이와 같이 풍부한 인적자원을 보다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을 집중적으로 개발육성한 데 있다고 본다. 그러면 인적 자원의 저수지라고 볼 수 있는 인구의 규모와 구조가 달라지므로써 한국경제는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었을까 ?

한국경제에 있어서 산업화와 인구변천과정이 병진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인구는 소비 및 생산의 주체이기 때문에 인구요인의 변동은 곧 경제변동을 뜻하기 때문이다. 반면 경제변동은 장기적으로 인구변동을 초래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들 양자간에 어느 정도의 관련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특히 인적자원의 성공적 활용에 의하여 경제개발에 성공한 한국경제에 있어서 인구요인의 변동이 어느정도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쳤는가는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경제와 인구간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접근방법은 경제·사회의 최소단위인 가계를 관찰단위로 하는 것이다. 국민경제에 있어서 최소단위인 가계는 자원 및 생산요소의 원천적 공급자가 되어 소득을 획득하는 한편 최종 소비자로서 이를 생산물에 대한 소비와 저축에 할애하게 된다. 가계의 이러한 경제적 기능은 자녀의 출생과 양육 (교육) 등 사회적 기능과의 긴밀한 관계아래 수행되는데 이와 같이 상호연관된 과정에서 가계는 생산요소 (인적·물적 자원) 의 형성에 직접·간접으로 기여하게 된다. 예컨대 소득획득, 소비 등 경제적 기능은 가구의 규모와 구성 등 인구요인 (사회적 기

능)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한편 자녀출생, 교육 등 사회적 기능은 일반적으로 경제외적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생활수준 등 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에 있어서 인구요인, 특히 출생율의 저하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 >가구라는 미시분석단위를 기초로 하여 가족규모와 구성이 가구원의 경제행위(소비, 저축, 경제활동,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분석하고, 2 > 그 결과를 거시·총계화하여 과거 한국경제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인구요인이 미친 영향을 설명하여, 한국경제의 성장추이에 있어서 인구요인이 주는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학문적 측면에서 볼 때 출산력저하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사례는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가 있다. 거시분석의 경우 총계자료에만 의존하여 미시적 측면을 무시하거나 총계화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미시분석의 경우에는 경제변수와 인구변수간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거나 한다고 하여도 이를 총계화 하여 거시분석으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출산력의 변동이 자녀교육, 소비·저축, 가구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가구단위의 미시분석에서 출발하여 그 결과를 거시분석으로 일관성 있게 총계화하여 보려는 구체적 시도는 거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의 의의를 정책적 유용성면에서 보면 경제발전과 더불어 한국경제의 성장요인은 점차 물질 자본에서 인적 자본으로, 또 인적 자본은 양적 측면에서 질적 측면으로 이행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가계저축, 출산력과 자녀교육, 경제활동 등은 이와 같은 이행의 각 과정에서 각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행태변수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행태변수에 대한 심층적 분석은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향후의 경제전망에 대해서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분석방법을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대표가계의 생애주기모형을 설정하고 가계의 소비와 경제활동을 가계의 효용함수와 제약조건 아래 상호연관 지우고 이를 체계화하며 미시·거시분석에 대한 방법론과 자료에 대하여 논한다. III장과 IV장에서는 II장에서 설정된 미시모형을 가계자료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추정한다. 구체적으로 부부의 생애노동, 가계의 소비지출 및 자녀교육이 출산력(가구규모와 구성)에 의하여 받는 영향의 정도를 회귀분석에 의하여 추정하며 그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다. V장은 미시분석의 결과를 총계화하여 인구요인의 경제성장효과를 추계한다. 즉, 가계자료에서 관찰된 출산력저하효과를 가구특성(가구의 나이, 성, 교육수준 등)을 기초로 총계화한다. VI장은 이러한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방법

1. 이론적 배경

출산력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문헌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멀리는 「맬더스」의 『인구론』에서 가까이는 현대인구이론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문헌이 있다. 여기서는 본 연구의 접근 방법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에 한하여 이를 편의상 거시이론과 미시이론으로 나누어 논의코자 한다.

1) 거시적 접근방법

인구증가, 특히 출생율증가의 경제적 분석은 「맬더스」의 이론체계에 현대의 거시분석기법을 가미시킨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는 후진국에 있어서 출산방지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논의한 수익비용분석(Enke, 1960), 신고전과 경제성장이론 혹은 후진국 경제발전이론을 인구분석에 적용한 인구함정모형(Nelson, 1956; Leibenstein, 1957), 「해로드」류의 성장모형을 인구분석에 적용한 저축-투자모형(Coale & Hoover, 1958; Demeny, 1965) 등을 들 수 있다.

초기 거시이론의 공통적인 특징은 후진국 경제발전이론을 「맬더스」이론에 접목시켜 인구증가의 불이익을 강조한 데 있다. 그 논거로는 인구증가로 야기되는 부양효과와 수확체감 효과를 들고 있다. 즉 출생율 증가에 기인된 급속한 인구증가는 생산자보다는 소비자의 수를

상대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저축율을 저하시키고 자본축적을 저해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새로이 태어난 인구가 자라서 생산인구가 되었을 때 자본증가율에 비하여 노동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할 여지가 커진다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쿠즈넛츠」(Kuznets, 1960)를 위시한 일단의 경제학자들은 자원개발촉진효과, 분업 및 규모효과, 기술발전효과 및 소비대체효과 등을 근거로 하여 출생율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긍정적 시각은 인구증가 문제가 일단 완화된 최근에 와서 규모효과, 기술진보효과 등의 측면에 맞추어 지고 있다 (Simon, 1981; Boserup, 1981).

2) 미시적 접근방법

거시적 접근이론의 강조사항은 저축, 투자-자본잠식 또는 노동력 인구의 수적 증가(그리고 수확체감) 아니면 규모효과 및 기술진보효과 등 주로 생산요소의 공급과 생산함수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즉 양적, 총계적 측면에 치중하고 있으며 인구증가(출산)의 주체가 되는 가구의 개별 경제행위에 대하여는 함구하고 있다.

출산력과 관련하여 가구(부모)의 경제행위, 예컨대 경제활동, 소비(저축), 자녀교육 등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피상적으로 볼 때 자녀수(출산력)가 많으면 부모 특히 모의 경제활동(소득)이 줄어든다. 왜냐하면 자녀양육의 필요성으로 모의 가사시간이 늘기 때문이다. 반면 소비지출은 육아비용의 추가 등으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저축은 감소하며 자녀교육(인적 자본투자) 또한 소홀하여지게 된다.

그러나 실제는 이와 같이 단순하지 않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의 출산에 대비하여 사전 혹은 사후적으로 경제활동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내핍(소비절약)을 하는 경향이 있다. 즉 출산행위는 외생변수가 아니라 가구의 다른 경제행위와 사전적으로 관련된 내생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출산력을 가구의 경제행위와 관련지운 가장 체계적 접근방법은 신가계경제학이라는 이론체계이다. 이 분석체계는 가구의 효용함수를 종래의 물적, 시간적 효용함수로 정의하는 대신 재화의 특성에 대한 효용함수로 정의하고 있다. 또 효용을 발생시키는 재화의 특성은 소비재와 가사시간을 투입하여 가계내부에서 생산된다하여 가계생산함수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렇게 하므로써 여가시간을 가사활동과 여타시간으로 세분하였고 출산력, 자녀교육(인적 투자) 같은 경제외적 변수의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Becker 1965; Willis, 1973).

그러나 신가계경제학은 실증적 측면에서 많은 한계점(Pollak & Wachter, 1975)이 있고 이론적으로도 종래의 여가개념을 가사활동과 여타 여가시간으로 구분 분석한 데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Killingsworth, 1983).

따라서 경제활동, 소비지출 등에 대한 개별분석은 종래의 효용함수에서 수요함수를 도출하는 전통적 분석방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경제활동의 분석은 소득, 여가 접근방법에 의해 노동공급을 여가수요함수로 효용함수에서 도출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대체로 남자의 경제활동은 가계외적 변수로 간주하고 여자의 활동만을 출산력의 함수로 간주한다. 최근에 분석단위기간을 평생(life cycle)으로

하면서 출산력을 내생변수로 다룬 연립방정식 모형이 많이 등장되고 있다.

가계의 소비지출은 소비자 선택이론의 핵심부문으로서 경제학 이론에 부합되는 항목별 지출 함수 형태를 도출하고 그 실증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노력은 부단히 지속되고 있다 (Prais & Honthakber, 1955; Deaton & Muellbauer, 1980; Philips, 1983). 최근에 이르러 인구요인을 가계의 소비지출함수에 어떻게 도입, 분석할 것인가가 이론적으로 검토되고 (Pollak & Wales, 1981) 종래 경험적으로만 추계되고 있던 육아비용도 소비이론의 틀 안에서 재인식 되고 있다 (Deaton & Muellbauer, 1986; Ray, 1986). 또 총체적 소비이론인 평생소득 가설 (LCH)도 인구요인을 무시하고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Barbour et. al., 1985).

2. 분석체계와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 있어서 출산력 저하의 경제성장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 여기서 “출산력 저하”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출산력 저하는 편의상 내생적 저하와 외생적 저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제학적 분석을 토대로 할 때 내생적 저하란 경제발전에 수반된 저하분으로, 외생적 저하란 경제외적 요인에 대한 저하분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예컨대 총출산력 저하에서 내생적 저하분 (경제요인에 의한 변동분)을 차감한 나머지를 외생적 저하분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력 저하를 총출산력

저하의 관점에서 다루되 외생적 저하분만이 미친 경제 성장효과에 대하여도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 하나는 미시적 분석으로서 여기서는 대표 가계의 경제 행위를 생애주기 모형의 틀에서 규정하고 출산력과 가구원의 경제활동, 소비지출, 자녀교육 등이 갖는 상충관계 (trade-off)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추정한다. 거시적 분석에서는 이러한 개별 효과를 가구특성 및 코호트별로 총계화하여 국민경제의 생산요소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산출하고 이를 생산함수에 적용하여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유추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미시분석: 생애주기 모형

대표가계의 생애효용함수를 다음과 같이 생애주기의 시점 (나이) 에 따라 가산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고 하자.

$$\textcircled{1} \quad U = \sum_{a=0}^L U_a (l_a, q_a, c_a)$$

a = 나이 또는 결혼 후 경과년수

L = 생애주기의 기간

U, l, q = 부부의 효용수준, 여가시간, 소비수준

c = 자녀를 위한 소비량 (물적 육아비)

여기서 c_a 는 a시점의 육아비 (물적) 이며 다음과 같이 자녀수와 자녀당 소비량의 곱으로 나타난다.

$$\textcircled{2} \quad c_a = n_a \cdot q'_a$$

n_a = 자녀수

q'_a = 자녀당 소비량

개념적으로 볼 때 자녀수는 일단 가족형성이 완료된 후면 일정하다. 또 위에서의 효용함수가 사전적 (a priori)인 한 대표가계가 $a=0$ 의 시점에서 일생에 걸친 계획을 구상한다고 가정할 때 자녀수는 가족형성이 완료된 이전에도 일정하다. 따라서 자녀수를 나타낼 때 하첨자 a 가 불필요한 것 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가족계획을 자녀의 수만이 아니라 출산시점, 태울 등 자녀의 나이까지 고려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는 별개의 문제이다. 더우기 자녀가 결혼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나이까지 가족의 선택범위내의 것으로 간주한다면 하첨자 'a'를 n 에서 뺄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대표가계의 생애 예산제약식은 다음과 같다.

$$\textcircled{3} \quad \sum_{a=0}^L (\tilde{W}_a \cdot 1_a + \tilde{P}_a \cdot q_a + \tilde{P}'_a \cdot c_a) = A_0 + \sum_{a=0}^L \tilde{W}_a \cdot T$$

W = 부부의 임금수준

P = 부부가 소비하는 재화 (성인소비재)의 가격

P' = 자녀를 위한 소비재 (비성인 소비재)의 가격

A_0 = 0시점 비인적 자산의 현재가치

' \sim ' = 현재가치를 표시하는 기호, 예컨대

\tilde{P}_a = 현재가치로 환산한 성인소비재의 a 시점 가격

$T =$ 생애주기 a 의 단위기간, 예컨대 365일.

위에서 T 는 생애주기의 어느시점(a)에서든 예컨대 365일로 일정한 것으로 가정되고 있다. 그러나 만일 T 와 l_a 가 와병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순)활동가능기간으로 본다면 T 는 특히 노년기에 들면서 a 의 감소함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분석을 단순화하기 위해 T 는 일정하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위 모형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예산제약식을 \tilde{P}_a 로 나누어 보면 좌변의 세번째 항은 다음과 같이 된다.

$$\textcircled{4} (\tilde{P}'_a / \tilde{P}_a) \cdot c_a = (\tilde{P}'_a / \tilde{P}_a) \cdot q'_a \cdot n_a$$

여기서 $(\tilde{P}'_a / \tilde{P}_a) \cdot q'_a$ 은 성인재로 환산한 비성인 소비재의 소비량이 된다. 이를 다시 q_a 로 나누면 소위 성인환산소비단위 (adult equivalent consumption unit)가 되는데 여기서는 성인소비재와 비성인소비재의 소비를 별개의 선택변수로 다루므로써 성인환산소비단위를 내생변수로 다루고 있다.

효용함수가 가산적으로 분리 가능하다면 생애주기의 특정시점에 대한 부분적 효용 극대화는 생애주기 전체에 걸친 전반적 효용 극대화에 이르게 한다. 이제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브라우닝」등 (Browning et. al., 1985)이 소개한 바 있는 이윤함수 접근법을 적용하여 대표적 가계가 생애주기의 매단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윤함수를 극대화하려 한다고 가정하자.

$$\textcircled{5} \quad \Pi_a = \pi \cdot U_a + \bar{W}_a \cdot (T - l_a) - \bar{P}_a \cdot q_a - \bar{P}'_a \cdot n_a \cdot q'_a$$

Π_a = 이윤함수

π = 한계효용의 화폐가치 또는 화폐의 한계효용의
역수로서 일생에 걸쳐 불변인 것으로 가정

$$U_a = U_a (l_a, q_a, n_a, q'_a)$$

편의상 n_a 가 일생에 걸쳐서는 변수이지만 특정시점에 있어서는 상수로 간주될 수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극대화 1차 조건으로서 다음과 같이 「프리쉬」(Frisch) 수요함수 체계를 도출할 수 있다.

$$\textcircled{6} \quad h_a = h(\pi, \bar{W}_a, \bar{P}_a, \bar{P}'_a \cdot n_a)$$

$$q_a = q(\pi, \bar{W}_a, \bar{P}_a, \bar{P}'_a \cdot n_a)$$

$$q'_a = q'(\pi, \bar{W}_a, \bar{P}_a, \bar{P}'_a \cdot n_a)$$

h_a = 부부의 경제활동 시간

h = 부부의 노동공급 함수

q = 부부의 소비재(성인재) 수요함수

q' = 비성인재 수요함수

「프리쉬」(Frisch) 수요함수는 A_0 대신 π 을 변수로 가진데서 통상적인 수요함수와 차이를 보인다. 또 이윤 함수가 가격변수(π 도 한계효용의 가격이므로 가격변수임)에 대하여 1차동차이므로 가격변수에 대하여 0차동차의 특성을 지닌점도 통상적 수요함수와 다른점이다. 따라서 위의 함수체계를 일정할인율로 할인 하여도 그 함수값은

변하지 않는다. 즉,

$$\begin{aligned} \textcircled{7} \quad h_a &= h(\pi_a, W_a, p_a, p'_a \cdot n_a) \\ q_a &= q(\pi_a, W_a, p_a, p'_a \cdot n_a) \\ q'_a &= q'(\pi_a, W_a, p_a, p'_a \cdot n_a), \end{aligned}$$

$$\pi_a = \pi / ad_0$$

$ad_0 = 0$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a 시점가격을 현재가
치로 환산하는 할인율

$$W_a = \tilde{W}_a / ad_0$$

$$p_a = \tilde{p}_a / ad_0$$

$$p'_a = \tilde{p}'_a / ad_0$$

위에서 π_a 는 경상가격(a 시점기준)으로 나타낸 효용가격이며 π 는 불변가격(0 시점기준)으로 나타낸 효용가격이다. 그러므로 π_a 를 ad_0 에 의하여 할인하면 모든 a에 대하여 π 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π_a 가 개별가구별로 서로 다른 특성치를 가지므로 결코 확률변수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π_a 는 영구소득 또는 생애소득의 역할을 대행하여 생애주기에 있어 이 시점에 걸친 소득 효과(富효과)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그 자신이 생애주기에 걸친 모든 변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내생변수가 되는 것이다. 즉,

$$\textcircled{8} \quad \pi_a = \pi(W_0, \dots, W_L, P_0, \dots, P_L, P'_0 n_0 \dots P'_L n_L, A_0) / ad_0$$

「프리쉬」 수요함수체계 ⑦은 π_a 가 직접 관찰되는 변수가 아니므로 그대로는 추정할 수 없고 π_a 를 소거(소거법)하든가 아니면 다른 변수로 대체(대입법)한 후에야 추정할 수 있다.

소거법(Heckman & MaCurdy, 1980; MaCurdy, 1981 참조)은 예컨대 h_a 방정식을 정차방정식($h_a - h_{a-1}$ 또는 $\log h_a/h_{a-1}$)의 형태로 변형하여 π_a 를 소거하고 이를 개별 가구의 생애자료를 기초로 하여 추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π_a 가 정차방정식을 취할 때 소거될 수 있기 위하여 특정 시점내의 효용함수가 가산적 분리형이라는 특수한 가정을 필요로 하며 동일 가구에 대하여 수년간에 걸쳐 수집된 생애주기자료를 요한다는 단점이 있다.

대입법은 소거법에 비하여 가정이나 자료면에서 덜 제한적이다. 현재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π_a 를 다른 내생변수로 치환하는 한계대체율 법과 π_a 를 a 시점의 완전예산(y_a)으로 치환하는 예산 대입법 등이 소개(Killingsworth, 1983)되고 있다. 전자의 예로서 「알톤지」(Altonji, 1986)는 h_a 함수의 추정에 있어 π_a 대신 식료품 소비지출액을 사용하고 있다. 후자의 예로서 「블런델」등(Blundell & Walker, 1986)의 h_a 함수 추정을 들수 있는데 이들은 생애주기의 효용함수가 다른 시점간에 가산적 분리형인 경우 생애효용의 극대화는 편의상 2단계로 나눌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 있다. 즉 효용극대화의 첫단계로서 생애소득은 생애주기의 매 시점에 대하여 한계

효용이 같도록 배분될 것이기 때문에 생애주기의 특정시점 (a) 에 배분된 생애소득 (y_a) 은 전생애주기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활용한 산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y_a 는 π_a 를 가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현실적으로 관찰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예산대입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이 방법이 일정시점의 횡단 분석자료를 사용하여 가구의 소비지출 및 노동공급을 분석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기 때문이다. y_a 를 π_a 대신 대입하면 수요함수체계 ⑦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

$$\textcircled{9} \quad h_a = h(y_a, W_a, P_a, P'_a \cdot n_a)$$

$$q_a = q(y_a, W_a, P_a, P'_a \cdot n_a)$$

$$q'_a = q'(y_a, W_a, P_a, P'_a \cdot n_a)$$

$$y_a = W_a \cdot T_a + i \cdot A_a - S_a$$

$$= W_a \cdot 1 + p_a \cdot q_a + p'_a \cdot q'_a \cdot n_a$$

i = 이자율

S_a = 순저축

y_a = 완전생애소득중 a기에 할당된 예산분

2) 거시분석 : HOMES + 생산함수

미시분석의 결과 수요함수체계 ⑨가 회귀분석에 의하여 추정되면 출산력의 변동이 초래하는 경제성장 효과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추정될 수 있다.

(i) 생애주기 a에 속하는 대표가계의 출산력 저하효과 :

수요함수체계⑨가 추정 되고 생애주기 코호트 a에 대하여 W_a , P_a , $P'_a \cdot n_a$, y_a 의 실제(평균)치를 안다고 하자. 그러면 코호트 a에 속하는 대표가계에 대하여 출산력 저하효과는 예컨대 노동공급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textcircled{10} \Delta \bar{h}_a = h(\bar{n}_a) - h(\bar{n}_a^R)$$

\bar{n}_a = 코호트 a에 속하는 대표가계의 실제 출산력

\bar{n}_a^R = 코호트 a에 속하는 대표가계의 가상출산력

$\Delta \bar{h}_a$ = 코호트 a에 속하는 대표가계의 출산력 변동에
따른 노동공급 변동분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출산력 변동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이다. 이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변동분 전부로 정의할 수도 있고 실제 변동분에서 경제발전에 자동적으로 수반된 내생적 변동분을 차감한 나머지로써의 외생적 변동분만을 가정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두 가지 경우 모두를 적용하여 보기로 한다.

(ii) 코호트 및 전체가구에 대한 출산력 저하효과 :

코호트 및 전체가구에 대한 출산력 저하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대표가계에 대한 효과를 총계화 하므로써 산출될 수 있다. 다시 노동공급의 경우를 예로하여 보자.

$$\textcircled{11} \Delta h_a = N_a \cdot \Delta \bar{h}_a$$

$$\begin{aligned} \Delta h &= \sum_{a=0}^L \Delta h_a \\ &= \sum_{a=0}^L N_a \cdot \Delta \bar{h}_a \\ &= \sum_{a=0}^L N \cdot (N_a/N) \cdot \Delta \bar{h}_a \end{aligned}$$

N_a = 코호트 a에 속하는 가구수

N = 전체 가구수

Δh_a = 코호트 a에 속하는 가구의 노동공급 변동분

Δh = 전체가구의 노동공급 변동분

⑪의 두번째 식에서와 같이 전체 가구에 대한 노동공급 변동분은 코호트 별 출산력의 변화 ($\Delta \bar{h}_a$)에 의해서 뿐 아니라 전체 가구수 (N)와 가구의 연령구성 (N_a/N)에 의하여서도 좌우됨을 알 수 있다. 총계효과를 구하는 데 있어서 가구수와 그 연령구성은 HOMES 모형 (Mason, 1987b)에 의하여 추계한다.

(iii) 국민경제의 성장에 미친 효과 :

한 나라의 국민경제를 생산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할 때 이를 성장율의 관계로 나타내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된다.

$$\textcircled{12} \bar{y} = \bar{K} \cdot e_K + \bar{L} \cdot e_L + \bar{E} \cdot e_E + \bar{T} \cdot e_T$$

\bar{y} = GNP 성장율

$\bar{K}, \bar{L}, \bar{E}, \bar{T}$ = 자본, 노동, 노동의 질, 기술에 대한 각각
의 변화율

e = GNP의 생산요소에 대한 편탄력도

생산요소별 편탄력도에 대한 추정치는 기존의 연구 문헌에서 인용
하기로 한다. 따라서 출산력 저하가 국민경제의 성장에 미친 총효과
는 출산력 저하로 인하여 야기된 각 생산요소의 변동율 (\bar{K} 등)을
⑫ 식에 대입하면 된다. 출산력 저하로 야기된 각 요소별 변동율은
(ii)의 추정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계 될 수 있다.

$$\textcircled{12} \quad \Delta \bar{K} = \Delta S / K$$

$$= (\sum_a \Delta S_a) / K$$

$$= (\sum_a N_a \cdot \Delta \bar{S}_a) / K$$

$$\Delta \bar{S}_a = \bar{W}_a \cdot \Delta \bar{h}_a - p_a \cdot \bar{q}_a - p'_a \cdot \Delta(\bar{q}'_a \cdot \bar{n}_a)$$

$$\Delta \bar{L} = \Delta h / h + \Delta \bar{I} + \Delta \bar{p}_{1,4}^+$$

$$= \sum_{a=0}^L N \cdot (N_a / N) \cdot \Delta \bar{h}_a + \Delta \bar{I} + \Delta \bar{p}_{1,4}^+$$

$$\Delta \bar{E} = \frac{\sum_{a=1,4}^L \Delta(E_a \cdot P_a)}{\sum_{a=1,4}^L E_a \cdot P_a}$$

Δ = 출산력 저하에 의하여 초래된 변동분

S = 저축액

\bar{S}_a = 코호트 a 에 속하는 대표가계의 저축액

\bar{I} = 경제활동 참가율의 변동율

$\bar{P}_{14}^+ = 14$ 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

E_a = 연령 a 인 인구의 질 (평균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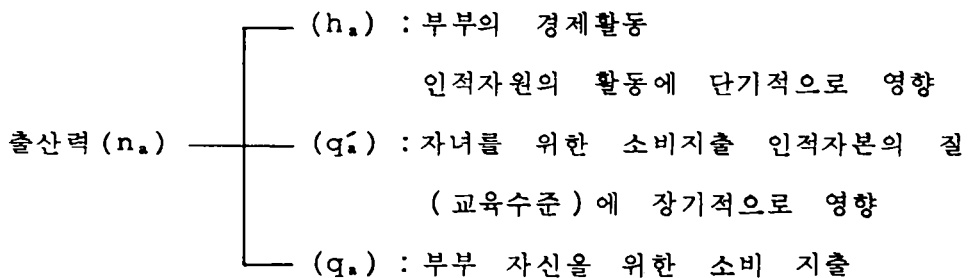
P_a = 연령 a 인 인구의 수

⑬ 식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출산력의 증가가 노동력 인구의 증가로 나타나려면 14년 이상이 경과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Delta \bar{P}_{14}^+$ 와 $\Delta \bar{E}$ 는 장기적으로만 출산력 저하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또 노동력 인구의 질 (E_a) 은 평균학력에 의하여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자녀에 대한 소비지출을 학력과 연관 지을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만일 경제활동을 및 취업율이 교육수준별로 차이가 난다면 노동력 인구의 질과 취업인구의 질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있다.

[그림 1] 은 지금까지 논의한 방법론을 종합적으로 요약한 것이다.

< 그림 1 > 분석체계의 요약

미시분석 : 생애주기 모형



$$\Delta S_a = W_a \cdot \Delta h_a - [P_a \cdot \Delta q_a + P'_a \cdot \Delta (q'_a \cdot n_a)]$$

효용이 같도록 배분될 것이기 때문에 생애주기의 특정시점 (a) 에 배분된 생애소득 (y_a) 은 전생애주기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활용한 산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y_a 는 π_a 를 가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현실적으로 관찰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예산대입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이 방법이 일정시점의 횡단 분석자료를 사용하여 가구의 소비지출 및 노동공급을 분석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기 때문이다. y_a 를 π_a 대신 대입하면 수요함수체계 ⑦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

$$\textcircled{9} \quad h_a = h(y_a, W_a, P_a, P'_a \cdot n_a)$$

$$q_a = q(y_a, W_a, P_a, P'_a \cdot n_a)$$

$$q'_a = q'(y_a, W_a, P_a, P'_a \cdot n_a)$$

$$y_a = W_a \cdot T_a + i \cdot A_a - S_a$$

$$= W_a \cdot l_a + p_a \cdot q_a + p'_a \cdot q'_a \cdot n_a$$

i = 이자율

S_a = 순저축

y_a = 완전생애소득중 a기에 할당된 예산분

2) 거시분석 : HOMES + 생산함수

미시분석의 결과 수요함수체계 ⑨가 회귀분석에 의하여 추정되면 출산력의 변동이 초래하는 경제성장 효과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추정될 수 있다.

3. 자 료

미시분석을 위한 자료로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최근에 조사한 3개 표본조사의 테이프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들 표본조사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1986년도 고용구조 특별조사 (EPB, 1987a)

노동공급의 질, 내용 및 지역구조와 유통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전국적 표본조사이다. 1986년의 조사는 1983년에 이은 두번째의 조사로서 조사 대상기간을 1986.11.9~11.15의 1주일간으로 하고 있다. 표본은 1985년 인구센서스의 보통조사구를 기준으로 하여 층화 집락추출법에 의하여 전국에서 137,500가구 (전체의 1.4% : 시부 101,400 또는 1.52% : 군부 36,100 또는 1.17%) 를 추출하여 표본 가구내의 15세 이상 상주인구 (단 군인, 전경, 방위병, 재소자, 외국인 등은 제외) 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항목은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공통적인 인적사항, 확인사항 및 노동력 유통사항과 개별가구원의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특수한 취업자 사항, 실업자 사항, 비경제 활동인구 사항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바 그 구체적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인적사항 :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배우관계, 교육정도

확인사항 : 활동상태, 일시휴직여부, 구직여부, 취업가능성 및 의
사

노동력 유동사항 : 1년전 거주지, 활동상태, 산업, 직업, 종사상
지위, 사업체 규모, 이직여부 및 이유

(2) 취업자 사항

산업, 직업, 종사상, 지위, 조직형태, 사업체규모, 취업경로, 시간, 과소
취업 이유, 추가취업 및 전직희망 여부, 근속시간, 구직기간, 전직회수,
직업훈련여부 및 유용성, 소득

(3) 실업자 사항

희망 취업형태와 임금, 구직경로와 기간, 전직유무, 전산업, 직업, 종
사상지위, 실직동기, 취업난 이유, 직업훈련 희망여부, 생계유지 수단

(4) 비경제 활동인구 사항

희망취업형태와 이유, 비구직이유, 6개월간 구직경험

2) 1986년도 도시가계조사 (EPB, 1987c)

도시거주인 3,700가구 (1/1,094 표본)를 표본으로 매일 매일의
수입과 지출을 직접 가계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하여 조사한 월별
자료이다. 단, 표본선정에서 농가, 어가, 단독 가구, 외국인 가구와 가계
수지 파악이 곤란한 가구는 제외되고 있다.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구수의 나이, 성, 교육수준, 산업, 직업 및 소득

성별, 나이 (9개구간) 별 가구원의 수

주택소유 및 임대 가격

수입 및 지출 (현찰, 외상거래 포함)

연료 및 곡물의 재고 변동분

3) 1987 사회통계조사 (EPB, 1987b)

1987, 5.10 ~ 16 일간을 조사 기준일로 하여 전국의 17,000 가구를 대상으로한 표본조사이다. 대상가구는 1980년 인구센서스의 103,000 개 조사구 중에서 562개의 표본조사구를 추출한 다음 선정되었다.

조사 사항은 개인사항과 가구사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사항 :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배우관계, 교육정도, 활동 상태, 산업, 직업, 종사상지위, 출근 및 통학

(2) 가구사항 : 성, 나이 (2 분) 별 가구원수, 주택소유, 마련방법과 시기, 형태, 주택 및 주거지역에 대한 만족도, 공해, 자녀기대 교육수준

Ⅲ. 출산력과 생애노동공급

1. 생애노동공급 : 최근의 분석경향

생애노동공급에 관한 문헌은 새로이 정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체계적으로 소개된 바 있다(Killingsworth, 1983). 여기서는 본 연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면서 보다 최근에 연구된 논문들을 몇편 소개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애노동 공급을 연구하는데 있어 서로 다른 접근방법에 대한 대표적 사례로 이들을 예시코자 한다.

생애노동공급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소득, 여가에 대한 정태적 1기간 분석모형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형을 그대로 생애모형으로 연장한다면 예컨대 가구원의 임금수준, 가격, 시간선호도, 할인율, 초기 재산상태, 기타 기호변수 등의 변수 각각에 대하여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방대한 자료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우격 다짐식의 접근방법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결코 경제적인 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생애노동공급에 대한 주된 연구경향은 어떻게 하면 분석을 단순화하여 가급적 자료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단순화 가정은 생애효용함수가 기간별로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생애노동공급의 분석모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효용함수와 제약식을 설정하고 있다.

$$\textcircled{14} \quad \max \quad \sum_{a=0}^L R_a \cdot U(h_a \cdot q_a)$$

$$\text{s.t.} \quad \sum_{a=0}^L i_a \cdot w_a \cdot h_a + A_0 = \sum_{a=0}^L i_a \cdot p_a \cdot q_a$$

$h_a = a$ 시점 근로시간

$q_a = a$ 시점 소비량

$w_a, p_a = a$ 시점 임금수준과 소비재 가격수준

$R_a =$ 시간선호도

$i_a =$ 할인율

$A_0 =$ 기초(0시점) 자산 또는 부

효용함수의 기간별 분리 가능성을 가정하는 것은 다른 시점간의 여가를 대체재로 가정(단 여가가 정상재인 경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가정은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분석을 크게 단순화 시켜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채택되고 있는 것이다. 즉, $\textcircled{14}$ 식을 극대화하게 되면 그 1차조건으로서 생애노동공급함수가 연립방정식의 형태로 도출되는데 만일 생애주기의 특정시점 a 에 한정하여 노동공급함수를 규정하여 보면 이는 다음과 같이 a 시점 가격변수(p_a, w_a, R_a, i_a)와 평생소득에 대한 한계효용(λ)의 함수로 간단하게 표현된다.

$$\textcircled{15} \quad h_a = h(w_a, p_a, R_a, i_a, \lambda)$$

$\textcircled{15}$ 식은 1기간 정태적 모형의 노동공급 함수와 상당히 유사한 형

태를 갖고 있다. 소득변수 대신 그 한계효용 (λ)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간선호 및 할인율 (R_a, i_a)을 추가 시키고 있을 따름이다. 위의 식에서 유의할 점은 w_a 의 계수가 생애주기의 다른시점간 노동(여가)의 대체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는 평생소득의 수준 혹은 그 한계효용 (λ)이 일정하다고 전제할때 임금수준이 높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노동공급을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노동공급에 대한 임금상승의 효과는 1기간 모형에서 보다 생애기간 모형에서 더욱 분명한 효과를 보이게 된다 (Killingsworth, 1983, Ch. V).

⑮ 식의 장점은 노동공급을 관찰 가능한 현재가격 (p_a, w_a)의 함수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찰이 불가능한 미래시점 혹은 과거시점의 가격변수는 λ 를 하나의 매개체로 하여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λ 는 생애소득(또는 부)의 한계효용(또는 잠재가격)을 나타내며 영구소득이나 평생소득처럼 개인의 수요함수에 상수적인 영향을 미친다.

$$\textcircled{16} \quad \lambda = \lambda (W_0, \dots, W_L ; P_0, \dots, P_L ; R_0, \dots, R_L ; i_0, \dots, i_L ; A_0)$$

λ 는 평생소득처럼 현재가격과의 상관관계아래 개인의 노동공급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확률변수로 가정할 수는 없다. 더우기 λ 를 ⑮ 식에서 제거하면 생애주기에 있어 현시점과 여타시점간의 연계성도 사라지고 만다. 따라서 생애노동공급 함수의 추정에 있어 핵심적인 문제는 λ 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λ 는 II - 2에서 정의한 바 있는 π (한계효용의 가격)의 역수가 된다. 따라서 π 의 처리방법 (소거법과 대입법)이 바로 λ 의 처리방법이 된다. 다음은 이들 각각의 방법이 노동공급함수의 추정에 응용된 구체적 사례이다.

1) 소거법

「게즈 - 벡커」 (Ghez-Becker, 1975)의 연구는 생애주기에 걸친 노동공급과 소비에 대한 초기적 분석사례가 된다. 이들은 가계생산이론을 응용하여 노동공급과 소비지출을 가구원의 임금 및 가족규모의 함수로 도출하고 가정으로써 생애주기에 걸친 λ 의 동일성(⑮식참조)을 채택하였다. 특이한 점은 횡단분석 자료에서 가상적 동류집단(hypothetical cohort)에 대한 평균치를 산출하여 가상적 생애자료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의 추정결과는 남편의 노동공급이 자신의 당기 임금수준(탄력도가 0.28 정도로 추정됨)과 가족규모 및 나이에 대하여는 증가함수이나 부인의(당기) 임금수준에 대하여는 감소함수임을 보였다.

「HECKMAN - 맥커디」 (Heckman-MaCurdy, 1980)의 연구는 여성의 생애주기에 걸친 노동공급 분석에 소거법을 이용한 대표적 사례이다. 이들은 효용함수가 생애주기의 각 기간 상호간에 대하여서만이 아니라 특정기간 내에서도 가산적임을 가정하고 노동공급을 임금, 할인율 및 여타변수(자녀수, 교육수준, 가족소득, 남편의 취업상태 등)에 대한 효용(λ)불변 수요함수의 형태로 도출하였다.

이에 소거법을 적용하여 정차 방정식의 형태로 유도한 다음 「미시

간」 생애 소득동태조사 (Michigan Panel Survey of Income Dynamics) 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여성의 생애 노동공급이 자신의 (당기) 임금수준에 대하여 1에 가까운 탄력도를 가지며 자녀수 (특히 영유아의 수) 에 대하여 증가함수임을 발견하였다. 「매커디」 (MaCurdy, 1981) 는 마찬가지로의 방법으로 같은 자료에서 남자의 생애 노동공급이 자신의 (당기) 임금수준에 대하여 갖는 편탄력도가 0.1 ~ 0.23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브라우닝」 등 (Browning et.al., 1985) 은 효용 (u) 불변수요함수를 이용한 극대화에서 도출하고 이를 「프리쉬」 (Frisch) 수요함수로 명명하였는데 여기서 도출된 실증모형은 효용함수가 생애기간 내에서 가산적이라는 가정이 완화된 것이다. 이들은 영국의 가계지출조사에서 나이별 동류집단에 대한 평균치를 구하여 가상 생애자료를 만들어 남자의 생애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는 「매커디」 (MaCurdy, 1981) 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생애노동의 (당기) 임금편탄력도가 부 (-) 이거나 비유의적이었으며 출산력 (취학연령의 자녀수) 만이 노동공급 및 소비지출에 대하여 유의적이며 일관성 있게 정 (+) 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결과가 지닌 취약점은 가상 생애자료를 만들때 동류집단의 평균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개별적 차이를 상쇄시킴으로써 통계량의 유효성을 크게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다.

2) 대입법

대입법을 사용한 예는 이미 II - 2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한계 대

체율법과 예산대입법이 있다.

「알톤지」(Altonji, 1986)에 의하면 한계대체율법은 생애효용함수가 생애주기의 일정기간 내에서도 가산적일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서만 효용함수의 두변수, 예컨대 소비와 여가(노동)가 상호간에 교차 대체효과를 갖지 않게되며 여타가격의 변동은 λ 를 통하여서 소득효과적인 영향만을 주기 때문이다. 예컨대 임금의 변동은 소비에 대하여 소득효과(λ 를 매개로 하여)만을 주며 교차 대체효과는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아래 λ 대신 식료품 소비를 대입하고 「미시간」 생애소득 동태조사자료에서 남자의 생애노동 공급함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남자의 생애노동공급이 (당기) 임금에 대하여 갖는 편탄력도가 유의적으로 0.09 ~ 0.17의 범위에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비교를 위하여 「매커디」(1981)와 유사한 방법(소거법)을 적용한 결과 편탄력도가 「매커디」의 결과보다 훨씬 낮은 0.014 ~ 0.056의 범위에 있음을 보였다.

예산대입법은 II - 2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λ 대신 배분예산(극대화 1단계에서 생애주기의 매시점에 배분된 예산)을 대입하는 방법이다. 「브런델」등(Blundell & Walker, 1986)에 의하면 예산대입법의 경우 소거법이나 한계대체율법과 달리 생애주기의 매시점내에서 효용함수가 가산적이라는 가정은 불필요하다. 따라서 이 방법은 보다 일반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 「브런델」등은 생애주기의 일정시점 내에서 준동조적(quasi-homothetic)이지만 비분리적인 효용함수를 상정하고 예산대입법을 적용하여 선형수요함수체계를 도출하였다.

여기에 나이와 자녀수를 고려하고 이를 지출비율 (budget share) 의 형태로 영국의 1980년 가계지출조사자료에서 추정하였다. 이들의 추정결과는 남편의 노동공급은 자녀 및 나이에 대하여 비유의적이며 소비와 부인의 노동공급으로 부터 분리가능함을 보였다. 반면 부인의 노동시간은 나이와 자녀수에 대하여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며 소비와도 비분리적이었다. 또 부부의 시간은 상호 보완적인 반면 부인의 시간과 소비는 대체적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2. 분석모형과 자료

1) 분석모형의 설정

II - 2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예산대입법을 적용하여 출산력이 가구원의 생애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로 한다. 즉 식⑨가 그 기본모형으로서 이는 부부의 노동공급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Pooled) 나타내고 있다. 이제 식⑨에서 남편과 부인의 노동공급을 별개로 분리하고 또 횡단분석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변수 (p_a, p_a')를 상수로 간주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새로이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circled{17} \quad h_a^m &= h^m (y_a, w_a^m, w_a^f, n_a) \\
 h_a^f &= h^f (y_a, w_a^m, w_a^f, n_a) \\
 y_a &= (w_a^m + w_a^f) T + i \cdot A_a - S_a \\
 &= w_a^m \cdot l_a^m + w_a^f \cdot l_a^f + p_a q_a + p_a' \cdot q_a' \cdot n_a
 \end{aligned}$$

$h_a^m \cdot w_a^m =$ 남편의 노동공급시간 및 임금율
 $h_a^f \cdot w_a^f =$ 부인의 노동공급시간 및 임금율
 $y_a =$ 완전생애소득 중 a기에 할당된 예산분
 $i =$ 이자율
 $S_a =$ a기 순저축
 $p_a q_a + p_a' \cdot q_a' \cdot n_a =$ a기의 소비지출
 $A_a =$ a'기의 물적자산(부)
 $T =$ a기의 가구원별 총가용시간

위 식에서 우리는 횡단분석자료상에서 가격변수(p_a, p_a')가 모든 가구에 대하여 동일하다고 가정하고서 이를 제거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것은 소비(q_a 및 q_a')가 복합재(composite goods)이기 때문에 가구별로 그 내용(구성비율)이 다를수 있고 따라서 그 지수가격(p_a, p_a')도 다를수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물가 혹은 생활비에 있어서 이와 같은 개인적차이를 고려해줄 적절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수준의 동일을 가정하지 않을수 없는데 이로서 우리는 개별품목의 가격이 지역간에 같고 재화소비의 「바스켓」구성이 가구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가정하는 셈이 된다.

식 ⑩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가족의 노동공급이 남편과 부인에 대하여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 사실 II - 2에서처럼 가족의 노동공급을 하나의 복합적인 양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도 남편과 부인의 임금수준이 생애주기에 따라 분명히 다른 양상

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것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남편의 노동공급함수를 부인의 임금수준과 상관없는 가부장적 (male chauvinistic) 노동공급 함수를 상정하여 모형체계를 단순화하여 볼 수는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부인을 부차적 (생계를 꾸려 간다기 보다 보조하는) 노동자로 가정하는 것과 같으며 가부장적이며 남성지배적인 한국의 여건에 비추어 적합한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실증적 차원의 문제이기에 그 타당성은 실증적 분석 결과에 맡기기로 한다.

식 ⑰의 특징으로서 자녀수 (n_a)가 외생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요한다. 그 이유는 자녀수란 생애주기 전체를 통해서 볼 때는 내생적 (결정되어야 할) 변수라 할지라도 생애주기상의 일정시점 (a)에서는 y_a 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출산력이 부분적으로 외생변수로 다루어지므로써 그것이 생애노동의 공급시점 (timing)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도 따르게 된다.

사실 위 모형에서 자녀수는 소비지출 또는 생활비의 한 매개변수로 도입되고 있는 셈이다 (Gorman, 1964). 자녀의 존재란 이들이 재화와 부모의 시간을 요구하는 정도가 나이에 따라 다르고, 또 이들을 위한 서비스를 생애주기의 서로 다른 시점간에 대체할 수 없는 것인한 부모의 생애노동의 공급량과 공급시점에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

그 영향의 방향은 부모의 여가시간과 자녀당 소비지출 (q'_a)이 대체재라고 가정할 때 부(-)의 방향이 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 q'_a

의 가격이라고 할수 있는 $p_n \cdot n_n$ 의 계수가 (-)가 되어 n_n 의 증가는 곧 h_n 의 감소, 다시 말하면 여가(l_n)의 증가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동공급함수를 극히 일반적인 형태아래 논하였다. 이제 이 함수의 구체적인 형태를 설정하여 보자.

생애노동공급에 관한 연구문헌들을 보면 함수형태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효용일정노동공급모형 (Ghez & Becker, 1975; Heckman & MaCurdy, 1980; MaCurdy, 1981; Altonji, 1986)의 경우 일반적으로 쌍대수형을 택하여 $\log h$ 를 $\log w$ 의 선형함수로 정의하고 있다.

「브라우닝」 등 (1985)은 반대수형을 택하여 h 를 $\log w$ 의 선형함수로 정의하되 부부간 노동의 교차대체효과를 나타내는 항(부부의 임금비율)은 대수값 대신 자승근을 취하고 있다.

식 ⑩은 「프리쉬」 수요함수로 도출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 식 ⑩의 구체적인 함수형태는 「브라우닝」 등 (1985)이 전개한 바와같이 반대수 함수형태로 귀결된다. 이에 따라 출산력(n_n)를 일종의 가격변수로 간주하면 식 ⑩의 반대수형태는 다음과 같이 전개될 수 있다.

$$\textcircled{10} \quad h_n^m = \beta_0^m + \beta_1^m \cdot l_n(w_n^m) + \beta_2^m \cdot (w_n^f/w_n^m)^{\frac{1}{2}} \\ + \beta_3^m \cdot (n_n/w_n^m)^{\frac{1}{2}} + \beta_4^m \cdot (y_n/w_n^m)^{\frac{1}{2}}$$

$$h_n^f = \beta_0^f + \beta_1^f \cdot l_n(w_n^f) + \beta_2^f \cdot (w_n^m/w_n^f)^{\frac{1}{2}} \\ + \beta_3^f \cdot (n_n/w_n^f)^{\frac{1}{2}} + \beta_4^f (y_n/w_n^f)^{\frac{1}{2}}$$

위의 식⑭은 우리의 기본모형이 된다. 그러나 이미 「브라우닝」 등의 분석결과에서 위 모형의 설명력이 높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시뮬레이션」에 응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선형 모형체계를 하나의 대안적 모형으로 택하기로 한다.

$$\begin{aligned} \textcircled{19} \quad h_a^m &= \beta_0^m + \beta_1^m \cdot w_a^m + \beta_2^m \cdot w_a^f + \beta_3^m \cdot n_a + \beta_4^m y_a \\ h_a^f &= \beta_0^f + \beta_1^f \cdot w_a^f + \beta_2^f \cdot w_a^m + \beta_3^f \cdot n_a + \beta_4^f y_a \end{aligned}$$

2) 자료와 추정방법

앞에서 설정된 모형 ⑭, ⑮의 추정을 위하여 1986 고용구조 특별 조사와 1987 도시가계 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표 1은 이들 자료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고용구조 조사는 소비지출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위 식의 추정을 위한 기본자료가 된다.

특히 개인의 취업경력등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식⑭에서의 임금(혹은 근로소득)에 대한 일차적 추정치를 제공하는 기본자료가 된다.

반면에 도시가계 조사는 부인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자료가 없으며 가구주의 경우에도 활동상태와 근로소득만 제공할뿐 근로시간에 대한 자료는 없다. 그러므로 이 자료에 근거하여 ⑭, ⑮식을 추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도시가계 자료는 소비지출에 대하여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구조 조사의 보완자료로서 개별가구의 소비지

(표 1) 노동공급함수의 추정을 위한 가용자료의 조사항목

변 수	1986 고용구조조사	1987 도시가계조사
h_m^m (남편의 근로시간)	1주간 일한시간 취업년수	활동상태
h_w^f (부인의 근로시간)	1주간 일한시간 취업년수	—
w_m^m (남편의 임금)	근로소득 } 불연속 : 9 계층 } 으로 구분	가구주소득
w_w^f (부인의 임금)		배우자소득
n_s (자녀 수)	성별·나이별 (14세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 자녀수 : 14세 이상의 경우 개인별로 조사	성별·나이별 (9계층) 자녀수
y_s (완전예산)	근로시간과 임금	소비지출, 주택소유 및 임대료, 비근로소득
E (교육수준)	남편의 교육수준 부인의 교육수준	남편의 교육수준
a (나이)	남편의 나이 부인의 나이	남편의 나이
남편의 취업상태	산업·직업·종사상 지위, 근무처의 형태와 규모, 직업훈련 등	산업·직업
표본의 특성	외국인, 군인, 재소자 제외	농림·어업종사자, 단독가구 및 가계지출이 파악 불가능한 가구 제외

출액을 추정 및 귀속(imputation)시키는데 이용되었다.

식 ⑱, ⑲의 추정은 단계적으로 행해질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설명변수중 가계지출(y_a)변수가 ESS자료에 없으므로 이를 FIES자료에서 추정, 귀속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더우기 설명변수중 임금변수(w_a^m, w_a^f)는 유소득 취업자에 한하여 ESS자료에서 직접 관찰된다. 따라서 무급 및 비소득 취업자 내지 비경제활동자에 대한 임금수준을 추정, 귀속시킨 다음에야 h_a 함수의 포괄적 추정이 가능하다. 또 임금함수 및 노동공급함수(h_a)의 추정에 있어서도 취업자에 한하여 노동시간이 관찰된다. 이 경우 취업자에 한하여 단순회귀분석을 할 경우 소위 선택편기(Killingsworth, 1983 참조)가 발생한다.

여기서 선택편기란 여타조건이 동일할때 활동성향이 높은사람이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한다는 것은 활동성향이 높은사람만을 표본으로 취하는 것과 같고 그 결과 임금함수 및 노동공급함수가 과대추정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선 1차 단계에서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개별표본의 활동성향을 추정한 다음 2차 단계에서 활동자에 한하여 활동성향의 개별적 차이를 고려한 임금함수 및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할 수 있다.

위의 단계별 추정은 노동공급함수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선택편기교정회귀분석법(Selection bias corrected regression)을 택하는 것을 전제하고서이다.

이 방법을 택하는 이유는 비교적 계산이 용이하고 이미 개발된 전

산 「팩키지」를 이용할 수 있을뿐 아니라 기존의 추정치와도 비교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방법으로서 취업자만을 대상으로한 통상최소자승법(OLS)을 택할 수도 있으나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선택편기문제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 다른 대안으로서 「토빗」(Tobit) 분석을 취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활동성향과 노동공급에 대한 일괄추정의 방법을 쓰기 때문에 위의 방법보다는 신축성을 결하고 있다.

또 임금과 노동시간간의 상관성을 전제한 최우추정법(예컨대 Blundell 등, 1986 참조)은 효율적이긴 하지만 계산이 복잡하여 무엇보다도 임금을 외생변수화하고 있는 본 연구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노동공급함수의 추정은 다음과 같이 ① 개별 가구별 소비지출의 귀속 ② 전체가구원(취업자 및 비취업자)에 대한 귀속 임금의 추정 ③ 개별가구원의 노동공급함수 추정이라는 3 단계로 나누어 행하기로 한다.

3. 추정결과

1) 소비지출의 귀속

소비지출의 귀속을 위하여 사용된 자료 및 추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1987 도시가계자료(FIES)에서 관찰된 가구특성별 소비지출액을 1986 고용구조조사자료(ESS)에 귀속시켰다. 귀속의 기준은 FIES와 ESS자료에 공통적으로 포착된 가구특성이다.

공통적 사항은 ①가구주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가구주의 나이, 성, 학력, 소득, 고용상태, 산업, 직업등과 ②가구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가구원수, 취업인수, 배우자소득, 기타가구원소득등을 내용으로 한다. 소비지출의 귀속에 관련된 문제점으로서 FIES자료에는 배우자의 나이, 학력이 불명이며 또 농·어가 및 가족기업이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도시·비농가 순수가계만을 대상으로 지출을 포착한 것이므로 이를 농가등에 적용하면 과대귀속의 가능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차후의 분석에 군부 혹은 농·비농「더미」변수를 도입하는 등 적절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때의 더미변수는 소비지출의 측정오차도 내포하게 된다.

단, 비도시 인구의 비중이 87년 현재 30%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소비지출의 귀속에 있어서 치명적 결함은 되지 않는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987 FIES원자료 52462 표본(월별자료)중 1/10을 계통추출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모든 가구가 12개월씩의 자료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면서 매 10번째 가구의 12월분 자

료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가구가 반드시 12개월분의 소비지출자료를 갖춘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계절의 차이에 따른 소비지출의 변동은 월별더미변수를 도입하여 통제하였다.

귀속식의 설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였다.

첫째, 선형 또는 비선형 추정여부로서 소비지출에 있어서의 규모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가구원 수에 대하여 비선형으로 추정할 수도 있으나 가구원 수를 가구원의 나이와 성별로 세분하였기 때문에 선형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가구주의 나이에 대하여서는 생애주기상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2차식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변수의 연속, 비연속 여부로서 가구주의 나이, 가구원 수, 소득수준등은 연속변수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가구주의 여타 특성(성, 학력, 산업, 직업)은 불연속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셋째, 통제변수의 도입여부로서 주택소유관계는 ESS에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소비지출의 귀속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나 주택소유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 때문에 이를 포함시켰다.

대신 FIES에서의 가구구분자료(근로자와 비근로자로 구분¹⁾)는 ESS의 종사상지위와 비슷하여 귀속식의 추정에 유용성이 있을 듯 하나 직업, 소득변수와 거의 완전히 중복되어 유의성이 없었으므로 사용하지 않았다.

주 1) 근로자는 봉급자와 노무자, 비근로자는 상인, 개인업, 법인, 자유업등으로 다시 세분되어 있음.

물론 이와 관련하여 산업과 직업의 중복성도 문제가 된다고 볼 수도 있다. 예컨대, 제조, 건설, 운수, 창고, 통신업등은 생산, 운수, 노무직과 상관성이 높고 도소매, 음식, 숙박업은 판매직과, 전기, 가스, 수도, 금융, 보험, 부동산업은 사무직과, 그리고 서비스업은 서비스, 교원, 전문·행정직과 비교적 상관성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전자의 경우와 달리 공신성이 극히 심하지는 않았다. 더구나 귀속식의 추정목적은 통계적 유의성 보다는 귀속의 근사성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산업 및 직업변수는 제거하지 않았다.

소비지출함수의 추정결과는 표 2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 대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지출은 가구주의 학력과 소득, 재산상태(주택소유)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소비는 증가하며 그 차이(더미변수)의 통계적 유의성도 증가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대학학력자는 무학자에 비하여 월 11만원 이상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에 따른 한계소비성향은 0.41-0.63으로서 근로소득 보다 비근로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이 높다. 근로소득에 있어서도 가구주의 소득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아 비근로소득과 부차적소득에 대하여 한계소비성향이 높은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주택소유(부)에 따른 소비지출성향은 월세-전세-자가의 순으로 높아진다. 월세차가자는 자가소유자에 비하여 평균 5.8만원 적게 지출하며 사택의 경우에도 월세차가자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소비지출 귀속식의 추정 결과

표본 수 = 5,245
R² = 0.599
F 값 = 133.828

	설 명 변 수	자유도	추 정 계 수	t - ratio
절 더 미	INTERCEP	1	-13473.27761	-0.237
	M ₁	1	-13780.70102	-0.885
	M ₂	1	-8909.21307	-0.570
	M ₃	1	-30028.79358	-1.996
	M ₄	1	-41765.16558	-2.682
	M ₅	1	-32471.23392	-2.128
	M ₆	1	-64833.72965	-4.235
	M ₇	1	-56158.40094	-3.626
	M ₈	1	5269.79976	0.342
	M ₉	1	-35359.92839	-2.329
	M ₁₀	1	35.74200051	0.002
M ₁₁	1	1664.11020	0.110	
가구원 수	CM) 0~13 (남	1	17220.33622	3.127
	CP) 0~13 (여	1	7952.40307	1.596
	V ₁₁) 14~19 (남	1	40147.15675	5.557
	V ₁₂) 14~19 (여	1	42842.54194	6.440
	V ₂₁) 20~29 (남	1	57582.70364	7.574
	V ₂₂) 20~29 (여	1	56774.19428	7.448
	V ₃₁) 30~39 (남	1	59753.90912	5.211
	V ₃₂) 30~39 (여	1	49700.14656	4.423
	V ₄₁) 40~49 (남	1	73428.97990	5.395
	V ₄₂) 40~49 (여	1	76368.83908	5.725
	V ₅₁) 50~59 (남	1	38055.00467	2.632
	V ₅₂) 50~59 (여	1	44031.18734	3.450
	V ₆₁) 60~69 (남	1	71690.10785	4.801
V ₆₂) 60~69 (여	1	18101.56721	1.720	
산 업	V ₁ 취업인 수	1	-52269.47360	-6.864
	V ₂ 가구주 (나이)	1	1004.78122	0.373
	ASQ) 가구주 (나이)	1	4.34912709	0.137
	S) 가구주 성 (Sex)	1	-91.78508224	-0.008
직 업	I ₁ 광 업	1	57016.62602	0.889
	I ₂ 제조업	1	3957.55637	0.079
	I ₃ 전기·가스·수도업	1	55875.16609	0.777
	I ₄ 건설업	1	23813.02727	0.468
	I ₅ 도소매음식·숙박업	1	22055.46200	0.432
	I ₆ 운수·창고·통신업	1	-1603.59234	-0.031
	I ₇ 금융·보험·부동산업	1	32917.70164	0.639
	I ₈ 서비스업	1	19351.29300	0.394
교 육	O ₁ 교 원	1	-13070.38813	-0.247
	O ₂ 전 문	1	-13152.96850	-0.265
	O ₃ 행정관리	1	53579.40776	0.983
	O ₄ 사 무	1	6262.94115	0.130
	O ₅ 판 매	1	-8901.03599	-0.178
	O ₆ 서비스	1	6614.20955	0.136
	O ₇ 생산·운수·노무	1	12328.89506	0.254
교 육	E ₁ 국민학교	1	23357.26613	1.165
	E ₂ 중학교	1	38559.23641	1.912
	E ₃ 고등학교	1	56280.10290	2.787
	E ₄ 대학교	1	110978.78	4.937
소 득	X ₁ 근로소득	1	0.41380705	27.205
	X ₂ 배우자소득	1	0.55756892	13.416
	X ₃ 기타 가구원소득	1	0.54664086	12.155
	X ₄ 사업소득	1	0.56251305	34.458
	X ₅ 기타소득	1	0.62621430	44.595
주택소유	H ₁ 무 상	1	-21629.81182	-0.718
	H ₂ 사 택	1	-56030.62419	-2.192
	H ₃ 전 세	1	-28081.59174	-3.395
	H ₄ 보증월세	1	-32448.15238	-3.127
	H ₅ 약월세	1	-39878.72399	-2.332
	H ₆ 월 세	1	-57973.13276	-3.273

따라서 소비지출은 재산(주택소유)의 정도와 정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소비지출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나 가구주의 나이, 성, 산업, 직업에 따라서는 별로 차이가 없다. 성, 연령별 가구원당 한계적 소비지출은 14세 미만의 1.0만원 내외에서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여 40대에 정점(7.5만원 내외)에 이른 다음 이후 감소하고 있다. 대체로 여자보다는 남자의 경우 한계적 소비지출이 높은 편이며 특히 14세 미만 자녀의 경우 현저한 차이를 보여 다소의 남아선호 관습이 잔존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²⁾

취업자당 한계적 소비지출은 -5.2만원으로 부의값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추정계수의 방향이 정(+)의 값이 아니고 부(-)의 값인 것이 다소 의외이다. 즉각적인 느낌은 취업자가 많을 수록 쓰임새가 많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여타가구원의 소득수준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부(-)의 값이 나온 것이다.

여타 가구원의 근로소득 수준을 통제하는 경우 소득수준 일정아래 취업자수의 증가는 인당 소득수준의 저하를 의미하고 이는 다시 한계적 소비의 저하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구주의 나이에 따른 소비지출 유형은 “∩”형을 보이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 가구주의 성도 가구주가 여자일 경우 소비 지출이 적

주 2) 이 점은 0~13세를 세분하여 보았을때 0~2세 여아의 한계 소비지출이 부(-)의 값으로 추정됨으로써 두드러지게 부각되었는데 그 통계적 유의성은 거의 없었다.

은 경향은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거의 없다.

또 가구주의 산업 및 직업도 적어도 대분류에 의한 한 소비지출과는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소비지출은 봄, 여름(3-9월)철이 가을, 겨울철(10-2월)에 비하여 적은 경향이 있다. 단, 8월은 여기에서 예외적인데 이는 냉방비, 피서비용등이 추가된 때문이 아닌가 한다.

소비지출의 귀속은 위의 추정식에 ESS자료의 나이, 성별, 가구원수, 취업인수, 가구주 나이, 성, 산업, 직업, 학력 그리고 소득수준(가구원별)을 근거로 하였다. 소비지출의 귀속에 있어 유의할 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귀속의 기준월이 12월이며 이는 소비지출이 비교적 높은달(8, 11, 10월 다음)이라는 점이다.

둘째, 가구주의 산업 혹은 직업이 농림 수산업인 경우 무직 및 분류불능의 잔여계층으로 분류평가하였다. 이 계층은 운수, 창고, 통신업(I_6)과 교원(O_1) 전문직(O_2) 판매직(O_5) 보다는 다지출계층에 속한다. 그러나 산업, 직업에 관련된 모든 더미변수가 비유의적으로 추정되고 있어 농·비농간에도 그다지 차이가 없을 가능성도 크다.

셋째, 소득³⁾은 가구주의 경우 근로소득(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근로자인 경우)과 사업소득(고용주 및 자영업자인 경우)으로 구분 적용하였고 기타 가구원의 소득은 자녀의 소득을 세번째까지의 자녀에 한하여 합산하여 적용하였다.

넷째, 주택소유는 자가소유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소비지출이 전반적으로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단 주택소유형태에 따라 추정계수가 상이하다면 즉, 주택소유형태에 따라 소비지출행태가 다르다고 한다면 다음단계에서의 분석결과에도 영향을 주게된다는 점도 주목을 요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귀속식을 별도로 설정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별다른 시도는 하지 않았다.

2) 임금함수의 추정

임금함수의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는 1986 고용구조 특별조사 원자료의 가구조사 및 개인조사 자료에서 가구구성, 가구주, 배우자, 가구주의 자녀(3명까지)등에 대하여 필요항목을 선정, 가구별로 재배

주 3) 착오로 가구구분이 통제된 상태에서 구하여진 한계소비계수를 적용하였는데 차후의 분석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 참고로 추정계수와 귀속적용계수는 다음과 같다.

		추정계수	귀속시 적용계수
가구주	근로소득	0.3998	0.4138
	사업소득	0.5933	0.5625
	배우자소득	0.5628	0.5576
	자녀소득	0.5380	0.5466

열하여 원래의 총 표본수 12994 가구중 1/6 을 계통추출⁴⁾한 것이다.

귀속임금의 추정절차는 선택편기교정회귀분석(Limdep package 이용)의 절차를 따랐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째, 전체표본대상으로 유급취업자가 될 확율(Probit)을 추정하였다. 「프로빗」의 추정을 위하여 대개의 경우 경제활동 여부를 택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임금함수 추정에 있어서의 선택편기 교정이 그 목적이므로 임금함수를 추정할 표본대상이 되는 유소득 취업확율을 추정한 것이다.

둘째, 유소득 취업자 표본만을 대상으로 선택편기교정회귀분석에 의하여 임금(근로 및 사업소득) 함수를 추정하였다. 사실 임금함수의 선택편기교정회귀분석의 기준이 되는 「프로빗」 함수의 추정에 있어서 종속변수는 여러가지 대안적 정의가 가능하다. 흔히 경제활동 또는 취업(무급 가족종사자 및 1차 산업종사자 포함)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의 경우에 대하여 소득이 관찰되지는 않으므로 부적합하다. 여기서는 임금함수 추정을 위한 선택편기교정을위한 1차 추정이 목적이므로 유소득취업(가족종사자, 농림 어업종사자제외)이 가장 적합하다. 좀 더 나아가서 조사자료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혹은 소득가득 능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의 유소득 상용근로(근로시간 36시간 이상) 혹은 임금 상용근로(근로시간 36시간

주 4) 사용한 Limdep 「팩키지」에서 변수의 수×표본수<50,000 이라는 제약조건이 있어 여기에 맞추기 위한 것임.

이상)에 한정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임금함수의 경우 임금 대신 임금소득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임금율의 개념이 되어야 하는데 ESS 자료에서는 임금수준이 불연속 변수로 측정되어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표본자료의 반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유효성있는 추정치가 되지 못하므로 채택하지 않았다.

① 유소득 취업「프로빗」(Probit)의 추정 결과

임금함수의 선택편기교정회귀분석에 있어 기준함수가 되는 유소득 취업「프로빗」함수는 가구주와 배우자에 대하여 대칭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 되었다.

첫째, 성, 학력 및 나이 항에 의하여 임금변수를 가름하였는데 학력은 학교계급별(초, 중, 고, 대) 순으로 연속 변수화 하였고 나이는 제곱항을 포함시켰다.

둘째, 출산력은 14세 이하 가구원수와 14-19세 가구원수로 나누었다. 단, ESS자료에서 14세 이하 자녀가 친자녀인지 손자녀인지 불분명하므로 기혼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삽입하였다. 또 20세 이상의 성인 가구원수는 본인을 포함한 수치이다.

셋째, 소득변수로서는 소비지출수준, 배우자 소득수준 및 배우자 학력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소비지출 수준은 도시가계조사 자료에서 도시 비농가계 중심으로 추정된 것이므로 확대 적용시 다소의 문제가 있음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배우자의 학력은 배우자의 임금율을 모르는 상황에서 잠재적 임금율을 나타내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단 배우자의 나이는 가구주의 생애주기와 병진하므로 생략하고 학력만 삽

입한 것이다.

배우자의 소득수준이 갖는 소득효과는 만일 「프로필」 함수가 축약형 추정(reduced form estimation)이라면 불필요하다. 그 이유는 배우자의 소득수준이 임금율 \times 근로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이 내생변수인 한 내생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히 주부의 경제활동을 분석할때 가구주(남편)의 경제활동은 주부의 입장에서 볼때 거의 외생적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효과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부분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배우자 이외의 여타 가구원에 대한 소득은 고려에 넣지 않았다.

가구주와 배우자에 대하여 유소득취업 「프로필」 함수를 추정한 결과는 표 3, 표 4와 같으며 대체로 추정계수의 유의성이 높고 모형의 예측력도 높다. 여기서의 추정결과는 선택편기교정을 위한 1차적 추정에 불과하여 2차 추정 결과와 다소 중복되므로 구체적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단지 (유소득)취업확률은 본인의 교육수준, 배우자소득 및 가구원수(14세 이하 자녀를 포함한 모든 연령계층)에 대하여 감소함수이며 가구소비수준에 대하여 증가함수라는 점이 주목된다.

또 가구주의 취업은 배우자 교육수준에 따라 증가하나 배우자의 취업은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라 감소하는등 배우자의 교육수준이 비대칭적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표하단의 예측결과와 실제값을 비교하여보면 예측율은 가구주의 경우 87.8%, 배우자의 경우 85.5%로서 상당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3) 가구주의 유소득 취업 「프로빌」 합수의 추정결과

변 수	추정계수	T-RATIO	평 균	표준편차
상 수 항	0.28606	0.530	1.00000	0.00000
H D A G E	0.63250E-01	2.620	40.17754	12.15364
H D A S Q	-0.13759E-02	-4.944	1761.86905	1081.42992
H D E D U	-0.40638	-8.638	2.65787	1.29470
H D S E X	0.48325	3.930	0.85352	0.35368
S P E D U	0.20095	3.830	1.62215	1.32071
S P I N C	-0.11266	-7.747	1.01346	3.64019
H H C O N	0.84165E-01	14.995	35.97153	17.52872
F E R T	-0.12736	-2.466	1.01812	1.04194
C H M A R	-0.96259	-3.716	0.03106	0.17351
C H	-0.39359	-5.837	0.39234	0.69122
A D	-0.53778	-8.906	2.27692	0.99164

		실 제 값		계
		Y = 0	Y = 1	
「프로빌」 예 측 결 과	Y = 0	182	60	242
	Y = 1	174	1,516	1,690
	계	1,238	234	1,932

- 주) FERT = 14세 이하 가구원수
 CHMAR = 기혼자녀 유무 더미 (있으면 1)
 CH = 14~19세 가구원수
 AD = 20세 이상 가구원수 (본인 포함)
 HD = 가구주를 나타내는 접두어
 ASQ = 나이 제곱항
 EDU = 학 력
 SP = 배우자를 나타내는 접두어
 INC = 소득 수준
 HHCON = 가구의 소비지출 수준

〈 표 4 〉 배우자의 유소득 취업 「프로빌」 함수의 추정결과

변 수	추 정 계 수	T-RATIO	평 균	표 준 편 차
O N E	-0.77749	-0.912	1.00000	0.00000
S P A G E	0.45717E-01	1.451	36.74592	10.48793
S P A S Q	-0.87164E-03	-2.293	1460.18478	874.58123
S P S E X	0.21041	0.347	0.99389	1.07798
S P E D U	-0.34169E-01	-0.516	2.12908	1.09987
H D E D U	-0.23965	-4.462	2.76427	1.29087
H D I N C	-0.10430	-11.290	13.54552	9.47119
H H C O N	0.65449E-01	11.305	39.83832	16.97812
F E R T	-0.11714	-2.410	1.23370	1.03757
C H M A R	-1.1121	-2.626	0.02310	0.15021
C H	-0.23502	-3.113	0.39742	0.69494
A D	-0.47727	-6.467	2.49524	0.88952

		실 제 값		계
		Y = 0	Y = 1	
「 프 로 빌 」 예 측 결 과	Y = 0	1,222	199	1,421
	Y = 1	16	35	51
	계	1,238	234	1,472

주) 변수의 설명은 〈 표 3 〉 참조.

② 임금함수의 추정

임금함수는 유소득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앞서 추정된 Probit 함수를 기준함수(Criterion function)로 하여 선택편기교정회귀분석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종속변수는 근로소득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얻어진 시간당 임금율의 대수값이며 여기서 근로소득은 불연속 구간으로 조사된 것을 금액으로 치환시킨 값이다. 치환시 소득액의 실제분포를 참조하여야 하나 편의상 계급의 중간값(예컨대 50~100만원의 경우 75만원, 단 최고소득계층(100만원이상)의 경우 130만원)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자료의 특수성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된다. 즉, 주어진 자료가 임금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소득계층변수를 취업시간(연속)으로 나누어 산정한 것이므로 이를 종속변수로 하여 임금함수를 추계한다고 할때 일정소득구간 내에서는 주로 취업시간의 함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근로시간을 50~55, 55~60 등으로 한정된 부분표본(sub-sample)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함수를 추정하는 것도 일책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표본의「센서링」(censoring) 문제가 발생하며 또 시간, 계층별로 임금함수를 별도추정하고 그 구조적 차이를 검증해야 하는등 복잡한 어려움이 따른다.

함수의 구체적 형태는 인적자본 이론모형을 따라 임금수준(대수값)을 주로 학력과 경력의 함수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경력은 나이(제곱항포함)와 현직근속년수로 나타내었는데 경력에 따른 임금상승율의 비선형성은 나이의 제곱(age square)항으로 대신하였다. 따라서 나이의 제곱(age square)항은 경력과 생애

주기상의 비선형관계를 동시에 포착하는 것이 된다.

이외에도 ESS자료상에서 개별적 임금차이를 발생시킬수 있는 여러 변수들—예컨대, 산업, 직업, 종사상지위, 기업체 조직형태와 규모등—이 포착되고 있어 이들을 통제변수로 고려하는 것이 좋을듯 하나 이들은 근본적으로 선택변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귀속용 임금함수에서는 적당치 않아 제외시켰다.

임금함수의 추정결과는 가구주와 배우자에 대하여 각각 표 5, 표 6에 수록되어 있다. 설명계수는 0.424와 0.444로서 상당히 높은 편이며 추정계수도 거의 모든 변수에 대하여 유의적이며 기대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금은 학력과 경력의 증가함수이며 나이에 따라서 임금증가 경향은 가속화함을 보인다. 그러나 나이에 따른 임금증가 경향은 성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가구주의 경우 28세, 배우자의 경우 44세를 기점으로 하여 그 이후 부터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여자의 경우 경제활동이 왕성한 44세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나이가 들수록 임금이 감소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성의 나이가 임금에 대하여 부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3) 노동공급 함수의 추정

노동공급 함수를 추정하는데 있어 우선적인 절차는 소비지출의 귀속분과 귀속임금 추정치를 이용하여 가계지출을 귀속시키는 것이다. 즉, 가계지출의 귀속액을 y 라고 할때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extcircled{20} y = y^w + y^o$$

〈 표 5 〉 가구주 임금함수의 선택편기 교정회귀분석 결과

표본수 = 1,576
 $\bar{R}^2 = 0.444$

Ln Hwage SBCR (Select)

변 수	추 정 계 수	T-RATIO	평 균	표 준 편 차
O N E	-1.7471	-7.399	1.00000	0.00000
H D A G E	-0.36763E-01	-3.204	38.16561	10.11382
H D A S Q	0.65508E-03	4.569	1558.83820	832.39531
H D E D U	0.16369	12.206	2.78299	1.25680
H D S E X	0.48955E-01	0.967	0.89848	0.30212
H D E X P	0.67681E-01	6.545	4.90419	1.63698
L A M B D A	-1.1607	-17.557	0.18353	0.26805

주) E X P = 현직 경력 변수
 LAMBDA = 선택 편기 변수 (λ)
 여타변수는 〈 표 3 〉 참조.

〈 표 6 〉 배우자 임금함수의 선택편기 교정 회귀분석 결과

표본수 = 234
 $\bar{R}^2 = 0.424$

변 수	추 정 계 수	T-RATIO	평 균	표 준 편 차
O N E	-0.25864	-0.230	1.00000	0.00000
S P A G E	-0.73368E-01	-2.694	37.85470	9.58519
S P A S Q	0.83443E-03	2.596	1524.46154	791.71876
S P S E X	-0.49814	-0.714	0.99573	0.06537
S P E D U	0.25464	7.258	1.96154	1.25101
S P E X P	0.93272E-01	3.740	4.16667	1.65020
L A M B D A	-0.56060	-6.067	1.27845	0.46202

주) 각 변수에 대한 설명은 〈 표 5 〉 〈 표 3 〉 참조.

$$y^w = w^m l^m + w^f l^f$$

$$l^m = (24-8) \times 7 - h^m$$

$$l^f = (24-8) \times 7 - h^f$$

여기서 y^w = 시간적 소비 (여가) 지출

y^q = 물적 소비 지출

$w^m l^m$ = 가구주 임금 및 주당 여가시간

$w^f \cdot l^f$ = 배우자 임금 및 주당 여가시간

h^m = 가구주의 주당 근로시간

h^f = 배우자의 주당 근로시간

단, 개인의 총가용 시간 (1주일간)은 1일 24시간에서 8시간(수면)을 제외한 16시간에 7일을 곱한 112시간으로 정의하였다.

위에서 w^f 와 w^m 은 귀속임금의 추정치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개별적 표본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ESS 자료내에서 임금자료가 없는 표본-비임금 근로자 및 비 활동자-에 한하여 귀속임금을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일시점 횡단분석 자료에서는 임시소득의 비중이 클 것이라는 점과 여성의 경우 대부분 (70% 이상)에 대하여 임금을 귀속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모든 표본에 대하여 귀속임금을 사용하여 y 를 추정하는 것이 보다 실제적이었다.

노동시간 함수는 귀속 가계지출의 추정치와 귀속 임금추정치를 이용하여 취업 「프로비트」(probit)을 1차적으로 추정한 다음 2단계에서 추정하였다. 즉, 취업 「프로비트」(probit)을 기준함수(Criter-

ion function)으로 하여 선택편기 교정회귀분석방법으로 추정하였는데 함수식의 설정은 기본적으로 취업「프로빌」 함수와 동일하게 하였다.

구체적인 함수형태는 비선형모형과 선형모형 두가지를 교대로 시도하였다. 그러나 비선형모형의 경우 선택편기교정회귀분석에서 유의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였고 선형모형의 경우에도 가구주의 경우에만 유의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들 각각의 결과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비선형모형의 추정결과

비선형모형에 의하여 추정한 결과 1차추정단계인 취업「프로빌」 함수에서 가구주의 경우에 대하여서만 취업확율이 소득(y), 자녀수 및 성인가구원수에 대하여 유의적인 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가구주의 경우에 있어서도 2차추정단계인 노동시간함수는 성인가구원수에 대하여서만 유의적인 관계를 보였고 선택편기변수(λ)를 포함한 그외의 모든 변수에 대하여 비유의적이었다. 따라서 비선형모형의 경우에 대하여서는 통상최소자승법에 의한 분석결과를 대신 제시하도록 한다.

통상최소자승법에 의한 노동시간함수의 추정은 표본을 유배우 취업자(남자 1327, 여자 329명)에 한하였다. 그 결과는 표7과 표8에 수록되어 있으며 설명계수가 0.308 및 0.448로서 설명력이 비교적 높고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도 높은 편이다. 즉,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에 대하여 가구주의 성(HD sex)과 유배우자녀더미(CH-MAR)를 제외한 거의 모든 변수가 5%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

(표 7) 통상 최소자승법에 의한 비선형 노동시간 함수의 추정결과 (가구주)

HDHOUR (OLS)
B-W Model

표본수 = 1,327
 $\bar{R}^2 = 0.308$
F = 54,697

변 수	추정 계수	T-RATIO	평 균	표준 편 차
O N E	66.305	6.573	1.00000	0.00000
H D A G E	0.63600	2.047	39.45407	9.87973
H D A S Q	-0.63736E-02	-1.753	1654.15889	865.65326
H D E D U	1.8133	4.460	2.82681	1.27647
H D S E X	-7.7407	-1.573	0.99398	0.07741
L N H W	-17.498	-10.404	-1.48315	0.40076
W S W H	41.399	12.351	0.98938	0.19364
F W H	1.1592	2.258	1.31130	0.91304
C W H	1.2744	1.971	0.40960	0.69996
C H M A R	-5.0801	-1.498	0.01506	0.12184
Y W H	-6.2504	-22.126	14.85353	2.09863
A D	2.0356	4.023	2.45783	0.85569

주) LNHW = $\ln w_h$

WSWH = $(w_s / w_h)^{\frac{1}{2}}$

FWH = $(0 \sim 14 \text{ 세 자녀수} / w_h)^{\frac{1}{2}}$

CWH = $(15 \sim 19 \text{ 세 자녀수} / w_h)^{\frac{1}{2}}$

YWH = $(Y / w_h)^{\frac{1}{2}}$

AD = 20 세 이상 가구원 수를 나타냄.

(표 8) 통상 최소자승법에 의한 비선형
노동시간 함수의 추정결과 (배우자)

표본수 = 329
 $\bar{R}^2 = 0.448$
 $F = 25,230$

변 수	추 정 계 수	T-RATIO	평 균	표 준 편 차
O N E	9.475 1.9844	0.384	1.00000	0.00000
S P A G E	1.9844	2.544	37.54545	8.86848
S P A S Q	-0.24824E-01	-2.460	1488.07273	701.73426
S P E D U	4.6566	4.645	2.01212	1.16164
S P S E X	21.342	1.173	0.99697	0.05505
L N S W	-15.806	-6.734	-1.24072	0.57740
W H W S	49.659	9.753	1.08700	0.29233
F W S	-1.2914	-1.110	1.09782	0.87799
C W S	3.1851	2.512	0.57739	0.78758
C H M A R	6.1940	0.638	0.01212	0.10959
Y W S	-7.6602	-15.220	13.35750	2.73114
Y D	2.1353	1.861	2.46667	0.82906

주) 변수의 설명은 〈 표 7 〉 참조.

이 있고 가구주의 경우 HDASQ, 배우자의 경우 FWS 만이 예외적으로 비유의적일 따름이다.

추정계수의 방향을 보면 15세미만자녀의 존재는 가구주의 근로시간은 증가시키나 배우자의 근로시간은 감소시키고 있다. 그러나 여타가구원의 존재는 연령계층에 상관없이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부부모두의 근로시간을 증가시키고 있다. 소득 및 가격변수의 영향은 부부모두에 대하여 동일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신의 임금이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로서 잠정적인 결론이기는 하나 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을 시사하고 있으며 부부간의 임금비율은 각자의 노동공급에 대하여 정의 교차효과를 가지므로써 부부간 여가소비가 상호보완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 평생소득(가계지출)은 노동시간에 대하여 (-)의 소득효과를 보이고 있다.

② 선형모형의 추정결과

선형모형에 의한 취업 probit 함수의 추정결과는 부록(Appendix)에 수록되어 있으며 참고로 경제활동용의 OLS 추정결과도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취업「프로비트」의 추정결과는 노동시간 함수의 추정결과와 추정계수의 방향에 대해서만은 일치해야 하나 학력(edu)과 출산력(fert) 변수에 대해서는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에 있어서 반대되는 방향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두가지 상반되는 해석을 가능케하는데 그 하나는 취업확율이 높다고 반드시 취업시간이 길다고는 볼수 없다는 점이며 하나는 만

일 양자간에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한다면 노동공급함수의 불연속성 (killingsworth, 1983)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어느쪽이 맞는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은 내릴수 없으므로 이를 후일의 과제로 미루고 노동시간 함수의 추정결과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노동시간 함수의 추정결과에 있어 주목할 점은 선택편기교정회귀분석의 비유의성이다. 이는 가구주의 경우 선택편기변수(λ)의 비유의성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배우자의 경우에는 선택편기교정회귀분석이 무의미할 정도로 선택편기변수(λ)와 여타 설명변수간 상관성이 높아 추정계수를 얻을 수 없었다.

이러한 점은 부록의 배우자 취업「프로빌」추정결과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프로빌」 예측오차는 배우자의 경우 1.4%에 불과하고 가구주의 경우에도 2.5%에 그칠뿐이어서 1차 추정단계에서 거의 완벽한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표 9 와 표 10 은 가구주의 노동시간함수를 선택편기교정회귀분석을 하였을때의 결과와 배우자의 노동시간함수를 통상최소자승법에 의하여 추정하였을때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두가지 경우 다 설명계수는 0.357 및 0.399 로서 비교적 설명력이 높고 또 추정계수의 통계적유의성도 높다.

우선 경제변수가 부부의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소득효과는 (-), 자신의 임금효과는 (+), 배우자의 임금에 대한 교차 대체효과는 (+)로서 부부간 시간활용이 상호 보완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가구원수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가구주 및 배우자의 노동시간

(표 9) 선형모형에 의한 노동시간 함수의 선택편기
교정 회귀분석 결과 (가구주)

$\bar{R}^2 = 0.357$
 $n = 1,328$

변 수	추 정 계 수	T-RATIO	평 균	표 준 편 차
O N E	76.171	9.047	1.00000	0.00000
H D A G E	0.24618	0.671	39.45407	9.87973
H D A S Q	-0.47185E-02	-0.946	1654.15889	856.65326
H D E D U	2.8581	4.271	2.82681	1.27647
H D S E X	-10.610	-2.236	0.99398	0.07741
H W H A T	24.695	5.147	0.75000	0.27052
S W H A T	24.084	11.862	0.55913	0.22407
Y H A T	-0.40973	-23.796	133.96270	40.34329
F E R T	0.64276	1.550	1.29066	1.03000
C H M A R	-0.67208	-0.206	0.01506	0.12184
C H	1.3142	2.139	0.38931	0.69757
A D	2.0983	4.318	2.45783	0.85569
L A M B D A	3.2103	1.185	0.04009	0.15235

주) LAMBDA = 선택편기를 나타내는 변수 (λ)임.

HWHAT = 가구주 임금률 추정치

SWHAT = 배우자 임금률 추정치

YHAT = 평생소득 추정치

(표 10) 선형모형에 의한 노동시간 함수의 OLS 추정 결과 (배우자)

SPHOUR (OLS)
with (\hat{w}, \hat{y})

표본수 = 329
 $\bar{R}^2 = 0.399$
F = 20,869

변 수	추 정 계 수	T-RATIO	평 균	표 준 편 차
O N E	-16.516	-0.558	1.00000	0.00000
S P A G E	2.8894	3.227	37.54545	8.86848
S P A S Q	-0.39399E-01	-3.315	1488.07273	701.73426
S P E D U	6.4929	3.470	2.01212	1.16164
S P S E X	19.340	0.975	0.99697	0.05505
H W H A T	40.438	6.718	0.74510	0.26674
S W H A T	13.223	1.679	0.71879	0.29550
Y H A T	-0.47105	-13.749	121.26823	46.57526
F E R T	-1.7242	-1.811	1.23333	1.06482
C H M A R	8.6628	0.856	0.01212	0.10959
C H	2.5566	1.950	0.55152	0.77110
A D	2.8918	2.402	2.46667	0.82906

주) 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9) 참조.

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으나 15세미만자녀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배우자의 노동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출산력과 노동공급간에는 배우자의 경우에 비양립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인구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우선 교육수준은 근로시간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이, 즉 생애주기의 차이에 따른 노동공급은 가구주의 경우 비유의적이며 26세를 정점으로 하여 완만한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배우자의 경우 37세를 정점으로 하여 다소 현저한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가구주의 성이 여자일 경우 근로시간이 증가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여자일 경우에도 근로시간이 증가하기는 하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

IV. 출산력과 소비지출 및 자녀교육

1. 가계소비함수 : 설정된 모형의 특성

가계의 생애에 걸친 효용함수와 제약조건은 II장의 식 ①, ②, ③에 제시된 바 있으나 편의상 이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textcircled{1} \quad \bar{U} = \sum_{s=0}^L U_s(l_s, q_s, c_s)$$

$$c_s = n_s \cdot q_s'$$

$$\sum_s (\tilde{w}_s l_s + \tilde{p}_s q_s + \tilde{p}_s' c_s) = A_0 + \sum_s \tilde{w}_s T$$

l_s, \tilde{w}_s 는 부부의 여가시간 및 임금수준으로서 편의상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나타내었다 (여타변수의 경우 II장의 식 ①~③ 참조).

위 모형의 특징은 II장에서 대체로 지적한 바와 같이 출산력을 외생변수로 다루는 대신 자녀에 대한 소비지출 (육아비용)을 내생변수로 다루는데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출산력을 생애주기 전체를 단위로 할 때는 내생적인 변수가 되나 생애주기 내의 일정시점에서는 주어진 값이 된다.

그러므로 출산력 변수는 위 모형에서 일종의 가격변수적 역할을 하는데 그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하므로써 출산력이 생애주기에 걸친 가계의 경제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명시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식 ①에서 성인재 (q_s)와 비성인재 (q_s')은 효용함수에서 분리되어 있다. 만일 q_s 와 q_s' 을 하나의 복합재 (Q_s)로 나타낼 수 있다면

Q_a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begin{aligned} \textcircled{2} \quad Q_a &= \tilde{p}_a \cdot q_a + \tilde{p}_a' \cdot c_a \\ &= \tilde{p}_a \cdot q_a (1 + e_a \cdot n_a) \\ e_a &= \tilde{p}_a' \cdot q_a' / (\tilde{p}_a \cdot q_a) \end{aligned}$$

②식은 등소비율 (e_a)가 성인재와 비성인재의 소비비율 (q_a'/q_a)뿐만 아니라 그 가격비율 (\tilde{p}_a'/\tilde{p}_a)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인다. 그러나 편의상 모든 시점 (a)에 대하여 가격비율 (\tilde{p}_a'/\tilde{p}_a)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등소비율 (adult equivalent consumption unit)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일반적인 경향은 소비비율 (q_a'/q_a)가 모든 가구에 대하여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즉, 자녀를 위한 소비지출과 부모자신을 위한 소비지출은 일정한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 가정은 가족적 유대가 강한 사회일수록 현실적 타당성이 높을 것이며 한국의 경우에도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면 등소비율 (e_a)는 모든 가구에 대하여 거의 동일하며 ①의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begin{aligned} \textcircled{3} \quad U &= \sum_a U_a (l_a \cdot Q_a) \\ Q_a &= \tilde{p}_a \cdot q_a (1 + e_a \cdot n_a) \\ &= n_a' \cdot q_a \\ n_a' &= \tilde{p}_a (1 + e_a \cdot n_a) \end{aligned}$$

소비비율 (q_1'/q_1)이 모든 가구에 대하여 실제 어느 정도 동일한가 하는것은 다분히 실증적 문제이다.

그러나 개별가구의 소비비율 (혹은 등소비율)이 여러가지 비경제적 요인 때문에 달라질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예컨대, 자녀에 대한 기대는 집집마다 다르다.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큰 집안 일수록 자녀를 위한 등소비율이 높을 것이며 또 자녀에 대한 기대가 반드시 경제적 빈부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볼때 가난한 집안 일수록 등소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자갈밭 팔아 아들 대학 보낸다” “소팔아 등록금 낸다”는 말들은 한국사회에서 가난한 가정의 등소비율이 높을 것임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만일, 이러한 현상이 없다면, 즉 경제적 빈부와 무관하게 등소비율이 일정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빈자의 자손이 부자의 자손과 경제적으로 대등하게 되려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못먹고 못배운 「핸디캡」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천부적 능력을 타고 나가거나 경제적 운이 따라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 빈부는 대를 거듭함에 따라 오히려 그 격차가 커지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부자가 3대를 못 넘기는” 것이 현실이며 모든 것을 자식에 걸쳐 빈곤의 세습을 단절시켜 보려는 가난한 부모들이 한들이 아님을 우리는 익히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부모는 자신들을 위한 소비를 상대적으로 줄임으로써 즉, 등소비율을 높임으로써 자녀들을 위한 지출을 부자집 자녀들과 조금이라도 더 근접하게 하려 한다는 것이다. 만일 여기에 더하여 부자집이 등소비율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면 자녀를 위한 지출

수준 ($e_a \cdot q_a$) 은 더욱 근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빈곤의 세습현상은 그만큼 완화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것이 등소비율의 현저한 차이를 전제로 하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일단 등소비율이 개별가구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 q_a 와 $e_a \cdot n_a$ 는 효용함수에서 더 이상 단일항 $q_a(1 + e_a \cdot n_a)$ 으로서가 아니라 두개의 분리된 항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우리의 모형은 ㉔식 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textcircled{24} \quad \sum_a U_a(l_a, q_a, e_a \cdot n_a)$$

$$\sum_a [\tilde{w}_a \cdot l_a + \tilde{p}_a \cdot q_a (1 + e_a \cdot n_a)] = A_0 + \sum_a \tilde{w}_a T$$

㉔식을 이윤극대화를 전제로 적정화하면 1차조건으로서 「프리쉬」 수요함수를 얻게 됨은 II장에서 논한 바와 같다.

이를 경상가격에 대한 함수관계로 변환시키고 효용가치 (r_a) 대신 예산 (y_a) 을 대입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소비함수를 얻게 된다 (II장의 ㉕~㉙식 참조).

단, 다음식은 부부의 노동공급을 별개로 분리하고 또 가격변수 (p_a, p_a') 를 주어진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 (㉚식 참조).

$$\textcircled{25} \quad q_a = q(y_a, w_a^m, w_a^f, n_a)$$

$$q_a' = q'(y_a, w_a^{m'}, w_a^{f'}, n_a)$$

또는

$$e_a = e(y_a, w_a^m, w_a^f, n_a)$$

$$y_a = w_a^m l_a^m + w_a^f l_a^f + p_a q_a + p' \cdot q_a' \cdot n_a$$

2. 가계 소비함수의 추정

추정자료로는 1987 FIES를 이용하였는데 FIES의 제약요인은 평생소득의 일정시점 배분액을 나타내는 y 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그 해결책으로서 노동공급함수 분석시 얻어진 y 를 FIES에 귀속시킬수도 있으나 FIES자료에서 배우자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 그 대신 FIES에는 배우자의 소득이 파악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료상의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㉔식을 추정 가능한 실증모형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extcircled{25} Q_a = Q(\bar{w}_a^m, \bar{w}_a^f \cdot n_a)$$

$$e_a = e(Q_a \cdot \bar{w}_a^m, \bar{w}_a^f \cdot n_a)$$

위에서 $Q_a =$ 총소비지출, $l_a =$ 비성인재와 성인재 비율로서 소비지출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y_a 대신 Q_a 를 사용하는 점이 주목을 요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인재 (q)와 비성인재 (q')의 구분 가능성을 전제하고 분석을 전개하여 왔다. 그러나 가구의 소비내용을 보면 성인이든 비성인이든 공통적으로 소비하는 재화, 예컨대 공통적 사유재 (common private goods)와 공공재 (public goods)가 있기 때문에 이를 엄밀히 구분하기는 불가능 하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분리 가능성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전제한 연구들이 많고 육아비에 관한 관계문헌은 그 대표적 사례에 속한다 (Deaton & Muellbauer, 1986 참조).

여기서는 우선 성인재와 비성인재의 분리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한 다음 이를 토대로 소비지출 함수를 추정하도록 한다.

성인재와 비성인재를 구분 식별하는데 있어 「디톤」등 (Deaton, 1987; Deaton et.al., 1985)은 성인재의 식별기준으로서 가계지출 품목별 출산력 탄력도를 산출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extcircled{7} \quad \epsilon_i = \left(\frac{dq_i}{dn} / \frac{dq_i}{dy} \right) \cdot \frac{n}{y}$$

ϵ_i = i 번째 지출품목의 출산력 탄력도

y = 총지출

q_i = i 번째 항목의 지출액

n = 자녀수

순수 성인재의 경우 자녀수가 증가하면 부(-)의 소득효과는 발생하더라도 대체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녀수가 지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품목별로 살펴봄으로써 성인재를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즉, 이론적으로 볼때 성인재라면 위의 출산력 탄력도가 같을 것이므로 이를 성인재의 식별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디톤」등은 이러한 이론적 근거 위에서 지출 항목별 출산력 탄력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그 추정식으로서는 지출비율을 총지출액과 가구원수에 대한 반대수함수로 설정하고 있다.

「디튼」등의 방법은 이론적으로 엄밀성은 있으나 추정과정이 복잡한 것이 흠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론적으로 부족한 점은 있으나 등소비율 (adult equivalent unit) 을 성인재 (비성인재) 의 식별기준으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등소비율을 ㉔에서와 같이 비성인소비지출액 / 성인소비지출액으로 정의한다고 할때 그 값이 순수 성인재이면 ≤ 0 , 순수비성인재이면 ∞ , 공통재이면 그 중간값을 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떤 품목이 성인재 (비성인재) 인가의 여부를 등소비율 (등소비율의 역수) 이 ≤ 0 인가를 통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는 것이다.

등소비율은 실증적으로 다음과 같이 추정될 수 있다. 우선, i 항의 소비에 있어서 유효 가구원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보자.

$$\textcircled{24} \quad N_i^* = N + n \cdot e_i$$

N_i^* = i 품목소비에 있어서의 유효가구원수

N = 성인 가구원수

n = 자녀수

e_i = i 품목의 등소비율

총소비 규모 및 i 항목에 대한 지출함수는 이를 쌍대수형¹⁾으로 나타낼때 다음과 같이 설정될 수 있다. 단 임금항은 편의상 생략하

주 1) 소비율로 나타내어도 비슷한 방식으로 전개할 수 있다. 쌍대수형을 취한 이유는 총소비 규모를 금액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기로 한다.

$$\textcircled{2} X_i / N^{S_i} = A (X / N^{S_i})^{\beta_i}$$

$$X_i = AX^{\beta_i} N^{S_i(1-\beta_i)}$$

$$= AX^{\beta_i} N^{S_i(1-\beta_i)} \left(1 + \frac{n}{N} \cdot e_i \right)^{S_i(1-\beta_i)}$$

$$\therefore \ln X_i = \ln A + \beta_i \ln X + S_i(1-\beta_i) \ln N +$$

X_i = i 항목의 소비액

X = 총소비액

S = 규모효과를 나타내는 「파라메타」

②식에 ①식을 대입하고 이를 근사화하면 다음과 같다.

근사화가 가능한 것은 성인재의 경우 e_i 가 거의 0에 가까울 것이기 때문에 성인재를 식별하는 것이 목적인 한 아무런 문제를 초래하지 않기 때문이다.

$$\textcircled{3} \ln X_i = \alpha_i + \beta_i \cdot \ln X + S_i(1-\beta_i) \ln N + (1-\beta_i) S_i \ln \left(1 + \frac{n}{N} l_i \right)$$

$$= \alpha_i + \beta_i \ln y + \gamma_i \ln N + \delta_i \frac{n}{N}$$

$$\gamma_i = (1-\beta_i) S_i$$

$$\delta_i = (1-\beta_i) S_i e_i$$

단, $\ln \left(1 + \frac{n}{N} l_i \right) \approx \frac{n}{N} l_i$ 임을 가정. 임금항 ($W_s^m \cdot W_s^f$) 은 편의상 생략.

③식으로 부터 등소비율 (e_i)의 값은 δ_i / α_i 로 산출될 수 있으며 성인재의 식별은 δ_i 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함으로써 가능하다.

이 방법의 장점은 단순하면서도 「디톤」등의 통계적 검증방법과 무관하지 않다는데 있다. 즉, ㉞의 지출품목별 출산력 탄력도를 ㉞식에 대하여 산출하여 보면 탄력도 ϵ_i 와 등소비율 e_i 간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textcircled{31} \quad \epsilon_i = \delta_i / (k_i + \beta_i) \cdot \frac{n}{N}$$

$k_i = i$ 품목의 소비율

㉞에서 β_i, S_i, k_i 등이 0의 값이 아닌한 ϵ_i 와 e_i 간에는 비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소비지출 규모

소비지출 함수를 추정하기 위한 자료는 1987 FIES 자료에서 추출된 $\frac{1}{10}$ 표본이다.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소득 (y) 대신 가변수 (proxy variable)의 사용이 불가피 하였다. 원래 y 는 다음 식에서와 같이 부부의 잠재소득에서 실제소득을 뺀 여가소비분에다 소비지출을 합한 값으로 도출된 것이다.

$$\textcircled{32} \quad y = (w^m T - y^m) + (w^f \cdot T - y^f) + X$$

$w^m \cdot w^f$ = 부부의 잠재적 임금수준

T = 가용시간

$y^m \cdot y^f$ = 부부의 실제소득

X = 소비지출액

위에서 y^m, y^s, X 는 FIES에서 포착되어 있으나 근로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w^m 및 w^s 대신 가변수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나이 (a, a^2), 성 (s), 학력 (edu)를 추가적으로 삽입하였는데 그 결과 나이 (a, a^2) 변수는 생애주기도 반영하나 경력에 따른 생산성의 상승도 아울러 포착하고 있다. 또 주택소유 ($Hous$) 변수는 y 의 추정이 불완전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한 것이다.

둘째, 가구원수는 이를 20세 이상 성인의 수와 20세 미만의 자녀 수로 구분하고 20세 미만 자녀수는 다시 5세 이하 자녀수 (F_0), 6-13세 까지 자녀수 (F_1) 및 14-19세 까지 자녀수 (F_2)의 세 가지 연령계층으로 세분하였다. 특히 14-19세의 자녀에 대하여서는 고교이상에 재학중인 경우 재학생 더미를 삽입하여 자녀교육에 따른 소비지출의 차이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13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재학생 더미를 삽입하지 않은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초·중등학교의 경우 1987년 현재 취학율이 거의 100%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그외 통제변수로서 취업인수는 부부이외의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대변수로 사용되었다. 피용자 더미는 가구소득과 가계 지출의 성질이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통제코자 삽입하였고 월 더미는 계절에 따른 소비지출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한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추정결과는 표 1에 수록되어 있으며 설명계수는 0.539로서 아주 높고 추정계수도 나이 (a, a^2) 및 일부 월 더미 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5% 이내에서 유의적이다.

(표 1) 소비지출규모함수의 추정 결과

$\bar{R}^2 = 0.539$
 $F = 216.9$
 $n = 4800$

변 수	자유도	추 정 계 수	T-RATIO
INTERCEP	1	7.87239920	56.707
LOGN	1	0.45727077	19.290
EMPEE	1	-0.06053160	-4.863
LOGYH	1	0.31429049	31.885
LOGYS	1	0.006297995	4.038
NEMP	1	0.02430383	2.300
AGE	1	0.001412236	0.311
ASQ	1	0.000069466	1.264
S	1	0.08904422	4.589
EDU	1	0.03609981	19.144
HOUS	1	0.21617647	17.156
M ₁	1	-0.10382362	-3.812
M ₂	1	-0.15672944	-5.733
M ₃	1	-0.12927315	-4.946
M ₄	1	-0.16329104	-5.977
M ₅	1	-0.10191489	-3.845
M ₆	1	-0.17153114	-6.401
M ₇	1	-0.16027270	-5.965
M ₈	1	-0.06988114	-2.606
M ₉	1	-0.09796348	-3.732
M ₁₀	1	-0.002076878	-0.080
M ₁₁	1	-0.03352955	-1.282
F ₀	1	0.11160894	5.503
F ₁	1	0.11868026	7.990
F ₂	1	0.18017196	10.323
HF ₂	1	0.15339089	5.336
CF ₂	1	0.44748320	7.261

주 : EDU = 교육년수

HOUS = 자가소유더미

F₀ = 0 ~ 5 세 자녀수 / 20 세이상 가구원수

F₁ = 6 ~ 13 세 " "

F₂ = 14 ~ 19 세 " "

H = 고교생 더미

C = 대학생 "

aeu

F₀ = 0.244

F₁ = 0.260

F₂ = 0.394

HF₂ = 0.729

CF₂ = 1.373

소비지출은 소득 ($Y_m, Y_s, Nemp$) 및 부 (hous) 에 대하여 증가함수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가구주 소득에 대한 탄력도는 0.314로서 배우자 소득에 대한 탄력도 0.00630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 학력 (교육년수)은 여타조건이 동일할때 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다음의 두가지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교육수준의 상승 \Rightarrow 임금상승 \Rightarrow 여가감소, 물질소비지출 증가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교육의 상승은 여가 대신 물질소비증가를 증대 시킨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여가와 재화소비가 대체재임을 전제, 즉 여가에 대한 소비지출의 교차대체효과가 (-)임을 전제한 것임은 말할것도 없으며 만일 양자가 보완재라면 재화소비의 감소도 물론 가능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학력에 따라 과시소비 (Prestigious Consumption)가 늘어난다는 것으로서 이는 부연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생애주기 (나이)의 차이에 따른 소비지출의 차이는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추정계수를 살펴보면 여타조건이 동일할때 가구주의 나이에 따른 소비지출 증가율은 연간 0.5% (30세의 경우) ~ 1% (60세의 경우)이내의 미미한 증가에 그치고 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비지출의 차이를 보면 소비지출이 성인 가구원수에 대하여 갖는 탄력도가 0.457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가구주 소득에 대한 탄력도를 상회하는 것으로서 소비지출이 소득보다는 가족규모에 보다 민감함을 알 수 있다.

소비지출에 대한 출산력의 영향을 보면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소

비지출에의 영향이 크다. 그러나 0-5세와 6-13세간 차이는 거의 없는 대신 14세 미만과 14세 이상에 대해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특히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소비지출에 월등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인다

이러한 점은 표의 추정결과에 근거한 등소비율의 값이 $F_0 = 0.244$, $F_1 = 0.260$ 인데 비하여 F_2 (단 재학중이 아님) = 0.394이며 고등학교 재학중인 경우 $F_2 = 0.729$, 대학재학중인 경우 $F_2 = 1.373$ 으로 급증하는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와같이 산출된 등소비율의 값은 개별 소비품목별로 산출될 수 있는 등소비율의 값과 직접적으로는 비교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총소비지출의 경우 오른쪽 항에 총소비지출 변수가 없는 반면 개별 소비품목에 대한 추정식의 경우 오른쪽 항에 총소비지출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3) 등소비율과 소비지출의 구조

1987 FIES 자료의 소비지출 품목은 9개의 대분류 품목과 44개의 중분류 품목, 그리고 389개의 소분류 품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등소비율과 소비지출의 구조를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중분류 품목을 단위로 할 필요가 있으나 여기서는 계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대분류 품목을 단위로 하였다.

추정에 사용된 자료는 1987 FIES $\frac{1}{10}$ 표본 (관찰치 4802) 으로서 추정모형은 소비지출 규모함수와 마찬가지로의 모형을 적용하였다. 소비지출 규모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나이 및 재학여부를 구분하여 추정하였을 때 모든 품목에 걸쳐서 모형의 설명력이 전체적으로 크게

향상되었으므로 여기서도 자녀의 나이 및 재학여부를 세분하여 추정하였다.

품목별 소비함수의 추정결과는 부표 2)에 수록되어 있으며 설명계수는 0.581 (식료품) ~ 0.148 (보건의료)의 범위내에 있었다. 표 2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추정계수만 발췌하여 수록한 것이다.

표 2에서 비슷한 탄력도를 갖는 품목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X 탄력도 < 1 : 식료품, 주거비, 광열, 수도, 교통, 통신

N 탄력도 > 0 : 식료품, 주거비, 광열, 수도, 교육, 오락

$\frac{n}{N}$ 탄력도 > 0 : 식료품, 광열, 수도, 피복, 신발, 교육, 오락

Student 탄력도 > 0 : 교육, 오락 이외는 모두 (-)

표 3은 표 2에 근거하여 등소비율과 규모탄력치를 산출하여 본 것이다.

그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circled{3} S_i = \frac{\ln N \text{계수}}{(1 - \ln X \text{계수})}$$

$$e_i = \frac{n/N \text{계수}}{(1 - \ln X \text{계수})}$$

학생의 경우

$$e_i = \frac{(n/N \text{계수} + \text{재학더미})}{\ln N \text{계수}}$$

주 2) 가구주의 소득, 배우자의 소득등 소득변수는 근로시간×임금율로서 근로시간은 소비지출과 마찬가지로 내생적 변수가 된다. 따라서 이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변수를 계층별로 나누어 dummy 변수화하여 추정한 것이다.

(표 2) 소비 (금액) 함수 추정 결과

	log X	log N	n / N				
			0~5	6~13	14~19	H·S 14~19	Col 14~19
식 료 품	0.612	0.215	0.138	0.121	0.101	-0.060	-0.244
주 거 비	0.727	0.0705	-0.0120 [√]	-0.0131 [√]	0.0107 [√]	-0.138	-0.388
광 열 · 수도	0.351	0.370	0.0992	0.117	0.084	-0.0381 [√]	-0.145 [√]
집 기 · 용 품	1.289	-0.341	0.0387 [√]	-0.152	-0.109	-0.453	-1.123
피 복 · 신 발	1.000	0.0145 [√]	0.0953 [√]	0.0771 [√]	0.207	-0.188	-0.412
보 건 · 의 료	1.149	-0.044 [√]	0.296	-0.0744 [√]	-0.304	-0.422	-0.556
교 육 · 오락	1.310	0.174	-0.0749 [√]	0.383	0.336	1.388	1.033
교 통 · 통 신	0.779	0.0317 [√]	-0.167	-0.158	0.0666 [√]	-0.0679 [√]	-0.0502 [√]
기 타	1.154	-0.211	-0.212	-0.284	-0.130	-0.217	-0.319

주) '√' 표시는 추정계수가 비유의적임을 표시함.

〈 표 3 〉 품목별 등소비율 및 규모탄력치

	규모탄력치	등 소 비 율				
		0 ~ 5	6 ~ 13	14 ~ 19		
				비취학	교재학	대학재학
식 료 품	0.554	0.642	0.563	0.470	0.191	-0.665
	<u>0.640</u>	<u>0.689</u>	<u>0.550</u>	<u>0.459</u>	<u>0.082</u>	<u>-0.178</u>
주 거 비	0.258	(-0.170)	(-0.186)	(0.152)	1.806	-5.352
	<u>(0.024)</u>	<u>(-4.208)</u>	<u>(-4.800)</u>	<u>(-4.808)</u>	<u>(-31.975)</u>	<u>(-60.558)</u>
광 열 · 수 도	0.570	0.268	0.316	0.227	(0.124)	(-0.165)
	<u>0.568</u>	<u>0.377</u>	<u>0.302</u>	<u>(0.056)</u>	<u>(-0.070)</u>	<u>(-0.213)</u>
집 기 · 용 품	1.180	(-0.113)	0.446	0.320	1.648	3.613
	<u>0.623</u>	<u>(0.103)</u>	<u>0.304</u>	<u>0.380</u>	<u>1.065</u>	<u>15.230</u>
피 복 · 신 발	(-)	(6.572)	(5.317)	(14.276)	(1.310)	(-14.138)
	<u>(0.448)</u>	<u>(-0.208)</u>	<u>(-0.405)</u>	<u>(-1.317)</u>	<u>(1.036)</u>	<u>(2.749)</u>
보 건 · 의 료	(0.295)	(-6.727)	(1.691)	(6.909)	(16.5)	(19.545)
	<u>0.310</u>	<u>(-0.482)</u>	<u>(0.215)</u>	<u>1.048</u>	<u>2.699</u>	<u>3.616</u>
교 육 · 오 락	-0.561	(-0.430)	2.201	1.981	9.908	7.868
	<u>(-0.109)</u>	<u>(-1.768)</u>	<u>(2.694)</u>	<u>(2.054)</u>	<u>(26.801)</u>	<u>(42.121)</u>
교 통 · 통 신	(0.143)	(-5.268)	(-4.984)	(2.101)	(-0.041)	(0.517)
	<u>(-0.386)</u>	<u>(2.747)</u>	<u>(2.365)</u>	<u>(-0.387)</u>	<u>(1.664)</u>	<u>(-1.888)</u>
기 타	1.370	1.005	1.346	0.616	1.645	2.128
	<u>1.224</u>	<u>0.796</u>	<u>0.906</u>	<u>0.558</u>	<u>1.354</u>	<u>1.611</u>

* () 내의 숫자는 비유의적인 추정치를 나타냄.

밑줄 그은 수치는 ln 소비금액 대신 소비율 (k_i) 을 좌변에 두고 회귀 분석시 얻은 결과임.

위 식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e_i 의 산출가능성은 $\ln N$ 계수의 유의성에 좌우된다. 그런데 피복, 신발, 보건의료, 교통, 통신의 경우 계수가 비유의적이므로 유의성이 있는 e_i 를 산출할 수가 없다. 따라서 유의성 있는 추정치를 얻기 위해 $\ln X_i$ (쌍대수형) 대신 k_i (소비율; AIDS형)를 종속변수로 하여 대안적인 회귀분석을 시도하여 보았다.

표 3의 밑줄 친 숫자는 소비율 추정식에 의하여 얻어진 등소비율과 규모 탄력치를 나타낸다.

이렇게 한 결과 보건·의료에 대한 등소비율 및 규모탄력치에 대하여 유의적 추정치를 추가적으로 얻게 되었다.

이제 두가지 서로 다른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품목별 등소비율과 규모탄력치를 토대로 각 품목의 유사성 내지 성인재 여부를 기준으로 이들을 「그룹핑」(grouping)할 수 있는지 논하여 보자.

앞서 성인재의 식별기준으로서 e_i 의 크기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e_i 의 절대적 크기는 의미가 없고 상대적 크기가 문제가 되는데 요는 판단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e_i 의 크기에 대한 판단기준은 식료품 지출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식료품은 공통적 사유재이면서 소비지출의 비중이 크고 또 추정치가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이제 식료품을 기준으로 하여 품목을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e_i 가 식료품보다 낮은 품목 : 주거비, 광열·수도, 집기·용품

e_i 가 식료품보다 높은 품목 : 보건의료, 교육오락, 기타

불분명한 품목 : 피복·신발, 교통·통신

앞서의 표 2에서 볼때 e_i 가 식료품보다 낮은 품목중 집기·용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X 의 탄력도가 낮고(열등재), N 또는 n/N 에 대한 탄력도가 크며 따라서 S_i 가 작은 품목임을 알 수 있다.

이제 식료품, 주거비, 광열·수도비에다 집기용품, 교통·통신, 피복·신발을 하나씩 추가적으로 더하여서 grouping한다고 할때 어느 경우에 e_i 가 가장 낮은지를 알아보고 그때의 grouping을 성인재 group으로 정의해 보기로 한다.

여러가지 대안적인 Grouping을 할때의 소비구조함수 추정결과는 Appendix에 수록되어 있다. 표 4는 여기에 근거하여 산출된 등소비율과 규모탄력치를 보여주고 있다.

표 4의 상반부를 보면 「그루핑」을 식·주·광·통으로 할때 e_i 가 가장 낮게 추정되고 있다. e_i 의 값은 쌍대수형($\ln X_i$ 를 종속변수로 함)인 경우 0.321~0.442의 범위에 있고 AIDS형(소비율 k_i 를 종속변수로 함)인 경우에는 0.298~0.416에 있음을 보인다.

그러나 표의 하반부를 볼때 이 추정치에 대한 의문이 발생된다. 만일 식·주·광·통이 가장 성인재적이면 그 잔여그룹인 피·보·기·육·집이 가장 비성인재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피·보·기·육·집의 e_i 범위를 보면 0.224~0.398로서 하반부의 grouping중에서 가장 e_i 가 낮을 뿐 아니라 그 잔여그룹인 식·주·광·통 보다는도 성인재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퍼즐」(Puzzle)의 발생원인은 e_i 를 소비율(k_i)함수에 의하여 추정한다고 할때 설명이 용이하다. 예컨대 k_i 와 그 잔여그룹($1 - k_i$)인 k_j 를 다음과 같이 grouping에 의하여 추정한다

〈 표 4 〉 Grouping 시의 등소비율 및 규모탄력치

	e_i					
	S_i	0 ~ 5	6 ~ 13	14 ~ 19		
				비 학생	고교재학	대학재학
식 · 주 · 광	0.502 (0.496)	0.540 (0.534)	0.405 (0.395)	0.319 (0.284)	-0.252 (-0.457)	-1.422 (-1.055)
식 · 주 · 광 · 통	0.455 (0.446)	0.442 (0.416)	0.321 (0.298)	0.350 (0.312)	-0.326 (-0.562)	-1.445 (-1.039)
식 · 주 · 광 · 통 · 집	0.392 (0.380)	0.581 (0.575)	0.324 (0.303)	0.332 (0.281)	-0.955 (-1.383)	-3.126 (-2.533)
식 · 주 · 광 · 통 · 피	0.364 (0.361)	0.657 (0.678)	0.396 (0.406)	0.514 (0.483)	-1.181 (-1.701)	-3.958 (-3.213)
피 · 보 · 기 · 육 · 통 · 집	0.501	0.539	0.406	0.227	-0.545	-0.579
피 · 보 · 기 · 육 · 집	0.427	0.398	0.300	0.224	-0.739	-0.481
피 · 보 · 기 · 육	0.359	0.484	0.265	0.152	-1.631	-1.451
보 · 기 · 육	0.320	0.623	0.451	0.394	-2.189	-1.811

자료 : Appendix III

주 : 식 = 식료품, 주 = 주거비, 광 = 광열비, 통 = 교통 · 통신비, 집 = 집기,
 피 = 피복 · 신발, 보 = 보건 · 의료, 육 = 교육 · 오락, 기 = 기타

() 내의 수치는 소비율 (k_i)을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의 측정치임.

고 하자.

$$\textcircled{4} \quad k_i = a + b \ln X + c \ln N + d \frac{n}{N}$$

$$k_j = (1 - k_i) = \alpha + \beta \ln X + \gamma \ln N + \delta \frac{n}{N}$$

그러면 $k_j = 1 - k_i$ 이므로 k_j 식을 k_i 로 변환하면 $k_i = 1 - \alpha - \beta \ln X - \gamma \ln N - \delta \frac{n}{N}$ 이 되며 따라서 a, b, c, d 와 $(1 - \alpha), -\beta, -\gamma, -\delta$ 는 동일한 값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k_i 식에서 추정된 $S_i(c/b)$ 및 $e_i(d/c)$ 의 값은 k_j 식에서 추정된 $S_j(\alpha/\beta)$ 및 $e_j(\delta/\gamma)$ 의 값과 같아지게 된다.

소비율 (k_i) 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야 한다면 $\ln X_i$ 에 대하여도 비슷한 논리가 성립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textcircled{5} \quad \ln X_i = a + b \ln X + c \ln N + d \frac{n}{N}$$

$$\ln X_j = \alpha + \beta \ln X + \gamma \ln N + \delta \frac{n}{N}$$

$$= \ln(X - X_i)$$

$$= \ln X \left(1 - \frac{X_i}{X}\right)$$

$$\cong \ln X - k_i$$

$$\therefore k_i \cong \alpha + (\beta - 1) \ln X + \gamma \ln N + \delta \frac{n}{N}$$

$$\therefore S_i = \frac{c}{(1-b)}, \quad e_i = \frac{d}{c}$$

$$S_j = \frac{\alpha}{(1-\beta)} = - \frac{\alpha}{(\beta-1)} \approx S_i \text{ on } k_i$$

$$e_j = \frac{\delta}{r} \approx e_i \text{ on } k_i$$

만일 $e_i \approx e_j$ 라면 이는 이론적으로 혹은 방법론적으로 e_i 의 추계 과정이 잘못된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아마 가합성 (adding up)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전체 소비품목을 group 별로 2분 했을 경우 group 간 e_i 의 차이는 얻을 수 없다.

그러나 3 group 이상으로 구분한다면 서로 다른 e_i 를 얻을 수가 있다. 따라서 grouping에 의한 e_i 추정 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추정치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 ($e_i \approx e_j$ when $X_i = X - X_j$) 아래 e_i 에 대한 신뢰성있는 추정치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e_i, e_j 의 평균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균치를 얻기 위하여 i, j 에 대하여 별도의 회귀분석을 행하기 보다는 회귀분석과정에서 평균치가 추정되어 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log X_i / X_j$ 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평균적인 e_i 가 얻어질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textcircled{26} \quad \ln X_i = a + b \ln X + c \ln N + d \frac{n}{N}$$

$$\ln X_j \approx \ln X - k_i$$

$$= \alpha + \beta \ln X + \gamma \ln N + \delta \frac{n}{N}$$

$$\therefore \ln X_i / X_j \doteq \ln X_i + k_i - \ln X_j$$

$$\begin{aligned} &= (a - \alpha) + (b - \beta) \ln X + (c - \gamma) \ln N \\ &\quad + (d - \delta) \frac{n}{N} \\ &= a' + b' \ln X + c' \ln N + d' \frac{n}{N} \end{aligned}$$

즉 $\ln X_i / X_j$ 를 $\ln X$, $\ln N$, $\frac{n}{N}$ 등에 대하여 회귀분석 한다는 것은 곧 $\ln X_i$ 와 k_i 의 개별적 회귀분석 결과를 합한 것과 같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 산출되어질 수 있는 S_i , e_i 등은 일종의 평균치에 준하게 되는 것이다.

$\log X_i / (X - X_j)$ 의 값은 일종의 logit 값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으며 이 logit 값은 일종의 소비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logit에 의하여 e_i , S_i 를 추정한다고 할때 e_i 의 산출은 전과 같지만 S_i 의 산출은 $\ln X_i$ 와 $\ln X_j$ 가 상호 상쇄되므로 소비율 추정시 적용하는 식과 같게 된다. 즉,

$$\textcircled{10} \quad e_i = d' / c'$$

$$S_i = c' / (-b')$$

logit에 의한 S_i , e_i 추정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log X_i$ 에 의한 S_i , e_i (표 4)의 값을 평균(표의 상·하반부값)한 값이 거의 됨을 알 수 있다.

또 e_i 의 값을 보면 식·주·광·통으로 grouping 할때 가장 작은 값을 가져 가장 성인재 group으로 분류하기에 적합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집기에 대한 소비지출을 더하였을 때 6세 이상 자녀의 등

(표 5) logit에 의한 등소비율의 추정결과 ($\log \frac{X_i}{X_{1i}}$)

소득·학력 Conti

	e_i					
	S_i	0~5	6~13	14~19		
				비 학생	고교재학	대학재학
식·주·광	0.501	0.535	0.408	0.268	-0.422	-0.970
식·주·광·통	0.438	0.408	0.310	0.274	-0.584	-0.879
식·주·광·통·집	0.370	0.512	0.287	0.217	-1.390	-2.079
식·주·광·통·피	0.332	0.634	0.435	0.435	-1.862	-2.526

소비율이 오히려 낮아지기 때문에 집기를 포함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겠으나 6세 미만 자녀의 등소비율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3. 소비지출 분석결과의 응용 : 출산력 소비지출과 자녀교육

출산력이 자녀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할때 흔히 「양과 질 간의 상충현상」(quality quantity trade-off)을 언급하게 된다.

즉, 다른조건이 동일할 때 다자녀집안의 자녀들이 학력이 낮을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예산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 할때나 통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예산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즉 가계의 소비지출 규모와 내용이 다른경우에는 통용될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부유한 가정의 경우 빈곤한 가정에 비하여 자녀의 수도 많고 자녀의 교육수준도 각기 높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볼때 자녀의 교육수준은 자녀수 및 소득, 지출수준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앞서의 분석과 관련하여 어떤 가구에 있어서 취학대상 연령의 자녀가 있을때 그 자녀의 취학여부는 그 가구의 1인당 비성인재 지출액과 정(+)의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여 보자.

그러면 1인당 비성인재 지출액은 다음 식에서와 같이 평생소득(y), 평생소득중 물적 소비지출(X/y), 비성인재 소비지출의 비중(X_{na}/X), 성인가구원수(N), 자녀수(n)등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각각의 성분이 취학율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다르다고 가정하고 취학

을 함수를 이들 각각의 함수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textcircled{8} \quad x = X_{na} / (N + e \cdot n)$$

$$= y \cdot \frac{X}{y} \cdot \frac{X_{na}}{y} \cdot \frac{1}{(N + e \cdot n)}$$

$$\text{enr} = f(x) = f\left(y, \frac{X}{y}, \frac{X_{na}}{X}, N, n\right)$$

단, 등소비율 (e)는 모든 가구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취학율 함수를 위와 같이 설정할때 이는 결국 소비지출 (규모 및 구조) 함수와 유사하게 된다. 그 차이점은 단지 우변항과 좌변항이 서로 바뀌어진 것 뿐이다.

다시 말하면 소비지출함수와 취학율 함수는 동일한 방정식 체계, 즉 하나의 연립방정식 체계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취학율 함수는 소비지출 함수와 관련하여 동시적으로 추정되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이유로 소비지출함수 역시 동일 방식으로 추정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자료상의 제약으로 이와 같이 엄밀한 분석은 시도할 수 없으므로 단일방정식 체계로 추정하기로 한다.

자녀수와 소비지출, 교육수준간 상호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1차적 자료는 도시가계조사자료 (FIES)이다. 그 이유는 FIES 자료만이 소비지출 규모와 구조등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FIES 자료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자녀의 나이 계층이 취학 대상연령에 따라 세분되어 있지 않다.

또 자녀별로 교육정도가 파악되어 있지도 않는데 FIES 자료에서

자녀의 교육상태를 알 수 있는 항목은 학교급별(초, 중, 고, 대)등록금 납입액 뿐이다. 따라서 이 항목을 이용하여 자녀의 교육상태를 파악하려 할때 동일취학연령 계층에 속하는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등록금 납입액이 하나 또는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취학을 분석에서는 ESS 자료를 기초자료로서 사용하였다. 그러나 소비지출에 관한 자료가 ESS에서는 파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FIES에서 추정된 소비구조를 ESS 자료에 귀속시켜 추정에 이용하여 보았다.

취학을 분석을 위한 자료는 고등학교 취학대상(15~17세 자녀로서 하급학교 재학자는 제외)자녀 및 대학교 취학대상(18~24세 자녀로서 하급학교 재학자는 제외)자녀를 가진 가구를 추출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에 대한 각각의 취학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중학교 이하에 대하여는 취학율이 주어진 자료에서 파악될 수도 없을뿐 아니라 1986년 현재 거의 100%에 가까워 무의미하기 때문에 추정을 시도하지 않았다.

추정방법은 구조형과 축약형으로 구분하여 OLS에 의해 추정하였다. 이와 같이 구분한 이유는 임금 및 소비지출(금액과 구조)이 다른 자료에서의 1차 추정결과에 의하여 귀속된 값이므로 내생적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OLS로 추정한 것은 추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경우 이상적인 분석기법이라 볼 수 있는 Logit 분석에 의한 추정결과와 차이가 별로 없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이다.

임금 및 소비지출을 제외한 여타의 설명변수는 ①출산력(가구원 구성), ②가구주 및 배우자 특성(나이, 성, 교육수준), ③대상자녀의 특성(나이, 성, 출생순서), ④지역(도시규모, 농, 비농)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추정결과는 표6,7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두 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축약형보다 구조형의 설명력이 현저히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현상은 소비구조를 1차 추정할 때 취학자녀「더미」를 설명변수로 넣어 취학율과 소비구조간에 유사상관관계가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같이 소비구조가 취학율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것은 추정방법의 성질상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평생소득 (Y)의 영향이 (-)의 방향으로 유의적인 것은 의외이다. 이에 비하여 임금변수는 대체로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유의 수준은 낮은 편이다.

자녀수가 취학율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크게 제한되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고교취학율은 대학취학연령자녀(18-24세)에 의하여 비교적 영향을 많이(유의 수준 10% 이내) 받는다. 반면 대학취학율은 구조식의(소득 및 소비등을 통제할)경우 특히 17세 이하 자녀수에 의하여 유의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자녀수가 취학율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고등학교의 경우 축약형 모형에서 비교적 유의적인 반면 대학의 경우는 구조형 모형에서 비교적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언하면 소득과 소비지출이 통제된 상황에서 자녀수의 증가는 고

〈 표 6 〉 고등학교 취학을 함수의 추정결과

	구 조 형		추 약 형	
	추 정 계 수	t	추 정 계 수	t
INTERC	2.99704468	4.326	0.81239012	4.987
LNWH	0.04785563	1.746	-	-
LNWS	0.03770776	1.563	-	-
LN Y	-0.15865227	-3.019	-	-
LN YQY	19.05129751	0.443	-	-
LOGIT	-0.16656982	-5.795	-	-
AH	-0.001458814	-0.674	-0.000572518	-0.283
EH	0.01402507	0.923	0.02282297	1.579
ES	-0.02012894	-1.102	-0.003254005	-0.186
MHEAD	0.09146312	0.980	0.09466380	0.984
F ₀₀₁₇	0.000572088	0.051	-0.01535350	-1.389
F ₁₈₂₄	-0.03621116	-1.682	-0.03725097	-1.712
AD ₂₅	0.02327074	1.149	0.001327111	0.066
MCHD	-0.004598532	-0.222	-0.008853327	-0.412
FIRST	-0.001147249	-0.038	-0.05124336	-1.703
A ₁₆	0.06522076	2.277	0.07558747	2.554
A ₁₇	0.05085680	1.694	0.07428390	2.435
SEOUL	0.04651418	1.117	0.03141670	0.751
PUSAN	0.06125053	1.892	0.05185400	1.575
URBAN	0.02888362	0.964	0.02688554	0.892
FARM	0.02120692	0.493	0.06734185	2.150

$$\bar{R}^2 = 0.087$$

$$F = 3.46$$

$$n = 519$$

$$\bar{R}^2 = 0.016$$

$$F = 1.56$$

$$n = 519$$

- 주) $\ln w_h$ = 가구주 임금율의 대수값
 $\ln w_s$ = 배우자 "
 $\ln Y$ = 완전생애소득의 a 시점 배분예산
 $\ln YQY$ = $\ln X/Y$; X = 물적소비지출액
Logit = $\ln X_a / X_{na}$
 A_h = 가구주의 나이
 E_h, E_s = 가구주 및 배우자의 학력
 M_{head} = 남자가구주 더미
 F_{0017} = 0 ~ 17 세까지의 자녀수
 F_{1824} = 18 ~ 24 세까지의 "
 AD_{25} = 25 세 이상 가구원수
MCHD = 취학대상자녀가 남자인 더미
First = " 첫째 자녀인 더미
 A_{16}, A_{17} = 자녀의 나이가 16, 17 세인 더미

(표 7) 대학 취학율 함수의 추정결과

	구 조 형		추 약 형	
	추 정 계 수	t	추 정 계 수	t
INTERCEP	3.34332873	3.588	-0.58329349	-2.036
LNWH	0.01581708	0.457	-	-
LNWS	-0.009551467	-0.291	-	-
LN Y	-0.28401909	-4.021	-	-
LN YQY	-8.04650318	-0.217	-	-
LOGIT	-0.43443076	-11.649	-	-
AH	0.004803690	1.571	0.002881521	0.928
EH	0.02758000	1.398	0.05159408	2.570
ES	0.03080401	1.179	0.06266726	2.444
MHEAD	0.19708536	1.231	0.23831661	1.360
F ₀₀₁₇	-0.03880751	-2.358	-0.004668440	-0.273
F ₁₈₂₄	-0.03025943	-1.236	-0.004997029	-0.200
AD ₂₅	0.05093279	2.009	0.03359512	1.263
MCHD	0.20857243	6.775	0.22277738	6.656
FIRST	-0.06180651	-1.630	0.01385731	0.341
SINGLE	0.06006959	0.663	0.07748825	0.781
A ₁₉	0.01352663	0.236	0.07598128	1.216
A ₂₀	0.17897747	3.172	0.09080699	1.482
A ₂₁	0.17699755	2.850	0.12942833	1.906
A ₂₂	0.01666452	0.269	-0.09385277	-1.399
A ₂₃	-0.02936653	-0.468	-0.14227458	-2.105
A ₂₄	-0.09303043	-1.467	-0.20500778	-2.989
SEOUL	0.008254419	0.136	0.05838591	0.914
PUSAN	0.11104095	2.041	0.15790712	2.713
URBAN	0.10044306	2.094	0.18734910	3.683
FARM	-0.00067124	-0.000	-0.04921782	-0.953

$$\bar{R}^2 = 0.335$$

$$F = 15.49$$

$$n = 718$$

$$\bar{R}^2 = 0.198$$

$$F = 9.88$$

$$n = 718$$

주) 변수의 설명은 앞의 표 참조.

교취학술보다는 대학취학술에 보다 현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는 곧 고교취학은 부모의 경제력에 관계없이 보편화된 반면 대학취학은 아직도 경제력에 영향을 받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V. 인구요인의 변동이 미친 총계적 경제효과

1. 가구형성 추이와 전망

흔히 인구요인은 출산력, 사망력, 인구이동등으로 나누어 진다. 이러한 인구요인의 변동은 미시적으로는 가구원(수와 구성)의 변동으로 나타나며 거시적으로는 가구(수와 구성)의 변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가구원의 변동은 단기적으로는 개별가구에 있어서 노동공급, 소비, 교육 등 경제형태에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구의 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거시 총계적 효과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인구요인의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추계하기 위하여 가구원(미시)과 가구(거시)의 변동 추이를 동시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가구원 수와 가구수의 변동추이를 파악하고 그 경제적 효과를 추계하는데 있어 가구주의 생활주기(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 이유는 분석단위가 되는 가구의 규모와 구성이 생애주기에 따라 주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구주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변동추이를 어떻게 추계할 것인가이다. 그 방법으로서 센서스 보고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나 보고서에는 가구주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수는 파악되어 있으나 가구원수는 파악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가구원수는 재집계를 요한다. 그러나, 과거자료에 대하여는 센서스 자료를 다시 집계하여 얻는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가구형성 전망은 어떻게 추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는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HOMES(Mason, 1987b) 모형을 이용할 수 있다.

HOMES 모형의 목적은 가구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수와 인구특성을 예측하는 것으로서 출생율, 사망율추이와 부합되는 가구특성을 묘사하고 예측하는 것이 특징이다. HOMES 모형의 방법을 요약,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구체적 방법은 Mason 1986 참조).

첫째, 가구를 유배우 가구, 편부모가구, 1인가구, 비혈연 가구의 네 가지 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가구주의 성 및 나이에 의하여 구분하고 있다. 특히, 유배우가구는 출산력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나이에 따라서 세분하고 있다.

둘째, 추계된 인구에 가구의 유형별로 가구형성율(headship rate)을 적용하여 가구주의 나이에 따른 가구수를 추계한다. 예컨대 나이 X인 남자가가구의 가구형성율, h_x 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textcircled{39} \quad h_x^m = H_x^m / M_x$$

H_x^m = 남자 가구주 수

M_x = 남자 인구수

단, 유배우 가구의 경우 가구형성율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textcircled{40} \quad h_{x.w} = H_{x.w} / [(M_x + W_w) / 2]$$

W = 배우자의 나이

W_w = 나이 W인 여자 인구수

$H_{x.w}$ = 가구주의 나이가 X이고 배우자의 나이가 W인 가구주 수

셋째, 가구원 수의 추계는 가구주와 배우자 이외의 모든 가구원의

경우, 출생, 사망율에 부합되게 나이별로 배분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때 모든 가구원을 자녀, 부모 등 가구주와의 관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녀수의 산출을 예로 하여보자. 예컨대 1980년 현재 나이가 10세로서 가구주의 자녀인 인구수는 다음과 같이 추계된다.

① 모의 나이에충별 아동수: 1970년 출산력조사에 나타난 모의 출산력(ASFR)상 비중을 산출하여 그 비중에 의하여 모의 나이에충별로 배분한다.

② 모의 나이별 자녀수: 아동의 나이와 모의 나이에 따라 자녀일 확율을 산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모의 나이별 가구유형별 자녀수: 가구유형별 구성비와 가구유형별 자녀보유배율에 따라 자녀수를 배분한다.

표 1은 고용구조 조사자료와 센서스, HOMES의 추계결과를 결합하여 작성한 것이다. 여기서 HOMES모형에 의한 추계분은 1966년 유배우 가구의 가구원 구성과 1980-2000년간 유배우 가구수 및 가구원 수 변동분이다. 추계를 위한 출산력 가정은 1980 이전에 대하여는 실적치를 적용하고 1980 이후의 예측치에 대하여는 5차 계획 인구추계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5차 계획 인구추계가 다소 과대평가된 것이므로 출산력 전망이 다소 과대평가된 경향이 있다.

표 1에 의하면 1966-85년간 유배우 가구수는 356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원수는 가구당 평균 1.5명씩 감소하였는데 이중 14세 이하 가구원이 1.3명 감소함으로써 가구원구성의 변동이 주로 출산력 저하에 기인함을 시사하고 있다.

〈 표 1 〉 유배우가구의 변동추이와 전망

연령별 항목별	~ 30	30 ~ 40	40 ~ 50	50 ~ 60	60 ~	계
1966~1985						
△가구주수	403,924	1,162,578	965,520	579,650	449,244	3,560,916
△배우자수	774,681	1,220,832	854,363	538,332	172,708	3,560,916
△가구원수	-1.62	-1.96	-1.17	-0.84	-1.22	-1.51
0 - 14	-1.56	-1.50	-1.15	-0.77	-0.80	-1.30
15 - 17	-0.03	-0.16	+0.12	-0.16	-0.12	-0.07
18 - 19	+0.01	-0.15	+0.12	-0.02	-0.50	-0.02
20 - 24	-0.16	-0.08	-0.14	+0.06	-0.18	-0.10
25 +	+0.12	-0.08	-0.13	+0.04	-0.06	-0.02
1980~2000						
△배우자수	628,491	1,608,240	1,184,785	607,781	328,890	4,358,187
△가구원수	-0.33	-0.86	-1.72	-1.55	-1.14	-1.02
0 - 14	-0.28	-0.81	-1.12	-0.57	-0.54	-0.72
15 - 17	-0.03	-0.07	-0.25	-0.39	-0.13	-0.14
18 - 19	-0.02	-0.03	-0.14	-0.20	-0.07	-0.07
20 - 24	-0.12	-0.04	-0.21	-0.32	-0.27	-0.16
25 +	+1.12	+0.09	0.0	-0.07	-0.13	+0.07

자료 : 1966-1985 : 부표Ⅳ - 1, 2

1980-2000 : HOMES 모형의 예측결과

이에 비하여 1980 ~ 2000 년간은 유배우가구수가 436 만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가구당 가구원수는 평균 1.0 명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15 ~ 24 세 가구원의 수가 0.37 명 감소하며 또 25 세 이상 가구원의 수가 미미하나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 과거의 가구변동추이와 다른점이다.

2. 경제활동, 소득, 소비 및 자녀교육에 미친 총계적 효과

가구원 구성의 변동이 개별가구의 경제행태에 미친 미시적 경제효과는 III, IV장에서 추정된 행태방정식에 가구원 구성의 변동분을 대입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행태방정식은 III장의 노동공급함수추정식, IV장의 소비지출함수추정식 및 취학율함수추정식(축약형)이 된다.

이러한 추정식에서 우리는 가구원구성의 변동에 따른 (i)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동공급의 변동분과 그에 따른 가구소득의 변동분을 추계할 수 있고 (ii) 소비지출의 변동분과 그 결과 초래되는 저축 변동분을 추계할 수 있으며 (iii) 또 자녀교육의 변동분을 추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단 개별가구에 대하여 미치는 미시적 경제효과가 추계되면 이를 가구주 또는 배우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분류된 가구수에 적용함으로써 총계화하여 볼 수 있다. 다음은 경제활동, 소득, 소비 및 자녀교육에 미친 총계적 효과를 이와 같이 추계한 구체적 결과이다.

(1) 노동공급의 변동

표 2는 가구구성의 차이에 따른 노동공급의 변동분을 산출한 결과이다. 표의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째, 가구원당 노동시간 변동분(Δh)을 다음과 같이 노동시간 함수(가구주 및 배우자)에 가구원 구성의 변동분을 대입하여 구하였다. 즉,

$$\textcircled{1} \Delta h = 0.643 \Delta F_{0-14} + 1.31 \Delta F_{15-19} + 2.10 \Delta F_{20^+} \quad : \text{가구주}$$

$$- 1.72 \Delta F_{0-14} + 2.56 \Delta F_{15-19} + 2.89 \Delta F_{20^+} \quad : \text{배우자}$$

여기서 F는 가구원수이며 하첨자 숫자는 나이를 나타낸다.

단, 계산과정의 편의상 가구원구성의 변동(ΔF_{0-14} , ΔF_{15-19} 등)은 가구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든 배우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든 같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둘째, 연령「코호트」별 총노동공급시간 $\Delta(h \cdot H)$ 를 가구원수 변동요인($\Delta h \cdot \bar{H}$)과 가구수 변동요인($\bar{h} \cdot \Delta H$)로 양분하였다.

$$\textcircled{2} \Delta(h \cdot H) = \Delta h \cdot \bar{H} + \bar{h} \cdot \Delta H$$

편의상 교호작용상($\Delta h \cdot \Delta H$)은 평균치를 취함으로써 각 요인별로 안분하였다.

표 2에 의하면 85년 현재 주간 노동시간은 가구주 52.1시간, 배우자 17.9시간으로서 부부의 시간을 합하면 70시간이 된다. 생애주기에 따른 노동시간의 차이를 보면 가구주의 경우는 나이가 들수록 일방적으로 감소하는데 비하여 배우자는 40대에 정점에 달하는 「U」형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동시간을 합하여도

〈 표 2 〉 인구요인에 의한 노동공급의 변동 : 1966-1985

연령별 항목별	~ 30	30 ~ 40	40 ~ 50	50 ~ 60	60 ~	계	단 위
가 구 주							
h	57.1	56.8	55.1	48.7	27.6	52.1	시 간
Δh	-1.1	-1.7	-1.0	-0.5	-1.2	-1.2	"
H	942.5	2552.8	2104.3	1341.9	849.8	7791.3	1000 가구
ΔH	403.9	1162.6	965.5	579.7	449.2	3560.9	"
$\Delta h \cdot \bar{H}$	-0.8	-3.4	-1.6	-0.5	-0.8	-7.1	100 만시간
$\bar{h} \cdot \Delta H$	23.3	67.1	53.7	28.4	12.7	185.1	"
$\Delta(h \cdot H)$	22.5	63.7	52.1	27.8	11.9	178.0	"
배 우 자							
h	9.7	18.7	25.1	23.6	11.8	17.9	시 간
Δh	2.5	1.3	1.8	1.2	0.2	1.7	"
H	2110.7	2614.8	1686.8	991.8	387.2	7791.3	1000 가구
ΔH	774.7	1220.8	854.4	538.3	172.7	3560.9	"
$\Delta h \cdot \bar{H}$	4.3	2.7	2.3	0.8	0.1	10.2	100 만시간
$\bar{h} \cdot \Delta H$	6.5	22.0	20.6	12.4	2.0	63.6	"
$\Delta(h \cdot H)$	10.9	24.6	22.9	13.2	2.1	73.7	"

주) h = 1985년 현재 주당 노동시간
 H = 1985년 현재 가구수 (1000 가구)
 \bar{H} = 1966년과 1985년의 가구수 평균치
 \bar{h} = $(h - \Delta h) / 2$
 Δh = 가구원구성의 변동에 의한 h변동분

40대에 정점에 달하는 「 \cap 」형을 보인다.

이제 인구요인에 의한 노동공급의 변동분이 어느정도인가를 살펴보자.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가구원수 변동(미시)효과 보다는 가구수 변동(거시)효과가 압도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원래 가구원 수의 변동효과가 미미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가구원수의 변동효과는 노동공급 혹은 소비지출에 있어 대체로 1미만의 낮은 탄력도를 가질 뿐 아니라 가구원수 자체의 변동여지가 적고 또 한계가 있는 반면에 가구수 변동효과는 탄력도가 1이며 또 변동여지도 무한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표에 의하면 1966-85년간 가구수는 423만에서 356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하나의 특징은 가구원수 변동에 의한 노동시간의 변화는 가구주와 배우자에 대하여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가구주의 경우 가구원수의 감소로 인하여 노동시간이 2%정도 미미하나 배우자의 노동시간은 10%정도 증가되었다. 그러나 배우자의 노동시간 증가는 가구주의 노동시간 감소를 겨우 상쇄하는 정도에 그쳐 가구원구성의 변동이 가구원 전체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은 극히 미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소득, 소비의 변동

표 3에 의하면 1985년 현재 근로소득수준은 평균적으로 가구주의 경우 28.7만원, 배우자의 경우 3.2만원으로서 합계가 약 32만원이 된다. 근로소득의 생애주기 양상을 보면 가구주, 배우자 모두가 30대

〈 표 3 〉 인구요인에 의한 소득·소비의 변동 : 1966-1985

항목별	연령별	~ 30	30 ~ 40	40 ~ 50	50 ~ 60	60 ~	계	단 위
소득 : 가구주	y	310.0	347.3	319.0	228.3	84.0	286.6	천 원
	\bar{h}	740.5	1971.4	1621.6	1052.1	625.2	6010.9	천가구
	$\Delta(h \cdot H)/(h \cdot \bar{h})$	0.526	0.560	0.578	0.540	0.674	0.562	
	$\Delta(y \cdot H)$	120.7	383.4	299.0	129.7	35.4	968.3	10 억원
소득 : 배우자	y	18.5	38.6	36.8	36.8	29.4	31.9	1,000 원
	\bar{h}	1723.3	2004.4	1259.6	722.7	300.9	6010.9	1,000가구
	$\Delta(h \cdot H)/(h \cdot \bar{h})$	0.748	0.683	0.753	0.795	0.595	0.719	
	$\Delta(y \cdot H)$	23.8	52.8	34.9	21.1	5.3	138.0	10 억원
소 비	x	306.8	349.3	414.0	369.8	285.8	358.2	1,000 원
	Δx	-1.95	-3.26	-0.69	-1.46	-1.92	-1.95	"
	$\Delta x \cdot \bar{h}$	-1.4	-6.4	-1.1	-1.5	-1.2	-11.7	10 억원
	$\bar{x} \cdot \Delta h$	124.3	408.0	400.0	214.8	128.8	127.6	"
	$\Delta(x \cdot H)$	122.9	401.6	398.9	213.3	127.6	126.4	"

주) y = 월 소득 (천원)

x = 월 소비지출 (천원)

Δx = 가구원구성의 변동에 기인한 가계지출 변동분

에 정점을 이루는 「∩」형을 이루고 있다.

인구요인의 변동에 의하여 얼마만큼 가구소득이 변동되었는지를 산출하기 위하여 편의상 실질임금수준이 가구원구성의 변동과 무관하다고 가정하여 보자. 이 가정은 분석대상기간동안 출산력의 변동이 취업경력 년수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임금수준(w)이 일정할때 소득변동분(Δy)는 근로시간의 변동분(Δh)에 비례하게 된다. 따라서 일정 연령계층의 「코호트」인구에 대한 근로소득 변동분은 기준년도의 근로소득수준에 기간중 노동시간 변동율을 곱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즉,

$$\textcircled{43} \quad \Delta y = w \cdot \Delta h$$

$$\Delta(yH) = w \cdot \Delta(hH) = \bar{y}\bar{h} \cdot \frac{\Delta(h \cdot H)}{(\bar{h}\bar{H})}$$

표 2에서 코호트별 소득총계($y\bar{H}$)에 노동공급($h \cdot \bar{H}$) 변동율을 적용하면 가구주소득 9683억원, 배우자소득 1380억원, 계 1.16조원이 인구요인에 의하여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인구요인의 요인별 구성은 노동시간의 경우와 거의 같기 때문에 가구원구성의 변동보다는 주로 가구수의 변동에 의한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가구당 소비수준은 1985년 현재 평균적으로 35.8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생애주기양상을 보면 40대에 정점을 이루는 전형적 「∩」형을 이루고 있다. 이를 소득주기와 비교하여 보면 30대까지는 근로소득(가구주+배우자)이 소비를 상회하여 순저축이 (+)이며 40대 이후는 근로소득(가구주+배우자)이 소비를 하회하고 있다. 따라서 40대 이후는 자산소득이 없다고 가정할때 순저축이 (-)가 된다.

가계소비에 있어서 인구요인이 미친 영향을 산출한 과정은 노동시간의 경우와 동일하다. 즉, 1966-86년간 가구원수와 취학자녀수의 변동분을 소비함수추정식에 적용함으로써 구한 것이다. 산출결과는 표 3의 하단에 제시되어 있으며 가구원수 변동요인에 의한 소비지출 변동은 (-)이나 미미하여 85년 현재 수준의 0.5%에도 미달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인구요인에 의한 소비지출의 변동분은 주로 가구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그 총계는 1.26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3) 취학율 및 교육년수의 변동

가구원구성의 변동에 따른 취학율의 변동분은 축약형 취학율함수에 가구원 구성변동분을 적용함으로써 산출하였다. 축약형을 택한 이유는 구조형의 경우 소비지출액, 소비지출구성 등이 다시 가구원 구성이 함수가 되므로 가구원구성의 변화에 따른 취학율변화의 총효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축약형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으며 가구원구성의 변화는 1966-85기간중 고교취학율 2.6%포인트, 대학취학율 0.6%포인트를 각기 증가시킨 것으로 추계된다.

취학율이 이와같이 증가된데도 불구하고 가구당 학생수는 가구규모의 감소로 인하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가구수의 증가에 따라 학생수가 월등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인구요인이 학생수에 미친 총계적효과는 정(+)의 방향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고교생 66.8만, 대학생 34.1만이 인구요인 특히 가구수의 증가요인에 힘입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인구요인에 의한 취학율 및 학생수의 변동 : 1966-1985

항목별	연령별					계	단 위
	~ 30	30 ~ 40	40 ~ 50	50 ~ 60	60 ~		
ΔE^h	0.0298	0.0342	0.0167	0.0127	0.0277	—	
ΔE^c	0.0122	0.0062	0.0005	0.0055	0.0034	—	
ΔS^h	-0.0264	-0.1433	0.1214	-0.1431	-0.1076	—	
ΔS^c	-0.0421	-0.0745	-0.0064	0.0182	-0.0744	—	
$\Delta S^h \cdot \bar{H}$	-19.6	-282.6	196.9	-150.6	-67.3	-323.2	1,000명
$\bar{S}^h \cdot \Delta H$	16.8	139.6	513.1	270.8	71.0	1011.3	〃
$\Delta(S^h \cdot H)$	-2.7	-143.0	710.0	120.2	3.7	688.1	〃
$\Delta S^c \cdot \bar{H}$	-31.1	-146.8	-10.4	19.2	-46.5	-215.6	〃
$\bar{S}^c \cdot \Delta H$	74.5	78.5	153.9	175.8	73.5	556.2	〃
$\Delta(S^c \cdot H)$	43.3	-68.3	143.6	195.0	27.0	340.6	〃

주) ΔE^h : 가구원구성의 변동에 기인한 고교 취학율의 변동
 ΔE^c : 가구원구성의 변동에 기인한 대학 취학율의 변동
 ΔS^h : 가구원구성의 변동에 기인한 가구당 고교생수의 변동
 ΔS^c : 가구원구성의 변동에 기인한 가구당 대학생수의 변동
 $\bar{S}^h = (S^h - \Delta S^h) / 2$
 $\bar{S}^c = (S^c - \Delta S^c) / 2$

3. 인구요인의 변동이 미친 총체 경제적 효과

표 2, 3, 4의 추계결과는 각기 노동공급증가율, 저축증가율 및 인적자본증가율의 형태로 환산함으로써 II장에서 논한바와 같이 소위 생산함수 모형과 관련하여 성장요인 분석으로 전개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표의 결과는 미시적 요인(가구 구성 변동)에 의한 변동분이 극히 미미하고 거시적 요인(가구수의 변동)에 의한 변동이 거의 지배적이며 산출된 수치의 의미가 자명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의 정도를 알기 위하여 성장요인 분석을 할 필요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는 앞서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인구요인에 의한 경제성장 변동분이 1985년 현재의 유배우 가구의 실제 경제규모에 대비하여 볼때 어느정도에 해당되는지 시산하는 정도에 그치고자 한다.

표 5는 표 2, 3의 합계난과 1985년 현재 유배우 가구의 경제규모를 함께 수록하고 있다. 인구요인에 의한 변동분이 1985년 경제규모에 대하여 접하는 비중을 보면 전체 노동공급의 46.2%, 총소득액의 44.6%, 총소비액의 45.3%가 된다.

노동공급과 소득의 변동을 가구주와 배우자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면 배우자의 노동공급 및 소득이 가구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그 결과 노동공급의 증가에 비하여 소득의 증가가 다소 뒤진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인구요인의 내용을 세분하여 보면 미시적 요인(가구원수와 구성)의 중요성은 대체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배우자에 관한

〈표 5〉 인구요인의 변동이 미친 경제적 효과

	노동공급 (h·H)			소득 (y·H)			소비(x)
	가구주	배우자	계	가구주	배우자	계	
미시적요인 ($\Delta X \cdot \bar{H}$)	-7122	10180	3058	-	-	-	-1173
거시적요인 ($\bar{X} \cdot \Delta H$)	185097	63564	248661	-	-	-	127596
① 계 ($\Delta(X \cdot H)$)	177975	73744	251719	96827	13800	110627	126423
② 1985 현재 (XH)	405693	139542	545235	223299	24854	248153	279084
①/② $\Delta(X \cdot H)$	0.439	0.528	0.462	0.434	0.555	0.446	0.453

한 그 중요성이 높다. 가구수의 변동은 가구주나 배우자에 대하여 같기 때문에 배우자의 노동공급과 소득이 가구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한 것은 전적으로 미시적요인의 차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VI. 결 론

1. 분석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에 있어서 인구요인(가구 규모와 구성 및 가구수)의 변동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 아래 가구라는 미시분석단위를 기초로 하여 가족규모와 구성이 가구의 경제행위(경제활동, 소비,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분석하고 그 결과를 거시 총계화하여 한국경제에 있어서 인구요인의 역할을 추계하여 보았다.

미시분석모형은 「프리쉬」수요함수 체계를 모체로 하여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동공급 및 소비지출의 규모와 구성이 평생소득, 가구의 임금수준 및 출산력에 의하여 결정되는 방정식체계를 추정하였다.

노동공급식은 가구소득 및 임금의 귀속을 위하여 소득 및 임금방정식을 예비추정한 다음 그 추정치를 이용하여 2차단계에서 추정하였다. 노동공급식의 추정은 각 단계에서 소위 선택편기교정회귀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는 대체로 유의적인 것이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출산력(15세미만 자녀수)의 증가가 가구주의 노동공급은 증가시키는 데 비하여 배우자의 노동공급은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인데 그 통계적 유의성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소비지출식은 자료상의 제약으로 노동공급식과 동일한 실증모형체계를 갖추지 못하였다. 특히 가구주와 배우자에 대하여 각자의 임금수준을 알 수 없었으므로 소득수준으로 이를 대체할 수 밖에 없었다. 소비지

출구조는 개별소비품목별로 등소비율을 추정하여 본 다음 이를 근거로 하여 개별소비품목을 성인재(등소비율이 식료품보다 낮은 품목)와 비성인재(등소비율이 식료품보다 높은 품목)로 구분하였다. 그런 다음 성인재와 비성인재의 소비비율을 하나의 피설명 변수로 간주하여 출산력이 소비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코자 하였다. 그 결과 소비지출과 구조가 자녀의 수, 특히 취학자녀의 수에 유의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분석을 응용하여 소비구조와 자녀교육의 상호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소비지출과 자녀교육을 연관 지우고자 하였다. 그러나 자녀교육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워낙 지배적인 것이어서 그 역의 인과관계를 성공적으로 추정해 낼 수는 없었다. 따라서 자녀교육을 나타내는 취학을 방정식은 축약형으로도 추정하여 총계화 단계에서는 이를 대신 이용하였다. 그러나 출산력이 자녀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성이 극히 제한된 것이었다.

미시분석의 결과를 거시총계화하기 위하여 가구주와 배우자의 연령계층을 10세 간격별로 구분하고 각 연령계층별로 가구수 및 가구원수의 변동을 추계하였다. 비교기간은 1966년과 1985년으로서 1985년의 인구(가구수 및 가구원수) 자료는 센서스 및 고용구조 조사 자료의 것이며 1966년의 인구자료는 센서스와 HOMES 모형의 추계결과에 따랐다.

거시분석의 내용은 인구요인을 가구원수 및 그 구성의 변동(미시요인)과 가구수의 변동(거시요인)으로 분해하여 그 각각에 대하여 경제적 영향을 추계하였다. 그 결과 미시요인의 영향은 배우자의 경

제활동에만 다소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 가구주의 경제활동 및 소비지출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동안의 인구증가를 반영하여 거시요인의 영향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힘입어 1966-1985년간 인구요인에 의한 경제변동분은 1985년 경제규모에 대비하여 볼때 1985년 현재 노동공급의 46.2%, 소득의 44.6%, 소비의 45.3%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시사점과 한계점

1966년과 1985년간 경제규모를 비교하여 보면 소득과 소비의 경우 연간 8% 이상씩 증가하였기 때문에 4배 이상 증가한 것이 된다. 또 노동공급은 연간 증가율 3%를 평균으로 한다면 2배 정도 증가한 양이 된다. 따라서 1985년을 100으로 할때 1966년 현재 소득·소비수준은 25, 노동공급은 50으로서 1966-85년간의 변동분은 1985년의 수준을 100으로 하여 볼때 각기 75와 50이 됨을 알 수 있다.

만일 우리가 택한 표본(유배우가구)을 전체 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하여보자. 그러면 인구요인에 의한 변동분은 소득, 소비, 노동공급 모두에 있어 1985년 경제수준의 45 내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위의 숫자와 비교하여 보면 1966-85년간 소득소비변동에 있어서 75중 45 또는 노동공급의 변동에 있어서 50중 45는 인구요인(주로 가구수의 증가)에 의해서 초래된 것으로 계산된다. 즉 한국경제의 과거 20년에 있어 인구요인의 역할은 노동공급

변동에 있어서 90%, 소득·소비 변동분의 60%를 차지한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산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는 우리가 택한 표본의 대표성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택한 표본은 1986년 현재 유배우 가구로서 이는 전체 인구의 대다수를 점하기는 하지만 전체는 아니다. 더우기 1인가구, 편부모가구, 비혈연가구 등이 지금까지 증가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본의 대표성문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분석의 기준년도는 고용구조 조사가 행해진 1986년으로서 한국의 인구변동사에 있어 후기에 속한다. 즉, 가구원수와 그 구성이 핵가족화·소규모화된 후이며 따라서 가족구성에 있어 가구간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족규모와 구성이 가구주 및 배우자의 경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포착하기가 힘들 뿐 아니라 또 과소평가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취학율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특히 고교취학율은 86년 현재 이미 포화상태(유배우 가구의 경우 96%)에 있어 비취학현상은 거의 확률적 현상으로 간주되어도 좋은 정도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느 한년도의 행태방정식이 아무리 잘 추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당기간 이전의 다른 년도에 적용하는데는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분석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주어진 것'(given)으로 간주되었던 여타 변수들이 더 이상 상수가 아닐 수 있으며 또 동일한 조건 위에서 행태 그 자체, 즉 기호(taste)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다른 시점에 걸쳐 행태 방정식의 구조가 변동되었는지 여부도 검증되어야 하는 것이다.

附 錄

- I. 勞動供給函數의 推定參考資料
- II. 品目別 消費支出函數의 推定結果
- III. Grouping 시 消費函數의 推定結果
- IV. 家口數, 家口員 構成 및 家口의 經濟·人口 特性

I. 노동공급함수의 추정 참고자료

1. 비선형모형에 의한 취업율함수 추정결과 (가구주) : OLS

$$\bar{R}^2 = 0.242$$

$$n = 1471$$

$$F = 43.8$$

변 수	추정계수	T-RATIO
ONE	1.41211	8.249
HDAGE	0.02631	5.333
HDASQ	-0.00045	-8.465
HDEDU	-0.00423	-0.562
HDSEX	-0.13234	-1.575
LNHW	0.06969	2.174
HSNH	-0.09396	-1.737
FWH	0.00463	0.504
CNH	-0.00019	-0.016
CHMAR	-0.04450	-0.873
YRH	-0.03165	-6.163
AD	0.01760	2.177

2. 비선형모형에 의한 취업율함수 추정결과 (배우자) : OLS

$$\bar{R}^2 = 0.652$$

$$n = 1327$$

$$F = 227.4$$

변 수	추정계수	T-RATIO
ONE	0.71235	5.225
SPACE	0.05669	9.227
SPASQ	-0.00077	-9.829
SPEDU	-0.12635	-12.161
SPSEX	0.16194	1.699
LNSW	0.48796	16.289
WHWS	1.25943	21.641
FWS	-0.00677	-0.725
CWS	0.05467	5.150
CHMAR	0.07107	1.100
YWS	-0.13030	-24.988
AD	0.03505	3.586

3. 경제활동유함수 추정결과 (가구주) : OLS
HDLFP(OLS)

변 수	추정계수	T-RATIO	평 균	표준편차
ONE	0.13601	1.423	1.00000	0.00000
HDAGE	0.56440E-01	19.937	40.73370	11.04609
HDASQ	-0.94499E-03	0.000	1781.16712	1003.68403
HDEDU	-0.11406	-16.536	2.76427	1.29087
HDSEX	-0.11434	-2.021	0.99321	0.08217
HWHAT	1.1187	31.668	0.75128	0.28310
SWHAT	0.45123E-01	1.723	0.55250	0.22541
YHAT	-0.18766E-02	0.000	136.54825	43.44019
FERT	-0.11998E-01	-2.318	1.23370	1.03757
CHMAR	0.34048E-02	0.099	0.02310	0.15027
CH	-0.73133E-02	-0.938	0.39742	0.69499
AD	0.45917E-02	0.758	2.49524	0.88954

4. 취업율 probit 함수의 추정결과 (가구주)

변 수	추정계수	T-RATIO	평 균	표준편차
ONE	-9.0736	-4.035	1.00000	0.00000
HDAGE	0.80906	6.848	40.73370	11.04609
HDASQ	-0.12589E-01	-8.113	1781.16712	1003.68403
HDEDU	-1.1987	-7.440	2.76427	1.29087
HDSEX	-2.9901	-2.997	0.99321	0.08217
HWHAT	19.737	10.992	0.74679	0.28141
SWHAT	0.29918	0.502	0.55250	0.22541
YHAT	-0.49033E-01	-8.340	136.28108	43.31174
FERT	-0.38343	-2.839	1.23370	1.03757
CHMAR	0.50466	0.657	0.02310	0.15027
CH	-0.15373	-0.862	0.39742	0.69499
AD	0.45308	3.023	2.49524	0.88954

5. 경제활동유함수의 추정결과 (배우자) : OLS
SPLFP(OLS)

변 수	추정계수	T-RATIO	평 균	표준편차
ONE	-2.6639	-20.219	1.00000	0.00000
SPACE	0.89163E-01	17.351	36.74592	10.48790
SPASQ	-0.10151E-02	0.000	1460.18478	874.58120
SPEDU	-0.32849	-25.804	2.12908	1.09987
SPSEX	0.84494	9.645	0.99389	0.07790
HWHAT	0.15930	3.855	0.75128	0.28310
SWHAT	2.4179	52.417	0.55250	0.22541
YHAT	-0.34980E-02	0.000	136.54825	43.44019
FERT	0.35876E-02	0.488	1.23370	1.03757
CHMAR	-0.33286E-01	-0.670	0.02310	0.15027
CH	0.17733E-01	1.565	0.39742	0.69499
AD	0.25186E-02	0.285	2.49524	0.88954

6. 취업율 probit 함수의 추정결과 (배우자)
SPEMP (PROB)

변 수	추정계수	T-RATIO	평균	표준편차
ONE	-58.642	-2.144	1.00000	0.00000
SPACE	1.9716	6.301	35.56208	9.44460
SPASQ	-0.23812E-01	-6.119	1355.21762	752.39041
SPEDU	-5.5873	-7.392	2.20256	1.07254
SPSEX	11.644	0.444	0.99393	0.07741
HWHAT	3.8980	2.921	0.75000	0.27052
BWHAT	44.078	0.233	0.55913	0.22407
YEAT	-0.60626E-01	-6.260	133.96270	40.34329
FERT	0.12816E-01	0.074	1.29064	1.03000
CHMAR	-3.2407	-0.548	0.01506	0.12184
CH	-0.47006	-1.671	0.38931	0.69757
AD	0.18700	0.859	2.45783	0.85569

II. 품목별 소비지출합수의 추정결과

1. 식료품

$$\bar{R}^2 = 0.581$$

$$n = 4802$$

$$F = 155.9$$

변 수	자유도	모수추정치	T FOR HO: PARAMETER=0
INTERCEP	1	3.47844493	17.241
LOGX	1	0.81231705	43.715
LOGN	1	0.21549627	9.300
EMPEE	1	-0.02479024	-2.103
YH1	1	-0.13854705	-2.420
YH2	1	-0.17771777	-3.791
YH3	1	-0.07585510	-2.377
YH4	1	-0.07903982	-2.770
YH5	1	-0.04502681	-1.769
YH6	1	-0.001825978	-0.072
YH7	1	0.02883614	1.070
YS1	1	0.21775097	2.373
YS2	1	-0.08061417	-1.974
YS3	1	-0.003073953	-0.131
YS4	1	-0.01095378	-0.345
YS5	1	-0.06742891	-1.367
YS6	1	-0.11042928	-1.280
YS7	1	-0.02104956	-0.228
YS8	1	0.33949028	1.358
V6	1	0.02804566	2.805
V7	1	0.007357835	1.716
ASQ	1	-0.000071759	-1.386
S	1	-0.07413062	-3.953
E1	1	0.07137315	1.992
E2	1	0.05615078	1.562
E3	1	0.02625579	0.729
E4	1	0.02193941	0.569
HOUS	1	-0.03169020	-2.597
M1	1	-0.17867086	-6.966
M2	1	-0.37839334	-14.674
M3	1	-0.25907537	-10.528
M4	1	-0.12426674	-4.814
M5	1	-0.10842896	-4.339
M6	1	-0.11748920	-4.646
M7	1	-0.08381756	-3.309
M8	1	-0.04810311	-1.907
M9	1	-0.04525080	-1.832
M10	1	-0.06138205	-2.522
M11	1	-0.08564708	-3.475
F0	1	0.13841174	7.214
F1	1	0.12050297	8.551
F2	1	0.10072327	6.059
HF2	1	0.04025283	-2.217
CF2	1	-0.24392194	-4.191

2. 주 거 비

$\bar{R}^2 = 0.507$

$n = 4723$

$F = 114.1$

변 수	자유도	모수추정치	T FOR HO: PARAMETER=0
INTERCEP	1	1.24915229	4.130
SEX	1	0.72739522	34.526
LOGN	1	0.07051451	2.042
ENDER	1	-0.06594841	-3.741
YH1	1	0.20692028	2.404
YH2	1	0.17117146	2.429
YH3	1	0.09872473	2.077
YH4	1	0.13320553	3.138
YH5	1	0.14140014	3.742
YH6	1	0.09895289	2.608
YH7	1	0.01202520	0.301
YS1	1	0.05218727	0.372
YS2	1	-0.13733804	-2.260
YS3	1	-0.05959366	-1.707
YS4	1	-0.01313353	-0.278
YS5	1	-0.10943898	-1.500
YS6	1	0.14442472	1.133
YS7	1	-0.05991220	-0.439
YS8	1	0.60970201	1.650
V6	1	-0.06280828	-4.216
V7	1	0.008861830	1.384
AGE	1	-0.000102915	-1.332
S	1	0.05686666	2.026
E1	1	0.07183502	1.349
E2	1	0.14996369	2.806
E3	1	0.26214714	4.894
E4	1	0.40910757	7.137
HOWS	1	0.34936472	19.268
M1	1	0.05336300	1.397
M2	1	0.18557157	4.811
M3	1	0.08679641	2.373
M4	1	0.10361148	2.688
M5	1	0.12795890	3.436
M6	1	0.15118583	4.016
M7	1	0.16245570	4.303
M8	1	0.09374132	2.484
M9	1	0.15014802	4.074
M10	1	0.08580377	2.362
M11	1	0.10542202	2.865
F0	1	-0.01204734	-0.420
F1	1	-0.01306401	-0.623
F2	1	0.01068276	0.429
HF2	1	-0.13782133	-3.378
CF2	1	-0.38761920	-4.501

3. 광열·수도

$\bar{R}^2 = 0.248$

$n = 4732$

$F = 37.2$

변 수	자유도	모수추정치	T FOR HO: PARAMETER=0
INTERCEP	1	5.01551891	11.497
LOGX	1	0.35059436	11.584
LOGN	1	0.36956625	7.397
EMPEE	1	-0.12624770	-4.965
YH1	1	-0.45826810	-3.729
YH2	1	-0.25436240	-2.507
YH3	1	-0.26195599	-3.790
YH4	1	-0.20541071	-3.326
YH5	1	-0.16151833	-2.933
YH6	1	-0.16753942	-3.033
YH7	1	-0.06781833	-1.162
YS1	1	-0.01357029	-0.067
YS2	1	0.08188941	0.936
YS3	1	-0.03523781	-0.697
YS4	1	-0.09490289	-1.386
YS5	1	0.000937213	0.009
YS6	1	-0.01405840	-0.076
YS7	1	-0.17857040	-0.904
YS8	1	0.61224588	1.144
V6	1	0.007248594	0.337
V7	1	0.01853699	1.994
ASQ	1	-0.000180300	-1.608
S	1	0.03273091	0.808
E1	1	-0.03079796	-0.397
E2	1	0.05671981	0.729
E3	1	0.01198535	0.154
E4	1	0.12615973	1.514
HQUS	1	0.04691406	1.781
M1	1	-0.05253105	-0.953
M2	1	-0.14585331	-2.627
M3	1	-0.16124700	-3.044
M4	1	-0.32743126	-5.895
M5	1	-0.60349581	-11.227
M6	1	-0.71111251	-12.977
M7	1	-0.74674333	-13.677
M8	1	-0.61735572	-11.310
M9	1	-0.29293980	-5.515
M10	1	-0.21183505	-4.046
M11	1	-0.12430354	-2.345
F0	1	0.09917637	2.397
F1	1	0.11676941	3.840
F2	1	0.08403565	2.339
HF2	1	-0.03811340	-0.647
CF2	1	-0.14490062	-1.158

4. 집기·용품

$\bar{R}^2 = 0.251$

$n = 4640$

$F = 37.2$

변 수	자유도	모수추정치	T FOR H0: PARAMETER=0
INTERCEP	1	-6.15473318	-8.909
LOGX	1	1.28913392	26.807
LOGN	1	-0.34083595	-4.304
EMPEE	1	0.04281718	1.060
YH1	1	-0.44032283	-2.245
YH2	1	-0.36384777	-2.241
YH3	1	-0.38465008	-3.527
YH4	1	-0.27215374	-3.007
YH5	1	-0.30986413	-3.583
YH6	1	-0.21443249	-2.471
YH7	1	-0.21408555	-2.344
YS1	1	-0.03243333	-0.102
YS2	1	0.09567760	0.675
YS3	1	0.009030701	0.113
YS4	1	0.13715636	1.267
YS5	1	0.24125286	1.413
YS6	1	-0.13467618	-0.437
YS7	1	0.23367064	0.744
YS8	1	0.29656523	0.353
V6	1	-0.003263973	-0.095
V7	1	-0.04154278	-2.801
ASQ	1	0.000462152	2.580
S	1	-0.14925079	-2.310
E1	1	-0.01732255	-0.139
E2	1	-0.04859364	-0.389
E3	1	-0.09570506	-0.773
E4	1	-0.15525702	-1.166
HOUS	1	-0.12784775	-3.053
M1	1	-0.30178122	-3.447
M2	1	-0.13414332	-1.521
M3	1	-0.14414844	-1.723
M4	1	-0.04945442	-0.561
M5	1	0.07043093	0.828
M6	1	0.24582883	2.858
M7	1	0.29410227	3.423
M8	1	0.18897737	2.204
M9	1	0.01894924	0.226
M10	1	-0.21343072	-2.580
M11	1	0.07561512	0.901
F0	1	0.03868587	0.589
F1	1	-0.15199779	-3.143
F2	1	-0.10665138	-1.888
HFF2	1	-0.45307188	-4.870
CF2	1	-1.12292181	-5.729

5. 피복·신발

$$\bar{R}^2 = 0.209$$

$$n = 4410$$

$$F = 28.1$$

변 수	자유도	모수추정치	T FOR HO: PARAMETER=0
INTERCEP	1	-2.19891360	-3.152
LOGX	1	0.79779755	20.727
LOGN	1	0.01448656	0.183
EMPEE	1	-0.06234684	-1.558
YH1	1	-0.62882549	-3.190
YH2	1	-0.34227361	-2.085
YH3	1	-0.41540678	-3.810
YH4	1	-0.30096775	-3.119
YH5	1	-0.17418774	-2.031
YH6	1	-0.21684694	-2.553
YH7	1	-0.07801869	-0.866
YS1	1	0.29957367	0.901
YS2	1	0.22647143	1.613
YS3	1	0.06040244	0.769
YS4	1	0.26855338	2.508
YS5	1	-0.05786104	-0.347
YS6	1	0.44315242	1.486
YS7	1	0.10074018	0.336
YS8	1	-0.36768660	-0.452
V6	1	0.08145848	2.395
V7	1	-0.02521334	-1.693
ASQ	1	0.000263322	1.462
S	1	0.14031896	2.165
E1	1	-0.23278711	-1.875
E2	1	-0.17897023	-1.437
E3	1	-0.18967196	-1.518
E4	1	-0.24522602	-1.837
HOUS	1	-0.17286102	-4.186
M1	1	-0.14395638	-1.643
M2	1	-0.42242510	-4.717
M3	1	-0.18097528	-2.162
M4	1	-0.11480980	-1.319
M5	1	-0.06589340	-0.785
M6	1	-0.18390240	-2.160
M7	1	-0.28261935	-3.334
M8	1	-0.47625127	-5.631
M9	1	-0.26422620	-3.197
M10	1	-0.03171341	-0.386
M11	1	-0.16304525	-1.959
F0	1	0.09527953	1.474
F1	1	0.07706639	1.603
F2	1	0.20675992	3.641
HF2	1	-0.18321989	-2.057
CF2	1	-0.41163784	-2.134

6. 보전·의료

$$\bar{R}^2 = 0.148$$

$$n = 4173$$

$$F = 17.9$$

변 수	자유도	모수추정치	T FOR H0: PARAMETER=0
INTERCEP	1	-5.13997750	-5.705
LOGX	1	1.14890276	18.477
LOGN	1	-0.04412810	-0.434
EMPEE	1	0.08286606	1.614
YH1	1	-0.30247990	-1.172
YH2	1	-0.21058715	-1.006
YH3	1	-0.28812218	-2.070
YH4	1	-0.29105296	-2.259
YH5	1	-0.19221131	-1.750
YH6	1	-0.19424570	-1.766
YH7	1	-0.07374262	-0.633
YS1	1	-0.34206118	-0.823
YS2	1	0.08440138	0.463
YS3	1	-0.01796762	-0.177
YS4	1	0.26580977	1.883
YS5	1	-0.07831385	-0.374
YS6	1	-0.18228302	-0.472
YS7	1	0.24093044	0.620
YS8	1	-1.58637921	-1.561
V6	1	-0.03075605	-0.696
V7	1	-0.01575897	-0.813
ASQ	1	0.000157212	0.672
S	1	-0.10560570	-1.245
E1	1	-0.03097050	-0.194
E2	1	-0.20005786	-1.254
E3	1	-0.27604455	-1.728
E4	1	-0.53462303	-3.130
HOUS	1	-0.04250600	-0.801
M1	1	0.47403653	4.185
M2	1	0.49898997	4.384
M3	1	0.49926816	4.610
M4	1	0.67919833	6.047
M5	1	0.37871813	3.445
M6	1	0.46332875	4.163
M7	1	0.44703615	4.045
M8	1	0.52383532	4.765
M9	1	0.46865755	4.316
M10	1	0.27566507	2.582
M11	1	0.33167620	3.064
F0	1	0.29597803	3.546
F1	1	-0.07440179	-1.207
F2	1	-0.30368505	-4.117
HF2	1	-0.42153873	-3.527
CF2	1	-0.55845714	-2.182

7. 교육·오락

$\bar{R}^2 = 0.394$

n = 4363

F = 66.9

변 수	자유도	모수추정치	T FOR H0: PARAMETER=0
INTERCEP	1	-9.88154561	-12.712
LOGX	1	1.30983635	24.645
LOGN	1	0.17378460	2.020
EMPEE	1	-0.07650831	-1.749
YH1	1	-0.08591072	-0.396
YH2	1	-0.25774514	-1.510
YH3	1	-0.16850246	-1.431
YH4	1	-0.26003522	-2.498
YH5	1	-0.25233519	-2.742
YH6	1	-0.16512427	-1.795
YH7	1	-0.13148033	-1.360
YS1	1	-0.27677418	-0.761
YS2	1	0.10435908	0.670
YS3	1	0.15766522	1.819
YS4	1	0.04040597	0.338
YS5	1	0.15145883	0.847
YS6	1	0.25914828	0.821
YS7	1	0.29540381	0.902
YS8	1	-0.82557897	-0.930
V6	1	-0.03920437	-1.061
V7	1	0.10412674	6.270
ASR	1	-0.001211884	-5.988
S	1	0.30038424	4.274
E1	1	0.21115119	1.535
E2	1	0.13272435	0.962
E3	1	0.20234011	1.461
E4	1	0.21468407	1.461
HOUS	1	0.04518890	1.007
M1	1	-0.29419442	-3.026
M2	1	0.44751061	4.629
M3	1	0.44335979	4.861
M4	1	0.05191323	0.547
M5	1	0.16922110	1.828
M6	1	0.11086763	1.178
M7	1	0.009873757	0.105
M8	1	0.24192469	2.579
M9	1	0.03950993	0.430
M10	1	-0.17598210	-1.938
M11	1	0.002088228	0.023
F0	1	-0.07490729	-1.035
F1	1	0.38306717	7.293
F2	1	0.33596283	5.493
HF2	1	1.39784561	14.326
CF2	1	1.03327547	4.993

8. 교통·통신

$\bar{R}^2 = 0.256$

F = 38.8

n = 4725

변 수	자유도	모수추정치	T FOR HO: PARAMETER=0
INTERCEP	1	-0.58405843	-1.179
LOGX	1	0.77898223	22.694
LOGN	1	0.03168805	0.561
EMPEE	1	-0.03115911	-1.082
YH1	1	-0.01511653	-0.107
YH2	1	-0.01077485	-0.093
YH3	1	-0.05735681	-0.744
YH4	1	-0.02479628	-0.357
YH5	1	-0.007540905	-0.122
YH6	1	0.10389671	1.676
YH7	1	-0.02740603	-0.419
YS1	1	-0.47504807	-2.066
YS2	1	0.09781757	0.971
YS3	1	-0.08074386	-1.412
YS4	1	-0.01128800	-0.145
YS5	1	0.09801548	0.812
YS6	1	0.006426686	0.031
YS7	1	-0.35278896	-1.579
YS8	1	-0.12550140	-0.207
V6	1	0.09682164	3.975
V7	1	-0.001806691	-0.170
ASQ	1	0.000032096	0.250
S	1	0.15884622	3.466
E1	1	0.05872096	0.669
E2	1	0.04657345	0.530
E3	1	0.12801772	1.454
E4	1	0.17672774	1.879
HOUS	1	0.03820879	1.281
M1	1	0.12828687	2.048
M2	1	0.07530872	1.199
M3	1	0.001876266	0.031
M4	1	0.09836107	1.559
M5	1	0.05563644	0.915
M6	1	0.15552738	2.522
M7	1	0.11783424	1.903
M8	1	0.19701301	3.211
M9	1	0.02703528	0.449
M10	1	0.22731940	3.844
M11	1	0.01594798	0.265
F0	1	-0.16708390	-3.546
F1	1	-0.19818694	-4.575
F2	1	0.06656632	1.644
HF2	1	-0.06788046	-1.027
CF2	1	-0.00620589	-0.356

9. 기 타

$R^2 = 0.413$
 $F = 78.9$
 $n = 4769$

변 수	자유도	모수추정치	T FOR H0: PARAMETER=0
INTERCEP.	1	-3.84546180	-7.937
LOGX	1	1.15351530	34.269
LOGN	1	-0.21138944	-3.814
EMPEE	1	0.21663469	7.660
YH1	1	-0.29872353	-2.170
YH2	1	-0.60260699	-5.367
YH3	1	-0.41151997	-5.388
YH4	1	-0.41366855	-6.063
YH5	1	-0.28144281	-4.631
YH6	1	-0.24442586	-4.005
YH7	1	-0.13292750	-2.065
YS1	1	-0.28367756	-1.295
YS2	1	0.06486381	0.665
YS3	1	-0.01361722	-0.243
YS4	1	-0.19595794	-2.586
YS5	1	0.23175582	1.968
YS6	1	0.29789777	1.447
YS7	1	0.22047915	1.002
YS8	1	0.09187477	0.154
V6	1	0.05720933	2.385
V7	1	-0.009383005	-0.914
ASQ	1	0.000166671	1.345
S	1	-0.04070868	-0.903
E1	1	-0.01244416	-0.144
E2	1	0.06171656	0.714
E3	1	0.07264879	0.839
E4	1	0.11152929	1.205
HOUS	1	-0.14948795	-5.111
M1	1	0.23792983	3.887
M2	1	0.12425270	2.019
M3	1	0.07353570	1.248
M4	1	0.10065496	1.628
M5	1	-0.09722367	-1.626
M6	1	-0.01641695	-0.272
M7	1	-0.17218886	-2.843
M8	1	-0.13821175	-2.293
M9	1	-0.23958612	-4.058
M10	1	0.14562513	2.503
M11	1	0.001935881	0.033
F0	1	-0.21231725	-4.626
F1	1	-0.28399158	-8.401
F2	1	-0.13047059	-3.276
HF2	1	-0.21714308	-3.345
CF2	1	-0.81867342	-2.294

Ⅲ. Grouping시 소비함수의 추정결과

1. 총계화 소비함수의 추정결과 ($\log X_{agg}$)

	log X	log N	Fertility				
			0-5	6-13	14-19	HS 14-19	Col 14-19
식 · 주 · 광	0.669	0.166	0.0897	0.0673	0.0529	-0.0948	-0.289
	$S_i = 0.502$		$e_i = 0.540$	0.405	0.319	-0.252	-1.422
식 · 주 · 광 · 통	0.679	0.146	0.0645	0.0468	0.0511	-0.0987	-0.262
	$S_i = 0.455$		$e_i = 0.442$	0.321	0.350	-0.326	-1.445
식 · 주 · 광 · 통 · 집	0.760	0.094	0.0546	0.0305	0.0312	-0.121	-0.325
	$S_i = 0.392$		$e_i = 0.581$	0.324	0.332	-0.955	-3.126
식 · 주 · 광 · 통 · 집 · 피	0.789	0.0767	0.0504	0.0304	0.0394	-0.130	-0.343
	$S_i = 0.364$		$e_i = 0.657$	0.396	0.514	-1.181	-3.958
피 · 보 · 기 · 육 · 통 · 집	1.411	-0.206	-0.111	-0.0837	-0.0468	0.159	0.166
	$S_i = 0.501$		$e_i = 0.539$	0.406	0.227	-0.545	-0.579
피 · 보 · 기 · 육 · 집	1.517	-0.221	-0.0879	-0.0663	-0.0496	0.213	0.156
	$S_i = 0.427$		$e_i = 0.398$	0.300	0.224	-0.739	-0.481
피 · 보 · 기 · 육	1.448	-0.161	-0.0779	-0.0426	-0.0244	0.287	0.258
	$S_i = 0.359$		$e_i = 0.484$	0.265	0.152	-1.631	-1.451
보 · 기 · 육	1.487	-0.156	-0.0972	-0.0704	-0.0615	0.403	0.344
	$S_i = 0.320$		$e_i = 0.623$	0.451	0.394	-2.189	-1.811

2. 총계화 소비함수의 추정결과 (k_i)

	log X	log N	Fertility				
			0-5	6-13	14-19	HS 14-19	Col 14-19
식·주·광	-0.161	0.0799	0.0427	0.0316	0.0227	-0.0592	-0.107
	$S_i = 0.496$	$e_i = 0.534$	0.395	0.284	-0.457	-1.055	
식·주·광·통	-0.171	0.0762	0.0317	0.0227	0.0238	-0.0666	-0.103
	$S_i = 0.446$	$e_i = 0.416$	0.298	0.312	-0.562	-1.039	
식·주·광·통·집	-0.132	0.0501	0.0288	0.0152	0.0141	-0.0834	-0.141
	$S_i = 0.380$	$e_i = 0.575$	0.303	0.281	-1.383	-2.533	
식·주·광·통·집·피	-0.122	0.0441	0.0299	0.0179	0.0213	-0.0963	-0.163
	$S_i = 0.361$	$e_i = 0.678$	0.406	0.483	-1.701	-3.213	

3. Logit 함수의 추정결과 : 식료품, 주거비, 광열·수도비

$R^2 = 0.274$

$F = 68.2$

$n = 4800$

변수	자유도	모수추정치	T FOR HO: PARAMETER=0
INTERCEP	1	9.06726437	30.045
LOGX	1	-0.73863718	-32.310
LOGN	1	0.37037640	9.690
EMPEE	1	-0.11424404	-5.952
YH	1	-3.32993E-08	-0.888
YB	1	-8.55224E-08	-0.836
NEMP	1	-0.04816145	-3.054
AGE	1	0.02249385	3.214
ASQ	1	-0.000245304	-2.903
S	1	-0.03368524	-1.140
EDU	1	0.02009401	6.571
HOUS	1	0.28848688	14.277
M1	1	-0.15485598	-3.643
M2	1	-0.29318364	-6.861
M3	1	-0.26289424	-6.439
M4	1	-0.13996435	-3.275
M5	1	-0.18635254	-4.498
M6	1	-0.13718148	-3.270
M7	1	-0.10091024	-2.402
M8	1	-0.12859276	-3.072
M9	1	0.03670895	0.897
M10	1	-0.06181229	-1.534
M11	1	-0.03840527	-0.942
F0	1	0.19776598	6.257
F1	1	0.15070032	6.469
F2	1	0.09889902	3.603
HF2	1	-0.25530219	-5.690
CF2	1	-0.45769658	-4.745

4. Logit 함수의 추정결과 : 식료품, 주거비, 광열·수도비, 교통·통신비

$\bar{R}^2 = 0.282$

F = 70.7

n = 4800

변 수	자유도	모수추정치	T FOR HO: PARAMETER=0
INTERCEP	1	10.56972225	32.130
LOGX	1	-0.83401103	-33.468
LOGN	1	0.36502295	8.761
EMPEE	1	-0.14585405	-6.971
YH	1	-4.36127E-08	-1.067
YS	1	-1.18898E-07	-1.066
NEMP	1	-0.02675204	-1.556
AGE	1	0.01951754	2.558
ASQ	1	-0.000202143	-2.195
S	1	-0.000853186	-0.026
EDU	1	0.02603936	7.812
HOUS	1	0.31144661	14.140
M1	1	-0.14580764	-3.147
M2	1	-0.30151340	-6.473
M3	1	-0.28765381	-6.464
M4	1	-0.15220920	-3.267
M5	1	-0.20647540	-4.572
M6	1	-0.12235113	-2.675
M7	1	-0.10027026	-2.190
M8	1	-0.09791692	-2.146
M9	1	0.03261046	0.731
M10	1	-0.03065980	-0.698
M11	1	-0.04143810	-0.932
F0	1	0.14941946	4.337
F1	1	0.11287127	4.445
F2	1	0.09983774	3.336
HF2	1	-0.31317222	-6.404
CF2	1	-0.42050035	-3.999

5. Logit 함수의 추정결과 : 식료품, 주거·광열비, 교통·통신비, 집기

$R^2 = 0.218$

F = 50.6

n = 4800

변수	자유도	모수추정치	T FOR H0: PARAMETER=0
INTERCEP	1	9.20112058	25.983
LOGX	1	-0.68655142	-25.593
LOGN	1	0.25424898	5.669
EMPEE	1	-0.12966793	-5.757
YH	1	-5.94674E-08	-1.351
YS	1	-8.15409E-08	-0.679
NEMP	1	-0.02783376	-1.504
AGE	1	0.01211801	1.476
ASQ	1	-0.000128071	-1.292
S	1	-0.03060936	-0.883
EDU	1	0.01887174	5.259
HOUS	1	0.28289815	11.932
M1	1	-0.16460217	-3.300
M2	1	-0.29066046	-5.796
M3	1	-0.27948301	-5.834
M4	1	-0.15338286	-3.059
M5	1	-0.13764789	-2.831
M6	1	-0.01439149	-0.292
M7	1	0.02439943	0.495
M8	1	-0.03480169	-0.708
M9	1	0.07561056	1.574
M10	1	-0.03899572	-0.825
M11	1	-0.01354297	-0.283
F0	1	0.12955550	3.493
F1	1	0.07314179	2.676
F2	1	0.05512361	1.711
HF2	1	-0.40750611	-7.741
CF2	1	-0.58317966	-5.152

6. Logit 함수의 추정결과 : 식료품, 주거·광열비,
교통통신비, 집기, 피복, 신발비

$R^2 = 0.203$

$F = 46.4$

$n = 4800$

변 수	자유도	모수추정치	T FOR HO: PARAMETER=0
INTERCEP	1	10.24556445	25.907
LOGX	1	-0.69853623	-23.317
LOGN	1	0.23220812	4.636
EMPEE	1	-0.14735457	-5.858
YH	1	-1.89164E-08	-0.385
YS	1	-2.35879E-08	-0.176
NEMP	1	0.003696685	0.179
AGE	1	-0.009262274	-1.010
ASQ	1	0.000102009	0.921
S	1	-0.01309578	-0.338
EDU	1	0.01440464	3.595
HOUS	1	0.24728924	9.339
M1	1	-0.22992018	-4.127
M2	1	-0.44876825	-8.013
M3	1	-0.38064713	-7.115
M4	1	-0.21422106	-3.825
M5	1	-0.19720008	-3.632
M6	1	-0.08977885	-1.633
M7	1	-0.04204080	-0.764
M8	1	-0.17247483	-3.144
M9	1	0.05421163	1.010
M10	1	-0.07239912	-1.371
M11	1	-0.04766679	-0.892
F0	1	0.14727758	3.556
F1	1	0.10078357	3.301
F2	1	0.10080140	2.802
HF2	1	-0.53308873	-9.067
CF2	1	-0.68722152	-5.436

7. Logit 함수의 추정결과: 식료품, 주거·광열수도비,
교통·통신비:(log income)

aeu
 F_0 0.404
 F_1 0.309
 F_2 0.271
 HF_2 - 0.585
 CF_2 - 0.888

변 수	자유도	모수추정치	T FOR H ₀ : PARAMETER=0
INTERCEP	1	10.71536752	35.166
LOGX	1	-0.84962398	-34.600
LOGN	1	0.36277913	8.688
EMPEE	1	-0.14246607	-6.729
LOGYH	1	0.002951989	0.160
LOGYS	1	-0.004374080	-1.650
NEMP	1	-0.01808430	-1.008
AGE	1	0.01960764	2.542
ASQ	1	-0.000203404	-2.182
S	1	0.001027012	0.031
EDU	1	0.02482369	7.477
HOUS	1	0.31101695	14.119
M1	1	-0.14290682	-3.088
M2	1	-0.29678728	-6.377
M3	1	-0.28471029	-6.403
M4	1	-0.14887047	-3.200
M5	1	-0.20132699	-4.470
M6	1	-0.11899927	-2.606
M7	1	-0.09813026	-2.145
M8	1	-0.09178423	-2.016
M9	1	0.03386576	0.759
M10	1	-0.02669545	-0.609
M11	1	-0.03847896	-0.867
F0	1	0.14639924	4.241
F1	1	0.11200088	4.415
F2	1	0.09832372	3.284
HF2	1	-0.31069249	-6.351
CF2	1	-0.42062491	-4.001

IV. 가구수, 가구원 구성 및 가구의 경제·인구 특성

1. 가구주 및 배우자의 나이에 따른 유배우 가구수 및 가구원 구성 (1985)

	0 ~ 30	30 ~ 40	40 ~ 50	50 ~ 60	60 ~	계
가구주에 따른 분류						
1985가 구 수 (H)	942,474	2,552,768	2,104,310	1,341,940	849,844	7,791,336
1985 가구원수 (F)	3,1927	4,2505	4,7244	4,3510	3,5105	4,1867
0 ~ 14	0,9434	1,9401	1,4321	0,4298	0,3854	1,2526
15 ~ 17	0,0257	0,0481	0,6300	0,4213	0,1146	0,2741
18 ~ 19	0,0411	0,0128	0,2587	0,3085	0,0799	0,1404
20 ~ 24	0,4524	0,0815	0,2147	0,6340	0,3021	0,2816
25 ~	1,7301	2,1680	2,1889	2,5574	2,6285	2,2380
배우자에 따른 분류						
1985가 구 수 (H)	2,110,673	2,614,772	1,686,824	991,837	387,229	7,791,336
1985 가구원수 (F)	3,5717	4,5568	4,6352	4,0161	3,3630	4,1787
0 ~ 14	1,3003	2,0710	0,7987	0,3182	0,3973	1,2805
15 ~ 17	0,0188	0,2140	0,7044	0,2433	0,0822	0,2645
18 ~ 19	0,0264	0,0436	0,4041	0,1845	0,0479	0,1351
20 ~ 24	0,2915	0,0467	0,4387	0,6070	0,1781	0,2757
25 ~	1,9847	2,1815	2,2893	2,6631	2,6575	2,2229

자료: 가구주 { 가구수: 1985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p.266, p.370.

 { 가구원수: 1986 ESS 집계 결과

 * 계는 가구수에 의하여 가중 평균한 수치임.

배우자 { 가구수: 1986 ESS의 배우자 연령구성비를 총가구수 (7,791,336)
 { 에 적용하여 산출.

 { 가구원수: 1986 ESS 집계 결과

 * 계는 가구수에 의하여 가중 평균한 수치임.

 이상적으로는 가구수에 따른 분류와 마찬가지로 되어야
 하나 가구수의 구성비 적용에 따른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를 보임.

2. 가구주 및 배우자의 나이에 따른
유배우 가구수 및 가구원 구성 (1966)

	0~30	30~40	40~50	50~60	60 ~	계
가구주에 따른 분류						
유배우가구수 (H)	538,550	1,390,190	1,138,790	762,290	400,600	4,230,420
배우자에 따른 분류						
배우자수 (H)	1,335,992	1,398,940	832,461	453,505	214,521	4,230,420
가구원수 (F)	5.19	6.52	5.81	4.86	4.58	5.69
0 ~ 14	2.86	3.57	1.95	1.09	1.20	2.58
15 ~ 17	0.05	0.37	0.58	0.40	0.20	0.33
18 ~ 19	0.02	0.19	0.28	0.20	0.10	0.16
20 ~ 24	0.45	0.13	0.58	0.55	0.36	0.38
25 ~	1.81	2.26	2.42	2.62	2.72	2.24

자료: ① 가구주·배우자수: 1966 인구 센서스 보고 p.460, p.69.

* 배우자수는 여자 유배우자의 구성비를 적용하여 산출

* 여자 유배우자수	1,585,075	1,653,827	987,666	538,057	254,517	5,019,142
	(0.316)	(0.330)	(0.197)	(0.107)	(0.051)	(1.000)

② 가구원수: Homes 모형의 1960년도 추계치임.

3. 가구주의 연령 계층별 가구의 경제·인구 특성

	all	with spouse					no spouse	
		$a_A \leq 30$	$30 \leq a_A < 40$	$40 \leq a_A < 50$	$50 \leq a_A < 60$	$60 \leq a_A$	male head	female head
a_A	41.7296	27.2391	34.2083	44.3648	53.8106	65.9201	33.9719	44.1386
HDEDU	2.4438	3.0334	2.9411	2.3894	2.0681	1.4340	2.7275	1.8702
HDSEX	0.8478	0.9974	0.9990	0.9935	0.9851	0.9861	1.0000	0.0000
EMPEE	0.5070	0.7892	0.6444	0.5278	0.3638	0.1111	0.5787	0.3140
NEMP	1.4117	1.2365	1.3281	1.5977	2.0872	1.6910	1.1039	0.9228
EXP	2.6783	0.6555	1.7692	4.0854	6.7064	6.8854	0.0000	0.0000
HWHAT	0.7238	0.4814	0.5459	0.7138	1.1092	1.7241	0.5138	0.5287
y_A (2.5 만원)	10.2844	12.4036	13.8919	12.7594	9.1340	3.3611	8.8989	4.3509
h_A	49.1835	57.1183	56.8193	55.1164	48.7213	27.5590	48.2669	33.9649
a_A	29.0484	25.1594	30.6326	40.0285	49.5191	59.2222	0.0000	0.0000
SPEDU	1.4332	2.5861	2.3998	1.7322	1.1851	0.6701	0.0000	0.0000
SPSEX	0.7560	0.9974	0.9990	0.9935	0.9851	0.9896	0.0000	0.0000
SEXP	2.4516	0.4550	1.4136	3.4709	6.4872	7.3785	0.0000	0.0000
SWHAT	0.9922	0.6553	0.6280	0.6262	0.8185	0.9839	1.9303	1.9303
y_A (2.5 만원)	0.9125	0.8252	1.0344	1.7516	1.1617	0.8750	0.0000	0.0000
h_A	13.6136	9.3933	13.5167	24.3596	23.0915	19.1181	0.0000	0.0000
CH ₀₁₄	1.0613	0.9434	1.9401	1.4321	0.4298	0.3854	0.2893	0.4140
CH ₁₅₁₇	0.2593	0.0257	0.0481	0.6300	0.4213	0.1146	0.1657	0.2912
CH ₁₆₁₉	0.1387	0.0411	0.0128	0.2587	0.3085	0.0799	0.1348	0.1596
CH ₁₄₁₉	0.3980	0.0668	0.0609	0.8887	0.7298	0.1944	0.3006	0.4509
CH ₂₀₂₄	0.2935	0.4524	0.0815	0.2147	0.6340	0.3021	0.3174	0.3702
CH ₁₈₂₄	0.4322	0.4936	0.0943	0.4735	0.9426	0.3819	0.4522	0.5298
AD	2.2614	2.1825	2.2495	2.4036	3.1915	2.9306	1.5758	1.4667
AD ₂₅	1.9679	1.7301	2.1680	2.1889	2.5574	2.6285	1.2584	1.0965
YHAT	176.9835	123.8040	124.2623	130.5985	169.6569	246.6624	274.0947	280.5218
X	32.4224	30.6787	34.9342	41.3959	36.9766	28.5799	23.7444	20.5632
X/YHAT	0.2330	0.2517	0.2929	0.3431	0.2615	0.1517	0.0854	0.0733
표본 수	3864	389	1018	773	470	288	356	570
(구성비)	(1.000)	(0.101)	(0.263)	(0.200)	(0.122)	(0.075)	(0.092)	(0.148)

4. 배우자의 연령 계층별 가구의 경제·인구 특성

	$a_s < 30$	$30 \leq a_s < 40$	$40 \leq a_s < 50$	$50 \leq a_s < 60$	$60 \leq a_s$
a_h	29.9397	38.3438	48.4119	57.9759	67.6575
HD EDU	2.9296	2.7799	2.2579	1.8717	1.3493
HDSEX	1.0000	0.9970	0.9921	0.9947	0.9452
EMPEE	0.7374	0.5913	0.4654	0.2540	0.0890
NEMP	1.2500	1.3895	1.8270	2.1364	1.4384
EXP	0.8442	2.5284	5.7516	7.4947	4.9521
HWHAT	0.4876	0.6005	0.9019	1.3859	1.6472
y_h (2.5 만)	12.7437	13.9006	11.1336	7.2112	3.1712
h_h	57.0842	56.2343	52.8066	41.3930	24.3151
a_s	26.1432	34.1917	44.4418	53.4759	64.7603
SPEDU	2.4862	2.1978	1.5220	0.9198	0.5479
SPSEX	1.0000	0.9980	0.9921	0.9947	0.9452
SEXP	0.6357	1.9970	5.0818	7.7727	5.8836
SWHAT	0.6376	0.6040	0.7136	0.9154	1.0066
y_s (2.5 만)	0.7412	1.5426	1.4733	1.1765	0.2603
h_s	9.6985	18.6552	25.0660	23.5775	11.8425
CH ₀₁₄	1.3003	2.0710	0.7987	0.3182	0.3973
CH ₁₅₁₇	0.0188	0.2140	0.7044	0.2433	0.0822
CH ₁₈₁₉	0.0264	0.0436	0.4041	0.1845	0.0479
CH ₁₄₁₉	0.0452	0.2576	1.1085	0.4278	0.1301
CH ₂₀₂₄	0.2915	0.0467	0.4387	0.6070	0.1781
CH ₁₈₂₄	0.3178	0.0903	0.8428	0.7914	0.2260
AD	2.2261	2.2282	2.7280	3.2701	2.8356
AD ₂₅	1.9347	2.1815	2.2893	2.6631	2.6575
YHAT	123.1260	123.1610	149.1704	201.1198	252.4154
X	31.9497	37.0822	41.8082	33.8262	26.5068
X/YHAT	0.2654	0.3163	0.3201	0.2177	0.1355
표 본 수	796	986	636	374	146

5. 가구주의 나이에 따른 배우자의 나이 분포

가구주 나이 배우자 나이	0~30	30~40	40~50	50~60	60~	계
무 배우	333	144	163	156	130	926
0 ~ 30	381	405	9	1	0	796
30 ~ 40	8	604	365	7	2	986
40 ~ 50	0	9	392	220	15	636
50 ~ 60	0	0	5	237	132	374
60 ~	0	0	2	5	139	146
계	389	1,018	773	470	288	2,938

6. 취학대 상자녀를 가진 가구의 경제·인구 특성

	15 ~ 17	18 ~ 24
STU	0.9407	0.3324
$\ln w_h$	-0.9822	-0.7693
$\ln w_s$	-1.5349	-1.5434
$\ln Y$	12.7928	12.8971
$\ln X/Y$	0.0709	0.0518
$\ln X_o / X_{no}$	0.2048	0.3228
a_h	47.7058	52.4033
a_s	43.3117	48.4058
E_h	2.0865	1.9833
E_s	1.5583	1.2798
M_{head}	0.9828	0.9875
F_{0014}	0.8757	0.4515
F_{1517}	1.2964	0.5429
F_{1824}	0.5641	1.7424
AD_{25}	2.2199	2.3989
MCHD	0.5641	0.4626
FIRST	0.4761	0.5831
SINGLE	-	0.9695
SEOUL	0.1090	0.1593
PUSAN	0.2543	0.2341
URBAN	0.3996	0.3767
FARM	0.1836	0.2216
A_{16}	0.4359	-
A_{17}	0.7920	-
A_{19}	-	0.1690
A_{20}	-	0.1865
A_{21}	-	0.1274
A_{22}	-	0.1330
A_{23}	-	0.1357
A_{24}	-	0.1427
표 본 수	523	722

참 고 문 헌

- Altonji, J.G., 1986. 'Intertemporal Substitution in Labor Supply: Evidence from Micro Data,'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94, No.3, pt.2, s176-215.
- Barbour, J. et al., 1985. 'Empirical Testing of the Life Cycle Hypothesis.' Atlantic Economic Journal, Vol.14, No.4, pp.71-74.
- Bauer, J. and Y.S. Shin, 1987.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Wages in the Republic of Korea,' Working Papers No.54,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Honolulu,
- Becker, G. 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Economic Journal, Vol.75, September, pp.493-517.
- Becker, G. 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Harvard University Press.
- Blundell, R. and I. Walker, 1986. 'A Life-Cycle Consistent Empirical Model of Family Labour Supply Using Cross-Section Data.'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53, pp.539-558.
- Browning, M., A. Deaton, and M. Irish, 1985. 'A Profitable Approach to Labor Supply and Commodity Demands of the Life-Cycle,' Econometrica, Vol.53, No.3, pp.503-543.
- Coale, A. and E. Hoover, 1958. Population Growth and Economic

Development in Low-income Countr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Deaton, A. 1987. 'The Allocation of Goods Within the Household: Adults, Children, and Gender,' Discussion Paper #130, Woodrow Wilson School, Princeton University, Princeton, New Jersey.

Deaton, A. and J. Muellbauer, 1986. 'On Measuring Child Costs: with Applications to Poor Countri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94, No.4, pp.720-744.

Economic Planning Board(EPB), 1987a. Report on the Second Employment Structure Survey(Whole Country),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R.O. Korea.

Economic Planning Board(EPB), 1987b. Social Indicators in Korea, R.O. Korea.

Economic Planning Board(EPB), 1984. Annual Report on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R.O. Korea.

Enke, S. 1960. 'The Gains of India from Population Control,'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May, pp.175-181.

Ghez, G.R., and G.S. Becker, 1975. The Allocation of time and Goods over the Life Cycle, New York: NBER.

Heckman, J.J., and T. MaCurdy, 1980. 'A Life-Cycle Model of Female Labor Supply,'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47,

pp.244-256.

Killingsworth, M.R., 1983. Labor Supply,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e, K.S. and Y.S. Kwon, 1985. 'Structural Tax Policies for More Household Savings,' in Korean, Korea Development Review, Vol.7, No.3, pp.85-120.

MaCurdy, T.E., 1981. 'An Empirical Model of Labor Supply in a Life-Cycle Setting,'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9, pp.1059-1085.

Mason, A., 1986. "Demographic Prospects in the Republic of Korea: Population, Households, and Educator to the Year 2000," Working Papers No.43,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Honolulu, Hawaii.

Mason, A., 1987a. 'National Saving Rates and Population Growth: A New Model and New Evidence,' Reprint No.215, pp.523-560,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Honolulu, Hawaii.

Mason, A., 1987b. HOMES: A Household Model for Economic and Social Studies, Papers of the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No.106, Honolulu, Hawaii.

Nakamura, A. and M. Nakamura, 1985. 'Dynamic Models of the Labor Force Behavior of Married Women Which can be Estimated Using Limited Amounts of Past Information,' Journal of Econometrics, Vol.27, pp.273-298.

Ray, R., 1986. 'Demographic Variables and Equivalence Scales in a Flexible Demand System: the Case of AIDS,' Applied Economics, Vol.18, pp.265-278.

White, B., 1978. 'Empirical Tests of the Life Cycle Hypothesi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68, pp.547-560.

Willis, R., 1973. 'A New Approach to the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18, No.2, Part II, March-April, pp.514-569.

最近 出産力 減少要因과 展望

東亞大學校
人口問題研究所

朴在榮·金南一
卍 全·全泰允
鄭相喜

目 次

I. 序 論	153
II. 出産率의 決定要因에 관한 先行研究의 검토	156
III. 出産率의 變動推移: 1960 ~ 1985	170
1. 出産率의 變動推移	172
2. 區·市·郡單位 出産率의 變動	183
IV. 出産率 變化要因에 대한 多變數 分析	184
1. 分析모델	185
2. 資料, 方法 및 變數	187
3. 結果要約	196
V. 要約 및 意見	199
附 錄. 統 計 表	207

I. 序 論

우리나라의 출산율 추이를 보면 여자 1명당 출산아수로 표현되는 합계 출산율이 1960년대 이전에는 6.0을 상회한 것으로 추정되었고(Cho, 1974; Kwon, 1977), 1971-75년 기간에는 4.0으로(NBOS, 1984), 1981-85년 기간에는 2.1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1960년대부터 합계출산율 수준이 매 5년마다 15% 내외 감소한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는 감소속도 더욱 가속되어 매 5년마다 25% 내외의 속도로 급격히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 1980년부터 1985년사이 합계출산율이 2.9에서 1.7로 5년간 무려 40%라는 놀라운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합계출산율 1.7의 수준은 현재(1987년)의 일본과 같은 수준이다. 1985년 한국부인평균 이상자녀수가 2.0이고(인구보건연구원, 1985) 또 최근의 감소는 부인들의 가족규모에 대한 가치관 변동에 따라 현존자녀수를 감안한 출산시간계획의 변동효과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해석되고(김남일, 1987)있음을 감안한다면 단기적으로 출산수준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가까운 장래에 일시적인 출산율의 증가가 있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합계출산율 2.0이하의 낮은 출산율 수준에서 안정할 것으로 관망하고 있다.(조사통계국, 1988) 이와같은 세계출산율 역사상 짝을 찾을 수 없고 이전에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던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는 우리나라 인구의 장래전망과 기존 인구정책의 재검토를 불가피하게 하고 여기에서 오는 사회 경제적 영향에 대해 새롭게 검토하여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이러한 급격한 출산율 감소의 내용과 또한 이를 가능케한 배경요인에 대한 검토를 주목적으로 하였다. 지금까지 출산율변화 요인에 대한 연구의 접근방법은 주로 개인적인 속성과 개인의 출산율 수준간의 상관관계를 추구하는 방법을 주로 하였다. 최근에는 개인의 행동이 개인의 사회적 배경태도 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지역사회의 구조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출산형태변화요인을 연구하기 위한 분석모형은 개인과 지역사회의 속성을 함께 포함해야한다고 주장되고 있다.(IK Kim, 1987 ; Lee, 1977 ; Hong, 1976 ; Duncan, 1964)

Hermalin(1978)은 지역을 단위로 한 출산율 변화연구는 지역의 출산율 수준을 감소시키려는 정책목표와 부합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찰단위로서 구·시·군의 행정구역을 선택하였다. 지역사회 속성의 동질성이라는 점에서 동·읍·면의 행정구역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으나 자료의 이용가능성면에서 구·시·군의 선정이 불가피하였다. 연구방법은 각 지역단위의 출산수준의 분포, 지역간 연령별 출산모형의 변이 전국 출산수준의 감소와 함께 변모하는 이들의 동태에서 출산율변화요인을 검토하는 기술적 방법과 분석모형을 정하고 이에 의거 다변수 분석하는 방법을 병용하였다.

출산율의 수준에 따라 그 변화에 관련된 요인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Hermalin(1978)은 대만자료의 분석에서 같은 시점을 횡적으로 비교할 경우 낮은 출산율 수준에서는 주로 자녀양육비용을 대표하는 재학생 인구비율이 높은 출산율 수준에서는 가족계획사업변수의 영향이 지역의 합계출산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하였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종적 비교에서는 출산수준이 감소함에 따라 재학생 비율의 영

향은 지속적이거나 가족계획수용율의 영향은 차츰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Retherford(1979)는 국민의 문화 배경의 동질성, 용이한 정보 의사소통, 피임방법 수용에 있어서의 장애요인의 부재등이 그 나라에서 가족계획사업을 국가시책으로 추진할 경우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기초요건으로 설명하였다. 결국 이러한 여건이 갖춰진 경우, 사회경제발전과 함께 혼인연령의 상승, 소가족을 지향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쉽게 각 지역으로 확산되고 가족계획이란 새로운 수단의 수용을 통하여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가 가능한 것으로 풀이하였다. 그의 논리에 의하면 각 지역 단위의 대중통신기능, 외부와의 접촉 등의 중요한 역할이 강조된다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의 구성은 제 2장에서는 출산수준결정요인에 관한 국내외의 연구에 대해 분석 모델, 방법과 결과를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제 3장에서는 1960년 이후 각 인구센서스 시점에서 연령별 출산율 변화등의 특징을 분석하고, 출산수준의 변화와 관련 증개변인 및 사회경제적 변화를 단속한 통계를 이용하여 기술적으로 분석하였다. 제 4장에서는 각 지역 출산수준을 결정하는 중요요인을 알기 위해 분석모형을 작성하고 중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제 5장에서는 본 연구방법상의 한계와 장단점에 대해 논의하고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록에는 본 연구를 위해 계산되고 수집된 1960-1985년 기간의 각 구시군 지역속성의 대표값과 분포에 관한 자료, 제 3장의 기술적 분석의 기초자료로 주로 이용된 출산수준별로 분류된 각 구시군의 지역속성에 관한 자료, 또 본 연구를 위해 새로이 추계된 1981-85년 기간의 각 구시군 연령별 출산율과 합계출산율 및 추정방법(적생아방법)등을 수록하였다.

Ⅱ. 出産率의 決定要因에 관한 先行研究의 검토

말더스가 그의 인구론에서 인구와 사회경제변동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을 제시한 이래 출산력의 변동요인을 설명하려는 노력은 인구변동의 연구에서 중심적인 과제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더스 이후 출산력의 변동을 설명하려는 초기 인구이론가들의 노력은 대체로 경제발전 또는 근대화의 정도와 출산력수준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두고있다. 그러나 경제발전 또는 근대화가 출산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서는 학자들간에 상반된 견해가 제시되어온 것이 또한 사실이다. 즉 한사회의 경제발전은 그 사회의 출산수준을 억제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출산력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경제발전이 출산력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말더스이다. 말더스는 경제발전으로 인한 노동력의 수요증대는 기혼인구의 비율을 높여주며, 평균혼인연령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믿었다. 그는 이와같은 혼인패턴의 변동이 출산력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말더스의 이와같은 주장은 말더스가 살던 당시, 즉 산업혁명의 중반기에 관찰된 영국의 급격한 인구성장이 전적으로 산업혁명에 부수하여 일어났던 사망력의 저하에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뒤에 말더스이론에 대한 비판자들에 의해 잘못된 견해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역사인구학자들은 19세기초 영국의 산업혁명 기간 중 출산력이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Krause, 1954 ; Habakkuk, 1953). 이 점에 비추어 보면 경제발전이 출산력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본 말더스의 가설은 아직도 완전히 부정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와같은 설명은 출생과 혼인을 및 경기변동의 주기를 중심으로 관찰한 일련의 연구(Galbraith & Thomas, 1941; Kirk, 1942), 경기변동과 노동력의 상대적수요의 변동 및 출산력간의 관계와 관련된 분석(Easterlin, 1962) 및 가구의 경제수준과 출산력수준간의 관계에 관한 분석(Stys, 1957) 등 일련의 연구에 의해서 입증되고 있다.

이에반해 특정한 사회의 경제발전 또는 근대화수준이 그 사회의 출산력 수준을 억제한다고 보는 견해는 주로 제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점에서 널리 받아 들여졌던 인구변천이론에서 가장 간명하게 표현되고 있다(Thompson, 1946; Davis, 1949; Notestein, 1953). 이 이론에 의하면 어느 한 국가의 인구학적과정은 산업화의 단계,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 사회의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며, 특히 이 가운데서 출산수준의 변동은 경제적발전수준이 높은 단계에 있는 국가일수록 그 수준이 낮게 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같은 인구변천이론은 오늘날 여러 국가의 산업화의 정도와 출산수준간에 역상관관계가 있다는 일반적인 사실과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나 인구변천과정에서 사회경제적요인과 출산력간의 관계는 모든 인구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예컨대 사회경제적요인으로서 교육수준과 출산력간의 관계는 선진개발국가에서는 역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나(Westoff & Ryder, 1977; Easterlin, 1979),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Stycos, 1968; Cho et al., 1981). 경제·사회발전과 출산수준간의 관계에 관한 이와같은 두 개의 상반된 견해는 경제발전이 출산수준에 미치는 효과의 분석을 위하여 좀 더 정교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

David M. Heer (1966)는 근대화 또는 경제발전이 출산력수준의 저하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에 의하면 근대화 또는 경제발전과정에 부수하여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은 대체로 출산력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기여하는데 반해 경제발전 그 자체는 직접적으로 출산력수준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즉 그는 한 사회의 경제발전수준이 주로 출산력수준의 감소와 관련되는 이유는 출산력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는 경제발전의 간접효과가 출산력을 촉진시키는 경제발전의 직접적인 효과보다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근대화 또는 경제발전에 따른 출산력의 저하현상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접근은 집합적 수준에서 관찰되는 출산수준을 개별부부의 출산행위로 환원시켜 설명하려는 일련의 미시적인 분석적접근방법이다. 이 접근방법은 기본적으로 자녀출산을 개별부부의 의사결정과정의 결과로 가정한다. 즉 개별부부는 각기 그들이 몇명의 자녀를 낳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다소 자유로운 입장에서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과도한 출산은 그러한 출산이 갖는 댓가가 지나치다고 판단할 경우 개별부부는 임신을 피하기 위해 성생활을 자제하던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태아를 유산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출산행위를 개별부부의 의사결정의 결과로 이해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Joseph Spengler (1966)이다.

Spengler 에 의하면 추가자녀의 출산은 선호체계 (preference system), 가격체계 (price system) 및 소득 (income)이라는 세변인의 함수관계로 결정된다. 여기서 선호체계는 추가자녀를 출산하지 않을 경우 성취할수 있는 목표가 갖는 가치와 비교하여 기혼부부가 추가자녀에 두는 가치를 말하며 가격체계는 추가자녀의 출산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성취할 수 있을런지 모

르는 다른 목표의 성취를 위하여 요구되는 비용과 비교하여 추가자녀의 출산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비용은 단순히 화폐로 계산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정의한다. 마찬가지로 소득도 화폐소득 뿐만 아니라 부부가 그들의 가능한 목표 추구를 위해 이용이 가능한 시간과 노력의 총량을 말한다. 따라서 개별부부의 차원에서 관찰할 때 추가자녀의 출산을 결정할 확률은 직접적으로는 그 자녀로부터 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 다르며, 예측되는 추가비용과는 역상관관계를 나타내며,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능하다고 예견되는 자원의 량(소득)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고 본다. Spengler는 전체사회의 수준에서 관찰되는 경제발전과 출산수준간의 관계는 개별부부들의 추가자녀의 출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작용하는 위의 세변인의 변동을 반영한다고 설명한다.

추가자녀의 출산여부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Spengler의 이와같은 가설은 경제발전과 출산수준의 변동간의 관계를 주로 소득의 증대효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던 입장을 보다 확대시켜 그 사회에서 지배적인 자녀의 선호체계와 가격체계의 변동과 결부시켜 설명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환기시켜준 계기가 된다. 경제·사회의 발전과 결부된 자녀의 선호체계의 변동은 주로 사망력의 감소효과, 노동력으로서 자녀가 갖는 효용의 감소,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결부하여 노후보장책으로서 자녀가 갖는 중요성의 감소, 다자녀출산에 대한 사회적보상의 감소 및 사회적지위에 대한 평가기준의 변동 등과 관련되고 있다. 그밖에 경제발전과 더불어 자녀가 갖는 상대적인 가격은 증대된다. 자녀의 상대적인 가격의 증대는 주로 기술수준의 발전과 관련된 새로운 피임법의 개발 및 보급, 공업화와 병행하여 일어난 급격한

도시화로 자녀양육과 교육을 위한 비용의 증대 등과 깊은 관련을 갖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Heer, 1968).

이상의 제 논의는 분명히 근대화 또는 경제발전이 최근 출산력의 감소 현상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근대화와 출산력간의 복잡한 상호관련성을 밝혀 내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분석적문제를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각 사회의 출산력추세와 변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메카니즘, 다시말해서 특정한 사회의 사회조직, 사회구조 및 환경적요인과 출산력수준을 연결시켜 주는 메카니즘을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출산력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물학적특성, 다시말해서 개개인이 가진 가임능력에 따라 제약을 받지만 하나의 출산은 성교, 임신 및 분만의 세 단계를 거쳐서 일어나게 되며, 이 세 단계는 각기 그 사회가 가지는 사회구조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Davis와 Blake(1956)는 출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성교, 임신 및 분만을 지배하는 11개의 매개변인(혼인시기, 피임법의 실천, 유산 등과 같은)을 지적하면서 각 사회에서 관찰하는 출산수준의 차이와 변동은 이들 매개변인과 관련된 사회·문화적구조의 다양성과 변동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사회구조의 변동과 출산력간의 연계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경우, 가족크기 및 매개변인 자체에 관한 규범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Freedman(1975)은 이와같은 특수한 규범의 변동은 특정한 사회에서 사회구조의 변동에 따른 출산력의 반응을 이해하고 동시에 출산조절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갖는 매개변인중 어떤 매개변인이 주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이해하는데 중요시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와같은 특수한 규범의 변동은 사회구조 및 환경의 변동에 의해 일어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이와

같은 특수한 규범의 지주가 되는 사회조직의 분석이 출산력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Framework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개념도식은 이 Framework에서 포괄하는 출산력의 직접적인 결정요인을 특정화하는 과정에서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사회구조 및 환경적요인이 출산력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따라 최근 Bong-aarts(1978)는 매개변인과 출산력수준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단순하지만 널리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분석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형에 의하면 각 인구간 출산력에 차이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직접적인 요인은 주로 혼인, 피임, 수유 및 인공유산 등 4개 요인의 변동에 기인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의 제논의를 종합해서 요약해 보면, 한 사회의 출산수준의 직접적인 결정요인은 혼인시기, 피임, 수유 및 인공유산 등과 관련된 사회적 관행이 된다. 이 경우 공업화 또는 근대화에 따른 사회구조 및 환경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나 가족의 크기에 대한 사회적규범 뿐만 아니라 혼인시기, 피임, 수유 및 인공유산등과 같은 매개변인에 관한 사회적규범의 변동을 초래함으로써 그 사회의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산업화 또는 근대화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사회의 제 부문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변동을 모두 포괄한다. 따라서 산업화나 근대화가 현대사회에서 출산력의 재적용, 다시말해서 출산력의 감소 또는 가족규모의 축소와 관련되는 특정한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변동의 이해를 위해서는 근대화 또는 산업화현상과 결부된 일반적인 사회적과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 관찰되는 출산력의 저하를 설명할 수 있는 근대화에 따른 사회적과정을 주로 다음과 같은 세 측면으로 요약될 수 있

다 (Goldscheider, 1971:148). 첫째, 사회의 근대화는 구조적 분화, 특히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역할과 가족역할의 효과적인 분리를 내포한다. 따라서 가족이나 친족집단은 더 이상 사회적, 경제적보상체계를 지배할 수 없게 되며, 대가족의 목표실현을 위한 사회적압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둘째, 근대화나 산업화에 따른 경제체도의 구조적변화는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동의 열망을 고조시키며, 가족외적인 경제 및 사회적보상을 추구하게 한다. 따라서 고출산을 추구하는 친족압력의 쇠퇴와 더불어 이와같은 경제적인 변화는 소가족지향적인 사회적압력을 가중시킨다. 셋째, 이상의 제변동과 부수하여 일어나는 근대화에 따른 사회적통합의 한 과정이 대가족 및 고출산력과 양립할 수 없는 사회적, 개인적인 목표와 가치의 변동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발전 또는 근대화와 출산력수준의 변동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근대화에 따른 이와같은 일반적인 사회적과정의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지난 1970년 이전 한국에서 출산력연구는 센서스 자료를 기초로 주로 사회경제적특성에 따른 집단간 출산력수준의 차이를 비교분석하는데 국한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출산력연구를 위한 전국규모의 표본조사자료의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행동과학적 접근을 통해 출산력 및 이와 관련된 요인에 관한 정보가 양산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근대화 내지 사회경제적발전이 출산력수준에 미치는 효과는 주로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개인의 사회경제적특성에 따른 출산력의 유형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개개인의 출산행동은 그 자체가 사회적행위의 하나이기 때문에 개인이 갖는 속성 뿐만 아니라 집단의 속성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해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사회경제적발전수준이 출산력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도를 측정해 보고져 하였다. 사회과학분야에서 개인행동의 설명을 위하여 집단 또는 지역사회를 관찰대상 또는 분석단위로 한 연구는 프랑스의 사회학자 E. Durkheim의 자살론이 최초였다 (Durkheim, 1951). Durkheim은 그의 자살론에서 여러지역의 상이한 자살율은 사회구조의 변이성, 특히 사회적응집력의 정도와 형태의 차이에서 비롯한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의 자살행위는 그가 속해 있는 집단의 성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론화하였다. Durkheim의 이와 같은 견해는 사회를 개인의 단순한 총합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회학적분석은 집단과 개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상호작용과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Cooley(1909)의 생각과도 일치한다. 집단특성이 개인행동에 미치는 이와같은 중요성으로 인하여 Kendall과 Lazarsfeld(1950)는 개인변인의 평균점수를 집단변인으로 사용하여 상황분석(Contextual Analysis)을 시도한 바 있으며, Caplow와 Forman(1950)은 동질성을 지닌 지역사회에서 개개인의 사회적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근린간의 상호작용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개인의 사회적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집단특성이 미치는 중요성은 특히 교육효과, 농업혁신의 전파 및 투표행동을 설명하는 제연구에서 경험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투표행동에 관한 연구는 조직이나 정당의 집회를 통해 개인을 정치적으로 포섭하려는 과정에서 개인의 정치적 지지행동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여부를 주로 관찰하고 있다. Key(1949)에 의하면 개인의 투표행위는 선거유세의 영향보다는 그 개인과 가장 빈번한 접촉을 가지는 친지, 이웃과 같은 일차적집단의 영향이 지배적이었음을 밝혀 내고있다. 또한 Berelson과

그의 동료들(1954)은 개인의 투표행위는 그 지역사회의 정치적숙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들 두연구는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과 지역사회를 보다 중요시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이다. 한편 Marsh와 Coleman(1954)은 농촌주민들의 새로운 농업기술의 습득과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경제적인 특성간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Van den Ban(1960)에 의하면 개인의 농업기술습득은 그 사회의 현대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밝혀낸 바 있다. 이와같이 지역사회의 특성과 농업기술의 습득행위간의 상관성을 중요시한 연구는 최근에 이르면서 더욱 많이 수행되고 있다(Rodgers & Burdge, 1962; Flinn, 1963; Qudir, 1966; Davis, 1968).

그러나 인구 및 가족계획 분야에서 집단이나 지역사회의 특성이 개인의 출산행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는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도 초기단계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우기 현재까지 연구·보고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앞서 소개한 정치 교육 및 농업분야등의 연구결과에서 본바와는 달리 지역사회의 구조 내지 특성에 대해 강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 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Srikantan(1967)은 대만의 표본자료에서 개인이 거주하는 환경요인과 개인의 특성요인을 기초로 개인의 가족계획에 대한 태도 및 실천행위에 미치는 상관성을 분석한 바 있으며, 그는 이 연구에서 환경요인이 출산행위를 결정짓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 또한 Anker(1973)는 인도의 농촌사회에서 개인의 거주지별차별출산력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농촌지역사회의 발전수준에 따라 각각 다른 자녀관을 가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 표본

으로 선택된 지역사회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변인을 선정했다. 즉 그는 지역사회의 전기이용가능성여부, 도로포장상태, 식수공급상황, 주민의 고등교육이수자수 등을 토대로 지역에 따른 발전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했으며, 그 다음 상가지역의 발전수준을 상, 중, 하로 나누고, 각각 발전수준이 다른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의 가족계획 또는 출산행위간의 상관성을 측정했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락의 발전수준은 개인의 가족수의 선호와 가족계획의 실천여부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아낼 바 있다. 이 상과 같은 Anker의 연구나 Srikantan의 연구는 각기 연구방법론상의 기본설계와 분석방법이 달랐으나 개별부부의 출산 및 가족계획실천행위는 지역사회의 구조 또는 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공통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금까지 논의된 지역사회의 특성이 출산행동에 대해 가지는 중요성은 극히 희박하게 나타나고 있다(Hong, 1976; Lee, 1977). 홍사원(1976)은 53개의 한국농촌부락을 대상으로 각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특성이 그 지역주민의 출산행위에 미치는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개인의 출산행위는 대부분 개인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인구학적 변인에 의존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 이에 반해 지역사회의 구조적특성은 개인의 출산행위를 설명하는데는 빈약함이 밝혀졌다. 그렇지만 이 연구결과만을 기초로 한국에서는 지역사회의 발전수준에 관한 특성이 개인의 특성에 비하여 중요성이 덜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홍사원의 연구는 연구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모집단이 단 한개의 군만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뒤 수행된 이시백

(1977)의 연구와 전국규모의 표본조사자료를 분석한 이시백 등(1978)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시백(1977)은 24개 한국농촌의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가족계획의 실천 경험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System-level의 변인과 Communication 변인을 결합시켜 개인의 배경적인 특성이 가지는 중요성을 연구했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의 발전수준을 측정하는 변인으로 집단의 특성과 지역사회구조를 대표할 수 있는 집합변인(aggregate variable)과 환경변인(global variable) 외에 집단구성원의 가족계획에 대한 의사소통정도를 나타내는 Communication Network와 관련된 변인을 추가함으로써 전체지역사회의 성격을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특이점이 있다. 이들 제변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다변인 회귀분석결과에 의하면 개인의 가족계획수용행동은 주로 개인수준의 특성변인과 강한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개인의 가족계획수용행동은 System의 특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본 가정은 입증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집단변인 가운데서 단지 Communication Network 변인만이 가족계획수용행동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집단의 특성에 개인의 가족계획수용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을 위해서는 단순히 개인이나 환경의 특징을 대표하는 변인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집단의 구성요인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변인의 개발이 필요함을 암시해준다하겠다. 그 뒤 이시백등(1978)은 다시 전국규모의 표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지역사회수준의 특성변인이 가족계획의 수용행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중요성을 관찰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계획의 수용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세 개수준의 독립변인, 즉 (1)개인수준, (2)지역사회수준 및 (3)매개역할을 하는 변인 등을 독립변인으로 활용했

다. 그러나 이 연구도 마찬가지로 가족계획의 수용행동을 설명하는 데는 개인의 특성변인이 지역사회수준의 속성변인에 비하여 훨씬 중요한 변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 졌다. 그러나 홍사원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상의 두 연구는 지역사회의 환경변인이 개인의 출발과 관련된 일련의 행동에 직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루어졌다는 점에서 분석상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김익기(1987)는 사회적상황에 따른 출산행동의 미시적-거시적차원의 인과적관계에 분석의 초점을 둔 상황적분석모델(Contextual Analytic Model)을 이용하여 집단의 특성이 출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여성의 교육수준이 출산력에 미친 효과는 가족계획의 Input가 적은 지역에서 보다는 많은 지역에서 더 컸다. 바꾸어 말해서 이 사실은 가족계획이 출산력에 미친 효과는 교육을 덜 받은 부인들 보다는 교육을 많이 받은 부인간에서 더 큰 효과를 나타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사회경제발전이 출산력에 미치는 효과는 사회적으로 보다 많은 특권을 누리는 여성간에서 보다는 그렇지 않은 집단의 여성간에서 더 컸다는 사실이다. 이는 미시적수준에서 관찰된 사회경제적변인이 출산력과 관련된 행동에 미친 효과는 보다 개발된 지역에 사는 부인보다는 덜 개발된 지역에 살고 있는 부인간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잘 뒷받침되고 있다. 이와 같은 두개의 상반된 결과를 기초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경제발전이 첫자녀의 출산년령증가와 출산력의 저하를 초래했던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즉 사회경제발전으로 개별부부들간에 소자녀가족에의 열망이 부수적으로 뒤따르게 되었으며, 그 결과 정부가족계획사업이 실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산력이 감소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출산력의 저하현상은 이와같은 사회경제발전에 추가하여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이 이를 촉진시킬 수 있었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김익기의 이와같은 일련의 분석은 종전의 다른 연구에 비해 집단의 특성이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정교한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 연구는 자료이용상의 제약으로 지역사회의 특성을 시·군단위의 자료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한계성이 있었다. 즉 이 연구에서 분석에 이용된 시·군단위로 측정된 지역사회는 실제로 분석대상이 된 개별부인이 살고 있는 지역단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분석에서 이용된 지역사회의 특성이 개별부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부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근대화나 경제발전과 출산력간의 관계와 관련된 연구의 또 하나의 관심사는 주로 출산조절의 정책적인 타당성과 관련된다. 최근의 출산력수준의 급격한 저하현상의 이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두 개의 중요한 문제는 (1) 자녀를 많이 낳기보다는 적게 낳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이며, (2) 일단 소자녀가족의 형성과 관련된 동기가 부여되어 있으면 출산조절의 개념과 방법은 자동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실제로 이용될수 있는가? 아니면 출산조절의 개념과 방법은 소자녀가족의 형성과 관련된 동기 여부와 관련없이 한 사회의 출산수준을 저하시키는데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인과적 관련을 갖는가? 하는 문제이다 (Freedman, 1979:63). 출산력의 저하요인을 찾아 낼려는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전자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있다. 이에 반하여 후자의 문제는 인구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 대립되는 견해로 제시되는 두 가지 주장의 기반이 되는 문제이다 (Davis, 1966). 즉 P.Hauser 나 K.Davis 같은 학자는 경제·

사회개발에 의한 출산력저하를 주장함으로써 가족계획사업을 인구문제해결의 강력한 수단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D. Bogue 와는 대립된 입장에서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된 견해에 수반되는 실제적인 연구는 이들 주장의 성립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의 발전수준에 따른 출산력수준의 변동에 관한 연구는 주로 연구방법론상의 문제, 이론의 개념화 및 연구자료의 이용가능성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몇몇 개발도상국에서는 소지역을 분석단위로 다변인분석방법을 통해 이들 국가에서 관찰되는 급격한 출산력의 저하현상이 그 국가가 최근 이룩한 경제개발의 효과인지 가족계획사업의 성과를 반영하는 것인지를 부를 관찰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론과 측정기술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이루어 지고 있다 (Chandrasekaran & Hermalin, 1975; United Nations, 1976). 동시에 이와같은 분석기법을 기초로 소지역단위의 가족계획의 성과를 그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수준과 결부시켜 평가한 지역분석 (Areal Analysis)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Hermalin, 1972 & 1978). 한 예로 Hermalin(1978)은 1966-1972년 기간중 대만의 지역자료를 기초로 한 회귀분석을 통해 급격한 사회경제적조건의 변동을 고려한 상태에서 가족계획사업이 출산력의 저하에 미친 효과를 검토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Hermalin은 여러가지 상이한 분석모델을 Test 한 결과 가족계획사업은 동기간중 대만의 출산력의 저하에 크게 기여했으며, 가족계획사업의 효과는 동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가장 높은 출산률을 시현했던 가장 개발이 덜된 지역에서 성과가 가장 컸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주로 1960~1985년 기간중 우리나라의 출산력수준의 저하를 초래한 출산력의 감소요인을 확인하여 시도되는 본 연구는 주로 Hermalin의 이와같은 분석모델에 의존하게 된다.

Ⅲ. 出産率의 變動推移 : 1960-1985

먼저 이 장에서는 주로 1960~1985년 기간중 우리나라의 출산율의 수준과 그 변동추이를 각 지역별로 비교분석해 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력수준의 시계열적 변동, 특히 그 중에서도 지역간의 차별적변동을 비교분석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불완전한 인구동태신고자료의 제약으로 출산력의 측정은 센서스자료나 표본조사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표본조사자료는 지역별출산율을 측정하는데는 제약이 있으므로 지역별출산수준의 측정은 거의 전적으로 센서스자료를 이용한 간접적인 추정방법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1966년부터 집계된 우리나라의 센서스자료는 적생아방법(Own Children Method)을 적용하여 본 연구의 기반이 되는 1960~1985년기간중 지역별출산율의 추정이 가능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주로 1966~1985년센서스자료에 적생아방법을 적용하여 추정된 출산율을 토대로 1980~1985년간 출산율의 변동추이를 지역별로 비교분석해 보기로 하였다.

1960~1985년기간중 우리나라에서 출산력의 변동은 그동안의 경제사회발전과 1962년이래 우리나라에서 인구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가족계획사업이란 두 축을 중심으로 일어났다고 예상해볼 수 있다. 앞 장에서 잠시 살펴본 경제발전내지 근대화에 따른 사회구조와 출산력의 변동을 설명하는 제이론에 비추어 보면 이와같은 예상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1960년이래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와 공업화를 경험했다. 지난 십수년동안 수행된 인구분야의 많은 연구는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근대화 내지 사회경제발전이 우리나라 부인들의 출산력수준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공업화에 따른 생활양식의 급격한 변동은 자녀의 효용성을 감소시켜 가족내에서 자녀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초래했으며(조남훈등, 1977), 경제발전에 따라 가능해진 각종 재화의 소비와 여가활동은 소비자의 열망을 고양시켜 놓았다. 이와같은 변화는 그간의 급격한 경제발전과 도시화에 의해 유발된 상대적 박탈감의 증대와 결부되어 다자녀출산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게 되었다(권태환등, 1975). 이러한 사회경제적조건하에서 정부가족계획사업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선호론 억제했을 뿐만아니라 자녀출산에 대한 상대적비용을 증가시키는 계기를 제공해주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 장에서 특정한 사회의 출산력의 변동은 직접적으로 개별부부의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과 관련된 사후구조의 변동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점에 비추어 보면 그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회경제적발전이 출산력저하에 미친 효과는 주로 교육수준의 향상, 여성의 지위향상 및 노동력참여에의 확대 등과 같은 요인과 결부되어 혼인년령을 상승을 통해 나타났을 것으로 예견해 볼 수 있다. 동시에 이 과정에서 직접적으로는 소득수준의 향상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소비자열망의 상승은 소자녀 가족형성의 사회적규범을 형성함으로써 개별부부의 출산억제의 동기형성에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는 달리 경제수준의 향상은 자녀양육과정에서 종래 거이 전적으로 모유에 의존하던 양식으로 부터 인공수유에 의존하는 새로운 관행을 도입하여 확산시키는 계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녀양육과 관련된 이와같은 관행의 변동은 종래 우리나라에서 터울에 의해 자동조절되던 출산행동의 변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오히려 특정년령에서 출산력을 촉진시켜 주는 역할을 수

행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실제로 이와같은 출산관행의 변동은 고갑석과 Nichols(1977)의 분석에서 관찰되고 있다. 그밖에 경제발전에 따른 교통 및 통신수단의 개선은 소자녀 가족가치관 또는 피임실천과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출산수준을 저하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1964년이래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가족계획사업은 피임실천과 관련된 약제·기구의 보급 및 피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했을 뿐만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 수행된 부단한 IE&C 활동은 개별부부의 소자녀가치관을 형성시켜 주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상의 예시적설명에서 볼 수 있듯이 1960년이래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출산력의 변동은 그간의 사회경제발전과 가족계획이란 두 개의 축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두 요인이 출산력저하에 미친 효과는 시기적으로 그리고 지역간에 발전수준이 다르고, 동시에 가족계획사업의 추진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간 출산력의 차별적변동을 나타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주로 합계출산율과 연령별출산율을 토대로 1960~1985년기간중 각 지역별로 출산수준이 어떠한 유형으로 변동했는가를 살펴봄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족계획사업과 경제발전이 출산수준의 변동에 미친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1. 출산율의 변동추이

1960년이래 지난 25년동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표>Ⅲ-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즉 1960년 당시 우리나라 여성의

합계출산력수준은 5.98이었다. 이 수치는 당시의 연령별출산율에 따라 자녀를 낳는다고 가정할때 재생산년령이 끝나는 50세가 되면 우리나라 여성은 평균 1인당 약 6명의 자녀를 출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높던 우리나라여성의 출산율은 지난 4 반세기 동안 급격히 떨어져 1985년에는 약 1.7명이 되어 그동안 우리나라의 출산수준은 약 71% 정도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1985년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7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출산수준이 이미 이론상으로는 대체출산율수준 2.1을 훨씬 하회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수준은 앞으로 어느수준까지 감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관심이 되고 있다.

〈표Ⅲ - 1〉 년도별합계출산율 및 합계출산율의 누적감소율 : 1960-1985

년 도	합계출산율	누적감소율 : %
1960	5.98	
1961	5.62	6.1
1962	5.41	9.5
1963	5.35	10.5
1964	4.86	18.7
1965	4.61	22.9
1966	4.59	23.2
1967	4.34	27.4
1968	4.42	26.1
1969	4.39	26.6

년 도	합계출산율	누적감소율 : %
1970	4.24	29.1
1971	4.26	28.8
1972	4.18	30.1
1973	3.86	35.5
1974	3.62	39.5
1975	3.14	47.5
1976	3.1	48.2
1977	3.0	49.8
1978	2.8	53.2
1979	2.9	51.5
1980	2.7	54.8
1981	2.71	54.8
1982	2.47	58.7
1983	2.20	63.2
1984	1.89	68.4
1985	1.75	70.7

주 : 1960 ~ 1980: 1980 년센서스자료를 기초로 적생아출산율 추정방법에 의해 추정된 합계출산율임.

1981 ~ 1985: 1985 년센서스자료를 기초로 적생아출산율 추정방법에 의해 추정된 합계출산율임.

자료 : 1960 ~ 1980: Cho et. al., 1982

1981 ~ 1985: 본 연구에서 추정 되었음

< 표Ⅲ - 1 >에서 1960 ~ 1985 년간 출산력의 변동추이를 보면, 우리나라부인의 출산력수준은 1960 ~ 1965 년기간의 급격한 하락에 이어 그 이후는

다소 하락세가 완화되었으나 꾸준히 떨어졌으며 1970년대중반이후 이와같은 하락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대체로 보아 1960~1965년 기간중 출산력수준의 급격한 하락은 195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베이비·붐현상의 종식에 따른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으며, 1960년대 중반이후 출산력수준의 감소현상은 정부가족계획사업의 확대와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최근 관찰되는 가속적인 출산력의 감소추세는 종전에 주로 가족계획사업에만 의존했던 출산력의 저하가 그동안 경제발전에 따른 출산력의 감소효과가 추가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라고 잠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것 같다.

1955년 이전시기에 우리나라의 출산수준이 어느정도 되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그 수준을 잠정추계하고 있을 뿐이다. 대체로 6.25동란이 일어나기 전 시점까지 우리나라 부인들의 출산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었으나 전쟁기간 중에는 다소 그 수준이 낮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없다. 오히려 이 시기의 출생율이 낮은 것은 주로 혼인의 연기 등에 의한 것이고 실제 배우출산율은 상승추세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Kwon, 1975:16). 그러나 1955~60년 기간중 우리나라 부인들의 출산율이 그 전 시기에 비하여 훨씬 더 높았다는데는 인구학자들간에 대체로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전후의 베이비·붐이 종전직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기간중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출산력수준은 1957년까지 지속되었고 전후의 베이비·붐은 실제로는 1957년부터 시작되어 1960년대초기까지 지속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이 제시되기도 한다(Cho, 1973). 따라서 1960~1965년중 출산율

의 급격한 감소는 1960년에 피크에 도달했던 베이비·붐의 퇴조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베이비·붐에 따른 고율의 인구성장이 가져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함에 따라 1964년부터 인구정책으로서 정부주도하의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격한 공업화를 경험했지만 196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수준은 극히 미약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1960년대 후반 및 1970년대초의 출산율 저하는 거의 대부분이 정부가족계획사업에 의존했다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에 반해 종래와는 달리 1970년대 후반부터 관찰되는 급격한 출산율의 저하현상은 가족계획사업과 그동안 이룩했던 경제발전효과가 상승작용을 한 결과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된다.

1960년대이후 우리나라에서 관찰되는 출산율의 저하패턴에 대한 좀더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연령별출산율의 변동유형을 보면 [그림Ⅲ - 1]과 같다.

<표Ⅲ - 1>에 의하면 지난 25년동안 우리나라부인들의 합계출산율수준은 약 71%정도 감소했다. 이를 부인의 연령별로 관찰해 보면 우리나라부인들의 출산수준의 감소현상은 주로 30세이상의 고령연령층부인과 20세이하의 저년령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즉 35세 이상의 고년령층부인의 출산력수준은 지난 25년간 90%이상 감소했으며, 20세이하의 저연령층부인과 30~34세 부인들의 출산율도 각각 8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출산력저하가 주로 우리나라 부인들간에 일어났던 두개의 행동변화의 결과였음을 시사해 준다. 첫째 유형의 행동변화는 저년령층의 출산력저하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주로 초혼년령의 상승이 출산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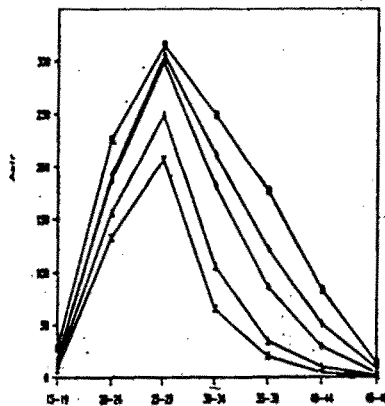
저하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센서스에 보고된 연령별미혼여자의 인구비율로 계산된 평균초혼연령의 변화추세를 보면,

기 간	여자의 초혼연령	기 간	여자의 초혼연령
1950 ~ 55	20.5	1966 ~ 70	23.3
1955 ~ 60	21.7	1970 ~ 75	23.7
1960 ~ 66	23.0	1975 ~ 80	24.1
		1980 ~ 85	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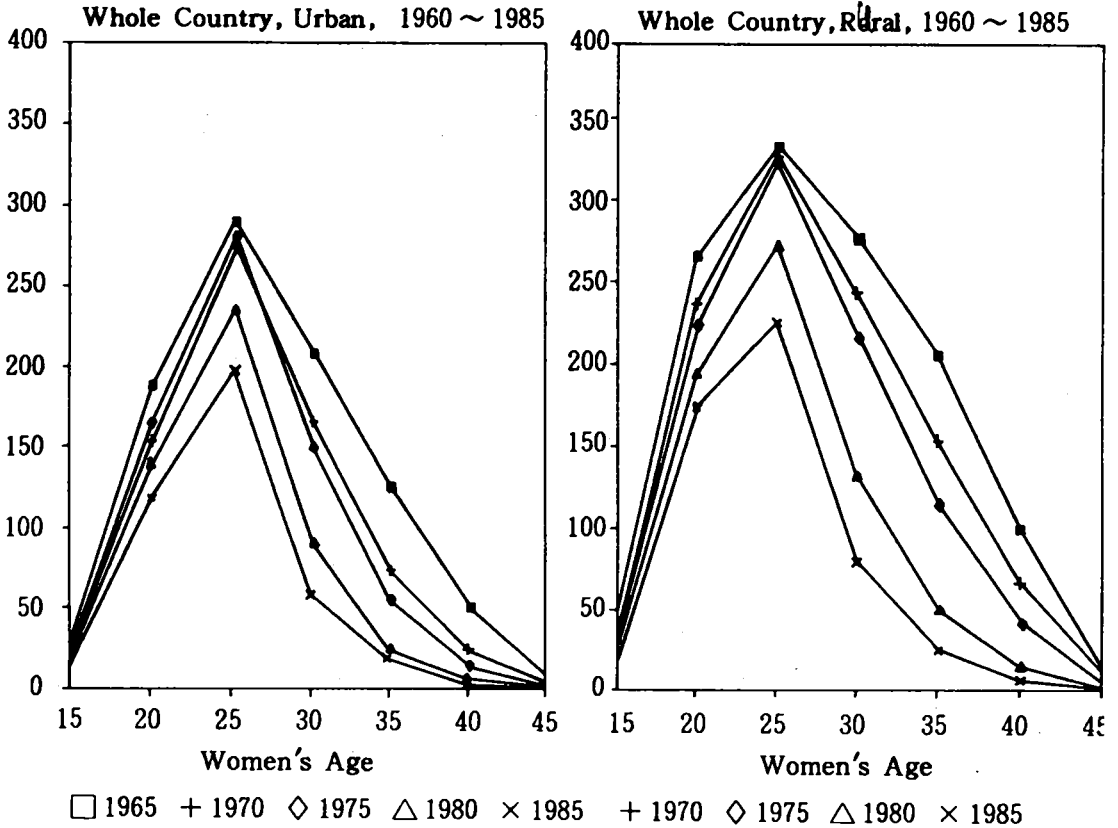
로서, 1950 년이래 우리나라 여자의 평균초혼연령은 약 4.2 세정도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Coale et al., 1980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4a). 둘째 유형의 행동변화는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의 급격한 보급이다. 1966 년과 1982 년에 실시된 조사결과에 의하면, 1964 년 가족계획사업의 실시와 더불어 우리나라 부인들의 피임실천율이 1966 년의 16 %로부터 1982 년에는 58.7 %로 크게 늘어났다. 아울러 최소한 한번이상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부인의 비율도 1968 년의 16 %로부터 1980 년에는 50 %로 크게 늘어났다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4b). 이 사실은 지난 25년간 우리나라 부인들의 출산력저하가 이와같은 두개 유형의 행동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

[그림Ⅲ - 1] 연령별 출산율의 변동유형 : 1960 ~ 1985

Whole Country, 1960 ~ 1985



○ 1960-64, △ 1965-69, □ 1970-74, × 1975-79, * 1980-84



주는 좋은 자료가 된다. [그림Ⅲ-1]은 우리나라 부인의 연령별출산율수준이 전국, 도시 및 농촌별로 1960년 이후 실시된 각 센서스년간에 기간별로 어떻게 변동해 왔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이 도표가 말해 주는 바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부인의 출산율 수준은 1960년 이래 거의 전 연령층에서 급격하게 감소했지만 각 연령별출산력의 감소패턴은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연령별출산력의 저하유형은 그동안 우리나라 부인들의 출산력저하에 작용했던 요인이 연령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대체로 보아 25세미만의 젊은 연령층부인의 출산력저하는

출산의 인위적인 조절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초혼년령의 상승에 의한 것이며, 30세이상 연령층의 출산력저하는 피임실천 또는 인공임신중절 등과 같은 인위적인 통제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2)그러나 이들 각 연령집단별로 관찰해 보면 우리나라부인의 출산율수준은 주로 30세이상의 고연령에서 급속한 감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연령층의 출산력감소는 도시·농촌 모두 1976~80년부터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30세이상부인의 출산력의 저하가 주로 인위적인 통제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이 연령층의 급격한 출산력감소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어 온 가족계획사업의 효과를 반영하는 일면도 있겠지만 경제발전에 따른 급격한 생활양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5년만 하더라도 평균 초혼년령이 아직 25세를 넘지 않으며, 30세이상의 고연령에서는 거의 모든 여성이 혼인을 한다. 이 상황에서 출산율의 저하는 경제수준의 향상에 따른 자녀에 대한 수요의 감소가 개별부부들간에 소자녀출산을 선호하는 결정을 하게 되며, 이와같은 결정이 가족계획의 실천이나 인공임신중절에 의해 자녀출산을 억제하게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이와는 달리 25세미만의 저연령층의 출산율은 1966~70년과 1971~75년기간중에는 거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으나 1976~80년 이후부터 다시 크게 떨어지고 있다.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출산수준이 가장 높은 연령계층이던 25~29세연령층의 출산력을 보면 1975년 이전에는 큰 변동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1976~80년기간부터 그 수준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와같은 두 연령층의 출산력저하는 우리나라여성의 평균초혼년령의 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초혼년령은 1960년 이전에는 21.7세였으나 1966년에는 23.0세로 크게 높아졌으며, 그 이후도 초혼년령은 계속 상승했으나 1975년 이전까지는 24세를 넘지 못했다. 그러나 이 년령은 1976년 이후부터 비로소 24세를 넘어서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5세 미만의 저년령층의 출산력이 주로 초혼년령의 상승과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 (Coale et.al., 1980)을 감안할 때, 이와같은 초혼년령의 변동추세는 20~24세 및 25~29세 년령층의 출산력의 급격한 저하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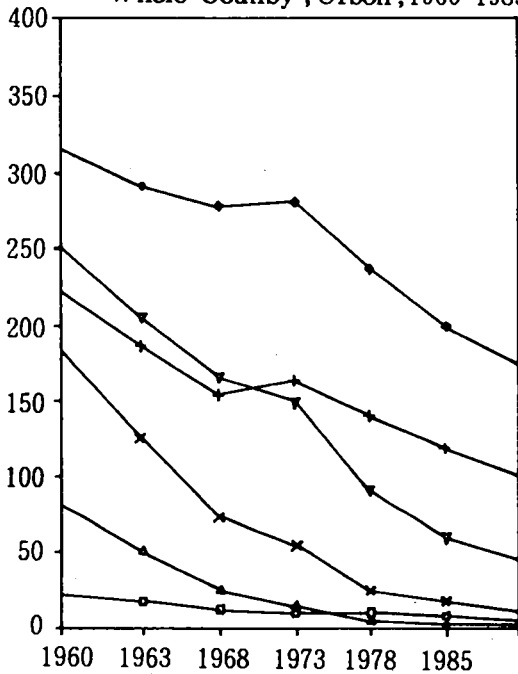
(4) 또한 출산수준을 연령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비교적 저년령층이라고 볼 수 있는 20~24세 년령층의 출산수준은 1971~75년부터 30~34세 년령층의 출산수준보다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그 차이는 최근에 이를수록 더 커지고 있다. 이 사실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도시화 내지 산업화가 확산됨에 따라 자녀가치관이 급격히 달라짐에 따라 개별부부의 완결출산력수준이 극히 축소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이와같은 해석은 20~24세 년령집단과 25~29세 년령집단간의 출산율이 도시·농촌간에 아직도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서도 잘 입증된다.

(5) 우리나라 부인들의 출산율변동을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면 농촌부인의 출산율은 도시출산력수준에 비하여 아직도 높은 수준에 있다. 그러나 그 수준은 최근에 이르면서 도시화의 확산과 더불어 도시적인 생활양식이 급격히 농촌으로 침투하게 됨에 따라 두 지역간의 출산율의 격차는 종전과 같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즉 도시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의 경우 5.3명인데 반해 농촌의 합계출산율은 6.7명으로서 도시·농촌간 합계출산율의 차이는 1.4명이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두지역의 합계출산율은 1985년의 경우는 모두 2.0 이하로 줄어 각각 1.66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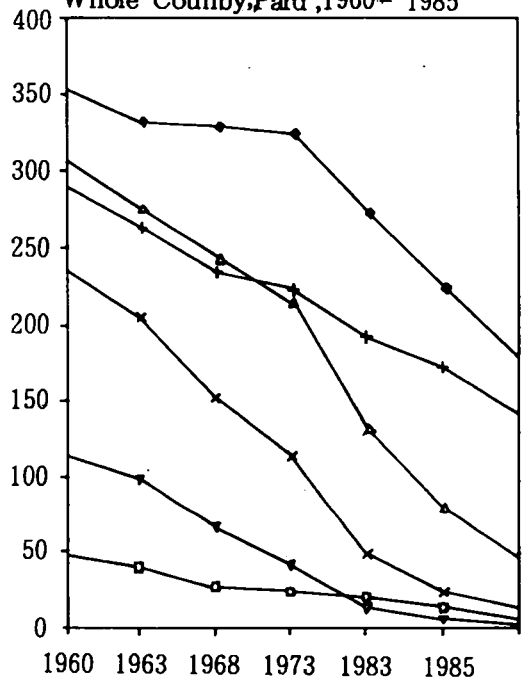
1.97명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두지역간의 합계출산율의 차이는 불과 0.4명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처럼 합계출산율은 최근에 이르면서 도시·농촌별로 비교해 보면 전 연령층에서 출산수준은 농촌이 도시에 비하여 아직도 상당히 높은수준에 있으나 연령집단별 변동유형을 보면 농촌출산력은 도시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변동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 출산력간에 가장 현저한 차이는 비교적 젊은 연령층의 출산력수준에서 나타난다. 젊은 연령층의 출산율, 특히 20~24세 및 25~29세 연령집단간 출산율의 차이는 도시·농촌간에 매우 다른 패턴을 보여준다. 도시의 경우 1960년 이래 매기간별로 두 집단간에 현저한 출산율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농촌의 경우는 도시에 비해 큰 차이를 보여주지

[그림Ⅲ - 2] 도시·농촌의 연령별 출산율의 변동추이: 1960~1985

Whole County, Urban, 1960-1985



Whole County, Pard, 1960-1985



Years

□ 15-19 + 20-24 ◇ 25-29 △ 30-34 × 35-39 ▽ 40-44

Years

않는다. 이 사실은 아직도 젊은 연령층에서는 출산율의 변동이 종전에 비해 크게 낮아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된다. 따라서 최근 농촌출산력이 급격한 감소는 [그림Ⅲ-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주로 30~34세 및 35~39세 두 연령집단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에서 비롯하고 있다.

[그림Ⅲ-2]에 의하면 도시의 경우 35~39세 연령층의 출산력은 1960년대초부터 이미 낮은 수준에 있었으며 30~34세 연령의 출산력도 1968년을 전후하여 1.7명미만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그러나 농촌의 경우는 35~39세 연령층의 출산율이 1968년을 전후하여 크게 떨어졌지만 그 수준은 당시 도시의 30~34세 연령층의 출산율수준에 비해 약간 낮은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같은 농촌출산력도 1970년대 중반부터는 주로 30~34세 연령층을 중심으로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있다. 특히 30~34세 연령층의 출산력은 1978년을 전후하여 급격히 하락하여 1985년에는 도시와 거의 유사한 수준(도시: 42.3; 농촌: 46.8)을 나타내고 있다. 그밖에 35~39세, 40~44세 및 15~19세 연령층의 출산율도 최근에는 도시와 농촌간에 유사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도시·농촌간 출산율의 차이는 20~24세 및 25~29세 연령집단의 출산율의 차이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을 [그림Ⅲ-2]는 보여준다. 이처럼 농촌출산력이 최근에 이르면서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은 그간의 가족계획사업이 주로 농촌을 대상으로 해 왔다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산업화의 고도화와 더불어 교통 및 통신수단의 발전에 따른 도시적인 생활양식과 관련된 정보의 확산이 저출산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는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2. 구·시·군단위 출산율의 변동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의 변화추이를 구·시·군단위로 관찰해 보았을 때,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지역간 출산율수준의 격차를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 자율조정적인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종래 출산율의 저하는 지역의 발전수준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출산율은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보다 큰 폭으로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1960년대를 제외하면 출산율의 변동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은 반드시 도시·농촌이라는 지역특성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오히려 지역출산율이 높은 지역에서 출산율의 변동율이 더 컸으며, 반대로 출산율이 낮은 지역에서 변동율이 낮았다. 따라서 일정한 기간동안 출산율의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최종적으로 두 지역간에는 출산율의 연령패턴이 서로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1971~1985년기간중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은 주로 지역간에 이와같은 유형의 출산율변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에서 떨어졌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한 요인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하겠다.

IV. 出產率 變化要因에 對한 多變數 分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출산율 저하에 중요한 한 요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 소자녀 혹은 소가족을 포함하는 새로운 생활양식의 지역간 전파과정으로써 접근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실제 분석방법으로는 지역단위 구성원의 속성에서 얻을 수 있는 변수들과 지역단위 자체의 속성(시설, 위치등)으로 나타나는 변수들이 출산수준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중개변인의 각 지역단위간 변이를 얼마나 설명하고 있는 가 하는 면에서 검토하였다.

이러한 접근방법이 물론 출산행위가 개인의 행태이고 개인의 행태는 개인의 속성과 개인이 속해 있는 환경 및 집단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분석단위 설정의 문제(Ecological fallacy 혹은 Aggregate Bias)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좀 더 설명한다면, 각 지역을 연구단위로 했을 때 두 속성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개인을 단위로 했을때도 그대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단위 출산율 분석에서 가족계획 참여율이 높은 지역의 낮은 출산율이란 관계에서 가족계획 참여자가 자녀수가 적을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출산율의 분산을 설명하는 변수의 중요도 서열에도 미시분석과 집단분석간의 차이가 올 수 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관심이 집단의 출산수준에 있으므로 집단의 출산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집단연구단위의 선정은 연구변인으로서 집단의 속성이 단순한 평균이상의 집단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집단의식을 공유하는 지역사회, 사회적 상호작용단위 또는 정치조직단위 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 Freedman (1974)도 이러한 연구를 위한 지역집단으로 인구가 10,000명 이하가 되는 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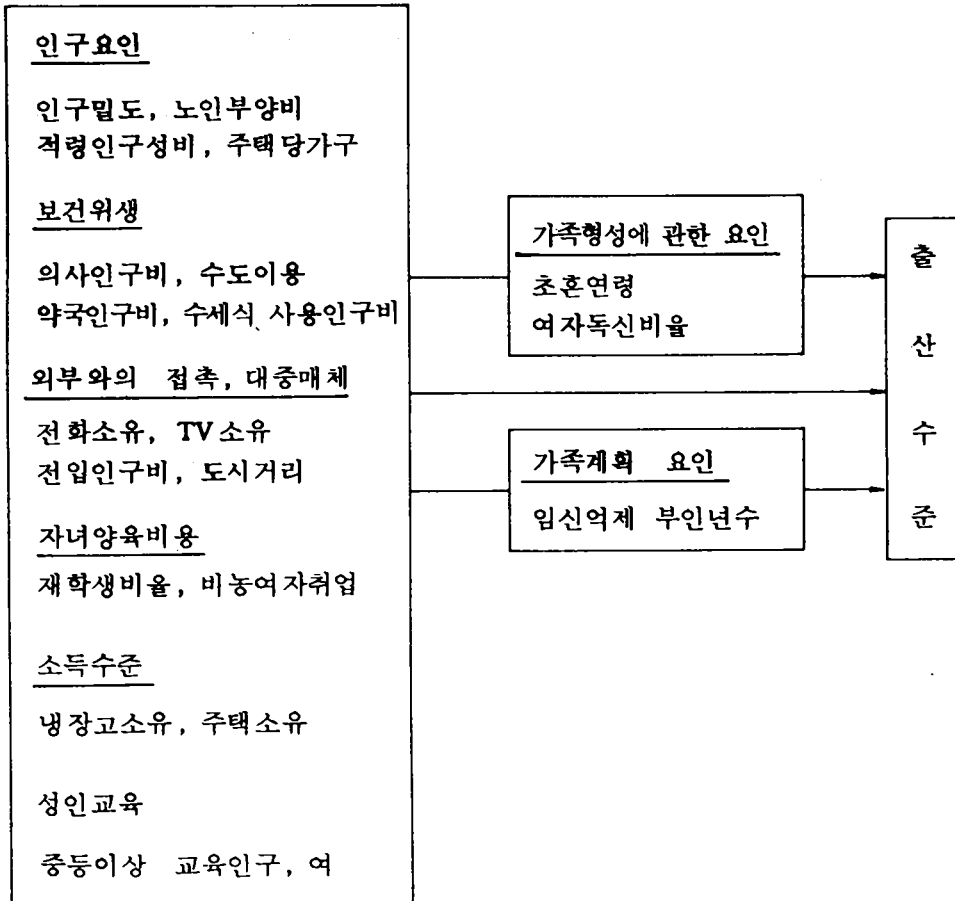
단, 또는 부락을 연구단위로 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준거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 동·읍·면이 적당한 연구단위가 될 것이다. 그러나 가족계획사업을 비롯한 많은 행정의 구·시·군을 기초단위로 하는 것이 많고, 구·시·군 이하 단위에서는 통계자료가 거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구·시·군이 현실적으로 연구단위로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1. 분석모델

지역단위 출산수준의 변이와 그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 모형은 먼저 출산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개변인(Freedman, 1976)으로서 출산단위인 가족의 형성에 관한 변인과 출산의 조절수단으로서 가족계획사용, 임신중절과 임신소모 등의 변인을 포함해야 한다. 지역단위의 출산수준과 중개변인들은 또 지역구성원의 속성이나 지역의 구조적 변인이나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지역과 외부의 사회·경제변화와 함께 변하고 있다. 이 경우 지역의 출산율과 중개변인들의 계량경제학의 용어를 빌린다면 내생변수로서 이 분석모형의 외생변인들에 의해 변수의 값이 결정되는 종속변수라 할 수 있고, 이 분석모형에서 지역구성원의 속성이나 그외 문화 사회 경제변수들은, 그 값이 모형외부에서 주어진 외생변수라 할 수 있다.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사회 경제 구조와 관련이 되는 요인으로는 인구 요인, 자녀의 양육 및 기회비용과 관련되는 변인, 보건위생 사망수준과 관련되는 변인, 소득수준과 관련되는 변인, 대중전달매체 및 외부접촉평이도와 관련된 변인, 교육수준 등, 출산율 결정요인에 관한 문헌에서 일반적으로 찾아 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도표Ⅳ-1은 이상에서 설명된 변수들의 인간관계를 도식화 한 것이다.

지역, 인구, 사회, 경제 관련변인



도표Ⅳ-1. 지역단위 출산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그 경로에 관한 모형

이 이론모형은 3개의 내생변수(합계 출산율, 초혼연령, 가족계획실천율)를 종속변수로 한 연립방정식 체계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째 문제는 연립방정식편기(Simultaneous Equation Bias)라고 불리는 문제로 한 방정식의 설명변수로서 내생변수를 포

합하는 데서 오는 문제이다. 이 방정식을 일반최소자승법을 써서 회귀계수를 추정할 경우 편기있는 불일치추와량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델에서와 같이 인관관계가 일방적일 경우 설명변수로 쓰이는 내생변수(초혼연령, 가족계획실천율)와 오차항간의 독립성을 가정함으로써 각 방정식을 일반최소자승법에 의해 하나씩 독립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두번째 문제는 도표에서 제시된 모형이 의도하는 요인을 대표할 수 있는 변수의 정의문제와 자료수집의 부담등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점이다. 대부분의 경우 한 요인은 그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차원에 맞추어 여러 변수에 의해 대표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이들 변수간의 높은 상관관계 때문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일으킨다. 이 문제는 처음 주성분 분석을 통한 해결을 기도하였으나 관련변수들이 요인별로 집락을 형성하지 않아, 필요시 각 기간 공식별로 변수의 행태를 검토 임의로 문제가 되는 변수 혹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변수를 제거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따라서 실분석에서는 도표Ⅳ-1에 제시된 변수들이 모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론형에 제시된 요인과 각 변수간의 연관성은 변수설명단원에서 설명하였다.

2. 자료, 방법 및 변수

본 연구는 정부주도의 가족계획사업이 처음 도입되고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기 이전인 1960년을 시점으로 하여 1985년까지를 연구대상기간으로 하였다. 이 기간중의 출산율은 1966년, 1970년, 1975년 및 1980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기초로 적생아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된 기존자료(Cho 1974, NBOS, 1984)와 이 연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1981~1985년기

간의 출산율 추정치를 이용하였다. (부록Ⅲ-2 참조) 출산율계산에 필요한 구·시·군 단위의 적생아 통계표는 조사통계국에서 전수자료에서 특별집계한 것을 이용하였다. 1970~1985년 기간 중의 구·시·군별 가족계획 사업실적치는 인구보건연구원 보관자료중에서 새로 집계하였다.

인구수, 연령구조, 혼인, 교육, 여자취업(1985년)에 관한 자료는 각 인구센서스의 보고서에 의존하였다. 1960년 및 1966년 인구센서스의 경우 보고서에 구·시·군별 집계자료가 거의 수록되지 않아 누락자료가 많았다. 이외에 사회·경제지표에 관한 자료는 주로 해당년도의 각 시·도 통계년감 자료에서 수집 계산되었으며, 1960년과 1966년의 경우 누락자료는 미국 동서인구문제연구소에서 군세 일람등을 기초로 작성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관찰단위인 구·시·군은 각 년도 인구센서스 당시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구·시·군을 포함하였다.

출산수준 결정의 주요요인과 출산율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앞의 분석모델에서 얻은 각 회귀방정식에서 일반최소자승법에 의하여 추정된 표준화 회귀계수(Beta 계수)와 위계적 편 결정계수에 의해 각 변수 변수역할의 상대적 중요도를 판별하였다.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방법은 종속변수의 값 결정에 미치는 영향(Level Importance)과 종속변수의 분산을 설명하는 정도(Dispersion - Importance)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표준화 회귀계수와 편결정계수는 모두 후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이다. 여기서 편결정계수는 위계적 방법(Hierachical Regression)에 의해 추정된 것이고 표준화 회귀계수는 일반적인 방법, 즉 다음과 같이 회귀계수(Partial slope) b_j 에 해당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표준편차비율(S_{xj} / S_y)을 승하여 계

산되었다. $\beta_j = \hat{b}_j \times \frac{S_{xj}}{S_y}$

표준화 회귀계수는 모델상의 다른 독립변수들의 값이 고정되어 있을 때, 해당 독립변수의 값이 1표준편차 변함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값을 표준편차 단위값으로 나타낸 것으로 그 절대값이 클수록 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분산을 설명하는 역할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편결정계수는 해당독립변수를 제외한 모든 다른 독립변수를 포함하는 모델에 해당독립변수를 추가하였을 때 증가하는 결정계수의 값으로서, 한 독립변수를 추가함으로써 추가로 설명이 되는 종속변수의 분산의 총분산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다. 이에 비해 위계적 편결정계수는 해당독립변수 바로 앞까지의 독립변수들을 포함하는 모델에 해당독립변수를 추가하였을 때 추가로 설명이 되는 종속변수 분산의 총분산에 대한 비율이 된다. 즉 위계적 모델에서는 독립변수들의 투입순서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단위가 아닌 지역단위 출산율수준을 설명하는 모형임을 감안하여, 중개변인인 혼인에 관한 변수와 가족계획변수를 앞에 두고 그 후, 인구, 사회, 경제 및 보건에 관한 변인들을 포함함으로써 중개변인 및 그의 변인들의 독립적인 영향과 추가적인 영향 및 중개변인을 통한 간접적 영향 등을 모두 측정코자 하였다. 여기서 독립적인 영향이라 함은 다른 변인들(중개변인포함)을 통제한 후의 영향을 뜻한다.

가. 주요변수

여기서는 본 연구에 이용된 변수들을 종속변수, 중개변수, 독립변수로 나누어 정의하고, 각 설명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이론적 관계를 설명하였다. 지역단위 출산율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들은 도표Ⅳ-1에서와 같이 출산수준

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6개요인으로 구분 설명하였다. 각 년도별 분석모델에서는 여기 설명된 모든 변수들이 포함된 것이 아니다. 각 년도별로 자료이용가능성의 문제가 있었고, 자료가 이용가능한 경우에도 각 변수의 행태에 그때 그때 차이가 있었고, 또 변수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일으키는 변수들이 있어 문제가 되는 변수들은 제외시켰다. 1960~1970년기간의 자료는 자료부족 때문에 그 이후의 자료와 비교하여 변수명이 같은 경우에도 계산방법에서 대상인구-분포를 달리하는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전국, 시부, 군부별로 각 변수의 대표값과 분포에 관한 통계는 부록 I에 수록되어 있다.

<종속변수>

지역별 출산율 수준의 변이를 설명하고자 하는 모형에서는 인구의 연령구조에서 오는 영향이 제외된 여자 1,000명에 대한 평균출산아수로 계산된 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을 종속변수로 하였다.

<중개변수>

출산단위 구성에 관한 요인으로 여자의 초혼연령 (Singulate Mean Age at First Marriage)과 독신비율을, 정부가족계획사업을 대표하는 변수로 임신억제부인년수 (Couple-years-of-protection)을 이용하였다.

개인부담 가족계획실천부분과 임신중절 및 그의 임신 소모 부분은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변수를 찾지 못해 중개변수에서 생략되었다. 그러나 이들 요인의 영향은 인구대비의사수, 약국수 등 보건, 위생에 관한 요인의 독립적인 효과로서 일부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가족형성에 관한 요인으로 유배우율은 초혼연령과 다중공 선성을 나타내 제외

되었다. 초혼연령은 각 인구센서스의 여자 미혼비율을 이용 Hajnal 방법에 의해 계산되었다. 중개변인으로 포함된 변인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독신비율 : 여자 40 ~ 44 세의 미혼인구백분비

임신억제부인년수(CYP) :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실적 통계에서 각 피임방법별로 다음 표Ⅳ-1에 주해한 것과 같은 평균임신억제년수(CYP 전환치)를 적용하여 매 인구센서스 이전 5개년 기간의 기혼부인 1,000명에 대한 연간 임신억제부인년수를 계산하였다. 표Ⅳ-1은 전국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Ⅳ-1〉 유배우부인 1,000 명당 년평균 피임억제부인년수 : 1962 ~ 1980

단위 : 1,000

년 도	유 배 우 부 인 수	피 임 방 법						전 체
		자 궁 내 장 치	정 관 수 술	난 관 수 술	콘 돔	먹 는 피 임 약		
62-65	3,664	45.6	29.8	-	36.7	-	112.0	
66-70	3,996	156.0	31.0	-	38.4	14.4	239.8	
71-75	4,426	145.9	41.0	7.0	39.0	51.1	284.6	
76-80	4,929	97.2	53.8	191.0	21.4	29.4	392.8	
81-85	5,693	66.4	101.8	252.6	17.6	12.4	450.8	

주) 1) 유배우 부인수는 15 ~ 44세의 추정 가임부인수임.

2) 여기서 CYP의 전환치는 자궁내장치 : 2, 정관수술 : 7, 난관수술 : 6 콘돔 및 먹는 약은 각각 1로 적용하였음.

자료 : 가족계획연구원의 연도별 사업통계 자료에서 계산됨
공세권 외 (1983).

〈대중통신 매체 및 외부접촉에 관한 요인〉

새로운 생활양식과 지식을 접하는 통로의 역할로서 그 지역의 가족형성 가족계획수용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출산율 수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TV소유, 연구이동, 도시와의 거리 등이 이러한 요인을 대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변수와 종속변수 및 중개변인과의 이론적인 관계는 TV소유, 연구이동이 큰 지역일수록 새로운 생활양식의 수용 혹은 적용이 크고, 군부의 경우 도시에서의 거리가 클수록 전통적인 생활양식이나 사고방식과 관계가 깊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한편인구율은 이동의 방향에 따라, 예를 들어 군부에서 시부로 혹은 시부에서 군부로의 전입인가에 따라 그 지역 출산수준 및 중개변인들에게 주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므로 그 관계의 방향을 미리 설정하기 힘들다. 전입인구율이 높다는 것은 여자의 취업기회를 높이고 결혼부인의 경우에는 남편의 취업기회와 관련하여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Cutright, 1977) 각 변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TV소유 : 인구센서스에서 수감된 자료, 지역내 TV소유 가구수의 전가구수에 대한 백분비

전화소유 : 전체가구중 전화소유가구의 백분비

연구이동 : 인구 10,000명당 전입인구수, 주민등록에 의한 해당년도의 1년간 이동인구자료로서, 이동인구는 구역내의 이동인구를 포함함.

도시와의 거리 : 가장 가까운 도시에서 해당지역 군청까지의 거리 (km), 자료행정구역편람.

<인구요인>

인구밀도, 주택당가구수, 노인인구부양비, 혼인대상인구비율등이 포함되었다. 인구밀도는 주로 지역주민의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을 반영할 것으로 인구밀도는 자녀양육비용, 보건후생시설등 도시생활과 관련된 다른 요인과의 관계가 있다. 인구밀도가 주는 인구압력에 대한 인식은 도시에서는 주로 출산수준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군부에서는 출산수준과의 관계 방향을 확정하기 어렵다. 일정한 수준에 경계로 서로 상반되는 영향을 보일 수 있다. 즉 인구밀도가 높을 경우 인구 압박으로서 작용할 것이며 인구밀도가 수준이하일 경우에는 노동력수요의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많은 자녀수를 선호하는 영향이 기대되고 인구밀도 수준차에 단계적인 반응을 보일 것인지의 여부는 확실치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인구밀도와 자녀수의 관계에서 인구밀도가 높아지면 출산율은 감소하나 어느 수준이하는 감소되지 않을 것이므로 곡선적인 관계를 상정하였다. 주택당 가구수는 주택문제와 지역의 생활수준에 관계되는 변수로 노인인구부양비는 인구연령구조와 지역의 전통적 영향, 혼인대상인구비율은 각 지역 혼인연령 및 독신인구비율과의 관계를 보기 위하여 포함되었다. 이들 변수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인구밀도 : 1인당 거주인구수의 대수값, 지역의 면적은 해당년도 각 시·도 통계년감, 인구수는 인구센서스자료를 이용하였다.

주택당가구수 : 100 주택에 거주하는 평균가구수, 각 년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자료에서 계산

노인인구부양비 : 15 ~ 64 세 인구에 대한 65 세 이상 인구의 백분비

혼인대상인구비율 : 남자 25 ~ 34 세 인구 100 명에 대한 여자 20 ~ 29 세 인구수

< 보건·위생수준 >

사망율의 감소는 임신소모를 감소시켜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보다는 사망율의 감소에 따른 생존자녀수의 증가로 추가자녀의 가치를 감소시키고, 자녀의 성인으로의 성장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각 구시군의 사망수준에 관한 자료가 없어 의사인구비, 약국인구비, 수도시설, 수세식 변소시설등의 변수로 보건위생수준을 측정코져하였다. 의사인구비는 일부 정부가족계획사업이 의사를 통하여 공급되는 점에서 관계가 있고, 약국은 민간부문 가족계획방법의 공급처이므로 정부가족계획사업과는 부의관계를 기대할 수 있다.

의사인구비 : 인구 100,000 명당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수.

약국인구비 : 인구 100,000 명당 약국 및 약종상 수.

수 도 시 설 : 수도 공급지역 거주 인구의 전 지역인구에 대한 백분비

수세식변소시설 : 수세식 변소시설이 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총가구
에 대한 백분비

< 양육비 및 기회비용 >

자녀 양육비용의 지표로 재학율을 포함하였다. 성인의 높은 교육수준도 자녀의 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므로 양육비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모 특히 부인의 자녀양육에 따른 기회비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15~64세 여자 인구중 비농업부문 취업자 비율을 포함하였다.

재학율 : 국민학교와 중·고등학생의 5~19세 인구에 대한 백분비

비농업취업 : 여자 15~64세 인구 중 비농업부문 취업자의 백분비

< 소득수준 >

소득수준은 중개변인과 출산수준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출산율 및 정부의 가족계획사업과는 부의 관계를 기대할 수 있다. 소득수준의 초혼연령과 독신비율과의 관계는 교육수준의 효과를 통제한다면 부의 관계를 기대할 수 있다. 소득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가 없어 인구센서스자료에서 냉장고소유, 주택소유 등에 관한 변수와 지방세(주로 지역내의 재산에 대한 과세)를 소득수준변수로 활용하였다.

지방세 : 1인당 평균 지방세액, 단위 1,000 원, 지방세는 주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등이 대부분을 차지함.

냉장고소유 : 전체 가구 중 냉장고 소유가구의 백분비

주택소유 : 전체 가구 중 주택소유가구의 백분비

< 성인교육수준 >

교육수준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거의 모든 측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중개변인(혼인과 가족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녀관 생활양식등을 통하여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외 모든 출산율 결정요인들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별도의 요인으로 분리하고 가장 낮은 위계서열을 주었다. 처음 남·여교육수준 모두 포함하였으나 두 변수의 높은 상관관계 때문에 남자의 교육수준은 제외하였다. 혼인연령, 독신비율, 가족계획수용과는 정의 상관관계가, 출산율 수준과는 부의 상관관계가 기대된다.

교육수준(여자) : 각 년도 인구센서스자료이용 중등이상 교육을 받은 여자의 총여자 인구수에 대한 백분비

3. 결과 요약

1960년 이후 1985년까지 전기간의 분석결과를 종합한다면

- 1) 구·시·군의 합계출산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공식은 1971~75년 군부와 1960년 군부 공식의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결정계수가 70% 이상이었으며, 대부분이 80~90%의 범위내에 있었다. 이는 같은 종류의 과거의 어떤 연구결과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 2) 분석모델은 설명변수의 종속변수와의 관계 방향 등에서 설명을 할 수 없는 이론과는 다른 결과치를 얻은 경우가 많았다. 이는 부분적으로 시간의 제한등으로 변수행태에 대한 연구부족등 모델설정상의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함을 고려하여 이를 단순한 경험적 모델로 간주하더라도 이와같이 결정계수는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모델상 문제점에 대한 다른 설명으로, 연구단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첫째 개인이 아닌 집단특정치를 사용하면서 생기는 문제와 둘째는 연구단위 집단이 이러한 분석목적으로는 지나치게 큰데서 오는 문제가 있다. 바꾸어 말하여 구·시·군 단위는 이 분석을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의 동질성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할 수 있는 연구결과의 하나는 1985년 임신억제부인년수 공식을 제외하고 모든 공식에서 군부공식의 결정계수는 시부공식의 결정계수보다 현저히 낮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군이 구·시보다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군면등 더 이질적인 집단들의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 4) 실제공식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연구과정에서 많은 설명변수들 간에

강한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현상은 위에서 설명한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5) 구·시·군 출산율 수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은 두 중개변인으로 여자 초혼연령 혹은 여자 20~24세 미혼인구 비율에 의해 대표되는 혼인행태의 변화와 임신억제 부인년수에 의해 측정된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이라 할 수 있다.
- 6) 두 중개변인 외에도, 모델에 포함된 교육수준, 인구, 보건, 외부접촉, 양육비용, 소득등 요인에 관한 변수들도 각 기간별로 일정치 않으나 중개변인과는 독립적으로 출산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7) 그러나, 이들 변인의 중개변인 특히 혼인행태의 변화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시·군 합계출산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공식에서 초혼연령(혹은 여자 20~24세 미혼비율)의 편결정계수는 전체 결정계수(R²)의 1/2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았다.
- 8) 1976~80년 기간 이후, 초혼연령을 종속변수로 하는 공식에서 결정계수가 49%에서 91%사이 에 분포하는데 비교하여, 정부가족계획사업 실적(CYP)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공식은 결정계수가 37%에서 64%사이 에 분포하는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당부문의 가족계획 수용이 사회경제 변화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증가하여 왔음을 뜻한다. 사회경제 변화 이외의 요인이란 정보교육등을 포함한 가족계획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뜻할 수도 있고, 혹은 단순히 모델에 포함된 변수들이 가족계획의 수용으로 이끄는 자녀에 관한 가치관 변화를 적절히 대표하지 못한데서 오는 현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 9) 이에 비하여 초혼연령의 변이는 포함된 변수들에 의해 대부분이 설명되고 있으며 또한 초혼연령은 합계출산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공식에서 매우 큰 편결정계수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1981~85년 시부와 1985년 전국 공식에서 초혼연령의 편결정계수는 70% 이상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경제 변화가 초혼연령의 변화로 대표되는 생활양식의 변화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출산수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10) 출산수준에 대한 가족계획 사업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난 기간은 1970년대 후반과 1980년 초반이며 혼인행태 변화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난 기간은 1966~70년 기간으로 나타난다.
- 11) 임신억제 부인년수를 설명하는 변수중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변수로 자주 나타나는 변수로는 인구관련 변수, 의사·약국인구비, 외부접촉 및 대중전달 매체에 관련되는 변수, 성인교육수준 등이었다. 그러나 각 기간 회귀공식의 결정계수는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12) 여자 초혼연령과 합계출산율의 높은 단순 상관관계에도 불구하고 초혼연령의 공식에서 대체로 낮은 몇공식을 제외하고 표준화 회귀계수 값을 보인 것은 여자 혼인연령 혹은 여자 20~24세 미혼비율은 다른 설명변수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혼인적령인구의 성비는 70년 이후 거의 모든 공식 여자 교육수준과 함께 초혼연령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경제사정(취업실업율등)과 대중전달매체에 관련된 변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要約 및 意見

한국인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여자 1명당 출산아 6.0명에서 1985년 1.7명으로 25년간 72%가 감소하였다. 지금까지 감소추세는 점차 가속되어 왔고, 1980년 이후 5년간에는 40%감소라는 어느 때보다 빠른 감소속도를 보였다. 1985년의 합계출산율이 이미 대체출산율 수준 2.1명을 하회하고 있으므로 어느 수준까지 감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85년 조사(인구보건연구원, 1987)에서의 이상자녀수가 저연령층 부인의 경우에도 2.0명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안정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 단기적으로 약간의 상승과 하강의 주기성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는 주로 한국에서의 출산수준의 결정요인과 최근의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배경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출산율의 감소가 사회경제발전과 생활양식의 변화와 함께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출산수준의 분포에 분명한 특색을 발견할 수 있었으므로 출산수준의 변화를 소자녀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가 지역에서 지역으로 전파하는 과정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문제의 접근 방법은 이러한 점에서 지역단위 출산수준의 분포의 변화와 이와 관련된 집단의 속성을 규명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연구방법은 단순한 통계를 이용한 기술적 방법과 병행하여 분석모형을 정하여 다변분석을 시도하였다. 자료는 주로 1960~1985년기간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하고 이외에 필요한 지역의 경제 사회속성등에 관한 자료는 각 지역의 통계간행

물에서 추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 항에서 요약되는 바와 같은 우리나라 출산율수준변화과정
정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흥미있는 현상을 보여준다. 또한 연구방법상의 여
러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출산수준의 변화에는 혼인연령의 상
승과 가족계획의 효과 이외에도 높은 교육수준, 대중통신매체, 양육비의 상
승 혹은 자녀의 질에 대한 기대수준의 상승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분명이 보여주고 있다. 또 이러한 변인들의 변화는 도시화와 이에 따른 생
활양식의 변화로서 대표되었다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1960 ~ 85년 기간중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보면 1960년의 경우, 6.0
명에 가깝던 합계출산율은 그동안 약 2%정도 감소하여 1985년에는
1.7명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은 19
70년대 중반이후 더욱 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와같은 출산율의
저하현상은 도시 농촌 구분없이 전 지역에서 관찰되며, 특히 최근에는
농촌지역에서 더 급격하게 떨어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결과 1960
년에는 도시 농촌간의 합계출산율의 차이가 약 1.4명 정도 되던것이
1985년에는 도시의 합계출산율이 1.66명인데 반해 농촌도 1.97명으로
크게 떨어져 차이가 불과 0.3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와같은 지역
간 출산율의 감소추세는 도단위지역출산율의 수준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최근에는 시 도단위 출산율의 수준이 급격히 평준화되어 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2) 출산율의 감소추세를 연령별로 관찰해 보면, 최근에는 도시 농촌구분없
이 30 ~ 34세 연령층의 출산율의 감소가 특히 현저하게 나타나며, 우

리나라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연령계층인 25~29세 연령층의 출산율도 1970년대중반 이후부터 급격히 감소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이 연령층의 출산율감소는 주로 우리나라에서 여자의 초혼연령이 25세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실은 1970년대 중반이후 주로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출산율이 떨어진 것으로 평가되는 20~24세 연령층의 출산율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종전에 비해 별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뒷받침되고 있다. 이에 반해 최근 30~34세 연령층의 출산율도 도시 농촌에서 모두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도시화의 확산과 더불어 최근 우리나라 부인들간에 단산연령이 크게 낮아지고 있음을 반영해 주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 (3) 우리나라에서 연령별 출산율의 변동과정을 보면, 출산율저하의 초기단계에서는 주로 24세이하의 저연령층의 출산율과 35세이상의 고연령층의 출산율이 먼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주로 30~34세 이상의 고연령층의 출산율만이 떨어졌을 뿐 30세미만의 저연령층의 출산율은 상당히 오랫동안 거의 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에 와서 비로소 이 연령층의 출산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관찰되는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 현상은 주로 25~29세 연령층의 출산율저하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어느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는가 하는 문제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주로 이 연령층의 출산율 저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4) 한편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의 변화추이를 구·시·군단위로 관찰해 보았을 때,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지역간 출산율 수준의 격차를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 자율조정적인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종래 출산율의 저하는 지역의 발전수준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출산율은 농촌보다 다른 도시에서 보다 큰 폭으로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1960년대를 제외하면 출산율의 변동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은 반드시 도시 농촌이라는 지역특성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오히려 지역출산율이 높은 지역에서 출산율의 변동폭이 더 컸으며, 반대로 출산율이 낮은 지역에서 변동율이 낮았다. 또한 일정한 기간동안 출산율의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최종적으로 두 지역간에 출산율의 연령패턴이 서로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1971~1985년기간중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은 주로 지역간에 이와같은 유형의 출산율 변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에서 떨어졌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한 요인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하겠다.
- (5) 구·시·군의 합계출산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공식은 1971~75년군부와 1960년 군부 공식의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결정계수가 70%이상이었고, 대부분이 80~90%의 범위내에 있었다. 이는 같은 종류의 과거의 어떤 연구결과 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 (6) 분석모델은 설명변수의 종속변수와의 관계 방향 등에서 설명을 할수 없는 이론과는 다른 결과치를 얻은 경우가 많았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시간의 제한등으로 변수형태에 대한 연구부족등 모델설정상의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함을 고려하여 이를 단순한 경험적 모

델로 간주하더라도 이와같이 높은 결정계수는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7) 모델상 문제점에 대한 다른 설명으로, 연구단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첫째 개인이 아닌 집단특정치를 사용하면서 생기는 문제와 둘째는 연구단위 집단이 이러한 분석목적으로는 지나치게 큰데서 오는 문제가 있다. 바꾸어 말하여 구·시·군단위는 이 분석을 위해 지역사회 특성의 동질성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할 수 있는 연구결과의 하나는 1985년 임신억제부인년수 공식을 제외하고 모든 공식에서 군부공식의 결정계수는 시부공식의 결정계수보다 현저히 낮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군이 구·시 보다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군면등 더 이질적인 집단들의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 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 (8) 실제공식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연구과정에서 많은 설명변수들간에 강한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현상은 위에서 설명한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9) 구·시·군 출산율 수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은 두 중개변인으로 여자 초혼연령 혹은 여자 20~24세 미혼인구 비율에 의해 대표되는 혼인형태의 변화와 임신억제 부인년수에 의해 측정된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이라 할 수 있다.
- (10) 두 중개변인 외에도, 모델에 포함된 교육수준, 인구, 보건, 외부접촉, 양육비용, 소득등 요인에 관한 변수들도 각 기간별로 일정치 않으나 중개변인과는 독립적으로 출산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11) 그러나, 이들 변인의 중개변인 특히 혼인형태의 변화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시·군 합계출산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공식에서 초혼연령(혹은 여자 20~24세 미혼비율)의 편결정계수는 전체 결정계수(R²)의 1/2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았다.
- (12) 1976~80년 기간 이후, 초혼연령을 종속변수로 하는 공식에서 결정계수가 49%에서 91% 사이에 분포하는데 비교하여, 정부가족계획사업실적(CYP)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공식은 결정계수가 37%에서 64% 사이에 분포하는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당부분의 가족계획 수용이 사회경제 변화 이외에 다른 요인에 의해 증가하여 왔음을 뜻한다. 사회경제 변화 이외의 요인이란 정보교육등을 포함한 가족계획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뜻할 수도 있고, 혹은 단순히 모델에 포함된 변수들이 가족계획의 수용으로 이끄는 자녀에 관한 가치관 변화를 적절히 대표하지 못한데서 오는 현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 (13) 이에 비하여 초혼연령의 변이는 포함된 변수들에 의해 대부분이 설명되고 있으며 또한 초혼연령은 합계출산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공식에서 매우 큰 편결정계수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들면 1981~85년 시부와 1985년 전국 공식에서 초혼연령의 편결정계수는 70%이상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경제 변화가 초혼연령의 변화로 대표되는 생활양식의 변화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출산수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14) 출산수준에 대한 가족계획 사업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난 기간은 1970년대 후반과 1980년 초반이며 혼인형태 변화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난 기간은 1966~70년 기간으로 나타난다.

- (15) 임신억제 부인년수를 설명하는 변수중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변수로 자주 나타나는 변수로는 인구관련 변수, 의사 약국인구비, 외부접촉 및 대중전달 매체에 관련되는 변수, 성인교육수준들이었다. 그러나 각 기간 회귀공식의 결정계수는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16) 여자 초혼연령과 합계출산율의 높은 단순 상관관계에도 불구하고 초혼 연령의 공식에서 대체로 낮은 몇공식을 제외하고 표준화 회귀계수값을 보인 것은 여자 혼인연령 혹은 여자 20~24세 미혼비율은 다른 설명변수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혼인적령 인구의 성비는 70년 이후 거의 모든 공식 여자 교육수준과 함께 초혼연령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경제사정(취업실업율등)과 대중전달매체에 관련된 변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附 錄

表 I. 市郡部別 區市郡 地域屬性的 平均 및 標準偏差, 1960~1985

表 II. 出產水準 및 變動率 水準別 區·市·郡의 地域屬性, 1960~85

1. 出產水準別 區·市·郡의 平均 社會經濟 地域屬性, 1960~85
2. 出產水準別 區·市·郡 一覽表
3. TFR 變動率 水準別 區·市·郡의 平均 社會經濟 地域屬性, 1960~85
4. TFR 變動率 水準別 區·市·郡 一覽表

부록 I. 시 군부별 구시군 지역속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1960-1985

표 I. 1. 시·군부별 구·시·군지역속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1985

요 인 및 변 수	전			국			시			부			부		
	평 균	표준편차	최소치	평 균	표준편차	최소치	평 균	표준편차	최소치	평 균	표준편차	최소치	평 균	표준편차	최소치
구 시 군 수	226			84			142								
합계출산율 (TFR), 1985	24.19	0.80	22.03	26.45	24.79	22.57	26.45	24.79	22.57	26.45	24.79	22.57	26.45	24.79	22.57
초혼연령, 여	523.89	121.68	186.00	822.00	429.71	202.00	822.00	429.71	202.00	822.00	429.71	202.00	822.00	429.71	202.00
임신역제부인년수	3,045.52	6,168.72	23.00	30,239.00	7,852.00	8,115.62	30,239.00	7,852.00	8,115.62	30,239.00	7,852.00	8,115.62	30,239.00	7,852.00	8,115.62
인구밀도 (명)	8.99	3.79	2.81	17.72	5.01	1.27	17.72	5.01	1.27	17.72	5.01	1.27	17.72	5.01	1.27
노인부양비 (%)	107.69	12.05	77.57	145.97	118.18	10.53	145.97	118.18	10.53	145.97	118.18	10.53	145.97	118.18	10.53
적령인구성비 (여 20 ~ 29 / 남 25 ~ 34 * 100)	140.73	36.88	102.67	248.14	181.18	26.20	248.14	181.18	26.20	248.14	181.18	26.20	248.14	181.18	26.20
주택당가구 (/ 주택 100)	50.48	84.80	5.00	784.00	96.38	125.90	784.00	96.38	125.90	784.00	96.38	125.90	784.00	96.38	125.90
의사인구비 (/ 인구 100,000)	46.22	35.12	1.00	102.00	86.96	13.21	102.00	86.96	13.21	102.00	86.96	13.21	102.00	86.96	13.21
수도이용 (%)	46.61	20.41	16.00	201.00	58.75	26.88	201.00	58.75	26.88	201.00	58.75	26.88	201.00	58.75	26.88
약국인구비 (/ 인구 100,000)	12.63	13.12	0.40	82.00	24.14	11.12	82.00	24.14	11.12	82.00	24.14	11.12	82.00	24.14	11.12
수세적사용인구비 (/ 가구 100)	41.39	12.93	17.30	85.10	53.72	8.93	85.10	53.72	8.93	85.10	53.72	8.93	85.10	53.72	8.93
전화소유 (%)	98.20	3.01	80.50	111.60	98.36	3.87	111.60	98.36	3.87	111.60	98.36	3.87	111.60	98.36	3.87
TV소유 (/ 가구 100)	1,603.16	812.56	584.00	3,967.00	2,435.27	524.45	3,967.00	2,435.27	524.45	3,967.00	2,435.27	524.45	3,967.00	2,435.27	524.45
전임인구비 (/ 인구 100,000)	21.54	27.18	0.00	129.69	na	na	129.69	na	na	129.69	na	na	129.69	na	na
도시거리 (km)	80.11	3.99	61.85	88.82	78.00	3.51	88.82	78.00	3.51	88.82	78.00	3.51	88.82	78.00	3.51
초중고대학생비율, 인구 5-19	15.93	7.88	3.30	47.80	24.10	5.02	47.80	24.10	5.02	47.80	24.10	5.02	47.80	24.10	5.02
비농여자취업, 15세 이상	61.67	16.30	22.50	94.40	75.18	8.56	94.40	75.18	8.56	94.40	75.18	8.56	94.40	75.18	8.56
냉장고소유 (/ 가구 100)	65.87	19.81	28.70	94.20	43.69	7.15	94.20	43.69	7.15	94.20	43.69	7.15	94.20	43.69	7.15
주택소유 (%)															
중등이상															
교육인구, 여 (인구 100)	25.93	11.68	7.83	52.12	37.91	7.02	52.12	37.91	7.02	52.12	37.91	7.02	52.12	37.91	7.02
중등이상															
교육인구, 전체 (/ 인구 100)	31.61	10.06	15.01	53.04	41.56	6.27	53.04	41.56	6.27	53.04	41.56	6.27	53.04	41.56	6.27
부															
부															

표 I. 2. 시 군부별 구·시·군 지역속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1980

요 인 및 변 수	전			국			시			부			군			부						
	평	표준편차	최소치	최대치	평	표준편차	최소치	최대치	평	표준편차	최소치	최대치	평	표준편차	최소치	최대치	평	표준편차	최소치	최대치		
	226	0.71	21.42	25.97	73	0.75	22.42	22.97	141	0.53	21.42	24.85	23.64	0.71	21.42	25.97	23.64	0.71	21.42	25.97	23.64	
구 시 군 수	226	0.71	21.42	25.97	73	0.75	22.42	22.97	141	0.53	21.42	24.85	23.64	0.71	21.42	25.97	23.64	0.71	21.42	25.97	23.64	
합계출산율(TFR), 1981~85	23.64	0.71	21.42	25.97	24.14	0.75	22.42	22.97	23.38	0.53	21.42	24.85	23.64	23.38	0.53	21.42	22.97	23.38	0.53	21.42	24.85	
초혼연령, 여	419.10	148.14	34.17	962.71	349.89	186.21	34.17	962.71	454.45	109.21	52.04	831.75	419.10	148.14	34.17	962.71	454.45	109.21	52.04	831.75	419.10	
임신여제부인년수	3,106.71	6,399.79	24.00	32,580.00	8,718.70	8,524.73	569.00	32,589.00	201.21	125.05	24.00	1,035.00	3,106.71	6,399.79	24.00	32,589.00	201.21	125.05	24.00	1,035.00	3,106.71	
인구밀도(人/㎢)	7.97	3.14	2.86	14.00	4.28	0.96	2.86	7.12	9.88	1.95	4.53	14.00	7.97	3.14	2.86	14.00	9.88	1.95	4.53	14.00	7.97	
노인부양비(%)	125.46	15.51	75.21	171.05	133.17	17.81	75.21	171.05	121.47	12.48	84.33	156.01	125.46	15.51	75.21	171.05	121.47	12.48	84.33	156.01	125.46	
취령인구성비 (여 20~29/남 25~34*100)	138.68	37.01	102.04	248.76	184.02	23.38	128.21	248.76	115.20	13.26	102.04	186.92	138.68	37.01	102.04	248.76	115.20	13.26	102.04	186.92	138.68	
주택당가구(/ 주택 100)	34.97	66.94	3.00	649.00	73.41	104.01	7.00	649.00	14.92	7.12	3.00	36.00	34.97	66.94	3.00	649.00	14.92	7.12	3.00	36.00	34.97	
의사인구비(/ 인구 100,000)	44.76	18.77	19.00	172.00	58.47	25.08	19.00	172.00	37.61	7.83	20.00	58.00	44.76	18.77	19.00	172.00	37.61	7.83	20.00	58.00	44.76	
약국인구비(/ 인구 100,000)	6.76	10.02	0.10	72.10	16.30	11.55	2.40	72.10	1.82	3.46	0.10	28.50	6.76	10.02	0.10	72.10	1.82	3.46	0.10	28.50	6.76	
수세식사용인구비(/ 가구 100)	19.89	9.06	6.20	61.40	29.13	9.34	10.70	61.40	15.10	3.54	6.20	29.90	19.89	9.06	6.20	61.40	15.10	3.54	6.20	29.90	19.89	
전화소유(%)	82.97	7.53	62.80	97.50	89.35	4.69	73.20	97.50	79.67	6.53	62.80	92.80	82.97	7.53	62.80	97.50	79.67	6.53	62.80	92.80	82.97	
TV소유(/ 가구 100)	1,599.51	971.42	580.00	5,756.00	2,837.37	710.42	1,468.00	5,756.00	1,046.43	383.65	580.00	3,632.00	1,599.51	971.42	580.00	5,756.00	1,046.43	383.65	580.00	3,632.00	1,599.51	
친임인구비(/ 인구 100,000)	25.07	28.44	0.00	129.60	na	na	na	na	38.05	27.07	0.00	129.61	25.07	28.44	0.00	129.60	38.05	27.07	0.00	129.61	25.07	
도시거리(人/㎢)	75.24	4.07	50.88	82.01	72.95	4.36	50.88	82.01	76.42	3.36	64.64	82.00	75.24	4.07	50.88	82.01	76.42	3.36	64.64	82.00	75.24	
초중고계 학생비율, 인구 5-19	27.57	17.42	3.70	85.10	47.46	11.60	21.20	85.10	17.27	8.91	3.70	44.00	27.57	17.42	3.70	85.10	17.27	8.91	3.70	44.00	27.57	
냉장고소유(/ 가구 100)	68.83	20.19	30.00	95.40	43.97	7.55	30.00	95.40	81.69	10.12	43.90	95.40	68.83	20.19	30.00	95.40	81.69	10.12	43.90	95.40	68.83	
주택소유(%)	19.71	10.95	6.28	47.04	32.64	6.80	19.09	47.04	13.02	5.14	6.28	33.49	19.71	10.95	6.28	47.04	13.02	5.14	6.28	33.49	19.71	
중등이상 교육인구, 여(/ 인구 100)																						

표 I. 3. 시 군부별 구·시·군 지역속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1975

요 인 및 변 수	전						국			시			부			군			부						
	평균	표준편차	최소치	최대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치	최대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치	최대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치	최대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치	최대치					
구 시 군 수	226				59								138												
합계출산율 (TFR), 1976 ~ 80	23.12	0.84	20.66	25.79	23.91	0.79	21.65	25.79	22.79	0.61	20.66	24.13	22.79	0.61	20.66	24.13	22.79	0.61	20.66	24.13	22.79	0.61	20.66	24.13	
초혼연령, 여	313.23	73.51	78.78	516.10	255.51	70.83	78.78	461.28	337.44	60.29	116.52	516.10	337.44	60.29	116.52	516.10	337.44	60.29	116.52	516.10	337.44	60.29	116.52	516.10	
임신여제부인년수	2,959.62	7,141.77	29.00	39,953.00	9,329.54	10,602.08	505.00	39,953.00	216.36	106.53	29.00	634.00	216.36	106.53	29.00	634.00	216.36	106.53	29.00	634.00	216.36	106.53	29.00	634.00	
인구밀도 (km ²)	7.21	2.52	2.78	15.07	4.08	1.08	2.78	7.51	8.55	1.60	4.52	15.07	8.55	1.60	4.52	15.07	8.55	1.60	4.52	15.07	8.55	1.60	4.52	15.07	
노인부양비 (%)	115.68	16.61	80.27	176.21	126.74	17.03	80.27	176.11	110.95	14.03	82.99	176.11	110.95	14.03	82.99	176.11	110.95	14.03	82.99	176.11	110.95	14.03	82.99	176.11	
적령인구성비																									
(여 20 ~ 29/ 남 25 ~ 34*100)																									
주택당가구 (/ 가구 100)	134.69	35.15	102.67	245.70	182.83	24.03	124.07	245.70	114.11	9.91	102.67	245.70	114.11	9.91	102.67	245.70	114.11	9.91	102.67	245.70	114.11	9.91	102.67	245.70	
의사인구비 (/ 인구 100,000)	41.04	107.49	2.00	1,013.00	103.31	181.99	14.00	1,013.00	14.23	6.03	2.00	1,013.00	14.23	6.03	2.00	1,013.00	14.23	6.03	2.00	1,013.00	14.23	6.03	2.00	1,013.00	
약국인구비 (/ 인구 100,000)	45.06	21.38	1.00	172.00	61.72	30.48	1.00	172.00	37.34	7.40	9.00	172.00	37.34	7.40	9.00	172.00	37.34	7.40	9.00	172.00	37.34	7.40	9.00	172.00	
도시거리 (km)	28.60	29.21	0.00	129.60	na	na	na	na	40.83	26.79	0.00	129.60	40.83	26.79	0.00	129.60	40.83	26.79	0.00	129.60	40.83	26.79	0.00	129.60	
초중고재학생비율, 인구 5-19	66.52	3.26	56.00	73.00	66.00	3.94	56.00	73.00	66.74	2.91	57.00	73.00	66.74	2.91	57.00	73.00	66.74	2.91	57.00	73.00	66.74	2.91	57.00	73.00	
지방세 (1,000)	3.22	4.74	1.00	58.00	6.47	8.45	2.00	58.00	2.10	1.00	1.00	58.00	2.10	1.00	1.00	58.00	2.10	1.00	1.00	58.00	2.10	1.00	1.00	58.00	
중등이상																									
교육인구, 여 (/ 인구 100)	13.42	8.78	4.00	36.00	25.00	6.09	13.00	36.00	8.43	3.38	4.00	36.00	8.43	3.38	4.00	36.00	8.43	3.38	4.00	36.00	8.43	3.38	4.00	36.00	
중등이상																									
교육인구, 전체 (/ 인구 100)	18.72	8.82	8.00	41.00	30.22	5.91	19.00	41.00	13.77	3.82	8.00	41.00	13.77	3.82	8.00	41.00	13.77	3.82	8.00	41.00	13.77	3.82	8.00	41.00	

표 I. 4. 시 군부별 구·시·군 지역속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1970

요 인 및 변 수	전			국			시			부			군			부					
	평 균	표준편차	최소치	최대치	평 균	표준편차	최소치	최대치	평 균	표준편차	최소치	최대치	평 균	표준편차	최소치	최대치	평 균	표준편차	최소치	최대치	
구 시 군 수	226				52				138												
합계출산율 (TFR), 1971 ~ 75	22.82	0.91	20.38	26.22	23.68	0.82	22.66	26.22	22.49	0.71	20.38	23.86	22.49	0.71	20.38	23.86	22.49	0.71	20.38	23.86	23.86
초혼연령, 여	1,922.29	5,493.26	31.00	39,998.00	7,179.40	9,383.74	421.00	43,998.00	218.93	102.41	31.00	596.00	218.93	102.41	31.00	596.00	218.93	102.41	31.00	596.00	596.00
인구밀도 (人/km ²)	7.11	2.48	2.46	15.33	4.01	1.28	2.46	7.82	8.28	1.71	4.38	15.33	8.28	1.71	4.38	15.33	8.28	1.71	4.38	15.33	15.33
노인부양비 (%)	108.54	16.26	71.96	165.76	120.50	16.27	86.55	165.76	104.09	13.91	71.96	135.23	104.09	13.91	71.96	135.23	104.09	13.91	71.96	135.23	135.23
적령인구성비 (여 20 ~ 29 / 남 25 ~ 34 * 100)	129.53	33.10	61.77	293.26	172.86	23.06	119.19	244.50	113.56	18.28	61.77	293.26	113.56	18.28	61.77	293.26	113.56	18.28	61.77	293.26	293.26
주택당가구 (/ 주택 100)	333.38	294.56	380.00	1,851.00	1,237.69	261.68	737.00	1,851.00	833.22	230.79	380.00	1,523.00	833.22	230.79	380.00	1,523.00	833.22	230.79	380.00	1,523.00	1,523.00
라디오소유 (/ 인구 10,000)	543.27	357.09	111.00	3,081.00	919.87	499.05	503.00	3,081.00	420.73	169.18	111.00	1,102.00	420.73	169.18	111.00	1,102.00	420.73	169.18	111.00	1,102.00	1,102.00
신문구독 (/ 인구 10,000)	64.59	2.69	57.37	71.11	65.85	3.20	57.37	70.12	64.12	2.31	58.62	71.11	64.12	2.31	58.62	71.11	64.12	2.31	58.62	71.11	71.11
초중고재학생비율, 인구 5-19 중등이상	8.81	7.06	1.75	31.93	18.69	5.73	9.33	31.93	5.07	2.39	1.75	15.78	5.07	2.39	1.75	15.78	5.07	2.39	1.75	15.78	15.78
교육인구, 여 (/ 인구 100)																					

표 I. 5. 시 군부별 구·시·군 지역속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1965

요 인 및 변 수	전			국			시			부			부				
	평균	표준편차	최소치	최대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치	최대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치	최대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치	최대치	
구 시 군 부	226				47				143								
합계출산율 (TFR), 1966 ~ 70	44.36	14.71	1.40	85.60	60.87	11.67	20.80	85.60	39.58	11.87	1.40	64.30					
초혼연령, 여	0.20	0.39	0.01	3.85	0.60	0.71	0.17	3.85	0.09	0.06	0.01	0.50					
의사인구비 (/ 인구 10,000)	0.55	0.22	0.27	2.34	0.81	0.32	0.41	2.34	0.48	0.11	0.27	0.84					
약국인구비 (/ 인구 10,000)	8.05	18.28	0.20	180.30	25.49	36.35	2.20	180.30	3.81	3.15	0.20	21.00					
전 화소유 (%)	389.24	248.40	96.40	1,441.80	703.62	278.13	299.40	1,441.80	298.19	144.80	96.40	792.60					
라디오소유 (/ 인구 10,000)	459.01	303.44	86.80	2,640.10	854.85	367.17	428.40	2,640.10	347.52	156.81	86.80	1,017.80					
신문구독 (/ 인구 10,000)	30.05	29.32	0.00	129.60	na	na	na	na	39.92	27.33	0.00	129.60					
도시거리 (km)	44.87	9.41	17.60	71.30	33.62	4.72	17.60	51.90	47.85	8.01	32.30	71.30					
취업률 (/ 13 + 인구)	6.38	5.96	1.10	30.00	16.25	5.45	4.70	30.00	3.75	2.16	1.10	19.40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																	
중동이상																	
교육인구, 전체 (/ 인구 100)	103.02	62.65	13.00	323.20	201.91	53.47	110.90	323.20	75.16	26.29	13.00	173.00					

표 I. 6. 시 군부별 구·시·군 지역속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1960

요 인 및 번 수	전			국			시			부			부		
	평균	표준편차	최소치	평균	표준편차	최대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치	평균	표준편차	최대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치
	명 수			명 수			명 수			명 수			명 수		
구 시 군 수	226			40									142		
합계출산율 (TFR), 1961~65	31.12	16.18	0.80	83.10			49.20	11.72	10.70	74.40			26.09	13.13	0.80
초혼연령, 여	1,754.59	5,062.64	27.24	38,557.99			7,359.02	9,165.37	264.56	38,557.99			284.40	570.88	27.24
인구밀도 (명)	30.48	10.62	14.80	93.20			19.85	3.47	15.60	30.30			33.15	10.17	14.80
3 + 세대대가구 (%)	22.20	12.42	0.00	86.04			23.06	13.74	0.00	52.49			21.92	12.09	0.00
경제면적, 단보 (1,000)	0.33	0.23	0.01	1.38			0.52	0.28	0.16	1.38			0.28	0.18	0.01
약국인구비 (/ 인구 10,000)	4.64	18.49	0.10	198.00			19.36	41.48	2.60	198.00			1.50	1.43	0.10
전화소유 (%)	159.21	145.24	3.80	902.00			336.75	185.78	48.70	902.00			109.72	79.23	3.80
라디오소유 (/ 인구 10,000)	287.47	239.30	37.10	1,320.10			625.51	234.87	266.50	1,320.10			194.27	131.02	52.90
신문구독 (/ 인구 10,000)	185.64	171.61	0.00	1,610.00			na	na	na	na			237.94	158.98	0.00
도시거리 (km)	1,537.95	355.14	685.00	3,321.00			1,933.74	389.70	1,209.00	3,321.00			1,429.25	254.66	685.00
초중고재학생비율, 인구 5-19	44.87	9.41	17.60	71.30			33.62	4.72	17.60	51.90			47.78	8.01	32.30
취업율 (/ 13 + 인구)	6.38	5.96	1.10	30.00			16.25	5.45	4.70	30.00			3.79	2.19	1.10
실업율 (/ 경제활동연구)	81.51	11.06	51.70	94.24			64.33	7.84	51.70	82.73			85.77	6.73	57.73
주택소유 (%)	31.67	23.74	6.69	90.78			70.76	11.96	31.66	87.12			21.41	12.93	6.69
비농부문취업율 (/ 경제활동연구)															
중등이상															
교육인구, 전체 (/ 인구 100)	48.95	32.44	4.60	164.20			98.51	31.61	35.50	164.20			35.34	14.44	4.60

부록Ⅱ. 출산수준 및 변동율 수준별 구시군과 지역속성, 1960-1985

표Ⅱ. 1. 출산수준별 구·시·군의 평균사회경제 지역속성, 1960 ~ 1985

기간 : 1985

지 역 속 성	출 산 율 수 준		
	저	중	고
합계출산율	1,473.00	1,919.51	2,339.2
변화율 (%)	30.67	33.27	31.0
임신억제부인년수	479.20	524.86	575.0
대도시수	29	11	0
기타도시수	7	34	3
군 수	5	107	30
초, 중, 고, 재학 / 인구 5-19	77.75	80.32	82.05
중이상, 계 / 인구 100	42.52	30.34	23.88
중이상, 여 / 인구 100	38.90	24.43	16.72
학교수 / 인구 100,000	8.24	14.67	17.44
초혼연령, 남	28.23	27.70	27.57
초혼연령, 여	25.21	24.13	23.25
독신비율 40 ~ 44, 남	1.24	1.23	1.15
독신비율 40 ~ 44, 여	1.00	0.50	0.28
유배우율 15 ~ 44, 여	53.42	59.84	65.66
혼령인구비 (여 20 ~ 29/ 남 25 ~ 34)	122.25	106.30	96.03
노인인구부양비 (%)	5.29	9.58	10.89
인구밀도 / km ²	11,647.39	1,305.00	371.58
전입인구 / 인구 100,000	2,290.95	1,518.09	1,140.45
전출인구 / 인구 100,000	2,361.68	1,623.99	1,503.24
비농취업 / 15세이상, 여자	24.19	15.13	9.32
약국 / 인구 100,000	65.71	42.58	41.36
의사 / 인구 100,000	132.17	33.52	26.61
1인당지방세 (1,000)	65.61	26.68	16.37
가구 / 주택 100	182.38	134.61	117.61
주택소유 (%)	46.35	68.48	78.13
수세식 화장실 / 가구 100	22.87	11.21	6.43
TV / 가구 100	99.68	97.95	97.50
냉장고 / 가구 100	75.28	60.69	49.28
전화 / 가구 100	55.49	39.97	30.45
농경지비율 (%)	12.20	24.97	22.41
수도사용인구 (%)	84.54	41.03	22.09
도시와의거리 / km	1.93	24.22	33.55

표Ⅱ. 1. (계속) 출산수준별 구·시·군의 평균 사회경제 지역속성, 1960-1985

기간: 1981-85

지 역 속 성	출 산 율 수 준		
	저	중	고
합계출산율	1,817.08	2,495.70	3,182.99
변화율 (%)	22.71	22.37	18.98
임신억제부인년수	448.30	521.99	613.22
대도시 수	34	6	0
기타도시 수	6	38	0
군 수	0	105	37
초, 중, 고, 재학 / 인구 5-19	77.26	79.88	84.09
중이상, 계 / 인구 100	44.90	30.64	21.12
중이상, 여 / 인구 100	41.68	24.71	13.80
학교수 / 인구 100,000	6.97	14.67	18.33
초혼연령, 남	27.93	27.64	27.93
초혼연령, 여	25.21	24.08	23.55
독신비율 40~44, 남	1.12	1.24	1.26
독신비율 40~44, 여	1.04	0.50	0.28
유배우율 15~44, 여	54.39	60.05	62.94
혼령인구비 (여 20~29/남 25~34)	122.60	105.78	99.26
노인인구 부양비 (%)	4.52	9.31	12.54
인구밀도 / km ²	13,353.00	987.89	188.27
전입인구 / 인구 100,000	2,536.35	1,516.74	942.30
전출인구 / 인구 100,000	2,563.40	1,614.60	1,355.97
약국 / 인구 100,000	69.37	41.26	43.43
의사 / 인구 100,000	140.95	32.79	23.46
1인당 지방세 (1,000)	64.12	28.67	12.60
가구 / 주택 100	191.92	134.42	110.78
주택소유 (%)	41.90	67.81	83.99
수세식 화장실 / 가구 100	27.05	10.94	3.82
TV / 가구 100	100.17	98.04	96.72
냉장고 / 가구 100	78.77	60.40	48.28
천화 / 가구 100	57.88	39.67	30.52
농경지바율 (%)	0.26	71.88	94.89
수도사용인구 (%)	94.97	40.43	16.38
도시와의 거리 / km	0.00	23.52	36.84

표II.1. (계속) 출산수준별 구·시·군의 평균 사회경제 지역속성, 1960~1985
기간: 1976~80

지 역 속 성	출 산 율 수 준		
	저	중	고
합계출산율	2,305.90	3,204.17	4,049.36
변화율(%)	27.45	26.26	22.99
임신억제부인년수	408.40	410.36	455.13
대도시 수	31	8	0
기타도시 수	5	29	0
군 수	0	107	34
초, 중, 고, 재학 / 인구 5-19	72.93	75.14	78.08
중이상, 재 / 인구 100	41.10	23.91	14.35
중이상, 여 / 인구 100	36.97	18.04	8.53
학교수 / 인구 100,000	6.57	13.43	13.79
초혼연령, 남	27.52	27.09	27.35
초혼연령, 여	24.64	23.52	23.10
독신비율 40~44, 남	0.74	0.75	0.62
독신비율 40~44, 여	0.74	0.33	0.16
유배우율 15~44, 여	54.14	59.58	63.86
혼령인구비 (여 20~29/남 25~34)	139.02	123.17	120.83
노인인구 부양비(%)	3.89	8.36	10.63
인구밀도 / km ²	14,363.00	979.60	197.21
전입인구 / 인구 100,000	3,128.31	1,465.68	850.56
전출인구 / 인구 100,000	2,951.38	1,587.43	1,424.85
약국 / 인구 100,000	68.75	40.71	36.35
의사 / 인구 100,000	109.00	21.69	12.41
1인당 지방세 (1,000)	39.21	12.87	7.89
가구 / 주택 100	190.40	132.91	108.33
주택소유(%)	42.92	71.01	87.04
수세식 화장실 / 가구 100	21.40	4.57	0.54
TV / 가구 100	91.67	82.87	74.22
냉장고 / 가구 100	54.70	24.67	11.12
전화 / 가구 100	34.57	17.78	13.25
농경지비율(%)	0.35	70.20	87.99
수도사용인구(%)	92.03	33.89	13.89
도시와의거리 / km	0.00	26.09	47.29

표II.1. (계속) 출산수준별 구·시·군의 평균 지역속성, 1960 ~ 1985

기간 : 1971 ~ 75

지 역 속 성	출 산 율 수 준		
	저	중	고
합계출산율	3,136.26	4,359.55	5,457.83
변화율 (%)	8.36	12.51	10.44
임신억제부인년수	251.90	318.42	353.76
대도시 수	24	6	0
기타도시 수	4	25	0
군 수	3	105	30
초, 중, 고, 재학 / 인구 5-19	65.29	66.75	66.73
중이상, 계 / 인구 100	32.97	17.18	10.97
중이상, 예 / 인구 100	27.84	11.77	5.93
학교수 / 인구 100,000	8.43	13.69	11.67
초혼연령, 남	27.62	26.98	27.01
초혼연령, 여	24.34	23.02	22.49
독신비율 40 ~ 44, 남	0.58	0.46	0.37
독신비율 40 ~ 44, 여	0.54	0.20	0.11
유배우율 15 ~ 44, 여	52.68	61.25	65.46
혼령인구비 (여 20 ~ 29 / 남 25 ~ 34)	130.84	115.66	100.07
노인인구부양비 (%)	3.78	7.53	9.29
인구밀도 / km ²	15,221.06	753.50	216.97
전입인구 / 인구 100,000	1,162.08	1,481.83	1,010.37
전출인구 / 인구 100,000	3,157.00	1,966.37	1,822.87
약국 / 인구 100,000	70.48	40.66	35.78
의사 / 인구 100,000	157.19	21.24	10.13
1인당지방세 (1,000)	8.96	9.00	1.66
가구 / 주택 100	185.45	128.58	109.97
농경지비율 (%)	10.02	67.85	68.77
수도사용인구 (%)	76.56	35.25	19.50
도시와의거리 / km	2.76	30.93	44.71

표II .1. (계속) 출산수준별 구·시·군의 평균 사회경제 지역속성, 1960-1985

기간 : 1966 ~ 70

지 역 속 성	출 산 율 수 준		
	저	중	고
합계출산율	3,435.74	5,045.36	6,250.61
변화율 (%)	21.21	15.62	5.72
대도시 수	24	0	0
기타도시 수	10	18	0
군 수	2	104	32
초, 중, 고, 재학 / 인구 5-19	64.90	64.96	62.80
중이상, 계 / 인구 100	27.09	11.77	7.35
중이상, 여 / 인구 100	20.52	6.71	3.28
학교수 / 인구 100,000	7.86	9.81	8.86
초혼연령, 남	27.36	26.83	26.53
초혼연령, 여	23.83	22.72	22.00
독신비율 40 ~ 44, 남	0.41	0.35	0.00
독신비율 40 ~ 44, 여	0.32	0.10	0.06
유배우율 15 ~ 44, 여	55.99	65.67	69.97
혼령인구비 (여 20 ~ 29 / 남 25 ~ 34)	121.52	106.01	103.16
노인인구부양비 (%)	3.56	7.64	9.17
인구밀도 / km ²	9,877.30	547.83	190.28
전입인구 / 인구 100,000	895.38	587.96	311.55
전출인구 / 인구 100,000	1,824.75	950.00	867.91
약국 / 인구 100,000	73.20	51.78	46.33
의사 / 인구 100,000	75.27	22.88	11.60
1인당지방세 (1,000)	1.57	17.40	24.67
가구 / 주택 100	177.19	120.38	109.29
전화 / 인구 1,000	19.59	7.53	4.07
자동차 / 가구 10,000	277.75	76.66	27.94
라디오 / 인구 10,000	1,301.03	885.60	770.87
신문 / 인구 10,000	1,027.10	462.28	398.44
농경지비율 (%)	0.80	45.28	81.46
수도사용인구 (%)	68.95	43.21	3.50
도시와의 거리 / km	1.72	34.40	45.33

표II.1. (계속) 출신수준별 구·시·군의 평균 사회경제 지역속성, 1960~1985

기간 : 1961 ~ 65

지 역 속 성	출 산 율 수 준		
	저	중	고
합계출산율	4,213.84	5,994.28	6,829.34
변화율 (%)	19.18	14.42	10.42
대도시 수	19	1	0
기타도시 수	12	15	0
군 수	1	122	20
초등학생수 / 인구 10,000	1,421.84	1,746.03	1,787.00
중등학생수 / 인구 10,000	600.97	350.28	194.95
중등졸업자수 / 인구 10,000	156.00	76.46	50.08
대졸자 / 인구 10,000	32.13	7.89	4.32
문맹율	0.54	1.02	1.24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8.33	4.75	2.73
취업자 / 13 + 인구 (%)	32.70	461.14	51.13
전화 / 인구 1,000	32.28	5.05	1.25
신문구독자수 / 인구 10,000	936.61	386.96	296.14
라디오소유 / 인구 10,000	784.02	331.93	219.79
인구밀도 / km ²	9,256.01	505.42	202.44
병원 / 인구 10,000	0.45	0.11	0.08
약국 / 인구 10,000	0.84	0.51	0.45
의사 / 인구 10,000	0.74	0.12	0.06
농경지비율 (%)	20.95	62.96	50.41
도시와의거리 / km	0.00	36.45	33.95

표II.1. (계속) 출산수준별 구·시·군의 평균 사회경제 지역속성, 1960~1985

기간 : 1960

지 역 속 성	출 산 율 수 준		
	저	중	고
합계출산율	4,456.21	6,270.99	7,227.63
대도시 수	16	0	0
기타도시 수	12	12	0
군 수	2	118	22
재학생 / 인구 10,000	1,912.90	1,491.80	1,297.27
초등학생수 / 인구 10,000	1,326.33	1,259.57	1,166.91
중등학생수 / 인구 10,000	586.57	220.75	130.36
대졸업자 / 인구 10,000	10.38	2.30	1.83
문맹율 (%), 여	17.88	28.15	29.15
문맹율 (%), 남	5.19	11.18	12.20
유배우인구 / 13 + 인구 (%)	51.09	57.82	59.65
미혼인구 / 13 + 인구 (%)	60.62	57.32	55.69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7.16	4.59	3.15
취업자 / 13 + 인구 (%)	33.54	46.71	48.25
비농취업자 / 경제활동인구 (%)	71.91	25.58	16.04
신문구독 / 인구 10,000	666.27	228.21	135.74
라디오 / 인구 10,000	365.11	123.83	91.47
인구밀도 / km ²	9,088.67	424.99	165.60
병원 / 인구 10,000	0.50	0.10	0.05
약국 / 인구 10,000	0.53	0.29	0.27
의사 / 인구 10,000	0.49	1.10	0.05
3 + 세대 가구 비율 (%)	18.86	32.17	34.52
경작면적 / 단보 (1,000)	20.40	114.75	140.54
도시와의거리 / km	3.33	219.32	235.27

표 II.2. 출산 수준별 구·시·군 일람표

년 도	고 출 산 율 지 역	저 출 산 율 지 역
1960	<p>경기 : 여주군, 화성군, 양평군 용인군</p> <p>강원 : 춘성군, 홍천군</p> <p>충북 : 청원군, 보은군, 음성군</p> <p>전북 :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p> <p>전남 : 곡성군, 여천군, 송주군</p> <p>경북, 군의군, 의성군, 안동군</p> <p>경남 : 함양군</p>	<p>서울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마포구, 영등포구, 서대문구</p> <p>부산 :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p> <p>대구 : 중구</p> <p>인천 : 중구</p> <p>경기 : 수원시, 의정부시, 양주군</p> <p>전남 : 목포시, 여수시</p> <p>경북,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p> <p>경남 : 울산시, 마산시, 충무시</p> <p>제주 : 제주시</p>
1961-65	<p>강원 : 횡성군, 평창군</p> <p>충북 : 보은군, 증원군</p> <p>충남 : 공주군, 부여군</p> <p>전북 :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p> <p>전남 :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송주군, 화순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진도군</p> <p>경북 : 안동군</p>	<p>서울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p> <p>부산 :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p> <p>대구 : 중구, 서구, 남구, 북구</p> <p>인천 : 중구, 동구, 남구</p> <p>경기 : 수원시, 의정부시</p> <p>강원 : 춘천시</p> <p>경북 :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p> <p>경남 : 울산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p>

표 Ⅱ.2. (계속) 출산 수준별 구·시·군 일람표

년 도	고 출 산 지 역	저 출 산 지 역
1966-70	<p>강원 :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p> <p>충북 : 단양군</p> <p>전북 :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정읍군, 고창군</p> <p>전남 : 곡성군, 구례군, 광양군, 송주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p> <p>경북 : 안동군,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p> <p>경남 : 하동군, 산청군</p>	<p>서울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p> <p>부산 :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p> <p>대구 :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p> <p>인천 : 중구, 동구, 남구, 북구</p> <p>경기 : 수원시, 의정부시, 시흥군, 파주군</p> <p>강원 : 춘천시, 원주시</p> <p>충북 : 청주시</p> <p>경북 : 포항시, 경주시</p> <p>경남 :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p>
1971-75	<p>강원 : 정선군</p> <p>충남 : 금산군, 부여군, 서산군</p> <p>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정읍군, 고창군, 김제군, 부안군</p> <p>전남 :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광양군, 보성군,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진도군, 신안군</p> <p>경북 :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p> <p>경남 : 통영군, 거제군, 함양군</p> <p>제주 : 북제주군</p>	<p>서울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p> <p>부산 :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p> <p>대구 :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p> <p>인천 : 중구, 동구</p> <p>경기 : 수원시, 의정부시, 부천시, 평택군, 김포군</p> <p>강원 : 춘천시</p> <p>경북 : 선산군</p>

표 II. 2 (계속) 출산 수준별 구·시·군 일람표

년 도	고 출 산 지 역	저 출 산 지 역
1976-80	<p>강원 : 평창군, 정선군</p> <p>충남 : 부여군, 보령군, 청양군 서산군</p> <p>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정읍군 고창군, 부안군</p> <p>전남 : 곡성군, 구례군, 광양군 여천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합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p> <p>경북 : 봉화군</p> <p>경남 : 통영군</p>	<p>서울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강남구</p> <p>부산 :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p> <p>대구 : 중구, 동구, 남구, 북구 수성구</p> <p>인천 : 중구, 동구</p> <p>경기 : 수원시, 의정부시</p> <p>강원 : 춘천시, 원주시</p> <p>경남 : 마산시</p>
1981-85	<p>강원 : 정선군</p> <p>충남 : 청양군</p> <p>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남원군, 순창군 정읍군, 고창군, 부안군</p> <p>전남 : 구례군, 여천군, 고흥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합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여천출장소</p> <p>경북 : 봉화군</p> <p>경남 : 거제군, 고성군, 사천군 남해군, 하동군, 산천군 합양군, 합천군</p>	<p>서울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p> <p>부산 :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p> <p>대구 :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p> <p>인천 : 중구, 동구, 남구</p> <p>경기 : 송탄시, 동두천시</p> <p>강원 :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p> <p>경남 : 마산시</p>

표 II. 2 (계속) 출산 수준별 구·시·군 일람표

년 도	고 출 산 지 역	저 출 산 지 역
1985	<p>강원 : 태백시,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양구군</p> <p>충북 : 청원군, 괴산군, 음성군 제원군</p> <p>충남 : 청양군</p> <p>전북 :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진안군, 임실군 남원군</p> <p>전남 : 구례군, 여천군, 장흥군 해남군, 합평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영암군, 여천출장소</p> <p>경북 : 포항시, 군위군, 문경군</p> <p>경남, 울산시, 거제군</p>	<p>서울 :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대문구, 성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성동구, 강남구</p> <p>부산 :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p> <p>대구 : 중구, 동구, 남구, 북구 수성구</p> <p>인천 : 중구, 동구</p> <p>경기 : 송탄시, 동두천시</p> <p>강원 : 춘천시</p> <p>전남 : 송주군</p> <p>경북 : 경주시, 달성군, 월성군 경산군</p> <p>경남 : 마산시, 진주시, 김해시</p>

표Ⅱ.3. TFR변동을 수준별 구·시·군의 평균 사회경제 지역속성, 1960~1985
기간: 1985

지 역 속 성	TFR 변 동 율 수 준		
	저	중	고
합계출산율	1,901.78	1,894.52	1,917.95
변화율 (%)	23.64	32.41	41.60
임신억제부인년수	416.23	537.11	611.03
대도시 수	15	24	1
기타도시 수	19	24	1
군 수	14	94	34
초, 중, 고, 재학 / 인구 5-19 세	77.05	80.45	82.83
중이상, 계 / 인구 100	41.06	30.65	22.79
중이상, 여 / 인구 100	36.60	24.85	15.97
학교수 / 인구 100,000	11.07	14.33	15.64
초혼연령, 남	27.50	27.73	28.10
초혼연령, 여	24.29	24.19	24.07
독신비율 40~44, 남	1.04	1.26	1.31
독신비율 40~44, 여	0.75	0.54	0.36
유배우율 15~44, 여	60.94	59.27	58.63
혼령인구비 (여 20~29/남 25~34)	108.67	107.99	105.23
노인인구부양비 (%)	5.97	9.25	12.01
인구밀도 / km ²	5,794.67	2,842.00	359.71
전입인구 / 인구 100,000	2,360.67	1,513.82	945.53
전출인구 / 인구 100,000	2,272.19	1,673.51	11,293.89
비농취업 / 여 15세이상	21.02	15.70	10.04
약국 / 인구 100,000	49.11	47.36	40.42
의사 / 인구 100,000	56.06	55.70	21.69
1인당지방세 (1,000)	46.85	34.38	16.60
가구 / 주택 100	167.21	138.55	114.01
주택소유 (%)	49.79	66.87	83.38
수세식화장실 / 가구 100	25.08	10.73	3.49
TV / 가구 100	99.42	97.98	97.43
냉장고 / 가구 100	72.75	60.62	51.03
전화 / 가구 100	48.22	41.18	33.14
농경지비율 (%)	19.16	21.94	27.39
수도사용인구 (%)	67.19	45.70	19.57
도시와의거리 / km	9.35	22.98	32.09

표 II. 3 (계속) TFR변동을 수준별 구·시·군의 평균 사회경제 지역속성, 1961~1985
기간 : 1981 ~ 85

지 역 속 성	TFR 변 동 을 수 준		
	저	중	고
합계출산율	2,710.39	2,425.8	2,607.84
변화율 (%)	8.52	22.4	28.55
임신억제부인년수	499.54	523.7	565.86
대도시 수	2	38	0
기타도시 수	15	27	2
군 수	19	104	19
초, 중, 고, 재학 / 인구 5-19 세	80.67	79.92	80.67
중이상, 계 / 인구 100	32.58	32.15	25.59
중이상, 여 / 인구 100	26.83	26.56	19.33
학교수 / 인구 100,000	14.44	13.60	15.29
초혼연령, 남	27.73	27.74	27.75
초혼연령, 여	24.20	24.23	23.92
독신비율 40 ~ 44, 남	1.15	1.24	1.23
독신비율 40 ~ 44, 여	0.62	0.56	0.44
유배우율 15 ~ 44, 여	60.38	59.32	59.71
혼령인구비 (여 20 ~ 29 / 남 25 ~ 34)	105.86	108.48	104.52
노인인구 부양비(%)	9.04	8.80	10.47
인구밀도 / km ²	1,018.03	3,818.18	303.14
전입인구 / 인구 100,000	1,715.92	1,638.18	1,122.71
전출인구 / 인구 100,000	1,813.61	1,773.00	1,350.29
약국 / 인구 100,000	44.54	47.73	41.05
의사 / 인구 100,000	32.22	56.68	32.24
1인당 지방세 (1,000)	29.00	37.97	24.62
가구 / 주택 100	141.28	143.31	119.01
주택소유(%)	63.10	65.13	76.65
수세식 화장실 / 가구 100	14.37	13.08	5.99
TV / 가구 100	98.29	98.15	98.40
냉장고 / 가구 100	63.90	61.78	56.90
전화 / 가구 100	42.24	42.05	34.66
농경지비율(%)	43.77	61.92	104.37
수도사용인구(%)	44.47	48.87	27.30
도시와의 거리 / km	17.86	20.11	39.30

표 II. 3 (계속) TFR변동을 수준별 구·시·군의 평균 사회경제 지역속성, 1960~1985

기간: 1976 ~ 80

지 역 속 성	TFR 변 동 율 수 준		
	저	중	고
합계출산율	3,252.96	3,199.80	2,965.00
변화율(%)	15.09	26.33	34.03
임신억제부인년수	329.21	430.23	518.79
대도시 수	11	24	4
기타도시 수	6	25	3
군 수	30	96	15
초, 중, 고, 재학 / 인구 5-19 세	73.91	75.72	74.91
중이상, 계 / 인구 100	26.68	24.56	27.08
중이상, 여 / 인구 100	21.11	18.96	21.75
학교수 / 인구 100,000	11.91	12.33	13.36
초혼연령, 남	27.18	27.20	27.29
초혼연령, 여	23.55	23.65	23.79
독신비율 40 ~ 44, 남	0.84	0.70	0.67
독신비율 40 ~ 44, 여	0.41	0.35	0.41
유배우율 15 ~ 44, 여	60.25	59.18	58.49
혼령인구비 (여 20 ~ 29 / 남 25 ~ 34)	122.02	125.78	130.75
노인인구 부양비 (%)	7.72	8.11	7.60
인구밀도 / km ²	3,174.43	3,082.77	3,199.82
전입인구 / 인구 100,000	1,769.43	1,523.27	1,737.95
전출인구 / 인구 100,000	1,801.50	1,718.88	1,881.41
약국 / 인구 100,000	43.39	44.49	49.36
의사 / 인구 100,000	34.57	30.23	67.00
1인당 지방세 (1,000)	24.65	14.71	22.33
가구 / 주택 100	142.58	138.12	135.28
주택소유 (%)	66.83	69.33	69.76
수세식 화장실 / 가구 100	9.39	5.46	9.73
TV / 가구 100	84.03	82.47	84.04
냉장고 / 가구 100	28.85	26.43	32.34
전화 / 가구 100	19.53	19.55	22.83
농경지비율 (%)	57.69	70.82	80.43
수도사용인구 (%)	38.83	43.23	42.35
도시와의 거리 / km	24.71	25.06	25.93

표 II. 3 (계속) TFR변동을 수준별 구·시·군의 평균 사회경제 지역속성, 1960~1985

기간 : 1971 ~ 75

지 역 속 성	TFR 변 동 율 수 준		
	저	중	고
합계출산율	3,951.86	4,450.45	4,360.13
변화율 (%)	0.33	11.66	21.24
임신억제부인년수	246.06	325.44	350.63
대도시 수	15	14	1
기타도시 수	13	16	0
군 수	13	99	26
초, 중, 고, 재학 / 인구 5-19 세	65.56	66.83	66.48
중이상, 계 / 인구 100	27.29	17.02	13.78
중이상, 여 / 인구 100	21.85	11.73	8.59
학교수 / 인구 100,000	12.96	12.89	12.87
초혼연령, 남	27.27	27.06	26.93
초혼연령, 여	23.67	23.07	22.82
독신비율 40 ~ 44, 남	0.49	0.45	0.51
독신비율 40 ~ 44, 여	0.35	0.22	0.17
유배우율 15 ~ 44, 여	56.83	61.14	63.34
혼령인구비 (여 20 ~ 29/ 남 25 ~ 34)	119.55	114.81	113.96
노인인구 부양비 (%)	5.23	7.52	8.74
인구밀도 / km ²	6,047.12	2,371.75	1,058.11
전입인구 / 인구 100,000	1,722.86	1,321.62	944.37
전출인구 / 인구 100,000	2,490.15	1,939.18	1,646.53
약국 / 인구 100,000	54.00	43.68	37.77
의사 / 인구 100,000	83.56	32.05	19.07
1인당 지방세 (1,000)	5.03	2.97	1.93
가구 / 주택 100	166.19	128.84	114.85
농경지비율 (%)	22.90	66.51	95.60
수도사용인구 (%)	66.81	38.63	17.13
도시와의거리 / km	10.19	31.33	43.49

표 II. 3 (계속) TFR변동율 수준별 구·시·군의 평균 사회경제 지역속성, 1966~1970
기간: 1966 ~ 70

지 역 속 성	TFR 변 동 율 수 준		
	저	중	고
합계출산율	6,114.70	4,874.23	4,009.07
변화율 (%)	4.13	15.00	25.29
임신억제부인년수	-	-	-
대도시 수	0	15	9
기타도시 수	0	18	10
군 수	35	87	16
초, 중, 고, 재학 / 인구 5-19 세	63.22	64.79	65.29
중이상, 계 / 인구 100	8.37	14.19	19.13
중이상, 여 / 인구 100	3.88	8.99	13.29
학교수 / 인구 100,000	9.77	9.84	9.92
초혼연령, 남	26.41	26.93	27.19
초혼연령, 여	21.99	22.85	23.56
독신비율 40 ~ 44, 남	0.33	0.35	0.40
독신비율 40 ~ 44, 여	0.08	0.13	0.23
유배우율 15 ~ 44, 여	69.75	64.34	59.65
혼령인구비 (여 20 ~ 29/ 남 25 ~ 34)	101.71	108.14	116.93
노인인구 부양비 (%)	8.97	7.05	5.36
인구밀도 / km ²	202.33	2,679.15	2,340.72
전입인구 / 인구 100,000	295.86	630.80	807.40
전출인구 / 인구 100,000	840.14	1,013.54	1,085.50
약국 / 인구 100,000	45.33	55.04	66.62
의사 / 인구 100,000	13.87	34.98	48.10
1인당 지방세 (1,000)	23.30	17.88	1.10
가구 / 주택 100	109.28	129.75	149.59
전화 / 인구 1,000	19.59	7.53	4.07
자동차 / 가구 10,000	277.75	76.66	27.94
라디오 / 인구 10,000	1,251.70	885.60	854.37
신문구독 / 인구 10,000	882.96	462.28	563.51
농경지비율 (%)	61.35	176.07	204.26
수도사용인구 (%)	25.00	53.88	46.75
도시와의 거리 / km	48.92	28.40	16.81

표 II. 4. TFR 변동율 수준별 구·시·군 일람표

	변동율이 높은지역(H)	변동율이 낮은지역(L)
66-70/ 61-65	<p>서구 : 중구, 서대문구</p> <p>부산 : 서구, 동래구</p> <p>대구 : 동구, 북구</p> <p>인천 : 중구, 남구, 북구</p> <p>경기 : 수원시, 의정부시, 평택군 화성군, 시흥군, 파주군 용인군, 안성군, 김포군 강화군, 용진군</p> <p>강원 :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p> <p>충북 : 청주시</p> <p>충남 : 대전시, 천안시, 연기군 당진군, 천원군</p> <p>전남 : 광주시, 순천시</p> <p>경북 : 경주시, 달성군</p> <p>경남 : 창원군, 밀양군</p>	<p>강원 :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삼척군</p> <p>충북 : 단양군</p> <p>전북 :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남원군, 순창군 정읍군, 고창군</p> <p>전남 : 구례군, 광양군, 송주군 고흥군, 보성군, 화성군 장흥군, 영암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p> <p>경북 : 영양군, 봉황군, 울진군</p> <p>경남 : 의령군, 통영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p> <p>제주 : 북제주군, 남제주군</p>
71-75/ 66-70	<p>서울 : 성북구</p> <p>경기 : 가평군</p> <p>강원 : 횡성군, 평창군, 고성군</p> <p>충북 :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p> <p>충남 : 청양군</p> <p>전북 : 무주군</p> <p>전남 : 송주군, 고흥군, 장흥군 강진군</p> <p>경북 : 고위군, 의성군, 안동군 청송군, 영덕군, 영천군 선산군, 문경군, 예천군</p> <p>경남 : 양산군, 사천군, 하동군</p>	<p>서울 :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p> <p>부산 : 동래구</p> <p>인천 : 동구, 남구</p> <p>경기 : 수원시, 의정부시, 시흥군 파주군, 광주군, 연천군</p> <p>강원 : 원주시</p> <p>충북 : 청주시</p> <p>충남 : 연기군, 부여군</p> <p>전북 : 장수군, 익산군</p> <p>전남 : 광주시, 신안군</p> <p>경북 : 포항시, 경주시, 청도군</p> <p>경남 : 울산시, 마산시, 진주시 밀양군, 거제군</p> <p>제주 : 북제주군</p>

표 II. 4 (계속) TFR변동율 수준별 구·시·군 일람표

년 도	변동율이 높은지역(H)	변동율이 낮은지역(L)
76-80/ 71-75	서울 : 종로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강남구 경기 : 양주군, 고양군, 연천군 강원 : 춘천군, 횡성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충남 : 청원군 전북 : 군산시, 이리시, 장수군 익산군 전남 : 보성군 경북 : 영양군 경남 : 의령군, 밀양군, 거제군	서울 : 중구, 성북구 경기 : 부천시, 화성군, 이천군 용인군, 김포군, 강화군 용진구 강원 : 평창군, 명주군 충북 : 보은군, 영동군 충남 : 논산군, 보령군, 청양군 전남 : 구례군, 여천군, 고흥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완도군 경북 : 영덕군, 칠곡군, 선산군 영풍군 경남 : 고성군, 사천군
81-85/ 76-80	경기 : 이천군, 용인군, 안성군 강화군 강원 : 강릉시, 춘성군,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충남 : 논산군, 보령군, 예산군 서산군, 아산군 전북 : 임실군 전남 : 구례군, 송주군, 고흥군 보성군 경북 : 영덕군 경남 : 삼천포시	부산 : 북구 경기 : 수원시, 의정부시, 양주군 전북 : 남원군 전남 : 광산군, 여천출장소 경북 : 포항시, 구미시, 영양군 고령군 경남 : 함안군, 양산군, 거제군 고성군, 사천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표 II. 4 (계속) TFR변동율 수준별 구·시·군 일람표

년 도	변동율이 높은지역 (H)	변동율이 낮은지역 (L)
1985/ 1980	<p>부산 : 북구</p> <p>충남 : 공주군, 보령군, 예산군 서산군, 당진군</p> <p>전북 : 장수군, 정읍군, 고창군 김제군, 옥구군</p> <p>전남 : 곡성군, 송주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무안군, 나주군 장성군, 신안군,</p> <p>경북 : 달성군, 안동군, 월성군 영풍군, 봉화군</p> <p>경남 : 삼천포시, 김해군 통영군, 고성군, 사천군 하동군, 산천군, 함양군 거창군</p>	<p>서울 :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동구</p> <p>부산 : 강서출장소</p> <p>인천 : 남구, 북구</p> <p>경기 :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양주군, 시흥군, 반월출장소</p> <p>강원 : 횡성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p> <p>충북 : 제천시</p> <p>전남 : 여천출장소</p> <p>경북 : 포항시, 구미시, 군위군 고령군, 울릉군</p> <p>경남 : 울산시, 창원시, 거제군</p>

BIBLIOGRAPHY

- 이시백·최순·김홍숙 (1978). 지역사회특성이 가족계획 및 출산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족계획연구원 (서울)
- 조남훈·이규식·홍성열·김성희 (1977). 경제적요인이 출산행위에 미친 효과에
관한 연구, 가족계획연구원 (서울)
- 최 순 (1985). "한국의 인구나 인구변동 : 1945~1985" 한국사회학, 제19집 겨울
호. 한국사회학회.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4a). 1982년 전국보건실태조사보고, 한국인구보건연구원
(서울)
- _____ (1984b). 인구보건지표 및 통계, 한국인구보건연구원 (서울)
- Anker, R. B. (1973).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Reproductive Behavior in
Household of Rural Gujarat, India. Ph. D. Dissertation. Univ. of Michi-
gan.
- Bongaarts, J. (1978). "A Framework for Analyzing the Proximate Determinants of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4, No. 1: 105~132.
- Caplow, T. and R. Forman (1950). "Neighborhood Interaction in a Homogenous Co-
mmunity." ASR 15 : 357~366.
- Chandrasekaran, C. and A. I. Hermalin, eds. (1975). Measuring the Effect of Fam-
ily Planning Program on Fertility. Liege : International Union for the
Scientific Study of Population.
- Cho, L. J. (1973). The Demographic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Papers of

the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No. 29. East-West Center
(Honolulu).

Cho, L. J. and F. Arnold and T. H. Kwon (1982). The Determinants of Fertility in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Academy Press (Washington D. C.).

Cho, L. J. et al, (1981). "Determinant of Fertility: A Preliminary Analysis Based
on WFS Data for Columbia, Japan, Korea and Sri Lanka, " WFS Con-
ference 1980: Record of Proceedings, vol. 2 : 649~687.

Coale, A. J. and L. J. Cho and N. Goldman (1980). Estimation of Recent Trends in
Fertility and Mortality in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Washington D. C.).

Cooley C. H. (1909). Social Organization : Charles Scribner's Sons (New York).

Davis, K. (1949). Human Society (New York) : 603~608.

_____ (1968). "Population Policy : Will Current Program Succeed?" Science,
vol. 158, No. 3802 : 730~739.

Davis, K. and J. Blake (1956). "Social Structure and Fertility : An Analytic
Framework."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4 : 211~235.

Durkheim, E. (1951). Suicide. Translated by J. A. Spaulding and G. Simpson : The
Free Press (New York).

Easterlin, R. (1962). The American Baby Boom in Historical Perspective (New
York) [이 부분은 David M. Heer (1968)에서 재인용했음]

Flinn, W. L. (1963) "Community Norms in Predicting Innovativeness." Paper Pre-

sented at the Rural Sociological Society Meeting, North Ridge, California,
August 24-26.

Freedman, R. (1975). *The Sociology of Human Fertility : An Annotated Bibliography* : Irvington (New York).

_____ (1979). "Theories of Fertility Decline : A Reappraisal." *World Population And Development : Challenge and Prospects*. Syracuse Univ. Press for UNFPA : 63~79.

Galbraith V. and D. S. Thomas (1941). "Birth Rates and Interwar Business Cycles," *Journal of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vol. 36 : 465-76.

Goldscheider, C. (1971). *Population, Modernization and Social Structure* : Little, Brown and Co. (Boston).

Habakkuk, H. J. (1953). "English Population in the 18th Century," *Economic History Review*, vol. 6, No. 2: 177-33 [이 부분은 David M. Heer (1968) 에서 재인용했음]

Heer, D. M. (1966). "Economic Development and Fertility," *Demography*, vol. 3. No. 2 : 423~44.

_____ (1968). "Economic Development and Fertility Transition." *Selected Studies in Marriage and Family* : Holt, Rinehart and Winson (New York) : 211~223.

Hermalin, A. I. (1972). "Taiwan : appraising the effect of a family planning program through an areal analysis. *Population Papers*. no. 2. Taipei : In-

stitute of Economics, Academia Sinica.

- _____ (1978). Spatial Analysis of Family Planning Program Effects in Taiwan, 1966~72. Papers of the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No. 48.
- Hong, S. (1976). Fertility and Fertility Limitation in Korean Villages : Community and Institutional Level Effects. Ph. D. Dissertation, Univ. of Hawaii.
- Kendall, P. and P. F. Lazarsfeld (1950). "The Relation between Individual and Group Characteristics in the American Soldiers." Merton, R. K. and P. F. Lazarsfeld (eds.), Problems of Survey Analysis : Free Press (New York).
- Key, V. O. (1949). "Friends and Neighbors : The Appeal of Localism in Voting Behavior." Southern Politics in State and Nation : Alfred A. Knof. Inc. : 37~41.
- Kim, I. K. (1987).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Fertility in Korea,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NU.
- Kirk, D. (1942). "The Relation of Employment Levels to Birth in Germany,"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vol. 28 : 126~38.
- Kirk, D. (1971). "A New Demographic Transition?" Rapid Population Growth : Co-sequence and Policy Implication, vol. 2. National Academy of Science (Baltimore) : 123~147.
- Koh, K. S. and D. J. Nichols (1977). Measurement of the Impact of the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on Fertility in Korea : 1960~1970. KIFP (Seoul) : Unpublished Mmimeograph.

Krause, J. T. (1954). "Some Implications of Recent Work In Historical Demography," *Comparative Studies in Sociology and History*, vol. 1, No. 2 pp. 164-88 [이 부분은 David M. Heer (1968) 에서 재인용했음]

Kwon, T. H. et. al. ('975). *The Population of Korea,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NU.*

Lee, S. B. (1977). *System Effect on Family Planning Behavior in Korean Villages.* Ph. D. Dissertation, Univ. of Michigan.

Marsh, P. and A. L. Coleman (1954). "The Relationship of Neighborhood of Residence to Adoption of Recommended Farm Practice." *Rural Socioligy* 19 : 385~390.

Notestein, F. (1953). "The Economics of Population and Food Suppliers," *Proceedings of the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gricultural Economists (London)* : 15~31.

Retherford, R. D. (1979) "A Theory of Rapid Fertility Decline in Homogeneous Population." *Studies in Farmily Planning*, vol. 10, No. 2.

Rodgers, E. M. and R. J. Burdge (1962). "Community Norms, Opinion Leadership, and Innovativeness among Truck Growers."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Research Bulletin*, No. 212, Wooster (Ohio).

Spengler, J. (1966). "Values and Fertility Analysis," *Demography*, vol. 3, No. 1 :

109~30.

Srikantan, K. S. (1967). *Effect of Neighborhood and Individual Factors on Family Planning in Taichung*. Ph. D. Dissertation. Univ. of Michigan.

Stycos, J. M. (1968). *Human Fertility in Latin America* : Cornell Univ. Press.

Stys, W. (1957). "The Influence of Economic Conditions on the Fertility of Peasant Woman," *Population Studies*, vo;. 11, No. 2 : 136~48

Thompson, W. (1946) *Population and Peace in the Pacific* (Chicago) : 22~35 [이 부분은 David M. Heer (1968) 에서 재인용했음]

Van den Ban, A. W. (1960). "Locality and Group Differences in the Adoption of New Farm Practice." *Rural Sociology* 25 : 308~320.

人口移動의 類型과 決定要因에 關한 研究

財團
法人 大韓統計協會

崔仁鉉·尹鍾周

金秀鳳·鄭基源

Gerry Huguet

目 次

I. 序 論	245
1. 研究目的	245
2. 研究範圍 및 內容	246
II. 人口移動量의 比較 및 移動方向	249
1. 分析設計	249
2. 5歲以上 移動人口의 移動狀態	251
3. 5歲以上 移動人口의 特性	312
4. 結 論	330
附 錄. 統 計 表	333

I. 序 論

1. 研究目的

1960年代以後의 急速한 經濟成長과 産業化는 産業構造 및 勞動力構造의 變化와 더불어 격심한 國內人口移動의 흐름을 낳았으며, 1970年代까지主流를 形成해 온 離郡向市型 人口移動은 急速한 우리나라 人口의 都市集中을 表出하게 되었다. 1980年代에 들어서 産業化의 進步 및 國土의 均衡的 開發을 위한 政府의 努力은 都市數의 增加와 더불어 최근에 와서는 時間移動의 構成을 높여 人口移動 類型에 커다란 變化를 招來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人口의 都市集中 現象은 6大 都市中心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首都圈地域에 對한 人口累積은 繼續적으로 注目되며 人口再分布의 研究가 時急히 要請되고 있다. 1970年代以後 展開되어온 地域開發計劃은 人口의 效率的인 地域的 再分配를 目標의 하나로 삼아왔으나 現實인 計劃推進은 人口要因이 等한시 된채 주로 經濟的 側面의 開發計劃에 의해서 主導되어 왔으며, 地域開發은 2次的인 手段으로 뒤따라가는 現象이 계속되므로서 地域人口의 社會人口學的 特性에 있어서 地域間에 지나친 差異를 露出시키는 結果가 되었다. 더우기 6.29宣言을 통한 政治發展과 地方自治制의 實施에 따른 地方時代의 開幕은 우리나라의 産業化 및 都市化와 나아가서 人口移動의 흐름에 크게 作用할 것으로 豫見된다.

“人口센서스”資料는 政府가 生産하는 統計中 가장 精度가 높고 廣範圍한 國家基本統計로써 폭넓은 可用領域을 지니고 있다는 點에서 “센서스”資料를 活用한 特別分析(monograph studies)는 必須적으로 實施되므로서 政府의 政策樹立을 위한 뒷받침이 될 수 있다. 每5年마다 實施되어온 “센서

스”를 위하여 莫大한 豫算의 投入이 資料生産에 置重되어 繼續的인 分析 活用이 等한시 되어온 傾向은 主지의 事實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人口移動과 都市化에 對한 센서스 資料를 통한 特別分析은 보다 米시적인 實態把握과 深層分析을 實施함으로서 人口再分配政策과 國土開發計劃을 더욱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한 귀중한 分析結果를 提供함으로서 크게 貢獻할 것으로 確信된다.

本 研究은 1985年 센서스 資料를 活用하여

가. 1980 ~ 1985年間的 人口移動의 特性을 把握하고

나. 1970年以後 4次에 達하는 센서스 資料 및 其他資料(住民登錄 및 特別調査)를 比較 分析하여 人口移動의 趨勢를 整理하며

다. 우리나라 人口의 空間分布를 통한 都市化 過程의 人口를 目的으로 한다.

2. 研究範圍 및 內容

人口移動은 地域的移動, 社會階層間移動, 産業間移動 等の 여러形態로 區分될 수 있다. 本 研究에서는 주로 地域的 移動의 考察에 置重토록 한다. 1985年 센서스 資料를 위시하여 1970年以後 75年, 80年 資料 및 其他 資料를 活用하여 分析을 시도하여 主要 研究範圍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센서스 資料에 따른 人口移動 傾向分析

- 1) 移動의 類型을 分析하기 위하여 各 市道 또는 都市·農村間的 移動量을 產出하고 移動의 方向을 深層 分析한다.
- 2) 人口移動의 社會·人口學的 特性和 差別 移動을 分析한다.
- 3) 移動者의 産業 및 雇傭에 관한 特性을 比較 分析한다.
- 4) 移動者와 非移動者의 特性을 分析한다.

나. 都市化 傾向에 관한 分析

지난 15年間(1970~1985)의 4次의 센서스 資料를 活用하여 最近의 都市化의 傾向을 綜合・檢討한다.

- 1) 市道別 規模 및 成長比較
- 2) 地域別・都市・農村別 分析比較
- 3) 都市圈 및 都市의 成長推移比較

다. 其他 資料의 活用

- 1) 最近의 住民登錄統計와 센서스 資料와의 比較分析
- 2) 最近의 人口移動調査 및 센서스 資料에 의한 移動理由의 比較分析
- 3) 其他 參考資料에 의한 海外移住에 관한 綜合的인 傾向分析

II. 人口移動量の 比較 및 移動方向

1. 分析設計

本研究은 1985年 人口센서스의 人口移動資料를 利用하여 지난 5年間 (1980—1985)에 있었던 國內人口移動의 量과 方向을 移動者의 主要한 社會 人口學的 特性과의 關聯에서 보다 微視的으로 觀察한 것이다.

비록 1985年 人口센서스資料를 中心으로 1980—1985年間の 人口移動實態에 關係 集中的인 分析을 試圖했으나 우리나라 國內人口移動의 흐름을 歷史的으로 概觀하고 이를 本研究가 다루고 있는 時期間의 人口移動의 흐름과 連結시켜서 觀察한다는 意味에서 1965—1970年, 1970—1975年, 1975—1980年의 各時期間의 人口移動흐름에 대한 巨視的인 觀察도 包含시켰다.

本人口移動研究에 있어서 分析의 焦點은 ① 1980—1985年을 中心으로 前記한 各時期間의 人口移動의 量 ② 人口移動의 市道別 및 市·郡部別 方向 ③ 移動者의 性別·年齡別 特性등을 밝히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서 ① 地域別 人口移動量의 變化 ② 時期別 人口移動類型의 變化 ③ 이러한 變化의 移動者特性과의 關聯등을 各時期別로 觀察하였다. 특히 1985年센서스資料를 利用해서는 ④ 서울市를 包含한 首都圈地域에 대한 人口移動의 흐름을 보다 微視的으로 分析하였다.

前記한 研究은 모두 ① 5歲以上移動人口를 對象으로 했으며 ② 各年度 센서스의 「5年前居住地」項目만을 利用하여 分析했고 ③ 여러 靜態移動率의 蒐出에 있어서는 全國 및 地域別 5歲以上人口를 分母로 하였으며 ④ 國際間 人口移動을 意味하는 移出入人口와 未詳人口는 移動人口母集團에서 除外되었다.

各年度의 센서스報告書에 나타난 移動人口의 量은 區·市·郡水準의 行政區域을 境界線으로 해서 捕捉된 것이며, 各年度 센서스報告書의 移動統計表는

이들 移動人口을 市道別 및 市·邑·面別로 作成해 놓고 있다. 이러한 製表는 移動人口의 市·郡別 移動類型에 관한 分析에 적지 않은 混亂이 惹起시키고 있어 本研究에 있어서는 ①區·市·郡別 全體移動人口 ②同一市道內 移動人口 ③他市道間 移動人口로 各己 分離해서 分析하였으며,¹⁾ 邑部人口가 郡部人口속에 包含시켰다.

끝으로 1965~1985 年의 20 年間에는 市部數가 32 個에서 50 個로 새로이 18 個市가 增加하였으며, 行政區域의 變更도 許多하게 되었다. 人口現象에 대한 時系列的 比較研究는 余他の 比較研究에 있어서와 같이 比較될 地域이 同一해야 하나 前述한 바와 같이 그 間에 行政區域變化가 甚하였고 이러한 變化를 追跡할 資料의 蒐集 및 이를 人口數와 連結시켜서 修正하는 作業이 거의 不可能하다는 點을 勘案하여 本研究에서는 이를 除外하였다.

註1) 國內人口移動의 類型을 市部·郡部別로 分析함에 있어서 例를 들어 서울시內에 있어서의 區間移動者를 市部移動人口로 捕捉하는 것은 集計上 아무런 잘못이 없으나 이렇게 集計된 統計로 市間移動을 觀察하면 他市道間 市間移動과 同一市內 區間移動 사이에는 移動動機 및 移動距離 등에서 各己 相異한 移動들이 同一範圍속에 包含됨으로써 移動現象에 대한 分析上的 鮮明도가 흐려지고 있다. 서울시에 대한 人口移動과 관련된 한 調查研究에 의하면 他市道로부터 서울시로 轉入한 人口의 轉入動機는 주로 求職·轉家業과 같은 經濟的 要因(77.3%) 및 進就學 婚姻關係와 같은 社會的 要因(19.6%)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反하여 서울시內에서의 區間移動은 從業地關係(25.6%) 내집마련(33.1%), 賞期間이 지나서(20.4%) 등으로 構成되어 있어서 移動動機에 커다란 差異를 보이고 있다. (尹鍾周, “서울市の 人口, 保健 및 醫療保險에 관한 調查研究”, 人口問題論集 第21號, 1977, pp.5-134.)

2. 5歲以上 移動人口의 移動狀態

가. 概 觀

解放後 우리나라에 있어서 人口移動의 흐름은 ①解放과 南北分斷이라는 政治的 變化에 의한 200萬이 넘는 海外歸還同胞의 移入과 北韓住民의 越南 ②50年代 前半의 6.25動亂에 따른 南韓人口의 避難·收復 및 拉北 移動과 1.4後退로 代表되는 北韓人口의 越南移動 ③50年代 後半에서 60年代 初半에 있었던 農村過剩人口의 一方的 排出로 인한 離郡向市型 人口 移動 ④60年代 中葉以後의 急速한 經濟成長 및 產業化에 따른 激甚한 國內人口移動의 흐름등으로 區分해서 提示할 수 있다.

이러한 人口移動의 흐름들은 解放後 展開된 우리나라의 特定時期를 主導했던 政治的·軍事的 및 社會·經濟的 要因과의 密接한 關係下에서 일어났으며, 이들 移動人口의 諸特性은 그 後에 展開되는 우리나라의 社會發展에 나름대로의 重要的 社會史的 意義를 지니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本研究와 時期的 關聯을 가지는 60年代以後의 社會展開과 그 意義는 60年代初 朴正熙將軍의 軍事革命(1961.5.16)에 따른 政權掌握이 政治 領域에 있어서는 野黨亂立, 政權維持를 위한 거듭된 改憲과 選舉不正, 常例的 學生示威, 武裝共匪의 南侵과 北韓의 여러 南北兩會議을 통한 戰術的 接近, 維新體制(1972.12.27)에 따른 政局硬直, 朴大統領의 被殺(1979.10.26)과 第5共和國의 出帆(1981.2.25), 政權의 適法性和 反政運動의 擴散등 거듭된 社會混亂으로 政治發展의 沈滯 내지 後退를 가져 왔으나, 經濟的 領域에서는 軍政이 從前의 傳統的인 農本主義的 產業政策을 清算하고 새로히 工業化政策으로의 產業政策의 果敢한 轉換을 試圖하여 數次에 걸친 經濟開

發 5 個年計劃의 成功的 達成을 통해서 急速한 經濟成長과 產業化를 이룩함으로써 國民生活水準의 向上·社會構造의 分化등 짧은 時期內에 엄청난 變化를 우리 社會에 가져다 주었다.

60 年代以後에 있었던 이러한 社會變動은 人口學的 見地에서 볼 때 크게 ①人口轉換 (demographic transition)에 따른 人口成長類型的 變化와 ②產業化 내지는 都市化에 따른 人口의 地域間分布의 變化라는 커다란 人口變動의 흐름으로 捕捉된다. 人口轉換 다시 말해서 人口動態類型的 變化와 이로 인한 人口增加率의 鈍化現象은 60 年代初에 導入된 人口抑制政策 특히 家族計劃事業의 成功的 推進으로 인한 出生力의 低下와 保健·衛生分野의 發達에서 오는 死亡力低下에 起因하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人口動態類型的을 高出生-高死亡에서 低出生-低死亡類型的으로 變化시킴으로서 ①人口增加率의 鈍化 ②平均壽命의 延長 ③年齡構造의 「피라미드」型에서 鐘型으로의 轉換등을 가져오고 있다.

地域間的 人口分布變化는 그 間의 急速한 經濟成長에 따른 產業構造의 變化 및 都市數의 增加와 더불어 離郡向市型 人口移動이 持續적으로 國內人口移動의 主流를 形成해 오므로써 우리나라의 都市化率을 크게 높여왔다. 이로 인하여 서울·釜山·大邱등 特定大都市地域에 대한 人口過密集中現象을 나타냈으며 그 結果는 60 年代에 있었던 農村地域人口의 相對的 減少에서 70 年代以後 이른바 農村人口의 絕對數減少 (rural depopulation)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人口의 地域間 分布 특히 都農間的 人口分布에 커다란 變化를 超來하였다. 이러한 人口分布의 地域間 不均衡狀態는 產業間 및 所得間의 不均衡과 連結되어 都農地域에 共히 나뉠대로의 여러 社會問題를 提起하는 동시에 國土의 綜合的이고 均衡的인 開發이라는 政策的次元의 重要問

題를提起하고 있다.

人口의 大都市指向的인 集中現象은 70年代에 들어오면서 地方新工業都市의 育成과 더불어 비록 鈍化되고 있으나 市部人口中 서울을 비롯한 直轄市人口의 全體市部人口에 대한 構成比는 1985年現在 63%로 매우 높으며, 光州·大田을 包含한 우리나라 6大都市人口는 全國人口의 45% 및 全體市部人口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大都市地域에 대한 人口過密集中은 都市地域에 있어서의 住宅·雇傭·教育·交通·上下水道·非行 및 犯罪등 여러 領域에 걸쳐 深刻한 都市的인 社會問題를 惹起시키고 있다.

한편 그 間 人口都市化와 主流가 되어온 離郡向市的인 國內人口移動의 結果는 70年代以後 本格화된 農村地域 全城에 걸친 農村人口의 絕對數減少 現象으로 農家口 및 農家人口의 減少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農家口의 減少는 農耕地의 中農層으로의 再分配를 가져왔고 農家人口의 減少는 靑壯年層人口의 農村脫出을 가져오므로써 農村年齡構造의 표주박型化와 農繁期 人力不足으로 農業勞動力의 高齡化와 女性化 現象을 加速化 시켰다.

이렇듯 人口의 量·質 및 그 變動에서 오는 人口要因은 社會發展을 規制하는 基本的이고 先行的인 條件이며, 또한 特定時期의 주어진 여러 社會的 條件이 人口行態에 變化를 가져다 주는 原因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한 나라의 社會變動은 人口要因과 넓은 意味의 社會要因이 서로 密接한 相互作用 및 相互關聯下에서 展開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나. 人口移動量의 考察

(1) 總移動量

1970, 1975, 1980 및 1985年의 人口센서스報告書 人口移動篇의 「5

年前居住地」項目에 의한 5歲以上移動人口의 移動量을 1965-1970, 1970-1975, 1975-1980 및 1980-1985 年의 各時期에 따라 市道別 및 市·郡部別로 總移動量의 見地에서²⁾ 觀察하면 表 2-1 과 같다.

人口移動量은 全時期를 통해서 뚜렷이 增加趨勢를 보이고 있는바 60年代後半期(1965-70年間)의 437萬名에서 70年代初半期(1970-75年間)의 515萬, 70年代後半期(1975-80年間)의 762萬 그리고 80年代初半期(1980-85年間)의 837萬으로 이를 指數化해서 볼 때 118(兩時期間 17.8%), 174(48.0%) 및 192(9.8%)로 크게 增加하고 있다. 특히 70年代後半期の 移動量이 急速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 時期의 빠른 經濟成長 및 産業化基盤의 定着·促進과 깊이 關聯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市部·郡部別로 보면 市部地域의 總移動量의 경우 60年代後半期の 525萬에서 70年代初半期の 686萬, 70年代後半期の 1,092萬 그리고 80年代初半의 1,248萬 各時期間에 指數가 130, 208 및 237로 急上昇하고 있으며 특히 70年代後半期에 있어서 그러하다. 郡部地域의 總移動量은 60年代後半期の 350萬에서 70年代初半期の 344萬으로 移動量이 多少 鈍化하고 있으나 70年代後半期에는 다시 432萬으로 急速한 增加를 보인 後 80年

註 2) 人口移動件數는 基本的으로 特定한 境界線의 設定과 이 線의 通過에 의해서 捕捉되는 것이며, 境界線은 通常的으로 한나라의 行政區域에 따라 區劃된다. 우리나라의 人口센서스에서는 人口移動量이 區·市·郡 水準의 行政區域을 境界線으로 해서 累計되고 있다.

또한 人口移動은 方向을 달리하는 두개의 量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國內人口移動의 경우 그 하나가 轉出(M^o)이며 다른 하나가 轉入(M^i)이다. 輸出量과 轉入量을 合한 것이 總移動量(M^e)이며, 그 差가 總移動量(M^n)이다. 이들의 關係는 아래의 式과 같다.

$$M^e = M^i + M^o \quad M^n = M^i - M^o$$

國內人口移動을 全國水準에서 보면 $M^i = M^o$ 이다.

表 2-1 5 歲以上移動人口의 時期別 地域別 總移動量¹⁾

市道別 市·郡部別	1965-70				1970-75				1975-80				1980-85			
	全體移動人口		市道間移動人口		全體移動人口		市道間移動人口		全體移動人口		市道間移動人口		全體移動人口		市道間移動人口	
	移動量 (%)	移動量 (%)	移動量 (%)	移動量 (%)	移動量 (%)	移動量 (%)	移動量 (%)	移動量 (%)	移動量 (%)	移動量 (%)	移動量 (%)	移動量 (%)	移動量 (%)	移動量 (%)	移動量 (%)	移動量 (%)
서울	2,698,377	30.8	1,483,400	30.2	3,441,515	33.4	1,577,453	28.3	5,227,802	34.3	1,985,142	26.5	5,479,222	32.7	2,426,174	25.7
釜山	657,181	7.5	435,019	8.9	916,898	8.9	545,550	9.8	1,514,538	9.9	758,938	10.1	1,507,852	9.0	755,918	8.0
大邱													978,953	5.9	516,079	5.5
仁川													601,316	3.6	460,182	4.9
京畿	958,719	11.0	665,021	13.5	1,311,899	12.7	920,449	16.5	1,949,697	12.8	1,337,507	17.9	2,122,138	12.7	1,636,914	17.4
江原	503,056	5.7	287,788	5.9	475,448	4.6	279,982	5.0	597,980	3.9	379,202	5.1	612,434	3.7	382,400	4.2
忠北	330,413	3.8	219,455	4.5	337,752	3.3	215,670	3.9	409,309	2.7	280,733	3.8	462,650	2.8	306,454	3.3
忠南	600,297	6.9	404,111	8.2	604,949	5.9	403,873	7.2	783,921	5.1	496,203	6.6	651,328	5.1	535,938	5.7
全北	478,956	5.5	259,706	5.3	473,511	4.6	264,921	4.7	562,840	3.7	339,658	4.5	624,640	3.7	359,430	3.8
全南	736,132	8.4	334,984	6.8	748,931	7.3	382,207	6.9	1,058,314	6.9	516,502	6.9	1,168,658	7.0	552,926	5.9
慶北	1,076,563	12.3	446,131	9.1	1,179,164	11.4	492,814	8.8	1,959,742	12.9	662,616	8.9	1,028,289	6.1	712,365	7.6
慶南	659,723	7.5	404,365	8.2	734,002	7.1	442,416	7.9	1,098,018	7.2	678,102	9.1	1,187,452	7.1	70,989	7.5
濟州	49,765	0.6	26,661	0.5	77,919	0.8	53,755	1.0	74,807	0.5	44,327	0.6	106,128	0.6	57,056	0.6
計 ²⁾	8,749,186	100.0	4,913,830	100.0	10,301,988	100.0	5,579,090	100.0	15,286,918	100.0	7,478,930	100.0	16,731,050	100.0	9,422,814	100.0
市	5,252,944	60.0	2,849,254	58.0	6,862,766	66.6	3,540,487	63.5	10,915,480	71.6	4,887,174	65.3	12,480,432	74.6	6,591,577	70.0
郡	3,496,242	40.0	2,064,576	42.0	3,439,222	33.4	2,038,603	36.5	4,321,428	28.4	2,591,756	34.7	4,250,618	25.4	2,831,237	30.0

1) 總移動量은 地域別 轉出人口數와 轉入人口數를 合한 것이며, 其他 및 未詳은 除外되었다.
 2) 計는 其實 全國水準에서는 轉出人口=轉入人口의 關係가 있음으로 移動實數는 計의 半이 된다.

代初半期에는 또다시 425萬으로 鈍化傾向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60年代後半期까지 있었던 農村地域過剩人口의 排出要因이 60年代에 걸쳐 作用하다가 一段 주춤했던 흐름이 70年代後半기에 있었던 産業化의 促進과 都市地域의 人力吸引要因의 發生으로 移動量의 急速한 增大를 招來했으며, 80年代初半期の 새로운 鈍化現象은 그 間에 거듭된 農村地域人口의 絶對的減少現象이 年齡構造의 「표주박」化와 더불어 강한 移動力을 가진 젊은 年齡層人口의 脫盡現象과 그 間 都市地域에 潛在해온 累積된 失業人力이 서로 作用하는데서 起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선 區·市·郡의 行政區域水準에서 捕捉된 全體移動人口의 立場에서 總移動量의 各時期別 推移를 보면³⁾ 全般的으로 實數의 增加를 보이고 있다. 全體의 總移動量을 市道別 構成에서 보면 서울의 移動量이 全時期를 통해서 30%以上の 構成比를 보여 壓倒적으로 높으며, 이어 京畿道の 11~13%, 慶北의 6~13%, 慶南의 7~8%, 全南의 7~8%, 忠南의 5~7%, 江原道の 4~6%, 全北의 4~5% 水準등으로 構成되어 있다. 1980-85年 時期에는 大邱와 仁川이 새로히 直轄市로 昇格되어 各己 慶北과 京畿道の 이 時期 構成比에 影響을 주고 있는 點은 注目된다. 특히 京畿道の 경우 이 時期에 仁川直轄市가 分離됨에도 不拘하고 12.7%의 높은 構成比를 維持하고 있는 事實이 注目된다. 또한 江原道·忠北·忠南·全北·全南등 地域에서는 各時期의 移動量이 增加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構成比에 있어서 減少傾向을 나타내고 있어 그 間 우리나라의 産業化過程에서 疏外되고 있었

註3) 表2-1의 總移動量計는 市道別 總移動의 合計를 나타낸 것이나 全國水準에서는 轉出量=轉入量임으로 實移動量은 全國計인 경우 表의 提示된 數值의 半이 된다.

음을 짐작할 수 있다.

總移動量を 市部·郡部別로 보면 市部の 경우 移動량이 해를 거듭할수록急速히 늘고 있음을 뚜렷이 觀察할 수 있으며 특히 70年代에急速한增加趨勢를 보여 1970-75年時期的 686萬에서 1975-80年時기에 1,000萬을 넘어서고 있다. 이것은 이 時期에 있었던 首都圈地域의 城南·安養·富川을 비롯하여 東海·堤川·龜尾·榮州·昌原 등 9個市の 市數增加와 關聯되어 있다. 反面 郡部移動량은 70年代에 432名까지 增加했다가 80년에 들어와 約 7萬의 減少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農村地域의 沈滯 및 脫農人力의 縮小 등의 要因들이 作用하여 移動力이 弱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總移動量の 市部·郡部別 構成比를 보면 前述한 바와 같은 市·郡部間的 移動量增減傾向의 差異에 의해서 市部移動量の 總移動量에 대한 構成比는 1965-70年時期的 60%에서 1980-85年時期에는 75%로 移動의 主宗을 이루고 있으며 郡部移動量の 構成比는 40%에서 25%로 크게 減少되고 있다.

移動量を 市道間移動人口의 立場에서 보면 時期別 增減傾向은 大體적으로 全體移動人口의 경우와 類似한 樣相을 보이고 있으나 市道別 및 市·郡部別 構成比는 全體移動人口의 경우와는 相異한 傾向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6大都市와 이를 包含하고 있는 道地域에 있어서 그러하다. 예를 들어 서울市の 1980-85年時期間의 경우로 보면 全體移動人口에 있어서의 構成比 32.7%에 대해서 市道間移動人口에 있어서의 構成比는 25.7%로 7.0%의 差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全體移動人口속에 서울市內에 있어서의 隔間移動人口가 包含되어 있는데서 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서울市の 경우 市內의 區間移動量이 全體移動量에서 커다란 比重을 차지하고 있음을 意味한다. 이러한 傾向은 釜山市에 있어서도 弱하지만 觀察된다. 또한 首都圈地域

을 形成하고 있는 京畿道の 경우 市道間移動人口의 構成比가 全體移動人口에 있어서의 構成比보다 全時期를 통해서 크게 높은 事實은 他市道로 부터 이 地域에 대한 人口累積이 계속되고 있음을 反映하는 것이라 하겠다. 反面 江原道등 餘他 道地域의 市道間移動人口의 構成比가 全體移動人口의 構成比보다 높은 것은 이들의 轉出量이 轉入量보다 많아서 純移動率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음을 意味한다. 4)

(2) 移動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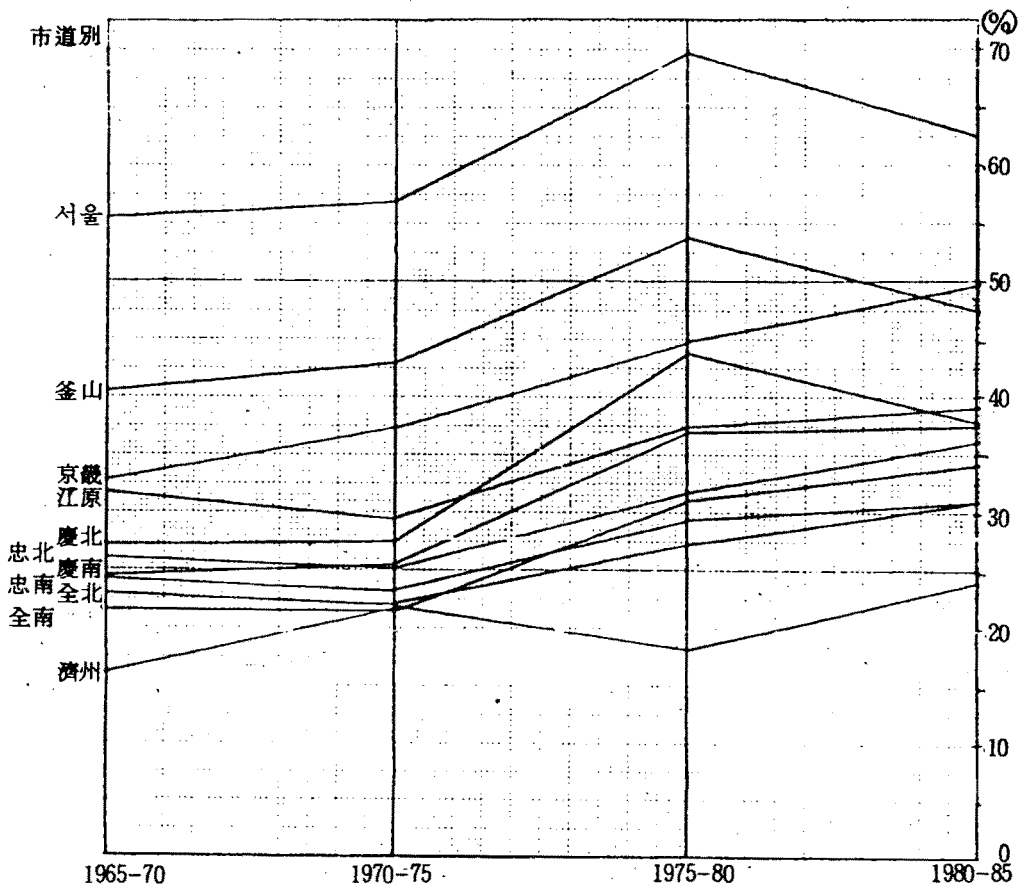
우선 全體移動人口(市道內 區·市·郡間移動+市道間 區·市·郡間移動)의 各時期別 諸靜態移動率을 市道別 및 市·郡部別로 보면 表 2-2와 같다. 靜態移動率들의 產出은 5歲以上移動人口에 대한 5歲以上人口의 比率(百分比)로 하였다. 總移動率의 全國計만은 이미 前述한 바와 같이 表에 提示된 數值의 $\frac{1}{2}$ 이 眞價이다.

全國移動率(總移動率計의 $\frac{1}{2}$, 全國轉入率 또는 全國轉出率)은 時期의 經過에 따라 16.1%, 16.9%, 22.7% 및 22.8%로 增加하고 있으며 70年代後半 및 80年代初는 各已 22.7% 및 27.8%로 5年間に 國民의 $\frac{1}{5}$ 以上이 移動을 하고 있어 移動力이 매우 強하다. 특히 70年代後半以後의 높은 移動率은 이 時代에 있어선 우리나라의 急速하고도 實質인 經濟成長 및 產業化過程을 反映하고 있다.

市道別 總移動率을 보면 서울시가 餘他 市道에 比하여 斷然히 높아 56%~70%線을 維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釜山市와 京畿道가 餘他道에 比하여 높은 水準을 維持하고 있다.(圖表 2-1-1 參照) 또한 餘他の 市道

註 4) 慶北이 이 性向과 다른것은 大邱市가 直轄市로 昇格하여 分離되어 나오는 데서 起因하고 있다.

에 比하여 가장 낮은 總移動率을 보이고 있는 것이 濟州道이다. 특히 서울과 釜山의 비록 가장 높은 移動率을 보이고 있으나 70年代後半을 고비로 移動率이 減少傾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들 地域에 대한 그 間 行政廳에 의한 人口集中抑制策의 影響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되며, 京畿道の 持續的인 移動率上昇傾向은 그 間의 首都圈人口再配置計劃에 따른 結果로 보



圖表 2-1-1. 5歲以上 移動人口의 時期別·市道別 總移動率(全體移動人口)

여 진다.⁵⁾

餘他の 市道들은 大體的으로 總移動率에 있어서 前述한 市道보다는 낮으면서도 類似的한 水準에서 變化하고 있다. 全般的으로 60年代後半(1965-70年間)과 70年代初半(1970-75年間)의 時期間에는 各市道の 總移動率이 京畿道나 濟州道를 除外하고는 큰 變化가 보이지 않으나 70年代後半期(1975-80年間)에는 濟州道를 除外한 모든 市道の 移動率이 急上昇하고 있는 點은 注目된다. 이러한 性向은 이 時期에 있었던 우리나라 產業化過程의 本格化와 그 軌를 같이 하고 있다.

1980-85年間の 時期에 들어서 서울市와 釜山市와 같은 大都市地域은 前述한 人口集中抑制策의 影響으로 移動率이 鈍化되고 있으나 餘他の 道地域 移動率이 繼續 上昇勢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產業化의 進展이 國內人口移動을 持續的으로 促進시키고 있음을 反映하는 것이라 하겠다. 유독 이 時期에 慶北의 移動率이 鈍化된 것은 大邱市와 直轄市로 昇格하여 分離되어 나온데 起因하는 것이다. 京畿道の 境遇는 仁川市의 直轄市로의 分離에도 不拘하고 持續的인 上昇趨勢를 維持하고 있는 것은 이 地域에 대한 人口集積이 繼續되고 있음을 反映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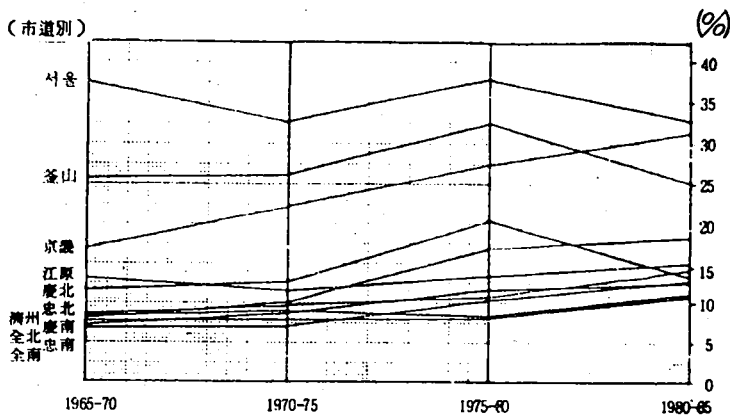
總移動率을 市部·郡部別로 보면 市部移動率은 60年代後半期에서 70年代

註 5) 그間 首都圈地域人口集中防止를 위한 對策으로는 1970년에 ①人口集中誘因의 解消 ②集中抑制을 위한 法的·行政的措置講究 ③首都圈內 開發制限區域의 設定을 위한 「首都圈의 過密集中抑制에 관한 基本指針」이 마련되었고, 1975년에는 서울市가 官公署, 國營業體 및 諸施設의 江南地域移轉을 主內容으로 하는 「서울市人口疎散計劃」을 作成하였다. 또한 1977년에는 「首都圈人口再配置計劃」이 國家基本計劃으로 確定되어 ①首都圈內工場의 新增設抑制 및 移轉促進 ②南部地域開發을 통한 人口收容與件造成 ③地方優先의 教育施策 強化 등을 통해서 超過人口를 行政首都(果川), 半月圈地, 5大據點都市圈 및 重化學工業圈地 등에 分散·收容토록 計劃하고 있다.

初半期까지 46.6%水準에 머물러 있었으나 70年代後에 57.0%에 急速한 上昇을 보였으며 80年代初半期에 이르러서는 52.3%로 鈍化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鈍化趨勢는 서울 및 釜山市의 移動率鈍化가 크게 作用한 데서 온 것으로 생각된다. 郡部移動率은 60年代後半 및 70年代初半 時期에 22%水準에 머물러 있던것이 그 後 높은 幅의 上昇趨勢를 持續하여 80年代初半期에는 移動率이 33.1%에 達하고 있다. 市部와 郡部間에는 約 倍程度의 差異가 있었으나 그 間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急速한 社會變動을 反映하여 매우 높은 移動率을 보여 주고 있다.

移動率을 轉入 및 轉出의 立場에서 보면 全國水準에서는 轉入=轉出의 關係를 가짐으로서 轉入率도 轉出率과 같다. 이를 各時期別로 보면 60年代後半期 및 70年代初半期에 16%水準에 있었던 것이 그 후 70年代後半 및 80年代初半에 22%水準으로 急速한 上昇趨勢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前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産業化가 70年代後半以後 本格化하고 있음을 反映하는 것이라 하겠다.

우선 轉入率을 市道別로 보면 全般的으로 서울, 釜山 및 京畿道가 餘他の 道와는 뚜렷한 差異를 가지고 全時期를 통해서 높은 水準을 維持하고 있으며, 餘他の 道들이 7~8%에서 12~18%의 水準에서 類似한 增加幅을 보이고 있다.(圖表 2-1-2)



圖表 2-1-2. 5歲以上 移動人口의 時期別·市道別 轉入率 (全體移動人口)

특히 서울의 경우 全時期를 통해서 轉入率이 32%를 上廻하는 매우 높은 水準으로 每 5年마다 서울시人口가 $\frac{1}{3}$ 을 넘는 새로운 人口에 의해서 構成되고 있어 그 間에 있었던 서울시에 대한 集中的인 人口移動의 흐름을 實感할 수 있다. 70年代後半期는 前時期의 37.5%에서 32.7%로 鈍化를 보이나 70年代後半期에 37.9%로 다시 昂騰한 후 80年代初半期에 32.7%의 水準으로 다시 뚜렷한 鈍化現象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70年代初의 서울시人口集中防止策이 奏效하는데서 오는 것이며 70年代後半期의 上昇은 서울시의 「아파트」를 中心으로 한 住宅政策이 區間移動을 激化시키는 데서 오는 것으로 생각되고, 80年代初期의 轉入率 鈍化는 서울시人口의 高密度化가 一種의 飽和狀態를 가져오는 동시에 그 以前時期에 있었던 離郡向서울의移動이 經濟 및 社會文化的으로 어려워진데서 起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80年代初期의 釜山市轉入率이 急速히 鈍化된 것도 같은 脈絡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注目해야할 事實의 하나는 京畿道の 경우 轉入率이 全時期를 통해서 持續的이고 急速한 增加趨勢를 보이고 있는 點이다. 이것은 서울시를 中心으로한 首都圈人口의 그 間에 있었던 持續的인 成長을 反映하는 것인 동시에 특히 70年代後半期 및 80年代初半期の 持續的인 轉入率의 上昇은 이들時期에 있었던 서울시의 높은 轉出率과 결코 無關한 것이 아니다.(表 2-2 參照)

80年度初半期인 1980-85年間に 있어서 慶北의 轉入率이 急速히 減少된 것은 大邱直轄市の 分離에서 오는 것이며, 慶南의 轉入率上昇은 釜山直轄市の 이 時期에 있었던 높은 轉出率(22.2%)과 서로 關聯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시와 釜山市의 이러한 轉入率의 鈍化는 이들을 둘러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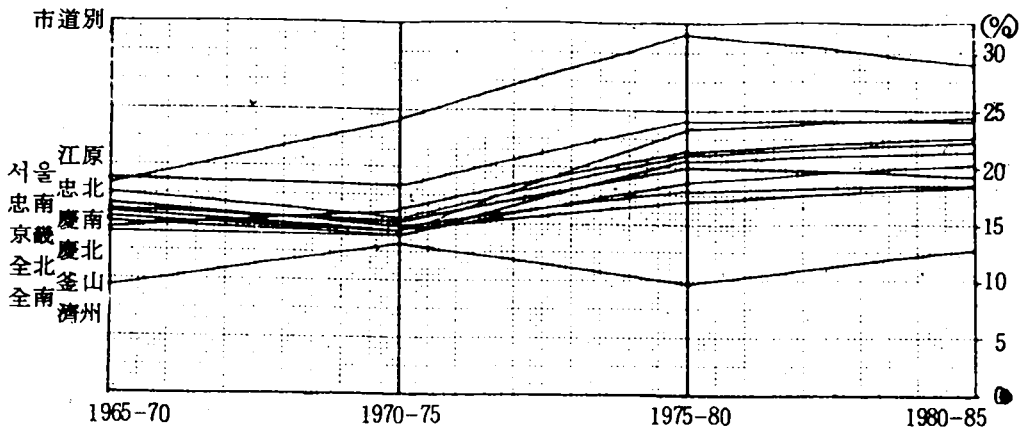
表 2-2 5 歲以上 移動人口의 時期別 移動率 (全體移動人口)

市道別 吳	人口數 (5 歲以上人口)				總移動率 ($\frac{m^i + m^o}{P}$)				轉入率 ($\frac{m^i}{P}$)				轉出率 ($\frac{m^o}{P}$)				純移動率 ($\frac{m^i - m^o}{P}$)					
	市·郡部別	1970	1975	1980	1985	1965-70	1970-75	1975-80	1980-85	1965-70	1970-75	1975-80	1980-85	1965-70	1970-75	1975-80	1980-85	1965-70	1970-75	1975-80	1980-85	
釜山	市	4,843,113	6,064,134	7,529,506	8,788,630	55.7	56.8	69.4	62.3	37.5	32.7	37.9	32.7	18.2	24.0	31.5	29.0	19.3	8.7	6.4	3.0	
	市	1,628,471	2,140,933	2,814,725	3,181,867	40.4	42.8	53.8	47.4	25.7	26.2	32.5	25.1	14.6	16.6	21.3	22.2	11.1	9.7	11.3	2.9	
	市				1,847,848				53.0								22.5					7.9
	市				1,233,323				48.8								16.7					15.3
仁川	市	2,911,309	3,540,490	4,382,930	4,269,380	32.9	37.1	44.5	49.7	16.9	22.1	27.5	31.3	16.1	14.9	17.0	18.4	0.8	7.2	10.6	12.9	
	市	790,651	1,433,121	2,091,480	1,946,123	38.1	44.7	50.9	57.3	24.4	30.7	36.3	40.0	13.7	14.0	14.6	17.3	10.7	16.8	21.7	22.8	
	市	2,120,658	2,107,369	2,291,450	2,323,257	31.0	31.8	38.6	43.4	14.1	16.3	19.5	24.0	16.9	15.5	19.1	19.3	-2.9	0.7	0.4	4.7	
	市	1,581,306	1,618,863	1,603,075	1,567,828	31.8	29.4	37.3	39.1	13.3	11.3	13.3	15.0	18.5	18.1	24.0	24.0	-5.2	-6.8	-10.7	-9.0	
江原	市	331,736	369,736	523,064	657,025	45.9	42.4	41.3	41.6	23.1	19.3	20.4	20.8	22.8	23.1	20.9	20.8	0.3	-3.8	-0.6	0.1	
	市	1,249,570	1,249,127	1,080,011	910,803	28.1	25.5	35.4	37.2	10.7	8.9	9.9	10.9	17.3	16.6	25.5	26.4	-6.6	-7.7	-15.6	-15.5	
	市	1,271,677	1,343,615	1,289,593	1,271,998	26.0	25.1	31.7	36.2	8.7	9.6	10.6	14.2	17.2	15.5	21.1	22.2	-8.5	-5.9	-10.5	-8.0	
	市	201,850	262,108	405,066	512,234	42.6	41.2	42.5	41.8	21.1	24.0	21.6	23.9	21.5	17.2	20.9	17.9	-0.3	6.8	0.7	6.0	
忠清	市	1,069,827	1,081,507	884,527	759,764	22.8	21.3	26.8	32.7	6.4	6.1	5.6	7.6	16.5	15.1	21.2	25.1	-10.1	-9.0	-15.6	-17.5	
	市	2,465,830	2,591,202	2,663,692	2,745,409	24.3	23.3	29.4	31.0	7.9	8.6	11.6	12.5	16.5	14.7	17.9	18.5	-8.6	-6.1	-6.3	-5.9	
	市	428,709	527,949	687,870	935,962	37.9	35.9	39.1	38.0	21.6	19.6	24.6	24.2	16.3	16.3	14.5	13.8	5.3	3.3	10.1	10.5	
	市	2,037,121	2,063,253	1,975,822	1,809,447	21.5	20.1	26.1	27.4	5.0	5.8	7.0	6.5	16.5	14.3	19.0	20.9	-11.5	-8.5	-12.0	-14.4	
全南	市	2,070,196	2,138,163	2,061,320	2,017,783	23.1	22.1	27.3	31.0	7.9	8.0	8.6	10.8	15.2	14.2	18.7	20.2	-7.3	-6.2	-10.2	-9.4	
	市	399,807	506,295	606,072	855,417	39.5	34.7	35.0	34.5	22.3	18.8	20.4	19.3	17.2	15.9	14.6	15.2	5.1	2.9	5.8	4.1	
	市	1,670,389	1,631,868	1,455,248	1,162,366	19.2	18.3	24.1	28.3	4.5	4.6	3.6	4.5	14.8	13.7	20.4	23.8	-10.3	-9.0	-16.8	19.3	
	市	3,407,918	3,480,865	3,399,989	3,424,640	21.6	21.5	31.1	34.1	7.6	7.1	10.5	12.7	14.0	14.4	20.6	21.4	-6.5	-7.3	-10.0	-8.7	
全北	市	769,712	902,573	1,089,507	1,352,150	36.9	33.4	42.8	42.4	20.2	18.4	24.2	22.9	16.7	15.0	18.6	19.5	3.5	3.4	5.5	3.4	
	市	2,638,206	2,578,292	2,310,482	2,072,490	17.1	17.4	25.6	28.8	3.9	3.2	4.1	6.1	13.3	14.2	21.5	22.7	-9.4	-11.0	-17.4	-16.6	
	市	3,941,829	4,293,816	4,478,463	2,756,425	27.3	27.5	43.8	37.3	11.6	12.6	20.3	13.1	15.7	14.8	23.4	24.2	-4.0	-2.2	-3.1	-11.1	
	市	1,214,128	1,508,291	2,048,724	767,650	41.2	38.0	58.0	46.2	25.8	22.3	34.3	25.3	15.4	15.7	23.7	20.9	10.4	6.6	10.5	4.4	
慶南	市	2,727,701	2,785,525	2,429,739	1,988,775	21.1	21.7	31.8	33.9	5.3	7.4	8.6	8.4	15.8	14.3	23.2	25.5	-10.4	-6.9	-14.6	-17.1	
	市	2,691,167	2,885,030	2,974,850	3,167,668	24.5	25.4	36.9	37.5	8.4	10.1	16.9	18.2	16.2	15.3	20.0	19.3	-7.8	-5.2	-3.1	-1.2	
	市	581,882	869,714	1,192,259	1,543,385	39.8	36.1	46.1	43.2	22.8	21.6	31.3	26.2	17.0	14.5	14.8	17.1	5.7	7.1	16.5	9.1	
	市	2,109,285	2,015,316	1,782,591	1,624,283	20.3	20.8	30.7	32.0	4.4	5.2	7.2	10.6	15.9	15.7	23.5	21.5	-11.5	-10.5	-16.2	-10.9	
濟州	市	306,293	352,865	413,980	444,298	16.2	22.1	18.1	23.9	8.5	9.0	8.4	11.1	7.7	13.1	9.6	12.8	0.8	-4.1	-1.2	-1.7	
	市	89,179	114,741	148,149	256,621	23.6	38.7	23.3	25.7	17.5	15.7	16.2	16.1	6.0	23.0	7.1	9.6	11.5	-7.2	9.2	6.5	
	市	217,114	238,124	265,831	187,677	13.2	14.1	15.2	21.4	4.8	5.8	4.1	4.3	8.4	8.3	11.1	17.2	-3.6	-2.5	-7.0	-12.9	
	市	27,119,109	30,451,612	33,612,123	36,717,097	32.3	33.8	45.3	45.6	16.1	16.9	22.7	22.8	16.1	16.9	22.7	22.8	-	-	-	-	
市	部	11,279,238	14,699,595	19,136,422	23,878,235	46.6	46.7	57.0	52.3	29.7	27.4	33.3	29.3	16.9	19.3	23.7	22.9	12.8	8.1	9.6	6.4	
	部	15,839,871	15,752,017	14,475,701	12,838,862	22.1	21.8	29.9	33.1	6.5	7.1	8.6	10.6	15.6	14.7	21.3	22.5	-9.1	-7.6	-12.7	-12.0	

고 있는 週邊地域에 대한 轉出 및 郊外化現象 (sub-urbanization) 과 깊이 關聯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轉入率은 市·郡部別로 보면 市部の 경우 70年代後半期를 頂點(33.3%)으로 減少傾向(29.3%)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大邱市地域轉入率의 減少影響을 받는데서 오고 있으며 郡部の 경우는 7~10% 水準에서 轉入率의 上昇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移動類型上 郡間移動 보다는 產業化에 關聯된 離市向郡型移動이 커진데서 온 것으로 看做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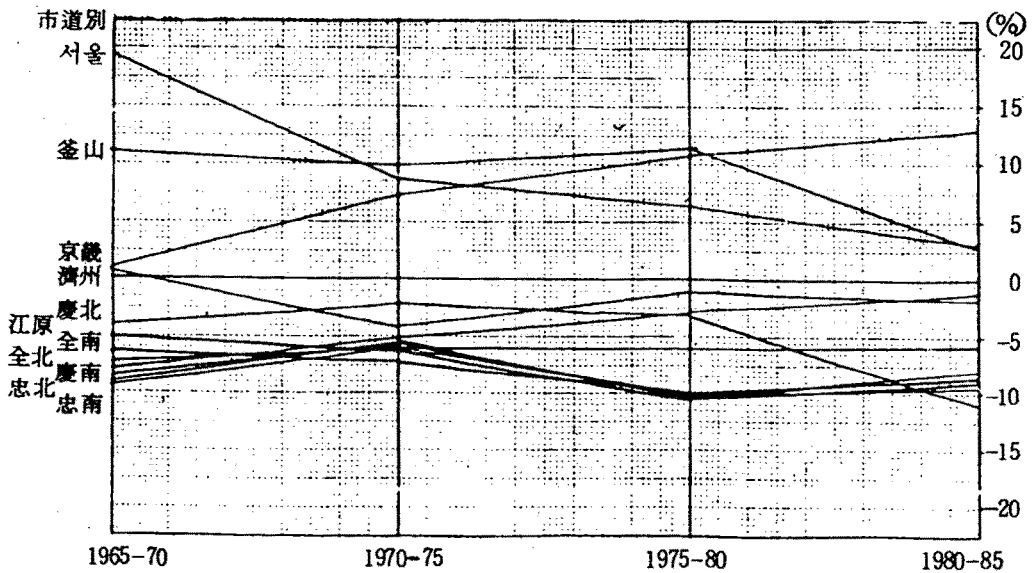
轉出率을 市道別로 보면 60年代後半期에는 濟州道를 除外한 모든 市道가 相對적으로 15~18%의 類似한 낮은 水準을 보이고 있으나 70年代後半期부터 서울市만이 유독 24.0%, 31.5% 및 29.0%의 높은 水準을 1970-75年間, 1975-80年間 및 1980-85年間に 보이고 있다. (圖表 2-1-3 參照) 濟州道를 除外하고는 餘他の 市道들이 70年代後半부터 持續的인 上昇趨勢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產業化過程의 進展에 따른 人口移動의 深化를 反映하는 것인 동시에 江原道·忠北·全北·全南等 比較的 開發不振地域 및 農耕地支配的인 地域에서 높은 轉出率을 보여주고 있는 事實이 注目된다.



圖表 2-1-3 . 5歲以上 移動人口의 時期別·市道別 轉出率 (全體移動人口)

轉出率을 市部·郡部別로 보면 市部の 경우 70年代後半期の 23.7%를 고비로 하여 80年代初半期の 22.9%로 減少傾向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 및 釜山 등 大都市地域의 轉出率減少에서 影響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郡部の 경우 全時期를 통하여 持續的인 上昇趨勢를 보이고 있으며, 1980-85年間에는 22.5%로 5年間に 郡部人口의 約 $\frac{1}{4}$ 이 轉出을 하고 있다.

全體移動人口를 市道別 純移動率의 立場에서 觀察하면 全時期를 통해서 서울·釜山 및 京畿道만이 「프라스」成長을 하고 있으며 餘他の 道들은 1965-70年間の 濟州道를 除外하고는 모두 「마이너스」成長을 하고 있는 동시에 各市道別 純移動率의 變化는 그 樣相이 매우 多樣하다. (圖表 2-1-4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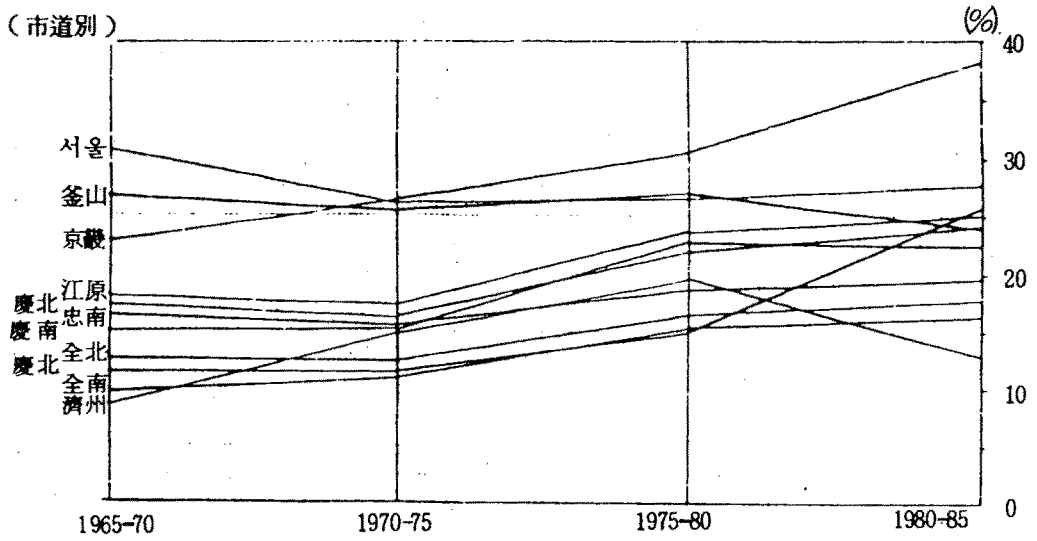
圖表 2-1-4. 5歲以上 移動人口의 時期別·市道別 純移動率 (全體移動人口)

서울시의 경우 1965-70年間の 19.3%의 높은 純移動率로 이 時期에 轉入人口 182萬名에 轉出人口 88萬名으로 94萬名の 純增加를 나타냈으며 (19.3%), 그 後 純增加는 繼續 減少하여 1980-85年間에는 轉入 287萬에 轉出 261萬으로 26萬의 純增加에 머물러 純移動率이 3.0%에 그치고 있다.(附表1 參照) 해를 거듭할수록 轉出·入量이 많아지면서도 純移動率이 急激한 減少를 보고 있는 것은 國家發展 내지 産業活動이 서울을 中心으로 活潑하게 進行되고 있는 동시에 서울市の 人口稠密化 내지는 飽和狀態가 住居定着地를 바꾸고 있는 이른바 人口移動의 「J字移動現象」(J-turn)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京畿道 市部地域의 純移動率이 70年代後半期以後 21.7% 및 22.8%로 全國적으로 가장 높은 純移動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 事實을 反證하는 것이라 하겠다.(表2-2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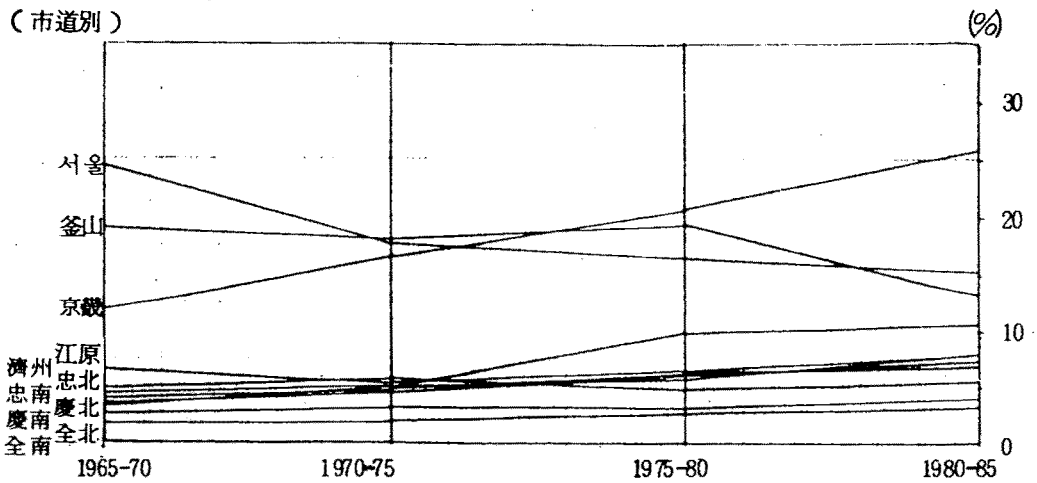
「마이너스」成長에 있어서 濟州道·慶北·慶南 및 忠南이 純移動率의 變化에 있어서 特異한 傾向과 比較的 낮은 水準을 나타내고 있을 뿐 餘他の 人口減少 道地域에 있어서는 減少類型이 매우 類似하게 나타나고 있다. 慶北의 純移動率이 80年代初半期에 와서 -11.1%로 急激한 下降趨勢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 期間中 郡部の -17.1%라는 높은 純移動率의 下降에서 起因하는 동시에 이 時期의 大邱直轄市の 昇格 및 7.9%의 높은 純移動率上昇과 關聯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表2-2) 특히 忠南地域의 純移動率이 -8.6%에서 -5.9%로 매우 安定된 人口減少傾向을 나타내고 있는 點도 注目된다.

諸移動率을 市道間移動人口의 立場에서 觀察하면 圖表2-2에 있어서와 같이 全體移動人口(市道內移動人口+市道間移動人口)의 경우와는 그 樣相이 크게 다르다.

(總移動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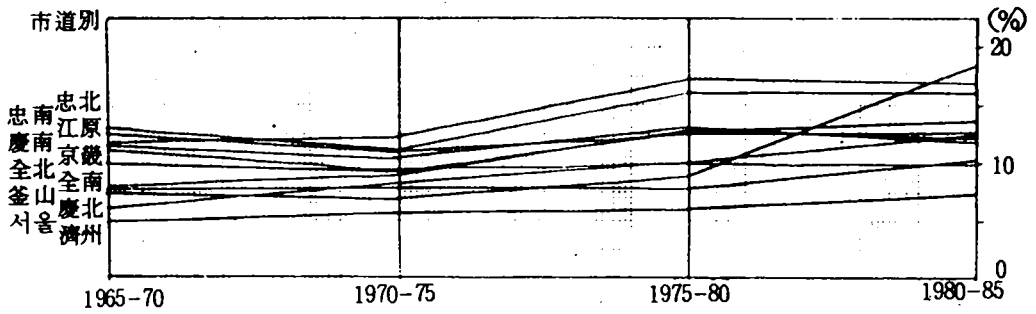


(轉入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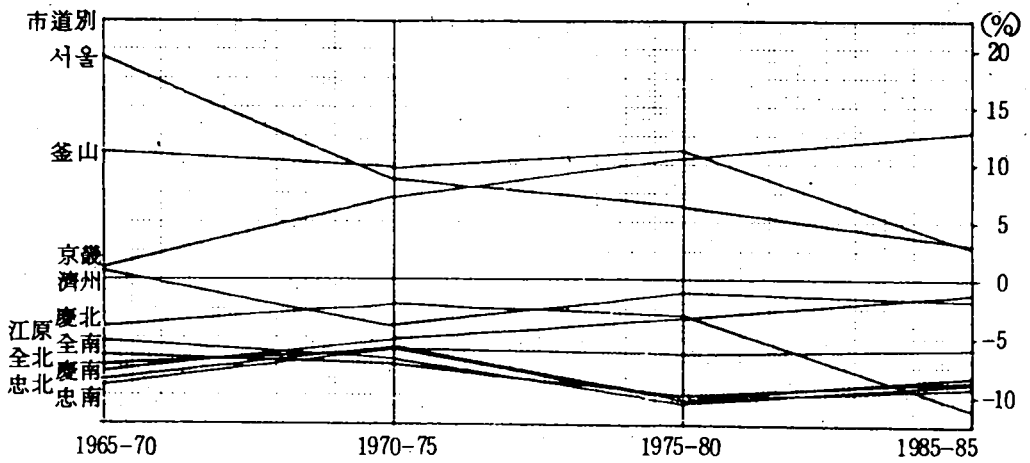


圖表 2-2. 5歲以上 市道間 移動人口의 時期別 諸移動率 (%)

(轉出率)



(純移動率)



두 移動人口集團의 諸移動率에 있어서의 特性이 巨視的인 觀點에서는 비
 록 類似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市道內移動을 包含한 全體移動人口와 市道間
 移動만을 分離시킨 市道間移動人口間에는 그 特性에 있어서 ①全體移動人口

의 移動率變化幅이 크게 넓으며 ②市道間移動人口에 있어서 轉出入 共히 移動率의 幅이 매우 좁으며 ③大都市地域에 있어서의 區間移動人口가 移動率에 크게 作用하고 있으나 ④純移動率에 있어서는 두 移動人口集團의 變化樣相이 同一하다는 點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轉入率에 있어서 서울 및 釜山이 全體移動의 경우 80年代初半期에 비록 鈍化·下降하고 있으나 아직도 38.7% 및 25.1%로 높은 水準을 市內區間移動에 의해서 維持하고 있는데 反하여 市道間移動의 경우 各其 15.3% 및 13.3%로 크게 낮다. 오로지 京畿道の 경우만 두 移動人口集團에 있어서 轉入率이 持續的인 急上昇을 보이고 있으나 두 移動人口集團間的 轉入率差가 적은 것으로 보아 京畿道에 대한 人口轉入이 主로 他市道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釜山市를 둘러싼 慶南을 除外하고는 前述한 市道外의 江原·濟州·忠北·忠南·慶北·全北 및 全南등 道地域에 대한 他市道로 부터의 轉入이 매우 微弱하며 특히 全北 및 全南이 市道中에서 가장 낮고 安全的인 轉入率을 나타내고 있는 事實은 社會·文化的 見地에서 매우 注目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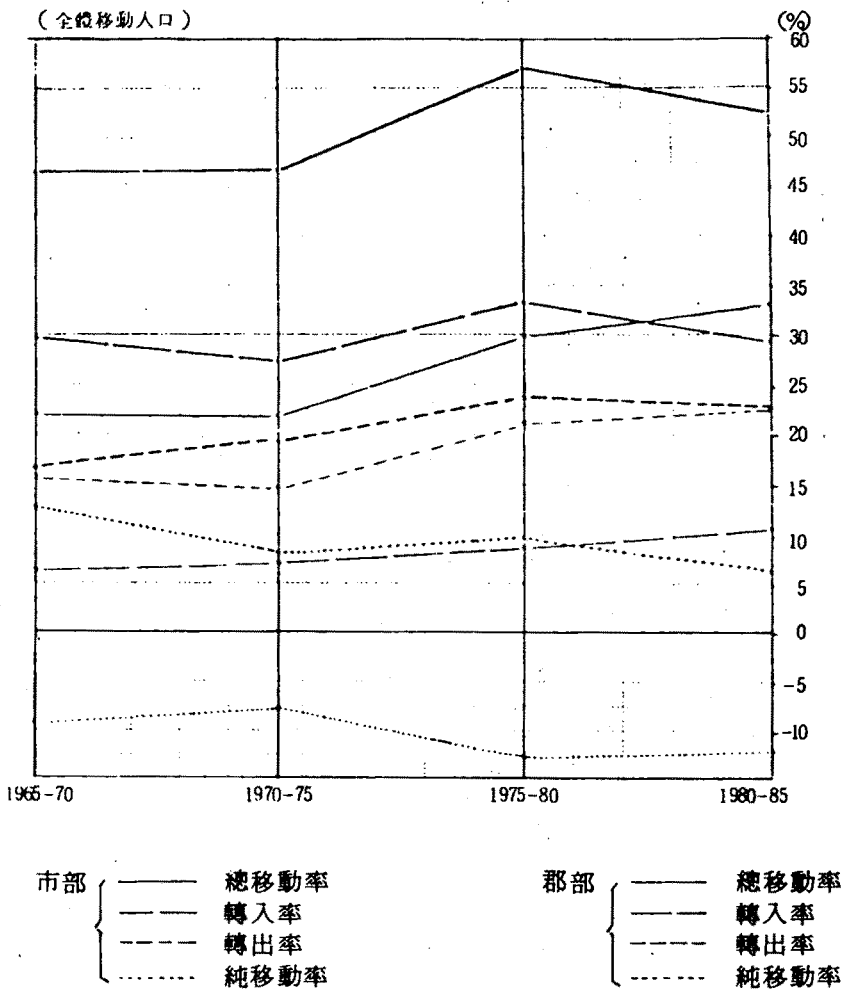
또한 轉出率에 있어서도 慶北이 大邱直轄市の 昇格으로 80年代初半期에 18.5%의 높은 水準을 보이고 江原(17.0%) 및 忠北(16.1%)이 높아진 것을 除外하고는 모든 市道가 比較的 좁은 幅속에 集中되어 있는 點도 注目된다. 특히 서울 및 釜山이 轉出에 있어서 낮은 水準을 維持하고 있으며⁶⁾ 濟州道가 他市道轉出에 있어서 가장 낮은 水準을 安定的으로 持

註6) 그러나 서울市の 경우 70年末 및 80年代初半期에 轉出率이 높아지고 있는 點은 서울市 人口의 郊外化現象과 더불어 注目되며, 이러한 徵候는 釜山市의 경우도 窺보인다.

續하고 있는 點도 留意할 만한 性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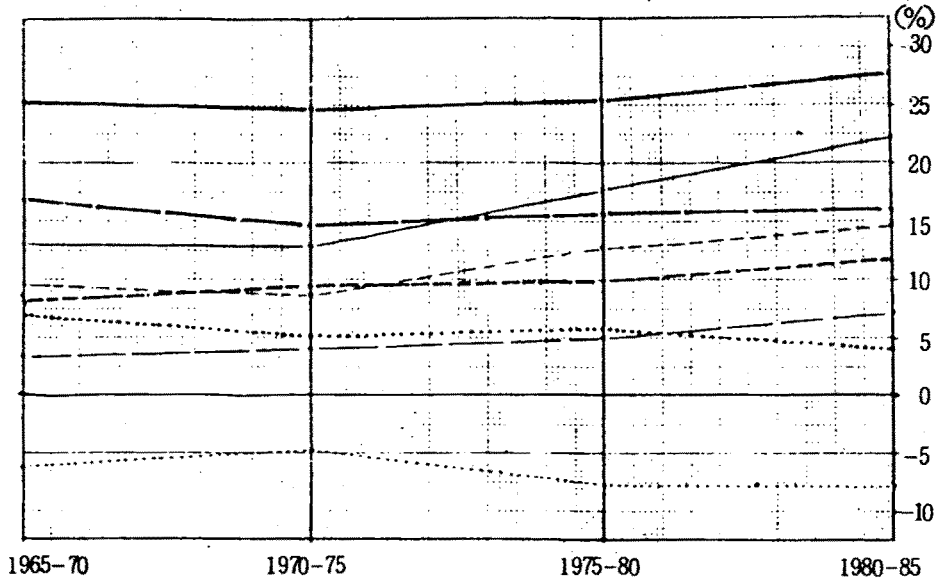
純移動率이 두 移動人口集團間에 同一한 것은 市道內人口移動은 轉入=轉出로 相殺되어 0(零)이 되는데서 오고 있어 市道間移動人口의 轉出入差에 의한 純移動率이 곧 全體移動人口(市道內移動人口+市道間移動人口)의 純移動率과 같다.

諸移動率을 市部, 郡部別로 보면 圖表 2-3에서와 같이 全體的으로 全體移動人口와 市道間移動人口의 두 人口集團間에 類似한 變化趨勢를 보이고



圖表 2-3. 5歲以上 移動人口의 市部·郡部別 移動率(%)

(市道間移動人口)



市部 {
 — 總移動率
 — 轉入率
 - - 轉出率
 ··· 純移動率

郡部 {
 — 總移動率
 — 轉入率
 - - 轉出率
 ··· 純移動率

있으며, 특히 郡部移動人口集團의 變化類型에 있어서 그러하다. 그러나 市部移動人口의 경우는 두 集團間에 뚜렷한 差異가 보인다.

市部移動率과 郡部移動率間的 基本的인 差異는 全體移動人口의 경우 ①모든 率에 있어서 市部移動率이 郡部移動率보다 높으며 ②諸率間的 差가 市部の 경우 總移動率 > 轉入率 > 轉出率 > 純移動率의 關係를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 郡部の 경우는 總移動率 > 轉出率 > 轉入率 > 純移動率의 關係를 나타내고 있는 동시에 ③純移動率이 市部에서는 「프라스」 그리고 郡部에서는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는 點이다. 市道間移動人口의 경우도 이와 類似하나

다른 事實은 ①여러 移動率의 變化傾向이 全體移動人口의 경우 보다 起伏이 없으며 ② 70年代後半期以後 郡部轉出率이 市部轉出率보다 높다는 點등에 있다.

이러한 全體移動人口와 市道間移動人口間의 差異는 이미 여러번 指示했듯이 大都市地域의 同一市內에 있어서의 엄청난 區間移動人口의 量이 作用하는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市部에 있어서 80年代初半期에 全體移動人口의 경우 諸移動率이 下降勢를 보이고 있으나 市道間移動의 경우는 純移動率이 多少의 下降勢를 보일뿐 總移動率, 轉入率 및 轉出率이 共히 上昇勢를 보이면서 轉出入率間의 幅이 좁혀지고 있다.

다. 移動方向

(1) 概 觀

移動人口의 흐름의 方向은 特定한 時期의 社會變動 내지 發展을 主導했던 넓은 意味의 社會的 要因과 密接히 關聯되어서 일어나고 있다. 世界第2次大戰의 終熄이라는 國際政治的 軍事的 要因이 8·15의 解放과 더불어 200萬가까운 海外同胞의 故國歸還이라는 커다란 人口移動의 흐름을 낳았으며, 6·25 動亂에 따른 北傀의 南侵과 戰線의 南北間 移動이라는 軍事的 要因이 南韓人口의 戰時 南쪽으로의 避難移動 및 戰後의 收復移動의 흐름과 1·4 後退로 代表되는 北韓人口의 越南이라는 脫共移動의 흐름을 낳았다.

60年代以後 우리나라의 急速한 經濟發展과 產業化라는 經濟的 要因은 產業構造의 變化와 더불어 2次 및 3次 產業部門에 있어서의 雇傭機會의 增大 및 都市化 過程은 그 間 世爿 離農向市型人口 移動(rural-to-urban migration)의 흐름을 發生시켰으며, 產業化의 進步는 70年代後半부터 市間 移動이라는 또 하나의 注目할만한 移動의 흐름이 發生하고 있다.

人口移動 方向에 대한 巨視的인 人口統計學的 觀察로는 人口重心(center of population)의 測定을 통해서도 把握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人口重心은 1960年 現在 忠北 沃川郡 利院面 開心里(東經 $127^{\circ} 36' 37''$, 北緯 $36^{\circ} 12' 00''$)에서 1980年 現在 忠北 報恩郡 懷南面 隱雲里(東經 $127^{\circ} 36' 01''$, 北緯 $36^{\circ} 24' 35''$)로 거의 正北으로 서울指向的인 移動을 年平均 約 1.2km 씩 하고 있다.⁷⁾

註 7) 崔鍾碩, “韓國의 人口重心과 그 移動에 관한 研究”, 人口問題論集 第23號, 1981, p. 59.

前節에 提示된 市道別 純移動率(圖表 2-1-4 및 圖表 2-2)과 市·郡別 純移動率(圖表 2-3)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人口移動 흐름의 方向이 巨視的으로 서울을 包含한 首都圈地域 및 大都市地域으로 指向하고 있으며 또한 移動의 흐름이 郡部에서 發生하여 市部地域으로 흐르고 있음을 觀察할 수 있다.

(2) 60年代 後半期の 移動方向

60年代後半期(1965-70年間)의 人口移動 方向을 우선 市·道別로 보면 表 2-3과 같으며 總移動量은 4,394,447名이다. 그 中 市·道間 移動人口가 2,476,769名이며 市·道內 移動人口가 1,917,678名으로 그 構成比는 各各 56.4% 및 43.6%이다.⁸⁾

특히 市·道間 移動人口를 轉出地의 立場에서 그 構成比를 보면 京畿道가 가장 많아 12.9%이며 이어 忠南(12.4%), 慶南(12.4%), 慶北(12.2%), 全南(11.2%), 서울(10.0%), 全北(8.3%), 江原(7.5%), 忠北(6.6%), 釜山(5.1%) 및 濟州道(0.5%) 등의 順으로 되어 있다. 이를 다시 轉入地의 立場에서 그 構成比를 보면 서울이 48.1%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京畿道(14.0%), 釜山(12.5%), 慶北(5.9%) 등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事實은 移動人口의 轉出地 構成이 各 市·道에 걸쳐서 比較的 골고루 分布되어 있는데 反하여 轉入地 構成은 서울이 壓倒적으로 높은 동시에 서울을 包含한 首都圈地域과 釜山市에 集中되어 있음을 端的으로

註 8) 1965-70年間の 5歲以上 移動人口量은 1970年 센서스 資料中 10% 標本 調査에 의한 것이다.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傾向은 各市·道의 轉出人口中 서울로 轉入해 들어가는 構成比가 大部分 50%를 넘는 높은 水準에 있는 事實에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例를 들어 京畿道 轉出人口의 87.4%, 忠南의 63.5%, 全北의 63.2%, 全南의 62.7%, 忠北의 52.0%, 江原道の 47.1%, 釜山の 44.9%, 慶北의 43.8% 등이 各各 서울로 轉入하고 있다.

또한 이 時期의 人口移動에 있어서 「移動量은 距離에 反比한다」라는 Ravenstein의 距離法則이⁹⁾ 적지 않게 作用하고 있는 點도 註目된다. 卽 서울-京畿間, 京畿-江原間, 忠北-京畿·忠南間, 全北-全南間, 慶北-慶南間, 慶南-釜山間 및 濟州-釜山·全南間에 他地域보다는 훨씬 높은 轉出入關係가 形成되어 있음을 觀察할 수 있다(表 2-3)

이 時期의 市·道間 移動人口를 移動類型別로 보면¹⁰⁾ 表 2-4 와 같이 當時의 社會的 背景을 反映하여 離郡向市型移動이 全體의 50.2%를 차지하여 다른 移動類型에 比하여 壓倒的으로 높으며, 다음이 市間 移動으로 27.5%를 그리고 郡間移動 및 離市向郡移動이 各各 11.6% 및 10.7%를 占하고 있다. 또한 市部地域에서 轉出한 人口가 938,890名 그리고 郡部地域轉出人口가 1,518,033名으로 그 構成比가 各各 38.2% 및 61.8%로 郡部地域에서의 移動人口가 壓倒的으로 많으며, 反面 市部地域으로의 轉入人口는 1,910,380名(77.8%), 그리고 郡部地域轉入人口는

註9) E.G. Ravenstein, "The laws of migration", 2nd paper, Journ. Roy. Stat. Soc., Vol LII, Part II, June, 1889.

10) 여기서 移動類型이라 하면 市部, 郡部를 境界線으로 하는 移動方向을 意味하는 것으로 類型上 ①市間移動 ②離市向郡型移動 ③郡間移動 ④離郡向市型移動의 네가지가 있다.

表 2 - 3 1965-1970 年間 5 歲以上 移動人口의 市道別 移動方向¹⁾

現 居 住 地 (轉入地)	計	5 年 前 居 住 地 (轉 出 地)											
		서 울	釜 山	京 畿	江 原	忠 北	忠 南	全 北	全 南	慶 北	慶 南	濟 州	其 他
서 울	1,191,220 (48.1) (100.0)		57,206 (44.9)(4.8)	251,400 (78.4) (21.1)	87,038 (47.1) (7.3)	85,109 (52.0) (7.1)	195,158 (69.5) (16.4)	130,019 (63.2) (10.9)	174,003 (62.7) (14.6)	132,314 (43.8) (11.1)	65,573 (21.4) (5.5)	4,806 (39.8) (0.4)	8,594 (43.3) (0.7)
釜 山	309,119 (12.5) (100.0)	22,401 (9.0)(7.1)		8,124 (2.5) (2.6)	9,009 (4.9) (2.9)	5,863 (3.6) (1.9)	7,772 (2.5) (2.5)	8,414 (4.1) (2.7)	19,290 (7.0) (6.2)	61,445 (20.3) (19.9)	162,849 (53.0) (52.7)	2,524 (20.9) (0.8)	1,428 (7.2) (0.5)
京 畿	345,683 (14.0) (100.0)	121,891 (49.2) (35.3)	9,896 (7.8) (2.9)		31,781 (17.2) (9.2)	22,902 (14.0) (6.6)	61,074 (19.9) (17.7)	23,434 (11.4) (6.8)	34,534 (12.4) (10.0)	24,137 (8.0) (7.0)	13,463 (4.4) (3.9)	1,273 (10.5) (0.4)	1,298 (6.5) (0.4)
江 原	103,594 (4.2) (100.0)	19,145 (7.7)(18.5)	4,421 (3.5) (4.3)	17,450 (5.4) (16.8)		11,763 (7.2) (11.4)	7,190 (2.3) (6.9)	2,974 (1.4) (2.9)	5,349 (1.9) (5.2)	29,189 (9.7) (28.2)	5,380 (1.8) (5.2)	231 (1.9) (0.2)	502 (2.5) (0.5)
忠 北	55,844 (2.3) (100.0)	7,893 (3.2) (14.1)	1,154 (0.9) (2.7)	5,281 (1.6) (9.5)	14,612 (7.9) (26.2)		9,756 (3.2) (17.5)	1,619 (0.8) (2.9)	1,839 (0.7) (3.3)	12,141 (4.0) (21.7)	1,254 (0.4) (2.2)	82 (0.7) (0.1)	213 (1.1) (0.4)
忠 南	98,774 (4.0) (100.0)	19,045 (7.7) (19.3)	3,134 (2.5) (3.2)	10,677 (3.3) (10.8)	6,402 (3.5) (6.5)	22,290 (13.6) (22.6)		14,943 (7.3) (15.1)	6,774 (2.4) (6.9)	8,751 (2.9) (8.9)	4,215 (1.4) (4.3)	310 (2.6) (0.3)	2,233 (11.2) (2.3)
全 北	55,326 (2.2) (100.0)	9,638 (3.9) (17.4)	1,398 (1.1) (2.5)	3,883 (1.2) (7.0)	2,455 (1.3) (4.4)	1,190 (0.7) (2.2)	10,929 (3.6) (19.8)		18,127 (6.5) (32.8)	3,107 (1.0) (5.6)	3,054 (1.0) (5.5)	235 (1.9) (0.4)	1,310 (6.6) (2.4)
全 南	58,441 (2.4) (100.0)	13,059 (5.3) (22.3)	3,180 (2.5) (5.4)	6,429 (2.0) (11.0)	6,460 (3.5) (11.1)	897 (0.5) (1.5)	3,303 (1.1) (5.7)	14,898 (7.2) (25.5)		3,186 (1.1) (5.5)	4,851 (1.6) (8.3)	1,025 (8.5) (1.8)	1,153 (5.8) (2.0)
慶 北	145,339 (5.9) (100.0)	21,405 (8.6) (14.7)	15,903 (12.5)(10.9)	10,673 (3.3) (7.3)	20,199 (10.9) (13.9)	10,535 (6.4) (7.2)	8,208 (2.7) (5.6)	5,374 (2.6) (3.7)	5,416 (2.0) (3.7)		45,238 (14.7) (31.1)	807 (6.7) (0.6)	1,581 (8.0) (1.1)
慶 南	98,504 (4.0) (100.0)	11,137 (4.5) (11.3)	29,730 (23.3)(30.2)	5,866 (1.8) (6.0)	6,284 (3.4) (6.4)	3,040 (1.9) (3.1)	3,540 (1.2) (3.6)	3,213 (1.6) (3.3)	6,868 (2.5) (7.0)	26,834 (8.9) (27.2)		790 (6.5) (0.8)	1,202 (6.1) (1.2)
濟 州	14,925 (0.6) (100.0)	2,342 (0.4) (15.7)	1,306 (1.0) (8.8)	853 (0.3) (5.7)	456 (0.2) (3.1)	231 (0.1) (1.5)	642 (0.2) (4.3)	799 (0.4) (5.4)	5,497 (2.0) (36.8)	1,266 (0.4) (8.5)	1,186 (0.4) (7.9)		347 (1.7) (2.3)
市·道間移動人口	2,476,769 (100.0) (100.0) (56.4)	247,956 (100.0) (10.0) (28.1)	127,328 (100.0) (5.1) (53.4)	320,636 (100.0)(12.9) (68.6)	184,696 (100.0) (7.5) (63.2)	163,820 (100.0) (6.6) (74.7)	307,572 (100.0)(12.4) (75.8)	205,687 (100.0) (8.3) (65.2)	277,697 (100.0) (11.2) (58.1)	302,370 (100.0) (12.2) (49.0)	307,063 (100.0)(12.4) (70.6)	12,083 (100.0) (0.5) (51.1)	19,861 (100.0) (0.8)
市道內移動人口	1,917,678 (43.6) (100.0)	633,896 (33.1) (71.9)	111,081 (5.8) (46.6)	146,849 (7.7) (31.4)	107,634 (5.6) (36.8)	55,479 (2.9) (25.3)	98,093 (5.1) (24.2)	109,625 (5.7) (34.8)	200,574 (10.5) (41.9)	315,216 (16.4) (51.0)	127,679 (6.7) (29.4)	11,552 (0.6) (48.9)	
區·市·郡間 移 動 人 口	4,394,447 (100.0)	881,852 (20.1) (100.0)	238,409 (5.4) (100.0)	467,485 (10.6) (100.0)	292,330 (6.7) (100.0)	219,299 (5.0) (100.0)	475,665 (9.2) (100.0)	315,312 (7.2) (100.0)	478,271 (10.9) (100.0)	617,586 (14.1) (100.0)	434,742 (9.9) (100.0)	23,635 (0.5) (100.0)	19,861 (0.5) (100.0)

1) 經濟企劃院, 1970年 總人口 및 住宅調查報告書, 第2卷 4-3 人口移動 第3表
移動方向 分析에 있어서 其他는 除外되었음.

〈表 2-4〉 5 歲以上 市・道間 移動人口의 移動類型 (1965-1970)

移 動 類 型	移 動 人 口 數	構 成 比 (%)
市間移動	676,744	27.5
離市向郡移動	262,146	10.7
離市向市移動	1,233,636	50.2
郡間移動	284,397	11.6
計 ¹⁾	2,456,923	100.6

1) 其他 19,846名이 除外되었음.

1,910,380名(77.8%) 그리고 郡部地域轉入人口는 546,543(22.2%)로 人口의 都市地域 集中現象이 뚜렷하다.

이 時期의 市間移動에 있어서 轉出人口는 서울(15.7%), 慶北(14.3%), 釜山(14.0%), 慶南(9.9%), 京畿(9.8%)등 各市・道の 市郡에서 比較的 高르게 轉出하고 있으나 轉入은 市間移動人口의 55.0%가 서울로 轉入하고 있으며 이어 釜山(13.9%) 및 京畿(8.7%)등의 順으로 되어 있어 首都圈地域 및 釜山에 대한 人口集積 傾向이 뚜렷하다.

離市向郡移動에 있어서는 市郡轉出人口의 54.0%가 서울에서 轉出하고 있으며 이어 釜山(12.3%) 및 慶北(8.2%)등에서 나오고 있다. 反面 이들의 郡部地域轉入은 47.3%가 京畿道로 들어오고 있으며 나머지는 各道에 比較的 高루 轉入되고 있다. 離市向郡移動은 서울市轉出人口의 63.3%가 京畿道郡部地域으로 그리고 釜山市의 44.6%가 慶南郡部地域으

로 轉入하는등 매우 短距離的인 移動傾向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性向은 各道內 市部에서 轉入하는 移動人口數가 忠南을 除外하고는 他道の 郡部地域으로 轉出하는 數보다 뚜렷이 높다는 事實에서도 立證된다.

離郡向市移動은 이 時期에 있었던 國內人口移動의 主流로서 郡部地域에서의 轉出人口는 慶北을 除外하고는 他市道 市部地域으로의 轉入數가 同一道內 市部地域에 대한 轉入數보다 뚜렷이 높은 동시에¹¹⁾ 各道에서 比較的高루 轉出하고 있는 反面 市部地域에 대한 轉入은 서울이 이들의 6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釜山(17.3%), 京畿(5.1%), 慶北(4.2%)등이 뒤를 잇고 있다. 이러한 性向은 이 時期에 있었던 離市向郡移動이 서울을 비롯한 首都圈地域과 釜山市에 대한 人口集中이었음을 端的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郡間移動은 同一道內 郡間移動數가 他道에 대한 郡間移動數보다 높아 郡間移動의 短距離性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으며, 他道에 대한 郡向移動은 거의 모든 道에서 20~45%에 이르는 높은 水準에서 京畿道로 轉入하고 있으며 그 外에는 郡間移動의 短距離性을 反映하여 隣接道間的 移動이 높다.

(3) 70年代初半期(1970-75)의 人口移動方向

이 時期의 人口移動方向을 市道別로 보면 表 2-5와 같다. 總移動量은

註 11) 慶北 郡部轉出人口의 慶北內 市部地域에 대한 轉入數가 他市道 市部地域에 대한 轉入數보다 높은 것은 이들이 아직 直轄市로 分離안된 大邱市로 轉入하는데서 오고 있다.

表2-5 1970-1975年間 5歳以上 移動人口の 市道別 移動方向¹⁾

現居住地 (轉入地)	計	5 年 前 居 住 地 (轉 出 地)												
		서 울	釜 山	京 畿	江 原	忠 北	忠 南	全 北	全 南	慶 北	慶 南	濟 州	外 國	未 詳
서 울	1,094,464 (38.4) (100.0)		58,245 (34.4) (5.5)	242,219 (72.9) (22.9)	78,741 (40.3) (7.4)	62,545 (42.4) (5.9)	150,726 (53.6) (14.3)	109,891 (55.2) (10.4)	167,870 (52.9) (15.9)	112,586 (38.4) (10.6)	54,717 (18.5) (5.2)	15,685 (46.1) (1.5)	4,705 (61.8) (0.4)	36,534
釜 山	378,534 (13.3) (100.0)	40,578 (7.7) (10.8)		10,228 (3.1) (2.7)	15,655 (8.0) (4.2)	7,155 (4.8) (1.9)	10,515 (3.7) (2.8)	10,354 (5.2) (2.7)	37,803 (11.9) (10.0)	75,031 (25.6) (19.9)	165,270 (55.8) (49.9)	3,685 (10.8) (1.0)	391 (5.1) (0.1)	1,869
京 畿	595,027 (20.9) (100.0)	298,532 (57.0) (50.7)	13,514 (8.0) (2.3)		42,658 (21.8) (7.2)	26,930 (18.2) (4.6)	72,070 (25.6) (12.2)	32,425 (16.3) (5.5)	48,139 (15.2) (8.2)	32,570 (11.1) (5.5)	16,644 (5.6) (2.8)	4,686 (13.8) (0.8)	536 (7.0) (0.1)	6,323
江 原	85,609 (3.0) (100.0)	24,759 (4.7) (29.2)	3,202 (1.9) (3.8)	13,707 (4.1) (16.2)		10,459 (7.1) (12.3)	5,042 (1.8) (5.9)	2,551 (1.3) (3.0)	3,780 (1.2) (4.5)	17,969 (6.1) (21.2)	2,448 (0.8) (2.9)	706 (2.1) (0.8)	236 (3.1) (0.3)	750
忠 北	68,516 (2.4) (100.0)	14,262 (2.7) (20.9)	2,048 (1.2) (3.0)	8,892 (2.7) (13.0)	13,755 (7.0) (20.2)		12,566 (4.5) (18.4)	1,658 (0.8) (2.4)	2,678 (0.8) (3.9)	9,769 (3.3) (14.3)	1,911 (0.7) (2.8)	484 (1.4) (0.7)	166 (2.2) (0.2)	327
忠 南	123,484 (4.3) (100.0)	35,242 (6.7) (28.7)	3,753 (2.2) (3.1)	18,476 (5.6) (15.0)	6,520 (3.3) (5.3)	21,112 (14.3) (17.2)		15,146 (7.6) (12.3)	7,809 (2.5) (6.4)	9,509 (3.3) (7.7)	3,895 (1.3) (3.2)	1,181 (3.5) (1.0)	245 (3.2) (0.2)	596
全 北	66,293 (2.3) (100.0)	18,685 (3.6) (28.3)	1,530 (0.9) (2.3)	5,324 (1.6) (8.1)	2,113 (1.1) (3.2)	1,184 (0.8) (1.8)	10,472 (3.7) (15.9)		21,116 (6.7) (32.0)	2,728 (0.9) (4.1)	2,502 (0.9) (3.8)	352 (1.0) (0.5)	43 (0.6) (0.1)	244
全 南	65,773 (2.3) (100.0)	21,856 (4.2) (33.6)	4,575 (2.7) (7.0)	7,076 (2.1) (10.9)	2,694 (1.4) (4.1)	1,293 (0.9) (2.0)	2,552 (0.9) (3.9)	14,413 (7.2) (22.2)		2,881 (1.0) (4.4)	5,237 (1.8) (8.1)	2,108 (6.2) (3.2)	355 (4.7) (0.6)	733
慶 北	201,827 (2.1) (100.0)	42,707 (8.1) (21.3)	29,286 (17.3) (14.6)	16,025 (4.8) (8.0)	25,178 (12.9) (12.6)	13,289 (9.0) (6.6)	10,888 (3.9) (5.4)	7,059 (3.6) (3.5)	9,872 (3.1) (4.9)		42,382 (14.3) (21.2)	3,094 (9.1) (1.5)	446 (5.9) (0.2)	1,601
慶 南	148,419 (5.2) (100.0)	23,628 (4.5) (16.1)	50,786 (30.0) (34.6)	8,995 (2.7) (6.1)	7,341 (3.8) (5.0)	3,397 (2.3) (2.3)	5,774 (2.1) (3.9)	4,511 (2.3) (3.1)	10,811 (3.4) (7.4)	29,101 (9.9) (19.8)		2,067 (6.1) (1.4)	283 (3.7) (0.2)	1,725
濟 州	20,056 (0.7) (100.0)	3,979 (0.8) (20.0)	2,337 (1.4) (11.7)	1,339 (0.4) (6.7)	704 (0.4) (3.5)	283 (0.2) (1.4)	625 (0.2) (3.1)	907 (0.5) (4.6)	7,644 (2.4) (38.4)	890 (0.3) (4.5)	999 (0.3) (5.0)		212 (2.8) (1.1)	137
市 道 間 移 動 人 口	2,848,002 (2,797,163) (100.0) (100.0) (54.7)	524,228 (100.0) (18.7) (36.0)	169,276 (100.0) (6.1) (47.7)	332,281 (100.0) (11.9) (62.9)	195,359 (100.0) (7.0) (66.7)	147,647 (100.0) (5.3) (70.8)	281,230 (100.0) (10.1) (73.7)	198,915 (100.0) (7.1) (65.6)	317,522 (100.0) (11.4) (63.4)	293,034 (100.0) (10.5) (46.1)	296,005 (100.0) (10.6) (67.0)	34,048 (100.0) (1.2) (73.8)	7,618 (100.0) (0.3)	50,839
市 道 内 移 動 人 口	2,361,449 (100.0) (45.3)	932,031 (39.5) (64.0)	185,674 (7.9) (52.3)	195,725 (8.3) (37.1)	97,733 (4.1) (33.3)	61,041 (2.6) (29.2)	100,538 (4.3) (26.3)	104,295 (4.4) (34.4)	183,362 (7.8) (36.6)	343,175 (14.5) (53.9)	145,793 (6.2) (33.0)	12,082 (0.5) (26.2)	-	
區・市・郡間 移 動 人 口	5,209,451 (5,158,612) (100.0) (100.0)	1,456,259 (28.2) (100.0)	354,950 (6.9) (100.0)	528,006 (10.2) (100.0)	293,092 (5.7) (100.0)	208,688 (4.0) (100.0)	381,768 (7.4) (100.0)	303,210 (5.9) (100.0)	500,884 (9.7) (100.0)	636,209 (12.3) (100.0)	441,798 (8.6) (100.0)	46,130 (0.9) (100.0)	7,618 (0.1)	50,839

1)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1975 總人口 實 住宅調査報告書, 第2卷 3-3 人口移動 實 住宅(5% 標本調査)

5,209,451名이며 그 中 市道間 移動人口가 2,848,002名이고 市道內 移動人口가 2,361,449名으로 그 構成比는 各己 54.7% 및 45.3%이다. 60年代後半期와 比較하면 總移動量이 82萬가량 增加했는 동시에 市道間 移動人口의 構成比가 若干 낮아지고 있다.

특히 市道間 移動人口를 그들의 轉出地 및 轉入地의 立場에서 보면 全般的인 傾向이 前述한 60年代後半期와 類似하면 특히 轉入方向에 있어서 그러하다. 移動人口의 轉出地 構成比를 보면 前時期와 달리 서울이 18.7%로 가장 많으며 이어 京畿道(11.9%), 全南(11.4%), 慶南(10.6%), 慶北(10.5%), 忠南(10.1%)등의 順으로 되어 있으나 各市道の 轉出人口量이 比較的 高르게 分布되어 있다.

移動人口의 轉入地 構成比는 서울이 38.4%로 前時期에 比하여 낮으나 他市道에 比하여 매우 높은 水準을 繼續 維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京畿道(20.9%), 釜山(13.3%), 慶北(7.1%)등이 主流入源으로 되어 있어 그 特性이 前時期와 매우 恰似하다. 이러한 事實은 이 時期에 있어서도 人口移動의 흐름이 서울을 包含한 首都圈地域과 對極에 있는 釜山市에 대한 人口集中이 繼續되고 있음을 反證하는 것이다.

이 時期의 市道間 人口移動을 移動類型別로 보면 表 2-6과 같다. 우선 市·郡部別로 轉出人口量을 보면 市部地域에서 1,399,011名 그리고 郡部地域에서 1,390,509名으로 그 構成比가 各己 50.2% 및 49.8%로 移動量이 前時期의 郡部主導的 轉出性向(61.8%)과 달리 매우 近似해 있다. 市·郡別 轉入量은 市部地域에 2,141,451名과 郡部地域에 648,069名으로 그 構成比가 各己 76.8% 및 23.2%로 前時期의 樣相과 極히 類似하다.

〈表 2-6〉 5 歲以上 市道間 移動人口의 移動類型 (1970-1975)

移 動 類 型	移 動 人 口 數	構 成 比 (%)
市間移動	1,003,492	36.0
離市向郡移動	395,519	14.2
離郡向市移動	1,137,959	40.8
郡間移動	252,550	9.0
計 1)	2,789,520	100.0

1) 外國 및 未詳 58,482 名이 除外되었음.

이들 移動類型을 우선 市間移動의 立場에서 보면 轉出入口는 서울(29.5%), 釜山(11.6%), 京畿(11.1%), 慶北(10.5%), 全南(8.4%), 慶南(8.2%) 등 各市道에서 比較的 高르게 轉出되고 있으나 前時期에 比하여 서울을 包含한 首都圈地域과 釜山 등 大都市地域으로 부터의 轉出이 늘고 있다. 反面 轉入은 市間移動人口의 40.5%가 서울로 轉入하고 있으며 이어 京畿道(21.3%) 및 釜山(14.0%)에 대한 轉入이 크다. 이러한 傾向은 前時期에 比하여 이 時期의 市間移動이 보다 活潑해지는 동시에 首都圈地域 및 釜山과 같은 大都市地域에 대한 轉入이 激化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離市向郡移動은 前時期(1965-70年間)의 樣相과 매우 類似하여 市部轉出入口의 57.6%가 서울에서 轉出하고 있으며 이어 釜山(13.4%), 京畿(5.1%) 및 慶北(5.0%) 등 地域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의 郡部地域轉入도 44.6%가 京畿道로 들어오고 있으며 나머지는 各道の 郡部地

域에 比較的 高르게 轉入되고 있다. 서울轉出人口의 79.3%가 京畿道地域郡部로 그리고 釜山轉出人口의 58.7%가 慶市郡部地域으로 轉入되고 있는 現象은 離市向郡型移動의 短距離性を 反映하는 동시에 이 時期부터 觀察되는 大都市地域人口의 交外化 現象을 意味하는 것으로 注目된다.

離郡向市移動은 이 時期에 있어서도 如前히 國內人口 移動類型의 主流를 形成하고 있으며 그 樣相은 前時期와 매우 類似하다. 郡部地域으로 부터의 轉出人口는 前時期와 같이 慶北을 除外하고는 他市道轉出數가 同一道內 移動數보다 뚜렷이 높으며 또한 轉出이 各道에서 比較的 高르게 일어나고 있다. 反面 이들의 市部地域에 대한 轉入은 서울이 56.9%을 찾아하에 如前히 壓倒的으로 높으나 前時期는 65.7%에 比해서는 뚜렷이 鈍化되고 있는 것과 달리 釜山(20.7%) 및 京畿道市郡地域(9.7%)에 대한 轉入이 前時期보다 높고 있는 事實이 注目된다.

郡間移動은 同一道內 郡間移動이 前時期와 같이 他道間 移動보다 全體的으로 높으나 그 幅이 좋아지고 있는 동시에 道에 따라서는 江原道, 忠北, 全南, 濟州와 같이 他道間 移動이 同一道內 移動을 超過하고 있다. 이것은 郡間移動이 如前히 短距離移動의 特性을 지니면서도 移動의 幅이 情報網의 擴大·輸送手段의 向上등으로 인해서 좀더 넓혀진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道에서 京畿道로 轉入하는 構成比가 22%~63%의 높은 水準을 維持하고 있으며 그 外의 郡向移動이 隣接한 道地域과 關聯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傾向은 前時期의 樣相과 類似하다.

(4) 70年代後半期(1975-1980)의 人口移動 方向

이 時期에 있었던 5歲以上 移動人口의 移動方向을 市道別로 보면

表 2 - 7 과 같다. 總移動量은 7,658,335 名이며 그 中 市道間 移動量이 3,779,341 名이고 市道內 移動量이 3,878,994 名으로 構成比는 各己 49.3% 및 50.7%이다. 先行의 두 時期와 比較하면 總移動量은 繼續 늘고 있으나 이 時期에 이르러 前時期에 鈍化되어 오면서도 市道內 移動量을 上廻해오던 市道間 移動量이 49.3%로 이 보다 낮아지고 있는 點이 注目된다. 이것은 서울 및 釜山의 同一市內에서의 區間移動이 急増하는데서 오고 있다. 例를 들어 서울市の 總移動量 2,374,155 名 가운데서 市內區間 移動量의 1,621,330 名으로 總移動量의 68.3%나 되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釜山市의 경우는 類似하여 區間移動量이 總移動量의 63.1%를 占하고 있다.

특히 市道間移動量을 이들의 轉出地 및 轉入地의 視點에서 살펴보면 全般的인 傾向은 先行 두 時期의 樣相과 매우 類似하다. 移動人口의 轉出地 構成比를 보면 前時期(1970-75年間)와 같이 서울이 20.1%로 가장 많으며 이어 京畿道(11.6%), 全南(11.4%), 慶北(10.7%), 慶南(10.3%), 忠南(8.8%)등의 順으로 各市道の 轉出量이 매우 高르게 分散되어 있다.

移動人口의 轉入地 構成比 亦是 先行 두 時期와 類似하여 서울이 33.2%로 前時期에 比하여 繼續 鈍化되고 있으나 가장 높은 水準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이어 京畿道(23.9%) 및 釜山(14.3%)등의 轉入先이 그 構成比를 增大시키고 있다. 또한 慶南과 慶北이 各己 7.8% 및 7.0%로 他市道에 比하여 높은 構成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事實은 이 時期에도 先行 두 時期에 있어서와 같이 서울을 包含한 首都圈 地域과 釜山市에 대한 人口集積이 繼續되고 있음을 意味하는 동시에 서울

表 2 - 7 1975-1980年間 5歳以上 移動人口의 市道別 移動方向

現居住地 (轉入地)	計	5 年 前 居 住 地 (轉 出 地)												未 詳
		서 울	釜 山	京 畿	江 原	忠 北	忠 南	全 北	全 南	慶 北	慶 南	濟 州	外 國	
서 울	1,255,181 (33.2) (100.0) ²⁾		57,501 (26.0) (4.6)	310,725 (71.1) (25.0)	100,505 (36.5) (8.1)	74,585 (35.9) (6.0)	156,585 (47.2) (12.6)	134,691 (49.1) (10.8)	203,261 (47.4) (16.4)	128,224 (32.0) (10.3)	58,708 (15.2) (4.7)	7,963 (32.3) (0.6)	9,648 (68.7) (0.8)	13,216
釜 山	539,145 (14.3) (100.0)	56,643 (7.5) (10.5)		17,266 (4.0) (3.2)	22,498 (8.2) (4.2)	11,760 (5.7) (2.2)	13,728 (4.1) (2.5)	22,396 (8.2) (4.2)	65,220 (15.2) (12.1)	101,963 (25.5) (18.9)	221,533 (57.5) (41.1)	4,962 (20.1) (0.9)	955 (6.8) (0.2)	221
京 畿	904,716 (23.9) (100.0)	435,911 (57.7) (48.4)	20,357 (9.2) (2.3)		73,235 (26.6) (8.1)	46,728 (22.5) (5.2)	102,323 (30.8) (11.4)	56,644 (20.6) (6.3)	84,239 (19.6) (9.3)	51,996 (13.0) (5.8)	25,636 (6.7) (2.8)	3,387 (13.7) (0.4)	684 (4.9) (0.1)	3,576
江 原	104,935 (2.8) (100.0)	32,098 (4.3) (30.8)	4,802 (2.2) (4.6)	17,094 (3.9) (16.4)		10,810 (5.2) (10.4)	6,203 (1.9) (6.0)	3,244 (1.2) (3.1)	5,640 (1.3) (5.4)	19,634 (4.9) (18.8)	4,140 (1.1) (4.0)	460 (1.9) (0.4)	100 (0.7) (0.1)	710
忠 北	73,143 (1.9) (100.0)	18,932 (2.5) (26.0)	2,356 (1.1) (3.2)	10,171 (2.3) (14.0)	12,258 (4.5) (16.8)		13,024 (3.9) (17.9)	1,946 (0.7) (2.7)	2,681 (0.6) (3.7)	8,751 (2.2) (12.0)	2,452 (0.6) (3.4)	165 (0.7) (0.2)	72 (0.5) (0.1)	335
忠 南	166,198 (4.4) (100.0)	50,451 (6.7) (30.5)	5,669 (2.6) (3.4)	24,353 (5.6) (14.7)	8,495 (3.1) (5.1)	30,806 (14.8) (18.6)		16,745 (6.1) (10.1)	9,664 (2.3) (5.9)	12,506 (3.1) (7.6)	4,993 (1.3) (3.0)	664 (2.7) (0.4)	882 (6.3) (0.5)	970
全 北	65,628 (1.7) (100.0)	20,100 (2.7) (30.8)	2,521 (1.1) (3.9)	6,461 (1.5) (9.9)	2,348 (0.9) (3.6)	1,574 (0.8) (2.4)	10,198 (3.1) (15.6)		16,400 (3.8) (25.1)	2,784 (0.7) (4.3)	2,451 (0.6) (3.8)	372 (1.5) (0.6)	70 (0.5) (0.1)	349
全 南	88,618 (2.3) (100.0)	33,010 (4.4) (37.5)	7,341 (3.3) (8.3)	7,932 (1.8) (9.0)	3,997 (1.5) (4.5)	2,273 (1.1) (2.5)	3,832 (1.2) (4.4)	15,259 (5.6) (17.4)		3,832 (1.0) (4.4)	7,595 (2.0) (8.6)	2,580 (10.5) (2.9)	267 (1.9) (0.2)	700
慶 北	264,140 (7.0) (100.0)	57,636 (7.7) (21.9)	35,357 (16.0) (13.5)	23,678 (5.4) (9.0)	31,020 (11.3) (11.8)	18,119 (8.7) (6.9)	14,910 (4.5) (5.7)	10,995 (4.0) (4.2)	12,520 (2.9) (4.8)		56,537 (14.7) (21.5)	1,490 (6.0) (0.6)	427 (3.0) (0.2)	1,451
慶 南	296,163 (7.0) (100.0)	43,023 (5.7) (14.7)	82,865 (37.5) (28.3)	18,245 (4.2) (6.2)	20,084 (7.3) (6.9)	11,091 (5.3) (3.8)	10,628 (3.2) (3.6)	11,786 (4.3) (4.0)	23,113 (5.4) (7.9)	69,275 (17.3) (23.6)		2,619 (10.6) (0.9)	327 (2.3) (0.1)	3,107
濟 州	21,474 (0.6) (100.0)	5,021 (0.7) (24.8)	2,200 (1.0) (10.8)	1,126 (0.3) (5.6)	637 (0.2) (3.1)	251 (0.1) (1.2)	857 (0.3) (4.2)	743 (0.3) (3.7)	6,113 (1.4) (30.1)	1,389 (0.3) (6.8)	1,328 (0.3) (6.6)		614 (4.4) (3.0)	1,195
市 道 間 移 動 人 口	3,779,341 (3,753,511) ¹⁾ (100.0) (100.0) ²⁾ (49.3)	752,825 (100.0) (20.1)	220,969 (100.0) (5.9)	437,051 (100.0) (11.6)	275,077 (100.0) (7.3)	207,997 (100.0) (5.5)	331,857 (100.0) (8.8)	274,449 (100.0) (7.3)	428,851 (100.0) (11.4)	400,354 (100.0) (10.7)	385,373 (100.0) (10.3)	24,662 (100.0) (0.7)	14,046 (100.0) (0.4)	25,830
市 道 內 移 動 人 口	3,878,994 (100.0) ²⁾ (50.7)	1,621,330 (41.8) (68.3)	377,800 (9.7) (63.1)	306,095 (7.9) (41.2)	109,364 (2.8) (28.4)	64,288 (1.7) (23.6)	143,859 (2.7) (30.2)	111,591 (2.9) (28.9)	270,906 (38.7) (7.0)	648,563 (16.7)	209,958 (5.4) (35.3)	15,240 (0.4) (38.2)	-	-
區·市·郡間 移 動 人 口	7,658,335 (7,632,505) ¹⁾ (100.0) ²⁾	2,374,155 (31.1)	598,769 (7.8)	743,146 (9.7)	384,441 (5.0)	272,285 (3.6)	475,716 (6.2)	386,040 (5.1)	699,757 (9.2)	1,048,917 (13.7)	595,331 (7.8)	39,902 (0.5)	14,046 (0.2)	25,830

1) 未詳除外 移動人口數

2) 未詳除外한 百分比

에 대한 人口集中이 鈍化되는 反面 京畿道에 대한 轉入量이 增加하고 있고 釜山市에 대한 轉入量이 계속 늘고 있으며 大邱市를 包含하고 있는 慶北에 대한 轉入이 커지고 있는 現象등은 産業化에 隨伴되는 우리나라의 都市化 過程이 서울에서 首都圈으로 그리고 釜山市를 비롯한 餘地의 大都市地域 및 新興工業都市地域으로 擴散되고 있다는 것을 反映하는 것이다.

이 時期의 市道間 人口移動을 移動類型別로 보면 表 2-8과 같다. 우선 市·郡部別로 轉出人口量을 보면 市部地域에서 1,883,156名 그리고 郡部地域에서 1,732,386名으로 各己 52.0% 및 48.0%로 뚜렷이 以前時期의 郡部主導的 轉出性向에서 市部主導的인 轉出로 그 樣相이 轉換하고 있다. 또한 市·郡部別 轉入量은 市部地域으로 3,004,018名 그리고 郡部地域에 611,524名이 轉入하여 各己 83.1% 및 16.9%를 나타내어

〈表 2-8〉 5歲以下 市道間 移動人口의 移動類型(1975-80)

移 動 類 型	移 動 人 口 數	構 成 比 (%)
市間移動	1,415,280	39.1
離市向郡移動	467,876	12.9
離郡向市移動	1,588,738	43.9
郡間移動	143,648	4.0
計	3,615,542	99.9

市道間 移動이 市部指向的인 實情을 如實히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以前時期 보다 激化되어 있다.

이 時期의 市間移動을 보면 轉出은 서울이 全體轉出量의 33.7%로 以前時期와 달리 뚜렷이 높아져서 $\frac{1}{3}$ 線을 넘고 있다. 이에 이어 釜山(12.0%), 慶北(11.1%), 京畿道(11.0%) 등 地域이 第2의 水準을 維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全南(7.6%) 및 慶南(7.3%)이 第3 順位를 찾아하고 있고 나머지 道(江原, 忠南, 忠北 및 全北)들이 3.9 ~ 4.9%의 水準에서 比較的 높은 轉出을 보이고 있다. 濟州道는 0.5%로 가장 낮다. 이러한 事實은 市間移動에 있어서 轉出이 그 地域의 據點都市 中心의 都市化 過程 및 市部人口數의 增大와 密接히 關聯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轉入은 前時期와 그 樣相을 같이 하여 移動人口의 32.3%가 서울로 轉入하고 있으며 이어 京畿道(24.9%), 釜山(12.9%), 慶南(9.9%) 및 慶北(7.7%)에 대한 轉入이 크다.

이러한 事實은 市間移動에 있어서 轉入이 如前히 首都圈指向的인 동시에 前時期와 달리 釜山市뿐만 아니라 餘地의 大都市(仁川, 大邱, 光州 등) 地域에 대한 轉入力이 強化되고 있음을 反映하고 있다. 특히 서울市 轉出人口의 54.4%가 京畿道 市部地域 轉出人口의 73.8%가 서울로 轉入하고 있는 事實은 首都圈地域에 대한 人口集積 및 이 地域의 產業活動이 매우 活性化되어 있음을 端的으로 나타내어 주고 있다.

離市向郡移動은 以前時期의 樣相과 적지 않게 類似하여 서울이 市部轉出人口의 58.9%를 찾아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釜山(12.1%), 慶北(5.8%), 京畿道(4.6%) 등이 따르고 있다. 市部轉出人口의 郡部轉入地는 京畿道(48.1%), 慶南(11.8%), 忠南(10.2%), 慶北(9.0%), 江原道(7.6%)를 地域으로 크게 分散되어 前時期의 樣相보다 轉入地가 多樣化 하고 있다. 서울轉出人口의 64.0%가 京畿道郡部로 轉入하고 있으며,

京畿道內 市部轉出人口가 他道間 移動者보다 2倍以上 많고 이들이 京畿道內 郡部地域에 轉入하고 있는 事實들은 都市地域 周邊의 京畿道 郡部地域이 都市化 過程을 밟고 있고 bed-town化 하고 있음을 反映하고 있다.

離郡向市移動은 이 時期에 있어서도 如前히 國內人口移動의 主流를 形成하여 移動人口 總數에 대한 構成比가 43.9%로 前時期(1970-75)의 40.8%보다 더욱 增加되고 있는 反面 郡間移動은 4.0%로 前時期의 9.0%보다도 훨씬 減少하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이 時期에 있었던 市數增加(5個市 增加)와 關聯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郡部地域으로 부터의 轉出은 前時期와 그 樣相이 類似하여 慶北을 除外하고는 他市道에 대한 轉出이 同一道內 移動數보다 뚜렷이 높은 동시에 轉出이 各道에서 고르게 일어나고 있다. 反面 이들의 市部轉入은 비록 前時期들 보다는 鈍化되었으나 如前하게 서울이 48.8%를 찾아하여 他市道에 比하여 壓倒的으로 높으며 이어 釜山의 22.3% 및 京畿道市部の 13.1%로 首都圈地域 및 釜山直轄市 指向的인 人口集積이 繼續되고 있다. 이들 地域에 대한 轉入人口는 離郡向市移動人口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郡間移動은 移動量이 前時期(1970-75)의 253萬에서 이 時期에는 144萬으로 크게 減少하고 있으며 비록 同一道內에 있어서의 郡間移動이 他道間移動의 경우보다 많으나 그 差가 不過 萬名을 조금 넘을 程度이어서 거의 同一한 移動量을 보여 주고 있다. 郡間移動의 相當數가 京畿道指向的인 동시에 短距離移動의 特性을 反映하여 隣接道間에 郡間移動이 일어나고 있는 現象은 前時期들에 있어서와 같다.

(5) 80年代前半期の人口移動方向

이 時期(1980-85年間)에 있었던 5歲以上 移動人口의 量 및 方向을 살펴보면 表 2-9와 같다. 總移動量은 8,392,218名이며 그 中 市道間 移動이 4,738,100名이고 市道內移動이 3,654,118名으로 이들 構成比는 各己 56.5% 및 43.5%이다. 이 時期에 市道間移動量이 前時期(1975-80)와는 달리 同一市道內 移動量보다 다시 많아진 것은 ①大邱 및 仁川의 直轄市 昇格과 더불어 所屬道와의 分離 ②持續的인 經濟成長 및 産業化의 促進에 따른 人口移動의 增大等 要因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時期의 同一市道內 人口移動을 좀더 觀察하면 3,654,118名中 60.3%가 서울을 비롯하여 釜山, 大邱 및 仁川等 直轄市地域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事實은 이들의 住居移動이 同一市內에서의 區間移動을 意味하며 이들의 移動動機가 市道間移動에 있어서의 各類型別 移動動機와는 本質적으로 다르다는 點에서 注目된다. 한 調査에 의하면 서울市內에서의 區間, 洞間 또는 洞內에서의 住居移動이 主로 ① 職場 및 學校所在地와의 關係(25.6%) ② 내집 또는 새집을 마련한데서 오는 移舍(33.1%) ③ 實期間이 끊어진데서 오는 住居移動(20.4%)등의 理由에 일어나고 있으며, 職場 및 學校所在地와의 關聯에서 오는 住居移動과 내집 마련에서 오는 住居移動이 洞間 나아가서는 區間에 걸친 長距離移動을 하고 있는데 對하여 實期間과 관련된 住居移動은 洞內 또는 洞間的 短距離移動傾向을 나타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¹²⁾

註 12) 尹鍾周, “서울市の 人口・保健 및 醫療保險에 관한 調査研究, “人口問題論集 第 21 號, 1977, pp. 27 ~ 43.

〈表 2-9〉 1980~1985 年間 5 歳以上 移動人口의 市道別 移動方向¹⁾

現居住地 (轉入地)	計	5 年 前 居 住 地 (轉 出 地)														未詳
		서 울	釜 山	大 邱	仁 川	京 畿	江 原	忠 北	忠 南	全 北	全 南	慶 北	慶 南	濟 州	外 國	
서 울	1,365,577 ²⁾ (28.8) (100.0)		80,765 (24.4) (5.9)	43,129 (27.3) (3.2)	51,928 (38.3) (3.8)	341,398 (63.0) (25.1)	94,878 (35.6) (7.0)	74,118 (35.3) (5.3)	153,766 (44.0) (11.3)	132,777 (48.4) (9.7)	205,734 (48.4) (15.1)	89,903 (17.7) (6.6)	67,316 (18.0) (4.9)	11,183 (34.6) (10.8)	17,683 (66.2) (1.3)	2,999
釜 山	426,057 (9.0) (100.0)	51,439 (4.8) (12.1)		19,050 (10.3) (4.5)	4,685 (3.5) (1.1)	14,342 (2.6) (3.4)	15,846 (5.9) (3.7)	8,370 (4.1) (2.0)	10,265 (2.9) (2.4)	13,335 (4.9) (3.1)	47,763 (11.2) (11.2)	59,223 (11.6) (13.9)	174,041 (41.5) (40.9)	5,861 (18.1) (1.4)	1,321 (5.0) (0.3)	496
大 邱	332,360 (7.0) (100.0)	26,001 (2.4) (7.8)	19,365 (5.8) (5.8)		1,738 (1.3) (0.5)	8,514 (1.6) (2.6)	10,263 (3.8) (3.1)	5,314 (2.6) (1.6)	5,629 (1.6) (1.7)	3,464 (1.3) (1.0)	3,748 (0.9) (1.1)	212,468 (41.7) (64.0)	33,791 (9.0) (10.2)	782 (2.4) (0.2)	815 (3.1) (0.3)	468
仁 川	325,488 (6.9) (100.0)	119,720 (11.1) (36.8)	10,156 (3.1) (3.1)	4,341 (2.3) (1.3)		68,998 (12.7) (21.2)	17,832 (6.7) (5.5)	11,569 (5.7) (3.6)	31,262 (6.9) (9.6)	14,252 (5.2) (4.4)	23,418 (5.5) (7.2)	12,096 (2.4) (3.7)	9,822 (2.6) (3.0)	1,166 (3.6) (0.4)	593 (2.2) (0.2)	323
京 畿	1,798,402 (23.2) (100.0)	602,578 (55.7) (54.9)	30,666 (9.2) (2.8)	17,524 (9.5) (1.6)	49,957 (36.8) (4.6)		63,091 (23.6) (5.8)	43,937 (21.5) (4.0)	87,045 (24.9) (7.9)	50,581 (18.5) (4.6)	74,543 (17.5) (6.8)	41,379 (8.1) (3.8)	29,430 (7.9) (2.7)	3,856 (11.9) (0.4)	2,214 (8.3) (0.2)	1,601
江 原	126,424 (2.7) (100.0)	40,695 (3.8) (32.3)	7,213 (2.2) (5.7)	4,025 (2.2) (3.2)	3,596 (2.7) (2.9)	20,282 (3.7) (16.1)		10,734 (5.3) (8.5)	6,429 (1.8) (5.1)	3,170 (1.2) (2.5)	5,369 (1.3) (4.3)	16,855 (3.3) (13.4)	6,636 (1.8) (5.3)	530 (1.6) (0.4)	370 (1.4) (0.3)	520
忠 北	103,689 (2.2) (100.0)	27,150 (2.5) (26.5)	4,488 (1.4) (4.4)	2,356 (1.3) (2.3)	2,428 (1.8) (2.4)	14,499 (2.7) (14.2)	13,194 (4.9) (12.9)		18,731 (5.4) (18.3)	2,972 (1.1) (2.9)	3,380 (0.8) (3.3)	8,474 (1.7) (8.3)	4,061 (1.1) (4.0)	341 (1.1) (0.3)	271 (1.0) (0.3)	1,344
忠 南	188,242 (4.0) (100.0)	58,116 (5.4) (31.0)	7,348 (2.2) (3.9)	4,190 (2.3) (2.2)	6,159 (4.5) (3.3)	25,869 (4.8) (13.8)	8,956 (3.4) (4.8)	28,809 (14.1) (15.4)		19,068 (7.0) (10.2)	10,329 (2.4) (5.5)	9,406 (1.8) (5.0)	7,500 (2.0) (4.0)	858 (2.7) (0.5)	795 (3.0) (0.4)	839
全 北	85,694 (1.8) (100.0)	29,126 (2.7) (34.0)	4,471 (1.3) (5.2)	1,392 (0.8) (1.6)	2,448 (1.8) (2.9)	8,214 (1.5) (9.6)	3,138 (1.2) (3.7)	1,686 (0.8) (2.0)	10,284 (2.9) (12.0)		18,254 (4.3) (21.3)	2,079 (0.4) (2.4)	3,572 (1.0) (4.2)	646 (2.0) (0.8)	247 (0.8) (0.3)	137
全 南	128,148 (2.7) (100.0)	43,453 (4.0) (33.9)	13,230 (4.0) (10.3)	2,152 (1.2) (1.7)	3,430 (2.5) (2.7)	11,857 (2.2) (9.3)	5,817 (2.2) (4.5)	2,552 (1.2) (2.0)	5,457 (1.6) (4.3)	18,366 (6.7) (14.3)		7,079 (1.4) (5.5)	11,273 (3.0) (8.8)	2,832 (8.8) (2.2)	505 (1.9) (0.4)	145
慶 北	204,105 (4.3) (100.0)	30,368 (2.8) (14.8)	24,466 (7.4) (12.0)	62,966 (34.0) (30.9)	2,996 (2.2) (1.5)	11,272 (2.1) (5.5)	17,106 (6.4) (8.4)	9,498 (4.7) (4.7)	8,199 (2.3) (4.0)	4,502 (1.6) (2.2)	6,113 (1.4) (3.0)		24,784 (6.6) (11.9)	987 (3.1) (0.5)	494 (1.9) (0.2)	354
慶 南	338,236 (7.1) (100.0)	44,849 (4.1) (13.3)	125,528 (37.8) (37.2)	23,134 (12.5) (6.8)	5,700 (4.2) (1.7)	15,458 (2.9) (4.6)	15,998 (6.0) (4.7)	9,452 (4.6) (2.8)	11,356 (3.3) (3.4)	10,750 (3.9) (3.2)	22,356 (5.3) (6.6)	49,160 (9.7) (14.6)		3,254 (10.1) (1.0)	771 (2.9) (0.2)	470
濟 州	25,421 (0.5) (100.0)	7,784 (0.7) (30.7)	3,982 (1.2) (15.7)	743 (0.4) (2.9)	545 (0.4) (2.1)	1,684 (0.3) (6.6)	757 (0.3) (3.0)	341 (0.2) (1.3)	907 (0.3) (3.6)	883 (0.3) (3.5)	4,421 (1.0) (17.4)	966 (0.2) (3.8)	1,747 (0.5) (6.9)		614 (2.3) (2.4)	47
市 道 間 移 動 人 口	4,747,843 (4,738,100) ²⁾ (100.0) (100.0) (56.5)	1,081,279 (100.0) (58.5)	331,678 (7.0) (46.9)	185,002 (3.9) (44.4)	135,610 (2.9) (65.8)	542,327 (11.4) (69.1)	266,876 (5.6) (70.8)	204,380 (4.3) (72.4)	349,330 (7.4) (68.9)	274,120 (5.8) (67.4)	425,428 (9.0) (56.0)	509,108 (10.7) (76.3)	373,973 (7.9) (61.1)	32,296 (0.7) (56.8)	26,693 (0.6)	9,743
市 道 內 移 動 人 口	3,654,118 (100.0) (43.5)	1,526,524 (41.8) (41.5)	375,967 (10.3) (53.1)	231,442 (6.3) (55.6)	70,567 (1.9) (34.2)	242,612 (6.6) (30.9)	110,012 (3.0) (29.2)	78,098 (2.1) (27.6)	157,695 (4.3) (31.1)	132,605 (3.6) (32.6)	307,866 (8.4) (42.0)	157,962 (4.3) (23.7)	238,232 (6.5) (38.9)	24,536 (0.7) (43.2)	-	-
區·市·郡間 總 移 動 人 口	8,401,961 (8,392,218) ³⁾ (100.0)	2,607,803 (31.1) (100.0)	707,645 (8.4) (100.0)	416,444 (5.0) (100.0)	206,177 (2.5) (100.0)	784,939 (9.4) (100.0)	376,888 (4.5) (100.0)	282,478 (3.4) (100.0)	507,025 (6.0) (100.0)	406,725 (4.8) (100.0)	733,294 (8.7) (100.0)	667,070 (8.0) (100.0)	612,205 (7.3) (100.0)	56,832 (0.7) (100.0)	26,693 (0.3)	9,743

註 1) 特別調查區 人口除外

2) 未詳을 除外한 移動人口數

3) 百分比는 未詳을 除外한 것임.

市道間移動類型中 主流을 形成하고 있는 離郡向市型人口移動에 있어서의 移動動機는 많은 研究報告書에서 發見할 수 있다. 이들의 主된 移動動機는 求職 및 轉就業과 같은 經濟的 動機가 70~80%로 壓倒的으로 높으며 나머지를 進就學과 같은 教育的 要因과 婚姻關係 및 家族再結合등과 같은 社會的 要因이 차지하고 있다.¹³⁾ 移動動機를 深層分析한 한 調查研究報告書는 離農向市移動의 경우 農村地域에서 轉出理由와 特定都市에 대한 轉入動機間에는 예를 들어 轉出地(農村)에서의 經濟的 貧困은 轉入地(서울)에서의 子女教育이라는 未來指向的 欲求와 그리고 就業에 따른 轉入地에 있어서의 生活保險은 轉入地에 있는 親戚·親知들과의 紐帶強化欲求와 結付되어 있는등 서로 密接한 補完關係가 形成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¹⁴⁾

이 時期의 市道間移動을 보면 前述한 바와 같이 大邱 및 仁川이 直轄市로 昇格·分離됨으로써 市道間的 人口移動量이 475萬으로 前時期(70年代後半期)의 378萬보다 約 100萬이 늘고 있다. 市道間 移動量을 이들의 轉出地 및 轉入地의 觀點에서 살펴보면 全般的으로 以前時期들의 樣相과 매우 類似하다. 移動人口의 轉出地 構成比는 서울이 22.8%이며 이어 京畿道(11.4%), 慶北(10.7%), 全南(9.0%), 慶南(7.9%), 忠南(7.4%), 釜山(7.0%)등의 順으로 되어 있어 그 樣相이 前時期와 類似的한

註 13) 離郡向市型移動에 대한 移動動機를 다룬 調查研究報告書로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尹鍾周, 서울시出生力 및 移動人口에 관한 研究, 서울女大出版部, 1970.

——, 農村出生力 및 轉出人口에 관한 研究, 서울女大出版部, 1971.

——, 農村人口에 관한 研究, 서울女大出版部, 1974.

——, 서울시人口에 관한 研究, 서울女大出版部, 1975.

韓國人口保健研 및 經企院調查統計局, 人口移動과 社會經濟發展, 1986.

14) 尹鍾周, 前掲書, 1975, pp. 35-36.

동시에 특히 서울시의 轉出量構成比가 全時期를 통해서 繼續 늘고 있는 事實은 注目된다.

反面 市道間 移動人口의 轉入地에 대한 構成比 亦是 그 樣相에 있어서 先行한 全時期와 類似하다. 轉入量의 構成比가 가장 높은 地域이 28.8%의 서울이며 이어 京畿道(23.2%), 釜山(9.0%), 慶南(7.1%), 大邱(7.0%), 仁川(6.9%)등 地域이 主된 轉入先이 되고 있다. 이러한 現象에서 注目되는 事實은 ① 서울의 轉入構成比가 持續적으로 鈍化되고 ② 釜山이 이 時期에 와서 轉入構成比의 減少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③새로히 昇格된 大邱 및 仁川 直轄市에 대한 構成比가 높아지고 있는 동시에 ④우리나라의 都市化가 前時期의 首都圈 및 釜山 地域中心에서 뚜렷이 擴散되고 있다는 點등이다.

轉出地와 轉入地와의 關係를 보면 大體로 모든 市道에서 서울을 包含한 首都圈地域으로 轉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外의 轉入地選拔에 있어서는 距離要因이 作用하여 隣接한 大都市地域 아니면 隣接한 市道地域으로 轉入해 들어가는 傾向이 뚜렷하다. 예를 들어 慶北의 경우 서울 및 京畿道에 대한 轉入이 各己 17.7% 및 8.1%로 그 構成比가 比較的 크나 가장 많이 轉入하고 있는 곳은 慶北의 中心에 있는 大邱市로 轉出人口의 41.7%를 차지하고 있으며 釜山市에 대한 轉入도 11.6%나 된다.

서울의 경우는 釜山·大邱 및 仁川등 直轄市地域을 除外하고는 比較的高르게 轉入하고 있으나 가장 많이 轉入하고 있는 곳은 京畿道(25.1%), 全南(15.1%), 忠南(11.3%) 및 全北(9.7%)이며, 서울에서 轉出하는 移動人口의 主轉入先은 京畿道(55.7%) 및 仁川(11.1%)이다(圖表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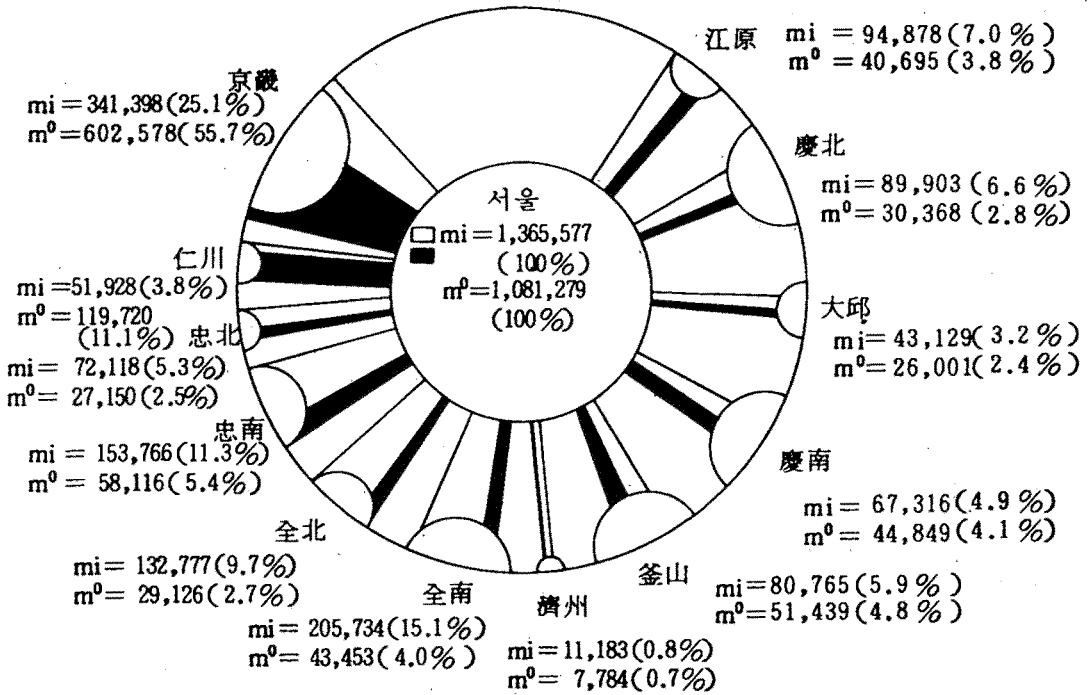
參照).

이 時期의 市道間 人口移動을 移動類型別로 보면 表 2-10 과 같다. 우선 市·郡部別로 轉出人口를 보면 市部地域에서 2,801,312 名 그리고 郡部地域에서 1,910,095 名으로 各己 59.5% 및 40.5%이며 前時期에 이어 市部 主導的인 轉出樣相이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 또한 市·郡部別 轉入量은 市部地域으로 3,790,265 名 그리고 郡部地域으로 921,142 名이 轉入하여 各己 80.4% 및 19.6%로 市道間移動이 市部指向的인 旨을 如前히 나타내고 있다.

〈表 2-10〉 5 歲以上 市道間 移動人口의 移動類型別 分布 (1980 - 85)

移 動 類 型	移 動 人 口 數	構 成 比 (%)
市間移動	2,117,783	45.0
離市向郡移動	683,529	14.5
離郡向市移動	1,672,482	35.5
郡間移動	237,613	5.0
計	4,711,407	100.0
市部轉出人口	2,801,312	59.5
郡部轉出人口	1,910,095	40.5
市部轉入人口	3,790,265	80.4
郡部轉入人口	921,142	19.6

〈圖表 2-4〉 5歲以上 市道間 移動人口의 市道別 轉出入構成比(%)
(1980~1985, 서울)¹⁾



註 1) 各市道の 半円面積은 市道人口數에 따라 比例的으로 그려진 것임. 各市道の 轉入量(mi)은 各市道の 轉入人口中 서울로 轉入한 移動量이며 轉出量(m⁰)은 서울에서 各市道로 轉入한 移動量임. 構成比는 서울로 轉入한 移動人口의 市道別 百分比와 서울에서 轉出한 移動人口의 市道別 百分比(%)임.

또한 市·郡部間 移動에 있어서 注目할만한 變化는 中間 全時期를 통해서 國內人口移動의 主流를 形成해왔던 離郡向市型移動이 35.5%를 차지하여 亞流로 물러나고 市間移動이 45.0%로 主流를 形成하게 되었다는 事實이다. 이것은 이 時期에 있어서 京畿道の 光明·松炭·東豆川, 江原道の 太白, 全北의 井州·南原, 全南의 金城, 慶北의 永川, 慶南의 金海 및 濟州道の 西歸浦등 10個市가 새로히 新設되고(表 2-11 參照) 持續的인 經濟發展에 따른 都市化가 全國規模로 擴散해나가는데서 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時期에 있었던 市道間 移動人口중에서 일어난 市間移動을 보면 轉出은 前時期(1975-80)와 類似하여 서울이 全體轉出量의 34.6%를 차지하여 더욱 더 構成比의 增大를 보이고 있으며, 이어 釜山(11.3%) 및 京畿道(10.5%)가 높고 前時期에 높았던 慶北의 轉出構成比는 大邱市の 分離로 他道와 類似한 水準에 머물러 있다. 市間移動에 있어서는 釜山直轄市 및 大邱直轄市를 둘러싸고 있는 慶南 및 慶北을 除外하고는 各市道市部 轉出人口의 50%前後가 서울로 그리고 10%內外가 京畿道 市部地域으로 轉入하고 있으며 그 外의 市部地域에 대한 轉入은 距離的 要因이 強하게 作用하고 있다. 또한 首都圈地域內에서의 市間移動이 매우 活潑한 事實도 注目된다. 卽 서울에서 轉出한 人口의 65.6%(仁川 - 16.3%, 京畿道 市部 - 49.3%)가 首都圈內 市部地域에 轉入하고 있으며 首都圈地域 市部轉出人口의 80.9%(京畿 - 82.2%, 仁川 - 78.0%)가 서울을 包含한 首都圈地域內 市部地域에 轉入하고 있다.

市間移動에 있어서의 轉入은 서울(29.4%), 京畿市部(23.4%), 仁川(9.4%), 釜山(8.5%), 慶南(7.8%)등 地域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어 全體移動量의 7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을 비롯한 直轄市地域에 대

한 轉入도 52.6%로 移動人口의 半이 넘고 있다. 이러한 事實은 이 時期에 들어와서 市間移動이 首都圈地域 및 直轄市地域 中心으로 일어나고 있어 首都圈地域과 據點都市地域에 대한 人口集積이 繼續 進行되고 있음을 反證하고 있다.

離市向郡移動은 그 構成比가 14.5%로 前時期(70年代 後半期)의 12.9%보다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直轄市數의 增加에 起因하는 것이며, 移動樣相은 前時期와 類似하다. 卽 轉出에 있어서 서울이 51.0%를 차지하여 如前히 壓倒的으로 높으며 이들의 69.3%가 京畿道 郡部地域으로 轉入하고 있는 事實은 서울市の 郊外化現象(suburbanization)과 密接히 關聯되어 있다. 이어 釜山(13.6%), 大邱(8.6%), 仁川(4.5%)등 많은 人口를 가지고 있는 直轄市地域에서의 轉出構成比가 높으며 이들이 各己 慶南(56.6%), 慶北(66.8%) 및 京畿道(65.1%)등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郡部地域에 轉入하고 있는 事實은 離市向郡移動의 主動機가 居住市部地域의 擴散과 大都市의 空間形成과 관련된 居住地域의 郊外化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離市人口의 郡部轉入도 京畿道(49.4%), 慶南(12.8%) 및 慶北(12.5%)등 地域에 集中되어 있어 前述한 轉出入地間の 短距離性和 居住地域의 郊外化라는 移動特性和 그 脈을 같이하고 있다.

이 時期의 離郡向市移動은 이미 前述한 바와 같이 解放後 繼續되어온 國內人口移動에 있어서의 主流의 자리를 市間移動에 물려주었으며 그 힘이 急激히 鈍化되고 있다. 그 原因은 크게 ① 郡部地域의 市部昇格 ② 郡部地域에 있어서의 農業勞動力 不足 ③ 脫農人力의 枯渴等 要因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離郡向市移動의 樣相은 以前時期들과는 달리

〈表 2-11〉 解放後 우리나라 都市地域의 年度別 人口成長 推移 (1949 ~ 1985)

市道	市名	年 度										市昇格年月日 (直轄市昇格日字)
		1949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 서울	1,446,019	1,574,868	2,445,402	3,793,280	5,433,198	6,889,502	8,364,379	9,645,932	1946. 7. 18		
	2.釜山	473,618	1,049,363	1,163,671	1,426,019	1,842,259	2,453,173	3,159,766	3,516,807	1949. 8. 15 (1963. 1. 1)		
	3.大邱	313,705	488,960	676,692	845,189	1,063,553	1,310,788	1,604,934	2,080,672	1949. 8. 15 (1981. 7. 1)		
	4.仁川	265,767	321,072	401,473	525,827	634,046	800,007	1,083,906	1,387,491	1949. 8. 15 (1981. 7. 1)		
	5.光州	138,883	233,358	314,420	403,495	493,634	607,011	727,600	906,129	1949. 8. 15		
	6.水原		81,692	90,801	127,733	167,201	224,145	310,476	430,834	1949. 8. 15		
	7.城南				74,642	92,929	272,506	376,840	447,839	1973. 7. 1		
	8.議政府						108,350	133,177	162,701	1963. 1. 1		
	9.安養						134,848	253,560	361,530	1973. 7. 1		
	10.富川						109,161	221,463	456,318	1973. 7. 1		
	11.光明							219,592	219,592	1981. 7. 1		
	12.松炭							66,369	66,369	1981. 7. 1		
	13.東豆川							68,622	68,622	1981. 7. 1		
	14.春川	54,539	67,888	82,526	100,033	120,517	140,530	155,305	163,217	1947. 6. 1		
	15.原州		76,411	76,990	103,810	110,133	120,276	136,909	151,372	1955. 9. 1		
	16.江陵		50,991	58,712	65,206	72,920	84,981	116,806	132,995	1955. 9. 1		
	17.東海							104,310	91,757	1980. 4. 1		
	18.太白								113,993	1981. 7. 1		
	19.束草				63,078	71,987	71,387	65,792	69,595	1963. 1. 1		
	20.清州	64,571	81,284	92,093	123,666	141,074	192,707	253,192	350,279	1948. 8. 15		
	21.忠州			68,675	79,988	86,101	105,274	113,098	113,345	1956. 7. 8		
	22.堤川							85,517	102,309	1980. 4. 1		
	23.大田	126,704	173,143	228,987	314,991	406,910	506,708	651,792	866,695	1949. 8. 15		
	24.天安				71,182	76,543	96,766	120,526	170,088	1963. 1. 1		
	25.全州	100,624	124,352	188,216	220,432	257,530	311,393	367,161	426,498	1949. 8. 15		
	26.群山	74,447	86,446	90,437	102,327	110,140	154,780	165,317	185,661	1949. 8. 15		
	27.裡里	46,674	62,226	65,774	78,198	85,085	117,155	145,343	192,275	1949. 8. 15		
	28.井州								79,332	1981. 7. 1		
	29.南原								61,447	1981. 7. 1		
	30.木浦	111,128	113,636	129,650	162,166	174,006	192,958	221,814	236,078	1949. 8. 15		
	31.麗水		73,084	87,199	101,851	111,455	130,623	160,988	171,929	1949. 8. 15		
	32.順天		61,647	69,471	79,293	89,042	108,063	114,241	121,938	1949. 8. 15		
	33.金城								58,892	1981. 7. 1		
	34.浦項		52,473	59,536	65,927	77,690	134,418	201,174	261,256	1949. 8. 15		
	35.慶州		65,402	75,953	85,728	90,430	108,431	121,999	127,684	1955. 9. 1		
	36.金泉		45,835	51,164	56,850	60,737	67,078	72,196	77,271	1949. 8. 15		
	37.安東				63,534	74,859	95,364	101,903	114,340	1963. 1. 1		
	38.龜尾							105,360	142,148	1978. 2. 15		
	39.榮州							77,846	84,886	1980. 4. 1		
	40.永川								53,205	1981. 7. 1		
	41.蔚山				112,848	157,088	252,570	418,326	551,320	1962. 6. 1		
	42.馬山	91,291	129,986	158,010	154,600	186,890	371,917	386,751	449,247	1949. 8. 15		
	43.晉州	77,473	78,295	87,110	107,035	119,371	154,646	202,717	227,441	1949. 8. 15		
	44.昌原							111,676	173,543	1980. 4. 1		
	45.鎮海		67,604	67,669	80,496	89,867	103,640	112,024	121,406	1955. 9. 1		
	46.忠武		61,236	47,773	50,506	53,955	66,838	75,510	87,485	1955. 9. 1		
	47.三千浦			50,351	53,144	53,815	59,716	64,703	62,506	1956. 7. 8		
	48.金海								77,925	1981. 7. 1		
	49.濟州		60,180	67,991	87,369	104,493	135,081	167,719	203,298	1955. 8. 15		
	50.西歸浦								82,677	1981. 7. 7		
	51.開城									1949. 8. 15		
	計	3,474,151	5,281,432	6,996,746	9,780,496	12,709,513	16,792,771	21,434,116	26,458,170			
	市數	15	25	27	32	32	35	40	50			

資料：各年度別 國勢調査 報告書

모든 道에 있어서 道內移動보다는 他市道에 대한 轉出이 뚜렷이 높아 이 類型全體移動人口의 69.0%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많이 轉出시킨 道는 慶北으로 20.9%에 달하며 이에 京畿道(16.3%), 忠南(12.9%), 全南(14.7%), 慶南(11.4%), 全北(9.0%) 등 各道가 比較的 高르게 郡部人口를 他市道の 市部地域으로 轉出시키고 있다. 反面 이들의 市部轉入은 서울이 如前히 높아 全體의 43.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釜山(14.6%), 大邱(13.1%), 京畿(9.2%), 仁川(7.5%) 등으로 首都圈地域과 地方中心據點都市인 直轄市地域에 대한 集中이 뚜렷하다.

郡間移動은 全時期를 통해서 그 樣相이 類似하여 轉出이 各道에서 高르게 일어나고 있으며, 各道에서 京畿道郡部로의 轉入이 首位를 차지하고 있고(慶北除外), 나머지 轉出人口들은 隣接道로 指向하는 短距離性を 보이고 있다.

라. 總括

60年代 中葉以後 1985년에 이르는 期間동안에 우리나라 國內人口移動의 흐름을 總括적으로 要約해 보면 아래와 같은 特性 및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1) 市道間 및 市道內 移動人口를 包含한 總移動量은 60年代 後半期 (1965~70), 70年代初半期 (1970~75), 70年代後半期 (1975~80) 및 1980年代初半期 (1980~85)의 全時期를 통해서 계속 增加하여 各己 439萬, 521萬, 766萬 및 839萬으로 특히 70年代後半期에 移動量의 急增現象을 보이고 있다.(表 2~3, 2~5, 2~7 및 2~9參照)

(2) 市道間移動量도 全時期를 통해서 增加하여 時期別 移動量이 各己 248萬, 285萬, 378萬 및 475萬으로 특히 70年代後半期부터 急增現象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① 70年後半期以後에 있었던 우리나라 市部數의 急增(70年代後半期の 5個市 및 80年代 初半期の 10個市 增加) ② 이 時期에 있었던 經濟發展 및 產業化過程의 進陟에 의한 都市化의 加速化를 反映하는 것이다.

(3) 市道內移動量은 70年代後半期까지의 增加傾向이 80年代 初半期에 이르러 鈍化趨勢를 보여 時期別 移動量이 各己 192萬, 236萬, 388萬 및 365萬이다. 70年代 後半期の 移動量急增과 80年代 初半期の 鈍化는 大邱 및 仁川의 人口가 이 時期동안에 急增하고 直轄市로 分離되는데서 起因하고 있다.

(4) 總移動量(市道間移動量+市道內移動量)을 靜態移動率의 立場에서 보면 總移動率이 各己 16.1%, 16.9%, 22.7% 및 22.8%로 移動率의 持續的

인 增加를 보이고 있어 70年代 後半期부터는 5年間に 國民의 約 $\frac{1}{4}$ 이 區·市·郡別水準에서 居住地를 옮기는 激甚한 移動樣相을 보이고 있다. 특히 70年代 後半期부터의 移動率 急增現象은 이미 (2)項에서 指摘한 바 있는 社會變動의 背景에 따른 것이다.(表 2~2)

總移動率을 市·郡部別로 各時期에 따라서 보면 市都移動率의 경우 各己 46.6%, 46.7%, 57.0% 및 52.3%로 매우 높으며 특히 70年代 後半期에 急昇한 後 80年代 初半期에 鈍化하고 있다. 郡部移動率은 各己 22.1%, 21.8%, 29.9% 및 33.1%로 市部보다는 낮으나 70年代 後半期以後 持續的인 上昇勢를 보이고 있다.

(5) 總移動率을 市部間 및 市道內 移動率의 立場에서 보면 市道間移動率이 時期別로 各己 9.1%, 9.2%, 11.1% 및 12.8%로 持續的 上昇趨勢를 보이고 있는 反面 市道內移動率은 各己 7.1%, 7.8%, 11.5% 및 10.0%로 70年代 後半期를 고비로 鈍化되고 있는 동시에 全時期를 통해서 70年代 後半期를 除外하고는 市道間移動率 보다 낮다(附表 2參照)

(6) 總移動率을 市道別로 보면 全時期를 통해서 서울·釜山 및 京畿道가 높은 水準을 維持하여 首都圈地域 및 釜山地域에 있어서의 活潑한 移動力을 觀察할수 있으며, 특히 京畿道地域의 總移動率이 持續的으로 上昇勢를 나타내고 있는 反面 서울 및 釜山 兩大都市의 總移動率이 80年代 初半期부터 鈍化되고 있는 事實은 注目된다. 餘他道들의 總移動率은 大體로 類似的한 水準에서 70年代後半期부터 緩慢한 增加勢를 보이고 있다.(圖表 2-1-1)

(7) 總移動量을 轉入率의 立場에서 市道別로 보면 서울을 包含한 首都圈地域과 釜山市가 餘他의 道와는 뚜렷한 差異를 가지고 全時期를 통해서

높은 水準을 維持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 全時期를 통해서 32 %를 上廻하고 있다.(圖表 2-12 參照) 轉入率을 市·郡部別로 보면 市部 轉入率은 70年代 後半期를 頂點(33.3%)으로 減少傾向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그 間에 累積된 大都市地域의 人口稠密化가 轉入率의 鈍化를 가져온데서 起因하고 있으며, 郡部の 경우는 7~10%水準에서 轉入率의 緩慢한 上昇傾向을 보이고 있다.

(8) 總移動量을 轉出率의 立場에서 市道別로 보면 70年代後半期부터 濟州道를 除外한 모든 市道가 持續的인 轉出率의 上昇趨勢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서울이 30%을 前後한 높은 水準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높은 轉出率은 이 時期 江南開發됨에 따른 區間移動의 激化에서 오는 것인 동시에 産業化의 進前에 따른 國內人口移動의 深化를 反映하는 것이며, 특히 江原忠北 湖南等 開發不振地域에서 높은 轉出率을 보여주고 있는 事實은 注目된다.(圖表 2-1-3) 이를 市·郡部別로 보면 市部の 경우 70年代後半期를 고비로 鈍化傾向을 보이고 있으나 郡部の 경우는 全時期를 통하여 轉出率의 持續的인 上昇趨勢를 보이고 있으며, 80年代初半期에는 22.5%에 이르러 5年間に 郡部人口의 $\frac{1}{4}$ 이 轉出하고 있다.

(9) 總移動量을 純移動率의 立場에서 市道別로 보면 全時期를 통해서 서울 및 京畿道로 構成된 首都圈地域과 釜山市만이 「프라스」成長을 하고 있으며 餘他の 道地域은 「마이너스」成長을 하고 있으나 各市道別 純移動率의 變化는 매우 多樣한 樣相을 띄고 있다.(圖表 2-1-4)

(10) 全時期間에 있었던 國內人口移動의 方向을 人口重心의 觀點에서 巨視的으로 觀察하면 우리나라의 人口重心이 1960年 現在 東徑 127°36'36" 北緯 36°12'00"에서 1980年 現在 東徑 127°36'01"에서 北緯 36°24'35"로 거

의 正北으로 서울指向的인 移動을 年平均 約 1.2 Km씩하고 있어 그 間에 있었던 首都圈指向的인 人口移動의 흐름을 確認할 수 있다.

(11) 全體移動人口를 市道間移動과 同一市道內移動으로 區分해서 이들 構成化의 時期別 變化를 보면 表 2-12 와 같이 大體的으로 市道間移動量이 全時期를 통해서 55%前後水準으로 市道內移動量의 45%水準보다 높다. 다만 70年代後半期에 있어서 市道內移動量이 50.7%로 市道間移動量보다 많은 것은 大邱 및 仁川이 直轄市로 昇格·分離가 안된데서 오는 것이다.

〈表 2-12〉 5歲以上移動人口의 移動區分別 時期別變化

時 期 別	全體移動人口	他市道間移動人口	同一市道內移動人口
	移動量 (%)	移動量 (%)	移動量 (%)
1965-70	4,394,447 (100.0)	2,476,769 (56.4)	1,917,678 (44.6)
1970-75	5,209,451 (100.0)	2,848,002 (54.7)	2,361,449 (45.3)
1975-80	7,658,335 (100.0)	3,779,341 (49.3)	3,878,994 (50.7)
1980-85	8,401,961 (100.0)	4,747,843 (56.5)	3,654,118 (43.5)

(12) 市道內移動人口의 移動量推移를 보면 實數의 增加趨勢가 특히 70年代後半期에 急하며 이어 80年代初半期에 들어서 減少徵候를 나타내고 있다. (表 2-12) 이것은 大邱·仁川·全州·大田 등 大都市地域에 대한 人口集積과 大邱·仁川 兩市の 直轄市分離와 關聯되어 있다. 市道內移動人口의 市道別構成化는 全時期를 통해서 서울이 가장 높아 33~42%의 水準으로 增加해오고 있으며, 다음으로 釜山, 慶北, 全南, 京畿 등의 構成비가 높고

餘他道에서는 比較的 高른 轉出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事實은 大都市地域의 區間移動이 市道內移動의 主流를 形成하고 있음을 反映하고 있다.

(13) 市道間移動人口의 移動方向을 市道別로 보면 各時期를 통해서 서울·釜山·京畿道·忠南·全北·慶北 및 慶南등 地域에서 比較的 高루게 轉出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에서 轉出은 60年代初半期の 10.0%에서 80年代初半期の 22.8%로 持續的인 增加趨勢를 보이고 있다. 反面에 轉入은 全時期를 통해서 서울을 包含하는 首都圈地域과 釜山市地域에 集積하고 있으며 특히 首都圈地域으로 轉入하는 構成比가 60%前後의 水準에 이르고 있어 그간의 國內人口移動이 首都圈 및 大都市中心의 移動을 해왔음을 端的으로 表現하고 있다.

(14) 市道間移動을 轉出·轉入의 關聯속에서 그 特性을 보면 ①各市道轉出人口의 相當數가 서울로 轉入하고 있으며 ②나머지 轉出人口는 距離의 要因이 作用하여 隣接市道와의 轉出入性向이 매우 높으며 ③直轄市와 이를 둘러싼 道와 轉出入關係가 매우 密接하고 ④慶北 慶南을 除外한 道地域轉出이 轉入에 있어서 서울을 비롯한 首都圈地域과 깊이 關聯되어 있는데 反하여 嶺南地域의 轉出은 釜山 및 大邱와 뚜렷한 關聯을 맺고 있다.

(15) 全體移動量을 移動類型別로 보면 表 2-13과 같이 市間移動은 全時期를 통하여 持續的인 構成比의 增加性向을 보여 60年代後半期の 34.8%에서 80年代初半期の 54.8%로 $\frac{1}{2}$ 線을 넘고 있으며, 反面 離郡向市移動은 構成比의 持續的인 減少를 보여 全時期間에 41.7%에서 29.0%로 크게 縮少되었다. 또한 離市向郡移動은 全時期를 통하여 10%前後水準에서 安定되어 있으나 郡間移動은 14.7%에서 5.6%로 크게 縮少되어 있다.

(16) 全體移動人口를 다시 市道間移動과 市道內移動으로 區分해서 移動類型

을 觀察하면 두 區分된 移動集團間에는 移動類型別로 多様な 特性上의 差異를 보이고 있다. 市道間移動에 있어서는 離郡向市移動이 70年代後半期까지 國內人口移動의 主流을 形成해왔으나 80年代에 들어와 그間 持續的인 增加趨勢를 보여온 市間移動에게 主流을 넘겨주는 注目할만한 變化를 이르고 있으며 離市向郡移動과 郡間移動은 그 樣相이 全體移動人口의 樣相과 類似하여 離市向郡移動이 11~15% 水準에서 安定되어 있는 反面 郡間移動은 18.8%에서 6.3%로 縮少하고 있다.

(17) 移動類型別로 總移動量에 대한 市道間 및 市道內 移動의 構成比를 보면 ①市間移動과 郡間移動은 全時期를 통해서 市道內移動量的 構成比가 높으며 ②離市向郡移動 및 離郡向市移動은 反對로 市道間移動量이 壓倒的으로 높다. 이러한 事實은 市間 및 郡間 移動이 同一市內의 區間移動 및 同一道內 郡間 移動처럼 特性上 短距離的인 意味하는 것이며 離市向郡 및 離郡向市는 心理的 또는 地理的으로 보다 遠距離的인 特性과 前者가 多分히 郊外化的인 意味를 지니고 있는데 反하여 後者가 産業間移動과 連繫되어 있다는 事實도 注目된다.

(18) 總括的으로 그間 우리나라의 國內人口移動은 60年代中葉부터 具體化되기 시작한 急速한 經濟成長 및 産業化가 激甚한 人口移動의 흐름을 發生시켰으며, 60~70年代를 통해서 서울을 비롯한 首都圈地域 및 釜山地域 指向的이었던 人口移動의 흐름이 ①産業化에 따른 都市數의 增大 ②脫農人力의 枯渴 ③分業을 통한 産業體間的 強한 依存度 ④大都市地域人口의 飽和化등 要因이 首都圈地域에 대한 人口集積性向을 鈍化시키고 各地方의 據點大都市中心의 移動氣流를 造成하는 동시에 都市化가 全國的 領域으로 擴散되는 徵候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表 2-13〉 5 歳以上移動人口の移動區分別 及 移動類型 移動量構成 (%)

移動區分 移動類型	1965-70		1970-75		1975-80		1980-85	
	構成比	構成比	構成比	構成比	構成比	構成比	構成比	構成比
	移動類型別 移動區分別	移動類型別 移動區分別	移動類型別 移動區分別	移動類型別 移動區分別	移動類型別 移動區分別	移動類型別 移動區分別	移動類型別 移動區分別	移動類型別 移動區分別
總移動人口	100.1 (n=4,394,44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8,401,961)
市間移動	34.8	100.0	44.2	100.0	52.4	100.0	54.8	100.0
離市向郡移動	8.8	100.0	10.8	100.0	9.3	100.0	10.6	100.0
離郡向市移動	41.7	100.0	34.1	100.0	34.3	100.0	29.0	100.0
郡間移動	14.7	100.0	10.9	100.0	4.1	100.0	5.6	100.0
市道間移動人口	100.0	56.4	100.0	54.7	100.0	49.3	100.0	56.5
市間移動	27.5	44.4	36.0	44.1	39.1	36.7	45.0	46.2
離市向移動	10.7	68.4	14.2	70.8	12.9	68.7	14.5	76.9
離郡向市移動	50.2	67.7	40.8	64.9	43.9	63.0	35.5	69.0
郡間移動	11.6	44.1	9.0	44.8	4.0	47.7	5.0	50.7
市道内移動	100.0	44.6	100.0	45.3	100.0	50.7	100.0	43.5
市間移動	44.2	55.6	53.8	55.9	65.1	63.3	67.5	53.8
離市向郡移動	6.3	31.6	6.9	29.2	5.7	31.3	5.6	23.1
離郡向市移動	30.7	32.3	26.1	35.1	25.0	37.0	20.6	31.0
郡間移動	18.8	55.9	13.2	55.2	4.2	52.3	6.3	49.3

(19) 또한 大都市와 이를 둘러싸은 隣接市郡 및 郡部間의 移動이 激化되는 傾向을 보이는 동시에 이들 地域이 郊外化하고 大都市 流入人口가 다시 이들 地域으로 反轉하는 이른바 「J字轉換現象」(J-turn)도 뚜렷이 觀察된다.

3. 5歲以上 移動人口의 特性

가. 概 說

移動人口의 社會人口學的 構造 특히 性別·年齡別·婚姻狀態別·職業別·構造들은 人口移動에 있어서 매우 選擇的인 것으로 移動研究의 基本的인 領域인 동시에 한 社會의 發展過程 및 樣相과도 重要的 關聯을 가지고 있다.¹⁴⁾

移動人口의 特性分析은 一般的으로 國勢調查資料를 통해서 移動人口의 基本的인 社會人口學的 特性(性·年齡·教育·婚姻狀態·產業別·職業別 등)을 究明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移動動機·移動者의 移動形態, 特定時期의 政治·經濟·社會文化的 背景과 관련된 移動行爲에 관한 보다 徹視的 分析은 學者들에 의한 小規模 標本調查들을 통해서 研究되고 있다.

예를 들어 尹鍾周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國內人口移動의 흐름中 특히 離農向市型 移動의 경우 移動人口를 移動形態別(單獨 및 家口形態別)로 觀察하는 것에 대한 重要性을 強調하고 있다.¹⁵⁾ 60年代末의 서울轉入 人口를 移動形態別로 區分해서 觀察한 結果는 家口移動人口와 單獨移動人口의 比가 8:2로 家口形態의 移動人口가 壓倒的으로 높았으며, 이를 轉入人口의 性別·年齡別 構造는 家口轉入人口의 경우 男子 25~40歲 및 女子 25~39歲層의 構成比가 높은 靑壯年家口集團 爲主인데 反하여 單獨轉入人口는 未婚의 젊은 年齡集團의 比重이 壓倒的으로 높았으며 특히 女子의 경우

註 14) 尹鍾周, 人口等, 人口問題研究所, 1982, pp. 246 ~ 247.

15) 尹鍾周, 前掲書, pp. 297 ~ 301.

15~24歲年齡層이 約 60%를 차지하고 있다.¹⁶⁾

離農家口인 경우는 이들이 農村地域에서 거의 生活基盤을 喪失한 零細農들로서 農村地域으로 부터 push 되어서 轉出하고 있는데 反하여 農村에서 單獨으로 轉出하는 單獨移動者의 경우는 現在 農村에 머물러 있는 同年齡層集團 成員들 보다 높은 教育水準과 나은 家庭環境을 保有하고 있다.¹⁷⁾

이와 같은 移動形態에 따른 離農向市型 移動人口의 特性差는 轉入地인 都市地域에 있어서의 生活樣相에는 많은 差異를 가져오고 있다. 卽 家口轉入者들은 都市의 邊境地帶라던가 零細民·無許可 板子村地帶에 定着하여 市의 要求護對象이 되면서 行商·막벌이 勞動등에 의해서 生計를 維持하고 있는데 反하여 單獨轉入者들은 都市轉入後, 곧 都市地域 全域에 擴散되는 동시에 특히 都心地·工場地帶 및 高級住宅街에 들어가서 都市의 生活樣式에 빠르게 適應하는 한편 職工을 비롯한 여러「서비스」業에 從事하여 都市的 產業構造속에 參與하고 있다.

또한 離郡向市移動에 있어서 看過할 수 없는 事實의 하나는 이 類型의 移動이 產業間移動 내지는 職業間移動을 必然적으로 隨伴한다는 點이다. 職業轉換은 都市轉入前 職業이 農業인 경우 大體로 轉入後 小資本에 依한 販賣職, 젊은 年齡層의 技能工職, 특히 젊은 轉入女性의 서비스業으로의 轉換現象이 뚜렷이 觀察된다.¹⁸⁾

여기서는 1980~85年間 移動人口의 性別 年齡別構造를 中心으로 移動方向과 관련해서 分析을 試圖하였다.

註 16) 尹鍾周, 서울시出生力 및 移入人口에 關한 研究, 1970, pp. 126~152.

韓國人口保健研究院, 人口移動과 社會經濟發展, 1986, pp. 97~196.

17) 尹鍾周, 農村出生力 및 轉出人口에 關한 研究, 1972, pp. 149~196.

18) 尹鍾周, “서울시移入人口에 關한 研究”, 人口問題論集 第3號, 1966, pp. 106~107.

나. 移動人口의 性別・年齡別 構造

1980 ~ 85 年間 5 歲以上 移動人口의 性別・年齡別 構造를 構成比의 觀點에서 移動區分別 및 移動類型別로 보면 아래의 表 3-1 과 같다.

우선 全國人口와 移動人口間의 構造的 差異를 보면 移動人口의 性比가 女性이 52.1% 및 男性이 47.7%로 全國人口의 性別構造比 49.9% 및 50.1%와 比較할때 女性の 移動力이 男性보다 強함을 보여 주고 있으며 특히 郡部地域에서 轉出하는 移動人口의 女性構成比가 53.5%로 市郡轉出人口의 경우보다 더 높다.

移動人口의 年齡構造를 全國人口의 年齡構造와 比較하면 비록 移動이 全年齡層에서 일어나고 있으나 특히 移動力이 全體的으로 20~39 歲 年齡層에서 強하게 나타나고 있는 동시에 年少人口層 및 40 歲以後 年齡集團에서 弱하며 특히 50 歲以後 年齡集團에서는 移動力이 急速히 弱化되고 있음을 觀察할 수 있다. 이를 다시 性別로 보면 男性은 25~39 歲年齡層에서 그 리고 女性은 이보다 한 年齡階級만큼 젊은 20~34 歲 年齡層에서 移動力이 強하다.

移動人口의 年齡構造를 轉出地立場에서 市部・郡部別로 보면 市部轉出人口의 경우 全部市部人口의 年齡構造보다 높은 構造比를 나타내고 있는 年齡層은 5~9 歲 年齡集團과 20~39 歲 年齡集團이다. 이를 性別로 보면 男子轉出人口의 경우는 5~9 歲年齡集團과 25~39 歲年齡集團인데 대하여 女子轉出人口는 5~9 歲 集團과 25~34 歲 年齡集團으로 構成되어 있다. 이러한 現象은 市部轉出人口가 어린 子女들을 거느린 既婚集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示唆해 주는 것으로 매우 注目되어 이것이 大都市內에서의 區間住居移動 및 郊外化 現象과 같은 關聯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郡

表3-1 1980~1985 5才以上 移動人口の 移動類型別 性別・年齢別 構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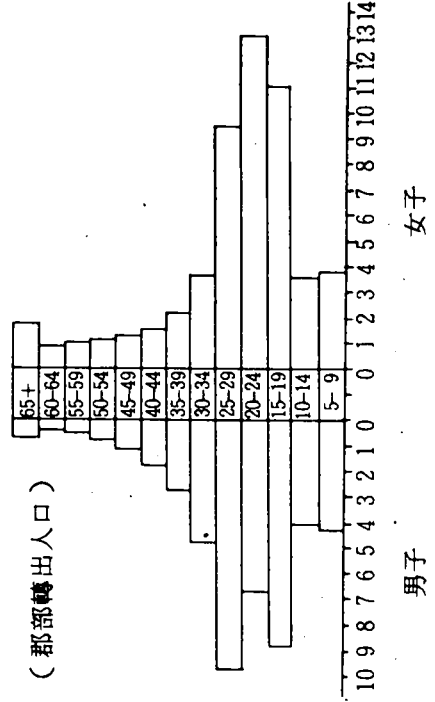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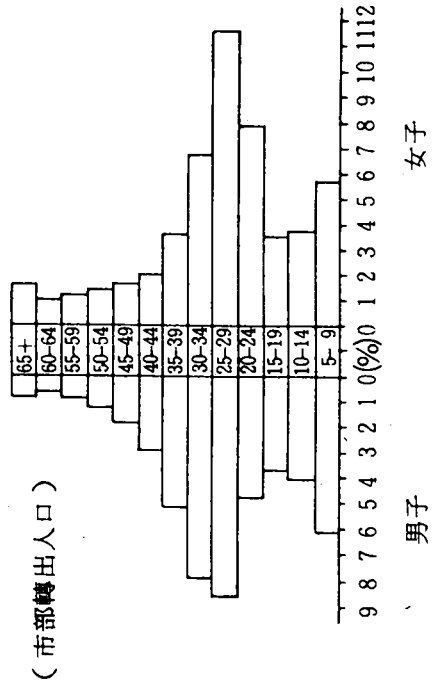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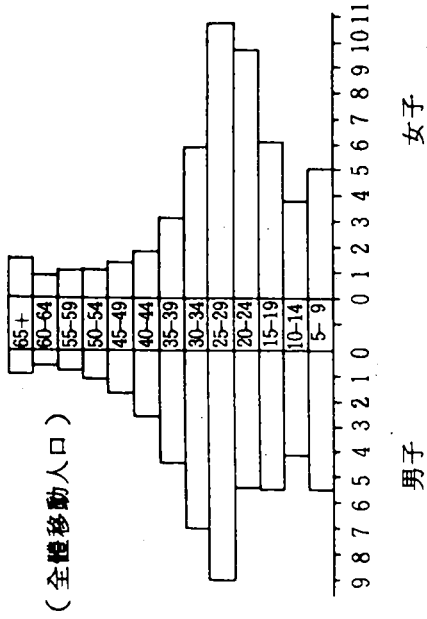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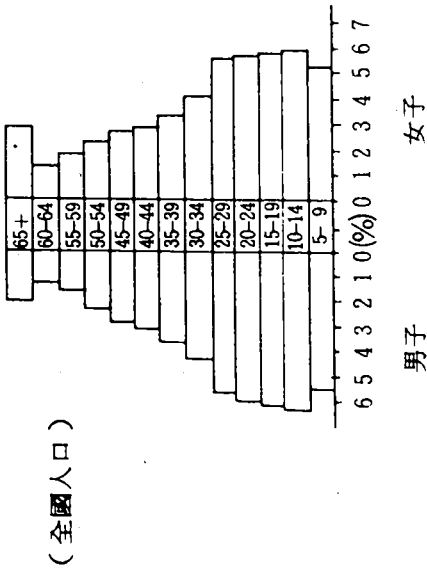
性別年齢	全國人口(5才以上)			全體移動人口			移動類型												
	總數	市部人口	郡部人口	總數	市部 轉出人口	郡部 轉出人口	全體移動人口				市道内移動人口				市道間移動人口				
							市間	離市向郡	移郡向市	郡間	市間	離市向郡	移郡向市	郡間	市間	離市向郡	離郡向市	郡間	
〈總數〉																			
5~9	10.7	10.6	10.8	10.5	11.8	7.9	11.7	12.4	7.4	10.5	11.7	13.7	8.1	11.0	11.7	12.1	7.1	10.0	
10~14	12.2	11.6	13.4	7.8	7.8	7.6	8.2	5.8	7.8	5.7	9.3	6.5	9.3	7.3	7.0	5.6	7.1	6.3	
15~19	11.8	12.2	10.8	11.6	7.3	19.9	7.7	5.2	21.3	12.7	8.2	5.6	26.4	12.3	7.1	5.1	18.9	12.9	
20~24	11.6	12.4	10.0	15.0	12.6	19.7	12.4	13.8	20.2	17.2	10.7	13.4	15.4	15.1	14.4	13.9	22.3	18.9	
25~29	11.1	12.5	8.5	19.7	20.1	19.0	19.5	23.2	18.5	21.5	17.2	21.6	14.8	20.7	22.2	23.5	20.2	22.1	
30~34	8.5	9.5	6.6	12.6	14.7	8.6	14.6	15.6	8.0	11.2	14.0	15.4	8.1	11.6	15.2	15.7	8.0	10.9	
35~39	7.0	7.7	5.7	7.5	8.8	5.1	8.9	8.1	4.8	6.2	9.2	8.3	5.3	6.5	8.6	8.1	4.6	5.9	
40~44	6.0	6.2	5.5	4.3	4.8	3.2	5.0	3.9	3.1	3.6	5.8	4.1	3.3	3.9	4.1	3.9	3.0	2.9	
45~49	5.7	5.3	6.4	3.0	3.4	2.4	3.5	3.0	2.3	2.8	4.3	3.1	2.4	3.1	2.6	3.0	2.2	2.6	
50~54	4.6	3.9	6.0	2.3	2.6	1.7	2.6	2.5	1.7	2.2	3.1	2.5	1.6	2.4	1.9	2.6	1.7	2.0	
55~59	3.5	2.7	4.8	1.8	2.0	1.4	2.0	2.1	1.3	1.7	2.3	2.0	1.3	2.0	1.7	2.2	1.4	1.5	
60~64	2.7	2.0	4.0	1.5	1.6	1.2	1.5	1.7	1.2	1.4	1.7	1.5	1.2	1.5	1.4	1.8	1.2	1.3	
65+	4.8	3.3	7.5	2.4	2.4	2.4	2.4	2.6	2.4	2.4	2.6	2.3	2.7	2.7	2.1	2.6	2.3	2.2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計	36,716,677	23,877,913	12,838,764	8,401,961	5,472,482	2,893,043	4,583,506	888,976	2,424,444	468,599	2,465,723	170,626	751,964	204,035	2,117,783	718,350	1,672,480	264,564	
〈男子〉																			
5~9	5.5	5.5	5.5	5.5	6.1	4.2	6.1	6.3	3.9	5.4	6.1	7.0	4.3	5.7	6.1	6.2	3.8	5.2	
10~14	6.3	6.0	6.8	4.1	4.1	4.1	4.3	2.9	4.2	3.4	4.9	3.3	5.1	3.7	3.7	2.8	3.9	3.2	
15~19	6.1	6.2	5.8	5.5	3.7	8.9	3.9	2.7	9.4	5.9	4.3	2.8	13.6	5.9	3.5	2.7	7.6	5.9	
20~24	6.0	5.8	6.2	5.4	4.7	6.7	4.7	4.9	6.9	5.5	4.0	4.3	5.2	4.5	5.4	5.1	7.6	6.3	
25~29	5.5	6.1	4.4	9.0	8.6	9.6	8.5	9.5	9.6	9.6	7.4	8.6	7.1	8.4	9.7	9.7	10.9	10.5	
30~34	4.3	4.8	3.4	7.0	8.0	4.9	7.9	8.8	4.6	6.4	7.5	8.6	4.6	6.5	8.3	8.8	4.6	6.4	
35~39	3.6	4.0	3.0	4.4	5.2	2.8	5.2	5.3	2.6	3.8	5.2	5.3	2.9	4.0	5.2	5.2	2.5	3.7	
40~44	3.0	3.2	2.7	2.5	2.8	1.8	2.9	2.5	1.7	2.2	3.2	2.6	1.8	2.4	2.5	2.4	1.6	2.1	
45~49	2.8	2.7	3.1	1.6	1.8	1.2	1.8	1.7	1.2	1.7	2.2	1.9	1.3	1.8	1.4	1.7	1.1	1.5	
50~54	2.2	1.9	2.8	1.0	1.2	0.8	1.2	1.2	0.7	1.1	1.5	1.3	0.7	1.3	0.9	1.2	0.7	1.0	
55~59	1.5	1.2	2.1	0.7	0.8	0.5	0.8	1.0	0.4	0.8	1.0	1.0	0.5	0.9	0.6	1.0	0.4	0.7	
60~64	1.2	0.9	1.8	0.5	0.6	0.4	0.6	0.7	0.4	0.6	0.7	0.7	0.4	0.7	0.5	0.8	0.4	0.5	
65+	1.8	1.1	3.0	0.8	0.8	0.7	0.8	0.9	0.7	0.9	0.8	0.8	0.7	1.0	0.7	1.0	0.7	0.8	
(%)	49.9	49.5	50.4	47.9	48.6	46.5	48.6	48.4	46.4	47.3	48.7	48.1	48.1	46.7	48.4	48.5	45.6	47.9	
〈女子〉																			
5~9	5.2	5.1	5.3	5.0	5.7	3.7	5.6	6.1	3.5	5.1	5.6	6.7	3.8	5.4	5.7	6.0	3.3	4.8	
10~14	5.9	5.5	6.6	3.7	3.7	3.5	3.9	2.9	3.5	3.3	4.4	3.3	4.3	3.6	3.4	2.8	3.2	3.1	
15~19	5.7	6.0	5.0	6.1	3.5	11.0	3.7	2.5	11.8	6.8	3.9	2.8	12.9	6.5	3.6	2.5	11.3	7.1	
20~24	5.6	6.6	3.9	9.7	7.9	13.0	7.7	8.9	13.3	11.7	6.7	9.1	10.1	10.6	8.9	8.8	14.7	12.6	
25~29	5.6	6.4	4.1	10.7	11.5	9.4	11.1	13.6	8.9	11.9	9.8	13.2	7.8	12.3	12.5	13.8	9.4	11.6	
30~34	4.2	4.7	3.2	5.7	6.7	3.6	6.7	6.8	3.4	4.8	6.5	6.8	3.5	5.1	6.9	6.9	3.4	4.6	
35~39	3.4	3.8	2.7	3.2	3.6	2.2	3.8	2.9	2.2	2.3	4.0	3.0	2.4	2.5	3.5	2.9	2.1	2.2	
40~44	2.9	3.0	2.8	1.8	2.0	1.4	2.1	1.5	1.4	1.4	2.6	1.5	1.5	1.5	1.6	1.4	1.4	1.2	
45~49	2.8	2.6	3.3	1.4	1.6	1.1	1.6	1.3	1.1	1.1	2.0	1.2	1.1	1.3	1.2	1.3	1.1	1.1	
50~54	2.4	2.0	3.2	1.2	1.4	1.0	1.4	1.3	1.0	1.0	1.7	1.2	0.9	1.1	1.1	1.3	1.0	0.9	
55~59	1.9	1.5	2.7	1.1	1.2	0.9	1.2	1.2	0.9	0.9	1.3	1.0	0.8	1.0	1.0	1.2	0.9	0.9	
60~64	1.5	1.2	2.2	0.9	1.0	0.8	1.0	1.0	0.9	0.8	1.0	0.8	0.8	0.8	0.9	1.0	0.9	0.7	
65+	3.0	2.1	4.6	1.6	1.6	1.7	1.6	1.6	1.7	1.5	1.8	1.5	2.0	1.7	1.4	1.6	1.6	1.4	
(%)	50.1	50.5	49.6	52.1	51.4	53.5	51.4	51.6	53.6	52.7	51.3	51.9	51.9	53.3	51.6	51.5	54.4	52.1	

部轉出人口가 15~34 歲年齡層에서 移動力이 強하다는 事實과 매우 對照的인 동시에 市部轉出人口에 比하여 移動力이 強한 年齡層이 한 年齡階級만큼 낮다는 事實도 注目된다.(圖表 3-1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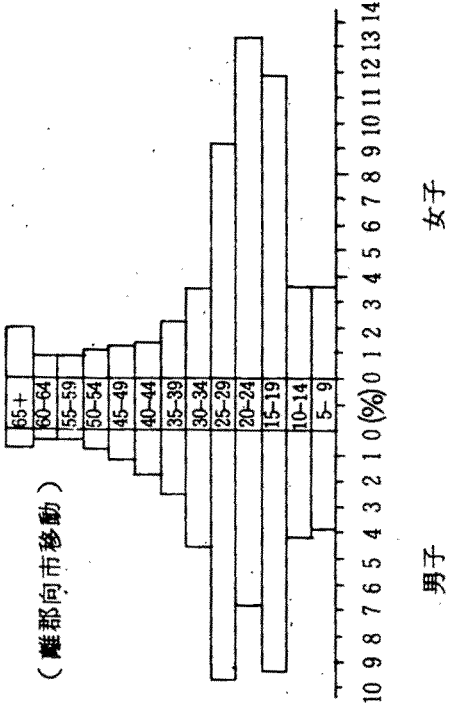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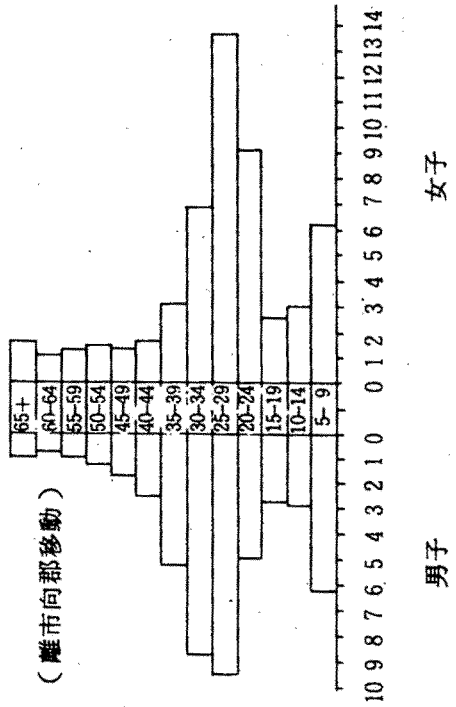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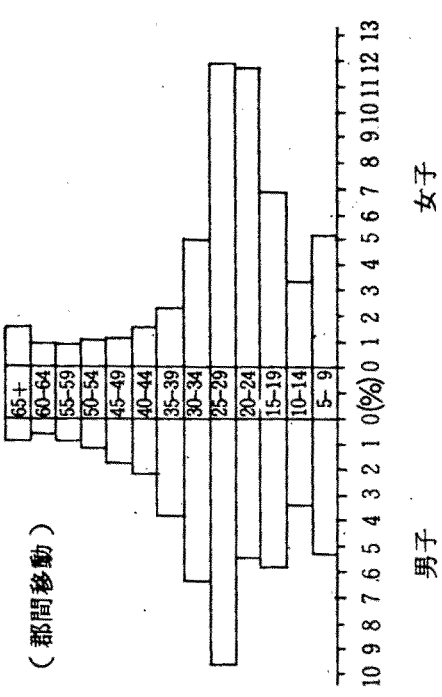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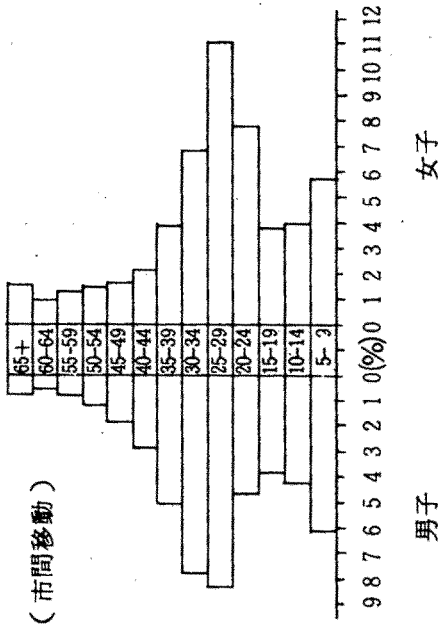
移動人口의 性別·年齡別構造를 다시 移動類型別로 보면 移動力이 強한 年齡集團이 移動類型에 따라 多樣的 差異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性別로도 微妙한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全體移動人口(市道間移動+市道內移動)에 있어서 市部轉出人口에 의해서 일어나는 市間移動 및 離市向郡移動의 경우는 共히 5 歲年齡集團과 20~39 歲年齡集團이 全部市部人口의 同一cohort 보다 強한 移動力을 나타내고 있으며 性別로는 男子의 경우 25~39 歲年齡集團이 強한데 대하여 女子의 경우는 한 年齡階級이 낮은 20~34 歲年齡集團에 있어서 強하다.(圖表 3-2)

한편 郡部轉出人口에 의해서 일어나는 離郡向市移動 및 郡間移動에 있어서는 두 移動類型間에 若干의 構造的 差異를 보여주고 있다. 그間 우리나라 國內人口移動의 主流를 形成해 왔던 離郡向市型移動에 있어서는 全體的으로 15~34 歲年齡集團에서 移動力이 強하며 특히 15~19 歲, 20~24 歲 및 25~29 歲 年齡集團에 있어서 그 構造比가 各己 21.3%, 20.2% 및 18.5%로 全體郡部人口의 同一cohort 가 차지하는 構成比 10.8%, 10.0% 8.5%보다 倍以上 높은 水準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 年齡集團의 이 類型의 移動에 있어서의 強한 選擇性을 뚜렷이 反映하고 있다. 또한 이를 性別로 보면 男女 共히 強한 移動力이 15~34 歲年齡集團에 걸쳐 있으나 男性의 경우는 25~29 歲年齡集團이 그리고 女性의 경우는 20~24 歲年齡集團이 郡部人口의 같은 cohort 層보다는 各己 2.2 倍 및 3.4 倍나 높은 構成比를 보이고 있다. 郡間移動의 경우는 強한 移動力이 全體的으로 15~

〈圖表 3-1〉 1980 ~ 1985 5 歲以上 移動人口の 轉出地域別 性別・年齢別 構造



〈圖表3-2〉 1980~1985 5歲以上全體移動人口(市道内 與 市道間)の 移動類型別 性別・年齡別 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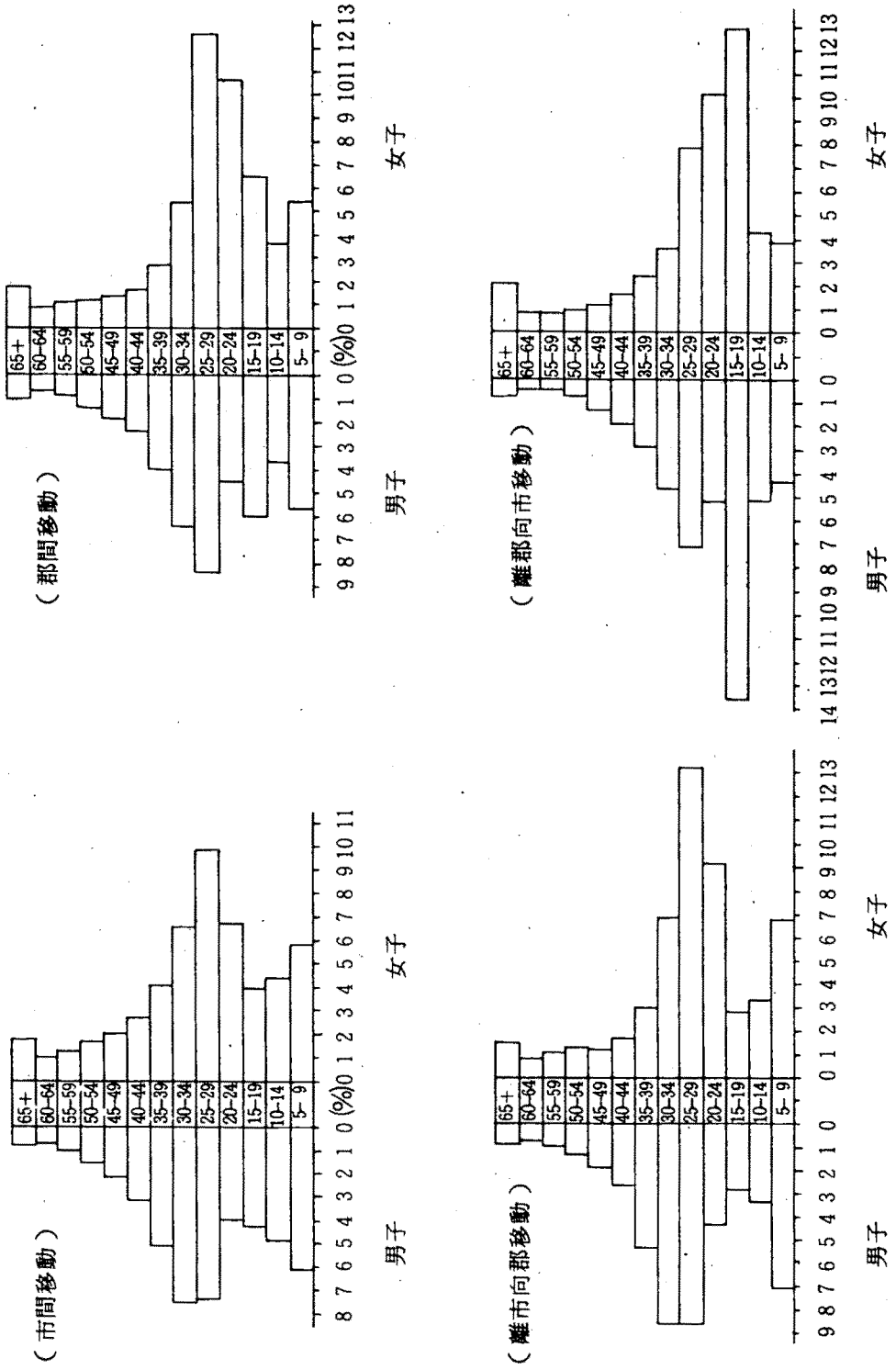


~ 39 歲年齡集團에 걸쳐있어 그 幅이 離郡向市型移動의 경우보다 넓은 동시에 특히 25 ~ 29 歲年齡集團에서 強하며, 性別로는 男性轉出者가 25 ~ 39 歲의 靑壯年層에 集中되어 있는데 대하여 女性轉出者는 15 ~ 34 歲年齡集團에 몰려 있어서 이들의 相當數가 既婚集團인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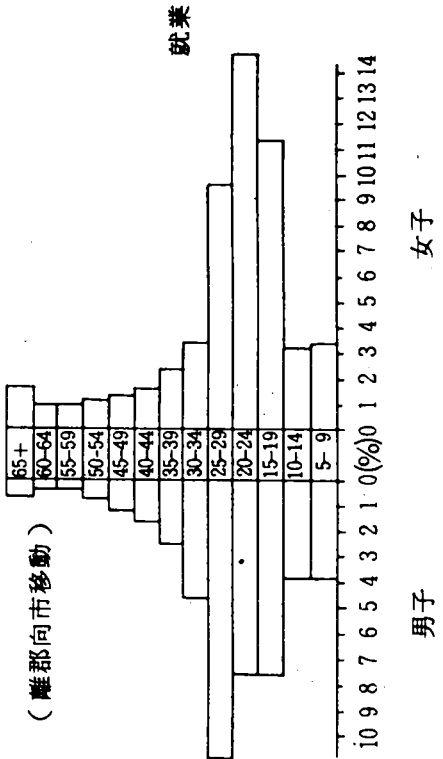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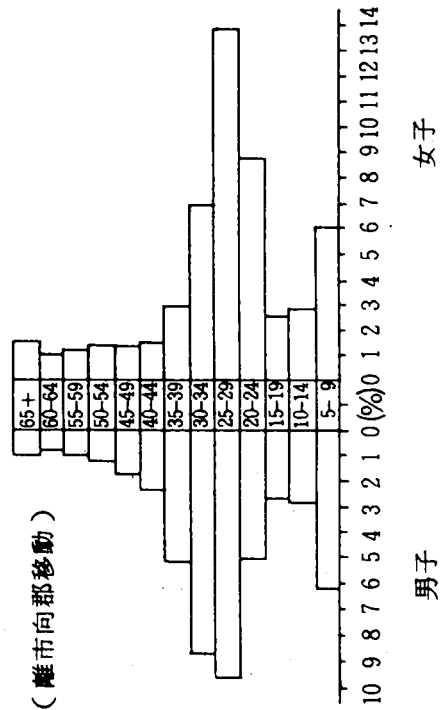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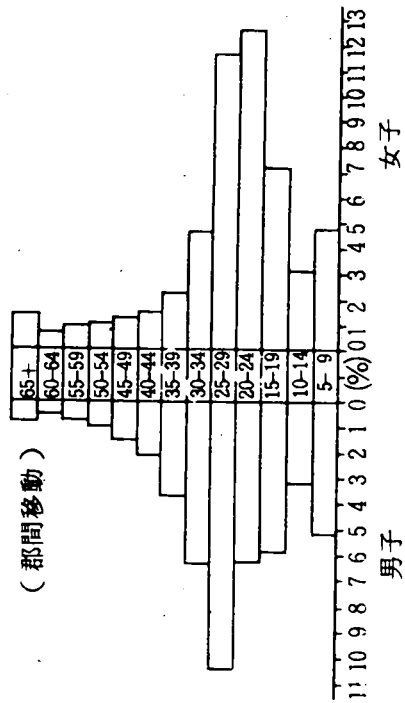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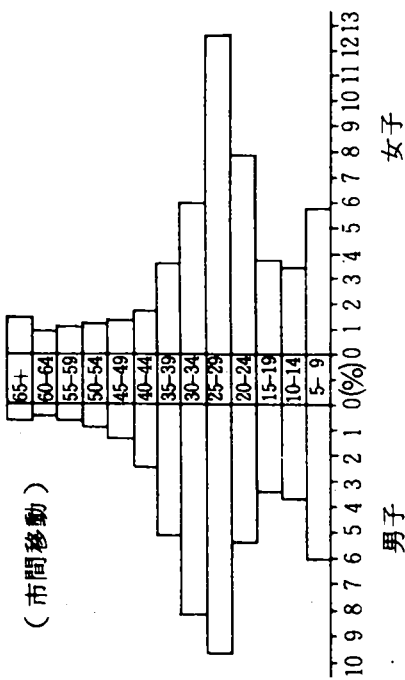
移動類型別 年齡構造를 다시 市道內移動人口와 市道間移動人口로 區分해서 보면 두 區分人口集團間에 全體的으로는 그 樣相이 全體移動人口의 경우와 매우 類似하나 이를 性別로 보면 特定年齡集團에 있어서 두 集團間 그리고 性間에 注目할만한 差異가 없지 않다. 卽, 全般的으로는 市道內移動人口가 市道間移動人口보다 高齡化되어 있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특히 市道內移動人口의 離郡向市型移動에 있어서 15 ~ 19 歲年齡集團의 構成比가 男子 13.6% 및 女子 12.9%로 共히 매우 높은 것은 子女教育和 깊은 關聯이 있는 것으로 判斷되며(圖表 3-3 參照), 市道間移動의 離郡向市型移動에 있어서 男子 25 ~ 29 歲年齡集團의 높은 構成比는 求職·轉就業 등 經濟活動과 關聯되어 있고 女子 15 ~ 19 歲 및 20 ~ 24 歲年齡集團의 높은 構成比는 求職·就業 등의 經濟活動과 婚姻 및 家族關係(家族再結合 등)와 關聯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圖表 3-4 參照)

두 移動人口集團의 市部轉出人口에서 일어나는 市間移動 및 離市向郡移動에 있어서 5 ~ 9 歲年齡集團과 20 ~ 39 歲年齡集團의 強한 移動力은 市部轉出人口의 大部分이 既婚集團으로 家口移動의 形態에서 移動하고 있음을 示唆해주는 동시에 市道內와 市道間 移動을 가릴 것 없이 都市地域擴散 및 郊外化過程과 같이 關聯되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圖表3-3〉 1980～1985 5歳以上 市・道内移動人口の 移動類型別 性別・年齢別 構造



〈圖表 3-4〉 1980 ~ 1985 5 歲以上 市・道間移動人口の 移動類型別 性別・年齡別 構造



다. 年齡別 移動率

諸移動率에 관한 觀察은 이미 前章에서 地域別, 移動人口區分別, 市郡部別 및 移動類型別 分析된 바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諸移動率을 移動人口의 性別·年齡別構造와 連結시켜 보다 微視的으로 觀察하였다.

1980~85年間 5歲以上 移動人口全體의 性別·年齡別 여러 靜態移動率을 보면 表3-2와 같다. 全國人口(5歲以上)에 대한 總移動率은 22.9%로 이 時期에 人口의 $\frac{1}{4.4}$ 이 區市·郡水準에서 移動을 하고 있으며 男子人口의 總移動率 22.0%에 대해서 女子人口는 23.8%로 女性の 移動力이 男子보다 強함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總移動率을 年齡別로 보면 全體的으로 모든 年齡層에서 일어나고 있으나 특히 25~29歲年齡集團이 全國人口 407萬가운데서 165萬이 移動을 하고 있어서 總移動率이 40.6%로 가장 높으며, 이어 30~34歲의 34.1%, 20~24歲의 29.8%, 35~39歲의 24.6%, 15~19歲의 22.6% 및 5~9歲의 22.5%등이 높은 移動率을 보이고 있다. 특히 5~9歲 年齡集團의 移動率이 높은 事實은 이 年齡層이 父母集團과 함께 移動하는 屬性을 지니고 있다는 點에서 國內人口移動의 흐름속에 家口移動이 차지하는 比重을 示唆하고 있다.

年齡別 移動率을 다시 性別로 보면 男子의 경우 25~29歲(37.2%), 30~34歲(36.8%) 및 35~39歲(27.8%)의 年齡層移動率이 높은데 대하여 女子의 경우는 25~29歲(44.1%), 20~24歲(31.9%), 30~34歲(31.2%) 및 15~19歲(27.5%)의 年齡集團에서 매우 높아서 性別의 높은 移動力을 發生시키는 年齡層에 差異를 보여주고 있다.

年齡別移動率을 市部·郡部別로 보면 全體的으로 市部總移動率이 52.4%

이고 郡部總移動率이 33.1%로 市部에 있어서의 移動이 郡部보다 크게 높다. 市部總移動率을 年齡別로 보면 全體的으로 25~29歲層이 82.0%로 매우 높으며 이어 30~34歲의 73.8%, 20~24歲의 59.2%, 35~39歲의 54.8% 및 5~9歲層의 54.0%가 높다. 특히 市部人口中 5~9歲年齡集團이 移動率이 54.0%로 매우 높은 事實은 이미 여러차례 提示되었지만 既婚集團에 隨伴되는 集團이라는 點에서 注目된다. 郡部總移動率을 年齡別로 보면 全體的으로 25~29歲層이 79.0%로 가장 높으며 이어 20~24歲의 60.1%, 30~34歲의 52.0% 및 15~19歲의 48.9%가 높은 水準을 나타내고 있어 市部の 경우보다 靚어지고 있는 동시에 5~9歲幼年集團의 移動率이 28.1%의 相對的으로 크게 낮은 事實도 注目된다. 특히 郡部の 경우 女子 20~24歲年齡集團의 總移動率이 103.2%로 이 年齡層의 轉出率 및 轉入率의 合이 이 年齡層의 郡部人口을 上廻하고 있다는 事實은 郡部地域에 있어서 이 年齡集團의 移動力이 매우 높음을 再確認케 하고 있다.

市部地域에 있어서의 移動現象을 轉入率, 轉出率 및 純移動率의 立場에서 보면 全體的으로 轉入率이 29.5%로 轉出率이 22.9%를 앞질러 純移動率에 있어서 6.6%의 「프라스」를 보여 市部人口의 社會增加分을 反映하고 있다. 轉出·入率 및 純移動率을 年齡別로 보면 全體的으로 轉出入率은 總移動率이 높았던 年齡集團에서 共히 높으나 轉出入率間의 差가 甚하여 純移動率을 높이고 있는 年齡集團은 純移動率이 +16.1%인 15~19歲年齡集團을 비롯하여 +12.5%의 20~24歲層, +8.2%의 25~29歲層 및 +5.1%의 10~14歲層이다. 이러한 事實은 이들 +純移動率을 이르는 年齡集團에 의해서 市部人口의 社會增加와 더불어 年齡構造의 變化가 일어나고 있음을

〈表3-2〉 1980-85年間 5歳以上 移動人口の 性別 年令別 地域別 移動率(%)

性 年令	人口数(5歳以上)			移動率(市道内 又 市道間)							移動率(%)								
	全國人口	市部人口	郡部人口	全移動數	市部轉入人口數	市部轉出人口數	轉入-轉出	郡部轉入人口數	郡部轉出人口數	轉入-轉出	總移動率	市 部			郡 部				
												總移動率	轉入率	轉出率	總移動率	轉入率	轉出率	總移動率	
〈總數〉																			
5-9	3,916,350	2,538,806	1,380,544	880,792	720,931	648,357	72,574	159,861	228,084	-68,223	22.5	54.0	28.4	25.6	2.9	28.1	11.6	16.5	-4.9
10-14	4,475,985	2,535,806	1,716,818	652,363	569,013	428,860	140,153	83,350	220,556	-137,206	14.6	36.2	20.6	15.5	5.1	17.7	4.9	12.8	-8.0
15-19	4,316,264	2,924,204	1,392,060	974,960	868,856	397,128	471,728	106,104	576,954	-468,850	22.6	43.3	29.7	13.6	16.1	48.9	7.6	41.3	-33.7
20-24	4,245,090	2,957,314	1,287,776	1,287,776	1,059,602	690,909	368,693	204,084	569,802	-365,718	29.8	59.2	35.8	23.4	12.5	60.1	15.8	44.2	-28.4
25-29	4,070,408	2,984,933	1,085,475	1,653,983	1,346,623	1,100,477	246,146	307,360	549,623	-242,263	40.6	82.0	45.1	36.9	8.2	79.0	28.3	50.6	-22.3
30-34	3,115,238	2,269,380	845,858	1,060,769	868,632	807,001	61,631	192,337	247,462	-55,325	34.1	73.8	38.3	35.6	2.7	52.0	22.7	29.3	-6.5
35-39	2,581,181	1,849,691	731,490	633,814	532,219	482,133	50,086	101,595	146,231	-44,636	24.6	54.8	28.8	26.1	2.7	33.9	13.9	20.0	-6.1
40-44	2,187,508	1,476,361	711,147	358,109	306,088	263,526	42,562	52,021	91,508	-38,487	16.4	38.6	20.7	17.8	2.9	20.2	7.3	12.9	-5.6
45-49	2,089,212	1,263,907	825,305	255,948	215,869	185,924	29,945	40,079	68,348	-28,269	12.3	31.8	17.1	14.7	2.4	13.1	4.9	8.3	-3.4
50-54	1,695,259	923,794	771,465	191,985	159,218	140,635	18,583	32,767	50,454	-17,687	11.3	32.5	17.2	15.2	2.0	10.8	4.2	6.5	-2.3
55-59	1,267,757	651,244	616,513	151,492	124,337	110,328	14,009	27,154	40,641	-13,487	11.9	36.0	19.1	16.9	2.2	11.0	4.4	6.6	-2.2
60-64	1,006,876	489,210	517,666	122,509	100,497	86,097	14,400	22,012	35,978	-13,966	12.2	38.1	20.5	17.6	2.9	11.2	4.3	7.0	-2.7
65+	1,749,549	792,902	956,647	201,543	167,457	131,103	36,354	34,086	69,402	-35,316	11.5	37.7	21.1	16.5	4.6	10.8	3.6	7.3	-3.7
計	36,716,677	23,877,913	12,838,764	8,401,952	7,039,342	5,472,478	1,566,864	1,362,610	2,893,043	-1,530,433	22.9	52.4	29.5	22.9	6.6	33.1	10.6	22.5	-11.9
〈男子〉																			
5-9	2,025,353	1,320,469	704,884	459,188	377,526	336,519	41,007	81,662	120,430	-38,768	22.7	54.1	28.6	25.5	3.1	28.7	11.6	17.1	-5.5
10-14	2,310,570	1,442,253	868,317	344,554	302,449	224,032	78,417	42,105	118,952	-76,847	14.9	36.5	21.0	15.5	5.4	18.5	4.8	13.7	-8.9
15-19	2,227,322	1,482,734	744,588	460,884	409,485	203,371	206,114	51,399	256,487	-205,090	20.7	41.3	27.6	13.7	13.9	41.4	6.9	34.4	-27.5
20-24	2,185,720	1,392,732	792,988	452,305	382,196	258,062	124,134	70,109	193,145	-123,036	20.7	46.0	27.4	18.5	8.9	33.2	8.8	24.4	-15.5
25-29	2,027,185	1,466,292	560,893	753,108	622,958	472,521	150,437	130,150	278,348	-148,198	37.2	74.7	42.5	32.2	10.3	72.8	23.2	49.6	-26.4
30-34	1,589,610	1,154,816	434,796	584,781	476,253	439,002	37,251	108,528	142,046	-33,518	36.8	79.3	41.2	38.8	3.2	57.6	25.0	32.7	-7.7
35-39	1,324,369	944,029	380,340	368,320	303,761	282,691	21,070	64,559	82,157	-17,598	27.8	62.1	32.2	29.9	2.2	38.6	17.0	21.6	-4.6
40-44	1,108,685	762,523	346,163	207,308	174,603	154,388	20,215	32,705	50,776	-18,071	18.7	43.1	22.9	20.2	2.7	24.1	9.4	14.7	-5.2
45-49	1,042,989	647,474	395,515	136,561	113,475	99,597	13,878	23,086	35,786	-12,700	13.1	32.9	17.5	15.4	2.1	14.9	5.8	9.0	-3.2
50-54	809,619	451,574	358,045	88,214	71,731	65,535	6,196	16,483	22,091	-5,608	10.9	30.4	15.9	14.5	1.4	10.8	4.6	6.2	-1.6
55-59	560,580	288,969	271,611	60,315	47,958	45,563	2,395	12,357	14,474	-2,117	10.8	32.4	16.6	15.8	0.8	9.9	4.5	5.3	-0.8
60-64	440,387	206,492	233,895	45,371	35,839	33,672	2,167	9,532	11,489	-1,957	10.3	33.7	17.4	16.3	1.0	9.0	4.1	4.9	-0.8
65+	652,079	271,087	380,992	63,770	51,187	43,002	8,185	12,583	20,583	-7,753	9.8	34.7	18.9	15.9	3.0	8.6	3.3	5.3	-2.0
計	18,304,468	11,831,444	6,473,024	4,024,679	3,369,421	2,657,955	711,466	655,258	1,346,519	-691,261	22.0	50.9	28.5	22.5	6.0	30.9	10.1	20.8	-10.7
〈女子〉																			
5-9	1,890,997	1,215,337	675,660	421,604	343,405	311,838	31,567	78,199	107,654	-29,456	22.3	53.9	28.3	25.7	2.6	27.5	11.6	15.9	-4.4
10-14	2,165,415	1,316,914	848,501	307,809	266,564	204,828	61,736	41,245	101,604	-60,359	14.2	35.8	20.2	15.6	4.7	16.8	4.9	12.0	-7.1
15-19	2,088,942	1,441,470	647,472	574,076	459,371	193,757	265,614	54,705	318,465	-263,760	27.5	45.3	31.9	13.4	18.4	57.6	8.4	49.2	-40.7
20-24	2,059,370	1,564,582	494,788	811,381	677,406	432,847	244,559	133,975	376,657	-242,682	39.4	71.0	43.3	27.7	15.6	103.2	27.1	76.1	-49.0
25-29	2,043,223	1,518,641	524,582	900,875	723,665	627,956	95,709	177,210	271,275	-94,065	44.1	89.0	47.7	41.3	6.3	85.5	33.8	51.7	-17.9
30-34	1,525,628	1,114,564	411,064	475,988	392,379	367,999	24,380	83,609	105,416	-21,807	31.2	68.2	35.2	33.0	2.2	45.9	20.3	25.6	-5.3
35-39	1,256,812	905,662	351,150	265,494	228,458	199,442	29,016	37,036	64,074	-27,038	21.1	47.2	25.2	22.0	3.2	28.8	10.5	18.2	-7.7
40-44	1,087,823	713,838	364,985	150,801	131,485	109,138	22,347	19,316	40,316	-21,416	14.0	33.7	18.4	15.3	3.1	16.5	5.3	11.2	-5.9
45-49	1,046,223	616,433	429,790	119,387	102,394	86,327	16,067	16,993	32,562	-15,562	11.4	30.6	16.6	14.0	2.6	11.5	4.0	7.6	-3.6
50-54	885,640	472,220	413,420	103,771	87,487	75,100	12,387	16,284	28,363	-12,079	11.7	34.4	18.5	15.9	2.6	10.8	3.9	6.9	-2.9
55-59	707,177	362,275	344,902	91,176	76,379	64,765	11,614	14,797	26,167	-11,370	12.9	39.0	21.1	17.9	3.2	10.4	4.3	6.1	-3.3
60-64	566,489	282,718	283,771	77,138	64,658	52,425	12,233	12,233	24,489	-12,009	13.6	41.4	22.9	18.5	4.3	13.0	4.4	8.6	-4.2
65+	1,097,470	510,184	587,286	137,773	116,270	88,101	28,169	28,169	49,066	-27,563	12.6	40.1	22.8	17.3	5.5	12.0	3.7	8.4	-4.7
計	18,412,209	12,046,469	6,365,740	4,377,273	3,669,921	2,814,523	855,398	707,352	1,546,524	-839,172	23.8	53.8	30.5	23.4	7.1	35.4	11.1	24.3	-13.2

1) 未詳人口 420名 除外

意味하는 것이다.

郡部地域의 移動現象을 轉出·入率 및 純移動率을 보면 全體的으로 轉入率(10.6%)이 轉出率(22.5%)을 밑돌아 純移動率이 -11.9%로 郡部人口의 減少를 反映하고 있다. 이를 年齡別로 보면 前述한 市部의 경우와는 달리 移動力이 높은 年齡集團이 轉入率 및 轉出率에 따라 다른 곳이 많다. 卽 轉入率이 轉出率보다 두드러지게 낮으나 그나마 相對的으로 높은 年齡集團은 25~29歲(28.3%), 30~34歲(22.7%), 20~24歲(15.8%) 및 35~39歲(13.9%) 年齡層들이며 轉出率이 높은 年齡集團은 25~29歲(50.6%), 20~24歲(44.2%), 15~19歲(41.3%) 및 30~34歲(29.3%) 年齡層들이다. 또한 純移動率의 立場에서 보면 15~19歲年齡이 -33.7%로 가장 높으며 이어 20~24歲(-28.4%) 및 25~29歲(-22.3%) 年齡層에서 높다. 특히 15~19歲年齡層에서의 純移動率「미어너스」가 轉入率 7.6%에 대한 41.3%라는 높은 轉出率에 의해서 結果되고 있는 事實은 郡部人口의 轉出이 主로 未婚의 젊은 年齡集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시에 農村地域人口의 年齡構造를 枯葉化하는 原因이 되고 있음을 다시 確認시키고 있다.

郡部の 年齡別 輸出·入率 및 純移動率을 다시 性別로 보면 亦是 市部の 경우와는 달리 여러 移動率의 水準을 決定하는 年齡集團이 다르다. 轉入率에 있어서 男子의 경우는 25~29歲(23.2%) 및 30~34歲(25.0%) 年齡層이 높는데 대하여 女子의 경우는 이들보다 한 年齡階級이 낮은 20~24歲(27.1%) 및 25~29歲(33.8%) 年齡層에 높다. 이것은 郡部로의 轉入이 主로 既婚集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示唆하는 것이다.

反面 轉出은 男子의 경우 25~29歲(49.6%), 15~19歲(34.4%),

30 ~ 34 歲 (32.7 %) 年齡層에서 두드러지게 높는데 反하여 女子의 경우는 20 ~ 24 歲 (76.1 %), 25 ~ 29 歲 (51.7 %) 및 15 ~ 19 歲 (49.2 %) 年齡層에서 높다. 이러한 事實은 農村輸出口가 주로 未婚의 젊은 年齡集團과 婚姻初期의 젊은 既婚集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反映하는 것이라 하겠다. 全年齡에 걸쳐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는 郡部の 年齡別移動比率를 性別로 보면 男子의 경우 15 ~ 19 歲 (- 27.5 %), 25 ~ 29 歲 (26.4 %) 및 20 ~ 24 歲 (- 15.5 %) 年齡層에서 높는데 대하여 女子의 경우는 그 率이 男子集團보다 越等히 높은 동시에 20 ~ 24 歲 (- 49.0 %), 및 15 ~ 19 歲 (40.7 %) 年齡層에 있어서 그 傾向이 두드러지게 높다. 특히 이 두 年齡集團에 「마이너스」總移動率이 매우 높은 것이 相對적으로 낮은 轉入率에 대한 높은 轉出率에서 나오고 있는 事實은 注目되어야 한다.

끝으로 年齡別 諸移動率을 市道間移動人口와 市道內移動人口로 區分해서 觀察하면 全般的인 傾向은 全體移動人口의 경우와 類似하나 市道間移動의 諸移動率이 市道內移動의 경우보다 높다. 특히 두 移動人口集團間에 보여지는 두드러진 差異點을 純移動率의 立場에서 提示하면 市部の 경우는 15 ~ 19 歲 (9.6 %), 20 ~ 24 歲 (9.3 %) 및 35 ~ 39 歲 (9.7 %) 年齡層에서 높는데 대하여 市道內移動人口의 경우는 15 ~ 19 歲 (6.5 %) 年齡集團만이 比較的 높다. 이것은 市道間移動이 젊은 未婚集團 및 既婚集團의 經濟移動과 관련되어서 일어나고 있는데 대하여 市道內移動의 경우는 15 ~ 19 歲年齡層의 教育問題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附表 7 參照)

郡部の 경우를 보면 市道間移動에 있어서 15 ~ 19 歲 (- 20.1 %), 20 ~ 24 歲 (- 21.3 %) 및 25 ~ 29 歲 (- 15.5 %) 年齡層에서 높은 「마이너스」移動率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하여 市道內移動에 있어서도 이 年齡集團의

「마이너스」移動率이 相對的으로 他年齡集團에 比하여 높으나 市道間移動의 경우보다는 그 水準이 매우 낮다.

4. 結 論

60年代以後 展開된 우리나라의 經濟發展과 이에 따른 産業化過程은 必然的으로 國內人口移動의 흐름 특히 離農向市型人口移動을 激化시켜 人口의 都市集中으로 인한 都市化를 加速化하는 동시에 人口의 地域的 不均衡을 招來하였다.

60年代後半期부터 70年代後半期에 이르는 15年間 國內人口移動의 主流를 形成해온 離農向市型移動은 主로 서울과 京畿道를 包含하는 首都圈地域과 이에 대한 對衡的位置에 있는 釜山地域에 대한 人口集積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首都圈地域의 경우는 70年代後半期부터 서울市의 人口稠密化와 더불어 서울市 周邊地域에 대한 서울市人口의 J-turn現象이 일어나는 동시에 뚜렷한 郊外化現象이 觀察된다.

80年代에 들어와서는 그 間에 있었던 産業化의 進捗에 따른 都市化의 增大, 地方大都市의 膨脹에 따른 直轄市化 및 據點都市化, 農村轉出人口의 枯竭 등 一聯의 變化는 그 間 主流를 形成해 왔던 離農向市型移動의 退潮와 더불어 市間移動이 急伸張하는 동시에 國內人口移動의 支配的 흐름이 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大都市의 直轄市化 및 據點都市化는 從前人口移動의 首都圈地域 및 釜山地域 指向的인 흐름을 鈍化시키고 地方據點都市 指向的인 새로운 移動흐름이 發生되고 있는 徵候가 濃厚하다.

區·市·郡을 境界로 集計된 5歲以上の 移動人口를 市道間移動 및 市道內移動으로 區分해서 보면 大都市의 直轄市 昇格·分離와 관련되어 市道間移動量의 構成比가 市道內移動量을 앞지르고 있으며, 市道間移動의 相對的인 長距離性과 관련되어 移動者의 特性이 相對的으로 젊고 보다 單獨移動的인

色彩가 짙다.

人口移動의 흐름을 純移動率의 立場에서 市·郡部別로 보면 移動에 의해서 郡部人口의 總對數減少(1980-85年間 純移動率: -11.9%)가 市部人口의 急增(+6.6%)을 가져오고 있으며, 郡部人口의 15-19歲, 20-24歲 및 25-29歲 年齡集團에서 純移動率 各己 -33.7%, -28.4% 및 -22.3%로 엄청난 減少를 보이고 있다.

移動者의 特性은 人口移動에 매우 選擇的으로 作用하고 있으며, 移動은 ① 女性이 男性보다 移動力에 있어서 強하며 ② 모든 年齡層에서 移動이 일어나고 있으나 특히 20-30代 年齡層에서 移動力이 높은 동시에 특히 20-24歲, 25-29歲 및 30-34歲 年齡集團에 強하며 ③ 性別로는 男子가 25-39歲層에서 그리고 女子는 15-34歲層에서 매우 強하다.

移動者의 特性은 移動類型과 密接히 關聯되어 있으며 市向移動 및 離市向郡移動을 이끄는 市部轉出人口의 경우 특히 5-9歲 幼年集團과 25-34歲 年齡集團의 構成比 및 年齡別移動率이 높다는 事實은 이 類型의 移動이 主로 既婚集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고 大都市地域의 擴張 및 郊外化過程과 密接히 關聯되어 있다. 反面에 離郡向市移動 및 郡間移動을 이끄는 郡部轉出人口에 있어서는 離郡向市移動의 경우 15-29歲의 젊은 主로 未婚의 年齡集團이 移動을 主導하고 있으며 郡間移動의 경우는 年齡構造가 보다 高齡化하고 있다.

80年代에 들어오면서 보다 뚜렷이 提起된 前述한 우리나라 國內人口移動과 關聯된 一聯의 特性과 性向은 우리나라의 持續的인 經濟發展, 都市化

의 擴散 및 據點都市中心的인 進捗 그리고 가까운 時期에 實現될 自治制 등의 豫見되는 社會變動과 連結되어 學問的次元에서나 人口政策的次元에서 共히 考慮되어야할 것이다.

正確한 實態把握이 效率的인 政策樹立 過程의 先決條件이 된다는 意味에서 그間 여러 차례의 「센서스」를 통해서 많고 豊富한 資料를 保有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現在까지 이들 資料에 대한 特別分析이 廣範圍하게 試圖되지 못해왔던 事實은 매우 不幸하고 非經濟的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며, 앞으로 「센서스」資料에 대한 廣範한 特別分析이 여러 分野의 積極的인 支援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附 錄

表 1. 各 時期別 5 才以下 移動人口의 地域別
移動量 吳 移動率(%)

表 2. 5 才以下 移動人口의 時期別 移動率(%)

表 3. 1980 ~ 85 年間 5 才以上 移動人口의
性別 · 年齡別 移動率(%)

表 1-1 1965~1970 5歲以上 移動人口의 地域別 移動量 및 移動率 (%)

市道別 及 市部 郡部別	全 國 人口數 (5歲以上)	全體移動量				市道內移動量				市道間	
		總移 動量	轉入 量	轉出 量	純移 動量	總移 動量	轉入 量	轉出 量	純移 動量	總移 動量	轉入 量
서울	4843113	2698377	1816523	881854	934669	1267792	633896	633896	-	1483400	1182627
釜山	1628471	657181	418771	238410	180361	222162	111081	111081	-	435019	307690
京畿	2911309	958719	491234	467485	23749	293698	146849	146849	-	665021	344385
市部	790851	300996	192671	108325	84346	105204	71104	34100	37004	195792	121567
郡部	2120658	657723	298563	359160	-60597	188494	75745	112749	-37004	469229	222818
江原	1581306	503056	210726	292330	-81604	215268	107634	107634	-	287788	103092
市部	331736	152138	76535	75603	932	66694	46788	19906	26882	85444	29747
郡部	1249570	350918	134191	216727	-82536	148574	60846	87728	-26882	202344	73345
忠北	1271677	330413	111111	219302	-108191	110958	55479	55479	-	219455	55632
市部	201850	85984	42686	43298	-612	37077	28820	8257	20563	48907	13866
郡部	1069827	244429	68425	176004	-107579	73881	26659	47222	-20563	170548	41766
忠南	2465830	600297	194632	405665	-211033	196186	98093	98093	-	404111	96539
市部	428709	162633	92700	69933	22767	56335	46254	10081	36173	106298	46446
郡部	2037121	437664	101932	335732	-233800	139851	51839	88012	-36173	297813	50093
全北	2070196	478956	163643	315313	-151670	219250	109625	109625	-	259706	54018
市部	399807	157971	89173	68798	20375	79813	64179	15634	48545	78158	24994
郡部	1670389	320985	74470	246515	-172045	139437	45446	93991	-48545	181548	29024
全南	3407918	736132	257861	478271	-220410	401148	200574	200574	-	334984	57287
市部	769712	284240	155711	128529	27182	169014	128541	40473	88068	115226	27170
郡部	2638206	451892	102150	349742	-247592	232134	72033	160101	-88068	219758	30117
慶北	3941829	1076563	458976	617587	-158611	630432	315216	315216	-	446131	143760
市部	1214128	500804	313414	187390	126024	289335	220535	68800	151735	211469	92879
郡部	2727701	575759	145562	430197	-284635	341097	94681	246416	-151735	234662	50881
慶南	2691167	659723	224981	434742	-209761	255358	127679	127679	-	404365	97302
市部	581882	231581	132509	99072	33437	100550	76404	24146	52258	131031	56105
郡部	2109285	428142	92472	335670	-243198	154808	51275	103533	-52258	273334	41197
濟州	306293	49765	26130	23635	2495	23104	11552	11552	-	26661	14578
市部	89179	21038	15646	5392	10254	9714	8368	1346	7022	11324	7278
郡部	217114	28727	10484	18243	-7759	13390	3184	10206	-7022	15337	7300
計	27119109	8749186	4374593	4374593	-	3835356	1917678	1917678	-	4913830	0456915
市部	11279238	5252944	3346343	1906601	1439742	2403690	1435970	967720	468250	2849254	1910373
郡部	15839871	3496242	1028250	2467992	-1439742	1431666	481708	949958	-468250	2064576	546542

1) 其他 19,855名除外

移動量		移動率(%)											
		全體移動				市道内移動				市道間移動			
		總移動率	轉入率	轉出率	純移動率	總移動率	轉入率	轉出率	純移動率	總移動率	轉入率	轉出率	純移動率
247958	934669	55.7	37.5	18.2	19.3	26.2	13.1	13.1	-	30.6	24.4	6.2	19.3
127329	180361	40.4	25.7	14.6	11.1	13.6	6.8	6.8	-	26.7	18.9	7.8	11.1
320636	23749	32.9	16.9	16.1	0.8	10.1	5.0	5.0	-	22.8	11.8	11.0	0.8
74225	47342	38.1	24.4	13.7	10.7	13.3	9.0	4.3	4.7	24.8	15.4	9.4	6.0
246411	-23593	31.0	14.1	16.9	-2.9	8.9	3.6	5.3	-1.7	22.1	10.5	11.6	-1.1
184696	-81604	31.8	13.3	18.5	-5.2	13.6	6.8	6.8	-	18.2	6.5	11.7	-5.2
55697	-25950	45.9	23.1	22.8	0.3	20.1	14.1	6.0	8.1	25.8	9.0	16.8	-7.8
128999	-55654	28.1	10.7	17.3	-6.6	11.9	4.9	7.0	-2.2	16.2	5.9	10.3	-4.5
163823	-108191	26.0	8.7	17.2	-8.5	8.7	4.4	4.4	-	17.3	4.4	12.9	-8.5
35041	-21175	42.6	21.1	21.5	-0.3	18.4	14.3	4.1	10.2	24.2	6.9	17.4	-10.5
128782	-87016	22.8	6.4	16.5	-10.1	6.9	2.5	4.4	-1.9	15.9	3.9	12.0	-8.1
307572	-211033	24.3	7.9	16.5	-8.6	8.0	4.0	4.0	-	16.4	3.9	12.5	-8.6
59852	-13406	37.9	21.6	16.3	5.3	13.1	10.8	2.4	8.4	24.8	10.8	14.0	-3.1
247720	-197627	21.5	5.0	16.5	-11.5	6.9	2.5	4.3	-1.8	14.6	2.5	12.2	-9.7
205688	-151670	23.1	7.9	15.2	-7.3	10.6	5.3	5.3	-	12.5	2.6	9.9	-7.3
53164	-28170	39.5	22.3	17.2	5.1	20.0	16.0	3.9	12.1	19.5	6.3	13.3	-7.0
152524	-123500	19.2	4.5	14.8	-10.3	8.3	2.7	5.6	-2.9	10.9	1.7	9.1	-7.4
277697	-220410	21.6	7.6	14.0	-6.5	11.8	5.9	5.9	-	9.8	1.7	8.1	-6.5
88056	-60886	36.9	20.2	16.7	3.5	22.0	16.7	5.3	11.4	15.0	3.5	11.4	-7.9
189641	-159524	17.1	3.9	13.3	-9.4	8.8	2.7	6.1	-3.3	8.3	1.1	7.2	-6.0
302371	-158611	27.3	11.6	15.7	-4.0	16.0	8.0	8.0	-	11.3	3.6	7.7	-4.0
118590	-25711	41.2	25.8	15.4	10.4	23.8	18.2	5.7	12.5	17.4	7.6	9.8	-2.1
183781	-132900	21.1	5.3	15.8	-10.4	12.5	3.5	9.0	-5.6	8.6	1.9	6.7	-4.9
307063	-209761	24.5	8.4	16.2	-7.8	9.5	4.7	4.7	-	15.0	3.6	11.4	-7.8
74926	-18821	39.8	22.8	17.0	5.7	17.3	13.1	4.1	9.0	22.5	9.6	12.9	-3.2
232137	-190940	20.3	4.4	15.9	-11.5	7.3	2.4	4.9	-2.5	13.0	2.0	11.0	-9.1
12083	2495	16.2	8.5	7.7	0.8	7.5	3.8	3.8	-	8.7	4.8	3.9	0.8
4046	3232	23.6	17.5	6.0	11.5	10.9	9.4	1.5	7.9	12.7	8.2	4.5	3.6
8037	-737	13.2	4.8	8.4	-3.6	6.2	1.5	4.7	-3.2	7.1	3.4	3.7	-0.3
2456915	-	32.3	16.1	16.1	-	14.1	7.1	7.1	-	18.1	9.1	9.1	-
938881	971492	46.6	29.7	16.9	12.8	21.3	12.7	8.6	4.2	25.3	16.9	8.3	8.6
1518034	-971492	22.1	6.5	15.6	-9.1	9.0	3.0	6.0	-3.0	13.0	3.5	9.6	-6.1

表 1-2 1970~1975 5歲以上 移動人口의 地域別 移動量 및 移動率 (%)

市道別 及 市部 郡部別	全 國 人口數 (5歲以上)	全體移動量				市道內移動量				市道間	
		總移 動量	轉入 量	轉出 量	純移 動量	總移 動量	轉入 量	轉出 量	純移 動量	總移 動量	轉入 量
서울	6064134	3441515	1985256	1456259	528997	1864062	932031	932031	-	1577453	1053225
釜山	2140933	916898	561948	354950	206998	371348	185674	185674	-	545550	376274
京畿	3540490	1311899	783893	528006	255887	391450	195725	195725	-	920449	588168
市部	1433121	640984	440603	200381	240222	185346	116181	69165	47016	455638	324422
郡部	2107369	670915	343290	327625	15665	206104	79544	126560	-47016	464811	263746
江原	1618863	475448	182356	293082	-110736	195466	97733	97933	-	279982	84623
市部	369736	156679	71310	85369	-14059	64830	44442	20388	24054	91849	26868
郡部	1249127	318769	111046	207723	-96677	130636	53291	77345	-24054	188133	57755
忠北	1343615	337752	129064	208688	-79624	122082	61041	61041	-	215670	68023
市部	262108	107868	62884	44984	17900	46743	37806	8937	28869	61125	25078
郡部	1081507	229884	66180	163704	-97524	75339	23235	52104	-28869	154545	42945
忠南	2591202	604949	223181	381768	-158587	201076	100538	100538	-	403873	122643
市部	527949	189438	103350	86088	17262	61782	45638	16144	29494	127656	57712
郡部	2063253	415511	119831	295680	-175849	139294	54900	84394	-29494	276217	64931
全北	2138163	473511	170301	303210	-132909	208590	104295	104295	-	264921	66006
市部	506295	175617	95177	80440	14737	86091	65250	20841	44409	89526	29927
郡部	1631868	297894	75124	222770	-147646	122499	39045	83454	-44409	175395	36079
全南	3480865	748931	248047	500884	-252837	366724	183362	183362	-	382207	64685
市部	902573	301387	165992	135395	30597	165426	130706	34720	95986	135961	35286
郡部	2578292	447544	82055	365489	-283434	201298	52656	148642	-95986	246246	29399
慶北	4293816	1179184	542955	636209	-93254	686350	343175	343175	-	492814	199780
市部	1508291	573724	336682	237042	99640	331349	219865	111484	108381	242375	116817
郡部	2785525	605440	206273	399167	-192894	355001	123310	231691	-108381	250439	82963
慶南	2885030	734002	292204	441798	-149594	291586	145793	145793	-	442416	146411
市部	869714	314237	188135	126102	62033	134983	101860	33123	68737	179254	86275
郡部	2015316	419765	104069	315696	-211627	156603	43933	112670	-68737	263162	60136
濟州	352865	77919	31789	46130	-14341	24164	12082	12082	-	53755	19707
市部	114741	44419	18055	26364	-8309	10319	8488	1831	6657	34100	9567
郡部	238124	33500	13734	19766	-6032	13845	3594	10251	-6657	19655	10140
計	30451612	10301988	5150994	5150994	-	4722898	2361449	2361449	-	5579090	2789545
市部	14899595	6862766	4029392	2833374	1196018	322279	1887941	1434338	453603	3540487	2141451
郡部	15752017	3439222	1121602	2317620	-1196018	1400619	473508	927111	-453603	2038603	648094

移動量		移動率(%)											
轉出量	純移動量	全體移動				市道內移動				市道間移動			
		總移動率	轉入率	轉出率	純移動率	總移動率	轉入率	轉出率	純移動率	總移動率	轉入率	轉出率	純移動率
524228	528997	56.8	32.7	24.0	8.7	30.7	15.4	15.4	-	26.0	17.4	8.6	8.7
169276	206998	42.8	26.2	16.6	9.7	17.9	8.7	8.7	-	25.5	17.6	7.9	9.7
332281	255887	37.1	22.1	14.9	7.2	11.1	5.5	5.5	-	26.0	16.6	9.4	7.2
131216	193206	44.7	30.7	14.0	16.8	12.9	8.1	4.8	3.3	31.8	22.6	9.2	13.5
201065	62681	31.8	16.3	15.5	0.7	9.8	3.8	6.0	-2.2	22.1	12.5	9.5	3.0
195359	-110736	29.4	11.3	18.1	-6.8	12.1	6.0	6.0	-	17.3	5.2	12.1	-6.8
64981	-38113	42.4	19.3	23.1	-3.8	17.5	12.0	5.5	6.5	24.8	7.3	17.6	-10.3
130378	-72623	25.5	8.9	16.6	-7.7	10.5	4.3	6.2	-1.9	15.1	4.6	10.4	-5.8
147647	-79624	25.1	9.6	15.5	-5.9	9.1	4.5	4.5	-	16.1	5.1	11.0	-5.9
36047	-10969	41.2	24.0	17.2	6.8	17.8	14.4	3.4	11.0	23.3	9.6	13.8	-4.2
111600	-68655	21.3	6.1	15.1	-9.0	7.0	2.1	4.8	-2.7	14.3	4.0	10.3	-6.3
281230	-158587	23.3	8.6	14.7	-6.1	7.8	3.9	3.9	-	15.6	4.7	10.9	-6.1
69944	-12232	35.9	19.6	16.3	3.3	11.7	8.6	3.1	5.6	24.2	10.9	13.2	-2.3
211286	-146355	20.1	5.8	14.3	-8.5	6.8	2.7	4.1	-1.4	13.4	3.1	10.2	-7.1
198915	-132909	22.1	8.0	14.2	-6.2	9.8	4.9	4.9	-	12.4	3.1	9.3	-6.2
59599	-29672	34.7	18.8	15.9	2.9	17.0	12.9	4.1	8.8	17.7	5.9	11.8	-5.9
139316	-103237	18.3	4.6	13.7	-9.0	7.5	2.4	5.1	-2.7	10.7	2.2	8.5	-6.3
317522	-252837	21.5	7.1	14.4	-7.3	10.5	5.3	5.3	-	11.0	1.9	9.1	-7.3
100675	-65389	33.4	18.4	15.0	3.4	18.3	14.5	3.8	10.6	15.1	3.9	11.2	-7.2
216847	-187448	17.4	3.2	14.2	-11.0	7.8	2.0	5.8	-3.7	9.6	1.1	8.4	-7.3
293034	-93254	27.5	12.6	14.8	-2.2	16.0	8.0	8.0	-	11.5	4.7	6.8	-2.2
125558	-8741	38.0	22.3	15.7	6.6	22.0	14.6	7.4	7.2	16.1	7.7	8.3	-0.6
167476	-84513	21.7	7.4	14.3	-6.9	12.7	4.4	8.3	-3.9	9.0	3.0	6.0	-3.0
296005	-149594	25.4	10.1	15.3	-5.2	10.1	5.1	5.1	-	15.3	5.1	10.3	-5.2
92979	-6704	36.1	21.6	14.5	7.1	15.5	11.7	3.8	7.9	20.8	9.9	10.7	-0.8
203026	-142890	20.8	5.2	15.7	-10.5	7.8	2.2	5.6	-3.4	13.1	3.0	10.1	-7.1
34048	-14341	22.1	9.0	13.1	-4.1	6.8	3.4	3.4	-	15.2	5.6	9.6	-4.1
24533	-14966	38.7	15.7	23.0	-7.2	9.0	7.4	1.6	5.8	29.7	8.3	21.4	-13.0
9515	625	14.1	5.8	8.3	-2.5	5.8	1.5	4.3	-2.8	8.3	4.3	4.0	0.3
2789545	-	33.8	16.9	16.9	-	15.5	7.8	7.8	-	18.3	9.2	-9.2	-
1399036	742415	46.7	27.4	19.3	8.1	22.6	12.8	9.8	3.1	24.1	14.6	9.5	5.1
1390509	-742415	21.8	7.1	14.7	-7.6	8.9	3.0	5.9	-2.9	12.9	4.1	8.8	-4.7

表 1-3 1975~1980 5歲以上 移動人口의 地域別 移動量 및 移動率 (%)

市道別 및 市部 郡部別	全 國 人口數 (5歲以上)	全體移動量				市道內移動量				市道間	
		總移 動量	轉入 量	轉出 量	純移 動量	總移 動量	轉入 量	轉出 量	純移 動量	總移 動量	轉入 量
서울	7529506	5227802	2853647	2374155	479492	3242660	1621330	1621330	-	1985142	1232317
釜山	2814725	1514538	915769	598769	317000	755600	377800	377800	-	758938	537969
京畿	4382930	1949697	1206551	743146	463405	612190	306095	306095	-	1337507	900456
市部	2091480	1064787	759587	505200	454387	926925	198728	128197	70531	737862	560859
郡部	2291450	884910	446964	437946	9018	285265	107367	177898	-70531	599645	339597
江原	1603075	597930	213489	384441	-170952	218728	109364	109364	-	379202	104125
市部	523064	215886	106451	109435	-2984	89878	63172	26706	36466	126008	43279
郡部	1080011	382044	107038	275006	-167968	128850	46192	82658	-36466	253194	60846
忠北	1289593	409309	137024	272285	-135261	128576	64288	64288	-	280733	72736
市部	405066	172300	87631	84669	-2962	62139	47375	14764	32611	110161	40256
郡部	884527	237009	49393	187616	-138223	66437	16913	49524	-32611	170572	32480
忠南	2663692	783921	308205	475716	-167511	287718	143859	143859	-	496203	164346
市部	687870	289005	169407	99598	69809	109451	82919	26532	56387	159554	86488
郡部	1975822	514916	138798	376118	-237320	178267	60940	117327	-56387	336649	77858
全北	2061320	562840	176800	386040	-209240	229182	111591	111591	-	339658	65209
市部	606072	212411	123907	88504	35403	102527	83324	19203	64121	109884	40583
郡部	1455248	350429	52893	297536	-244643	120655	28267	92388	-64121	229774	24626
全南	3399989	1058314	358557	699757	-341200	541812	270906	270906	-	516502	87651
市部	1089507	466476	263344	203132	60212	288276	210883	77393	133490	178200	52461
郡部	2310482	591838	95213	496625	-401412	253536	60023	193513	-133490	338302	35190
慶北	4478463	1959742	910825	1048917	-138092	1297126	648563	648563	-	662616	262262
市部	2048724	1187590	701816	485774	218042	817538	516216	301322	214894	370052	185600
郡部	2429739	772152	209009	563143	-351134	479588	132347	347241	-214894	292564	76662
慶南	2974850	1098018	502687	595331	-92644	419916	209958	209958	-	678102	292729
市部	1192259	550189	373466	176723	196743	219791	161450	58341	103109	330398	212016
郡部	1782591	547829	129221	418608	289387	200125	48508	151617	-103109	347704	80713
濟州	413980	74807	34905	39902	-4997	30480	15240	15240	-	44327	19665
市部	148149	34506	24057	10449	-13608	13531	11867	1664	10203	20975	12190
郡部	265831	40301	10848	29453	-18605	16949	3373	13576	-10203	23352	7475
計	33612123	15236918	7618459	7618459	-	7757988	3878994	3878994	-	7478930	3739465
市部	19136422	10915490	6379082	4536408	1842674	6028316	3375064	2653252	721812	4887174	3004018
郡部	4321428	4321428	1239377	3082051	-1842674	1729672	503930	1225742	-721812	2591756	735447

1) 外國 및 未詳 39,876名除外

移動量		移動率(%)											
轉出量	純移動量	全國移動				市道內移動				市道間移動			
		總移動率	轉入率	轉出率	純移動率	總移動率	轉入率	轉出率	純移動率	總移動率	轉入率	轉出率	純移動率
752825	479492	69.4	37.9	31.5	6.4	43.1	21.5	21.5	-	26.4	16.4	10.0	6.4
220969	317000	53.8	32.5	21.3	11.3	28.8	13.4	13.4	-	27.0	19.1	7.9	11.3
437051	463405	44.5	27.5	17.0	10.6	14.0	7.0	7.0	-	30.5	20.5	10.0	10.6
177003	383856	50.9	36.3	14.6	21.7	15.6	8.5	6.1	3.4	35.3	26.8	8.5	18.4
260048	119549	38.6	19.5	19.1	0.4	12.4	4.7	7.8	-3.1	26.2	14.8	11.3	3.5
275077	-170952	37.3	13.3	24.0	-10.7	13.6	6.8	6.8	-	23.7	6.5	17.2	-10.7
82729	-39450	41.3	20.4	20.9	-0.6	17.2	12.1	5.1	7.0	24.1	8.3	15.8	-7.5
192348	-131502	35.4	9.9	25.5	-15.6	11.9	4.3	7.7	-3.4	23.4	5.6	17.8	-12.2
207997	-135261	31.7	10.6	21.1	-10.5	10.0	5.0	5.0	-	21.8	5.6	16.1	-10.5
69905	-29649	42.5	21.6	20.9	0.7	15.3	11.7	3.6	8.1	27.2	9.9	17.3	-7.3
138092	-105612	26.8	5.6	21.2	-15.6	7.5	1.9	5.6	-3.7	19.3	3.7	15.6	-11.9
331857	-167511	29.4	11.6	17.9	-6.3	10.8	5.4	5.4	-	18.6	6.2	12.5	-6.3
73066	13422	39.1	24.6	14.5	10.1	15.9	12.1	3.9	8.2	23.2	12.6	10.6	2.0
258791	-180933	26.1	7.0	19.0	-12.0	9.0	3.1	5.9	-2.9	17.0	3.9	13.1	-9.2
274449	-208240	27.3	8.6	18.7	-10.2	10.8	5.4	5.4	-	16.5	3.2	13.3	-10.2
69301	-28718	35.0	20.4	14.6	5.8	16.9	13.7	3.2	10.6	18.1	6.7	11.4	-4.7
205148	-180522	24.1	3.6	20.4	-16.8	8.3	1.9	6.3	-4.4	15.8	1.7	14.1	-12.4
428851	-341200	31.1	10.5	20.6	-10.0	156.9	8.0	8.0	-	15.2	2.6	12.6	-10.0
125739	-73278	42.8	24.2	18.6	5.5	26.5	19.4	7.1	12.3	16.4	4.8	11.5	-6.7
303112	-267922	25.6	4.1	21.5	-17.4	11.0	2.6	8.4	-5.8	14.6	1.5	13.1	-11.6
400354	-138092	43.8	20.3	23.4	-3.1	29.0	14.5	14.5	-	14.8	5.9	8.9	-3.1
184452	1148	58.0	34.3	23.7	10.5	39.9	25.2	14.7	10.5	18.1	9.1	9.0	0.1
215902	-138240	31.8	8.6	23.2	-14.6	19.7	5.4	14.3	-8.8	12.0	3.2	8.9	-5.7
385373	-92644	36.9	16.9	20.0	-3.1	14.1	7.1	7.1	-	22.8	9.8	13.0	-3.1
118382	93644	46.1	31.3	14.8	16.5	18.4	13.5	4.9	8.6	27.7	17.8	9.9	7.8
266991	-186278	30.7	7.2	23.5	-16.2	11.2	2.7	8.5	-5.8	19.5	4.5	15.0	-10.4
24662	-4997	18.1	8.4	9.6	-1.2	7.4	3.7	3.7	-	10.7	4.8	6.0	-1.2
8781	3405	23.3	16.2	7.1	9.2	9.1	8.0	1.1	6.9	14.2	8.2	5.9	2.3
15877	-8402	15.2	4.1	11.1	-7.0	6.4	1.3	5.1	-3.8	8.8	2.8	6.0	-3.2
3739465	-	45.3	22.7	22.7	-	23.1	11.5	11.5	-	22.3	11.1	11.1	-
1883156	1120862	57.0	33.3	23.7	9.6	31.5	17.6	13.9	3.8	25.5	15.7	9.8	5.9
1856309	-1120862	29.9	8.6	21.3	-12.7	11.9	3.5	8.5	-5.0	17.9	5.1	12.8	-7.7

表 1-4 1980~1985 5歲以上 移動人口의 地域別 移動量 및 移動率 (%)

市道別 및 市部 郡部別	全 國 人口數 (5歲以上)	全體移動量				市道內移動量				市道間	
		總移 動量	轉入 量	轉出 量	純移 動量	總移 動量	轉入 量	轉出 量	純移 動量	總移 動量	轉入 量
서울	8788630	5479222	2871419	2607803	263616	3053048	1526524	1526524	-	2426174	1344895
釜山	3181867	1507852	800207	707645	92562	751934	375967	375967	-	755918	424240
大邱	1847848	978963	562519	416444	146075	462884	231442	231442	-	516079	331077
仁川	1233323	601316	395139	206177	188962	141134	70567	70567	-	460182	324572
京畿	4269380	2122138	1397199	784899	552260	485224	242612	242612	-	1636914	1094587
市部	1946123	1114722	778925	335797	443128	223663	130109	93554	36555	891059	648816
郡部	2323257	1007416	558274	449142	109132	261561	112503	149058	-36555	745855	445771
江原	1567828	612434	235546	376888	-141342	220024	110012	110012	-	392410	125534
市部	657025	273202	136672	136530	142	106600	70575	36025	34550	166602	66097
郡部	910803	339232	98874	240358	-141482	113424	39437	73987	-34550	225808	59437
忠北	1271998	462850	180172	282478	-102306	156196	78098	78098	-	306454	102074
市部	512234	214194	122436	91758	30678	76118	59735	16383	43352	138076	62701
郡部	759764	248456	57736	190720	-132984	80078	18363	61715	-43352	168378	39373
忠南	2745409	851328	344303	507025	-162722	315390	157695	157695	-	535938	186606
市部	935962	355651	226839	128812	98027	144791	108951	35840	73111	210860	117898
郡部	1809447	495677	117464	378213	-260749	170599	48744	121855	-73111	325078	68720
全北	2017783	624640	217915	406725	-188810	265210	132605	132605	-	359430	85310
市部	855417	295165	165085	130080	35005	140333	107834	32499	75335	154832	57251
郡部	1162366	329475	52830	276645	-223815	124877	24771	100106	-75335	204598	28059
全南	3424640	1168658	435364	733294	-297930	615732	307866	307866	-	552926	127498
市部	1352150	572742	309593	263149	46444	352818	239126	113692	1254334	219924	70467
郡部	2072490	595916	125771	470145	-344374	262914	68740	194174	-125434	333002	57031
慶北	2756425	1028289	361219	667070	-305851	315924	157962	157962	-	712365	203257
市部	767650	354462	194077	160385	33692	130403	97657	32746	64911	224059	96420
郡部	1988775	673827	167142	506685	-339543	185521	60305	125216	-64911	488306	106837
慶南	3167668	1187432	575227	612205	-36978	476464	238232	238232	-	710969	336995
市部	1543385	667050	403722	263328	140394	277350	178194	99156	79038	389700	225528
郡部	1624283	520382	171505	348877	-177372	199114	60038	139076	-79038	321268	111467
濟州	444298	106128	49296	56832	-7536	49072	24536	24536	-	57056	24760
市部	256621	65891	41317	24574	16743	27772	21004	6775	14229	38112	20313
郡部	187677	40237	7979	32258	-24279	21293	3532	17761	-14229	18944	4447
計	36717097	16731050	8365525	8365525	-	7308236	3654118	3654118	-	9422814	4711407
市部	23878235	2480432	7007950	5472482	1535468	5888855	3217685	2671170	546515	6591577	3790265
郡部	12838862	425618	1357575	2893043	-1535468	1419381	436433	982948	-546515	2831237	921142

1) 外國人 28,834名은 除外.

2) 其他 및 未詳 36,436名 除外.

移動量		移動率(%)											
		全體移動				市道内移動				市道間移動			
轉出量	純移動量	總移動率	轉入率	轉出率	純移動率	總移動率	轉入率	轉出率	純移動率	總移動率	轉入率	轉出率	純移動率
1081279	263616	62.3	32.7	29.0	3.0	34.7	17.4	17.4	-	27.6	15.3	12.3	3.0
331678	92562	47.4	25.1	22.2	2.9	23.6	11.8	11.8	-	23.8	13.3	10.4	2.9
185002	146075	53.0	30.4	22.5	7.9	25.0	12.5	12.5	-	27.9	17.9	10.0	7.9
135610	188962	48.8	32.0	16.7	15.3	11.4	5.7	5.7	-	37.3	26.3	11.0	15.3
542327	552260	49.7	31.3	18.4	12.9	11.4	5.7	5.7	-	38.3	25.6	12.7	12.9
242243	406573	57.3	40.0	17.3	22.8	11.5	6.7	4.8	1.9	45.8	33.3	12.4	20.9
300084	145687	43.4	24.0	19.3	4.7	11.3	4.8	6.4	-1.6	32.1	19.2	12.9	6.3
266876	-141342	39.1	15.0	24.0	-9.0	14.0	7.0	7.0	-	25.0	8.0	17.0	-9.0
100505	-34408	41.6	20.8	20.8	0.1	16.2	10.7	5.5	5.3	25.4	10.1	15.3	-5.2
166371	-106934	37.2	10.9	26.4	-15.5	12.5	4.3	8.1	-3.8	24.8	6.5	18.3	-11.7
204380	-102306	36.2	14.2	22.2	-8.0	12.3	6.1	6.1	-	24.1	8.0	16.1	-8.0
75375	-12674	41.8	23.9	17.9	6.0	14.9	11.7	3.2	8.5	27.0	12.2	14.7	-2.5
129005	-89632	32.7	7.6	25.1	-17.5	10.5	2.4	8.1	-5.7	22.2	5.2	17.0	-11.8
349330	-162722	31.0	12.5	18.5	-5.9	11.5	5.7	5.7	-	19.5	6.8	12.7	-5.9
92972	24916	38.0	24.2	13.8	10.5	15.5	11.6	3.8	7.8	22.5	12.6	9.9	2.7
256358	-187638	27.4	6.5	20.9	-14.4	9.4	2.7	6.7	84.0	18.0	3.8	14.2	-10.4
274120	-188810	31.0	10.8	20.2	-9.4	13.1	6.6	6.6	-	17.8	4.2	13.6	-9.4
97581	-40330	34.5	19.3	15.2	4.1	16.4	12.6	3.8	8.8	18.1	6.7	11.4	-4.7
176539	-148480	28.3	4.5	23.8	-19.3	10.7	2.1	8.6	-6.5	17.6	2.4	15.2	-12.8
425428	-297930	34.1	12.7	21.4	-8.7	18.0	9.0	9.0	-	16.1	3.7	12.4	-8.7
149457	-78990	42.4	22.9	19.5	3.4	26.1	17.7	8.4	9.3	16.3	5.2	11.1	-5.8
275971	-218940	28.8	6.1	22.7	-16.6	12.7	3.3	9.4	-6.1	16.1	2.8	13.3	-10.6
509108	-305851	37.3	13.1	24.2	-11.1	11.5	5.7	5.7	-	25.8	7.4	18.5	-11.1
127639	-31219	46.2	25.3	20.9	4.4	17.0	12.7	4.3	8.5	29.2	12.6	16.6	-4.1
381469	-274632	33.9	8.4	25.5	-17.1	9.3	3.0	6.3	-3.3	24.6	5.4	19.2	-13.8
373973	-36978	37.5	18.2	19.3	-1.2	15.0	7.5	7.5	-	22.4	10.6	11.8	-1.2
164172	61356	43.2	26.2	17.1	9.1	18.0	11.5	6.4	5.1	25.2	14.6	10.6	4.0
209801	-98334	32.0	10.6	21.5	-10.9	12.3	3.7	8.6	-4.9	19.8	6.9	12.9	-6.1
32296	-7536	23.9	11.1	12.8	-1.7	11.0	5.5	5.5	-	12.8	5.6	7.3	-1.7
17799	2514	25.7	16.1	9.6	6.5	10.8	8.2	2.6	5.5	8.2	7.9	6.9	1.0
14497	-10050	21.4	4.3	17.2	-12.9	11.4	1.9	9.5	-7.6	10.1	2.4	7.7	-5.4
4711497	-	45.6	22.8	22.8	-	19.9	10.0	10.0	-	25.7	12.8	12.8	-
2801312	988953	52.3	29.3	22.9	6.4	24.7	13.5	11.2	2.3	27.6	15.9	11.7	4.1
1910095	-988953	33.1	10.6	22.5	-12.0	11.1	3.4	7.7	-4.3	22.1	7.2	14.9	-7.7

表 2-1 5歲以上移動人口의 時期別 移動率 (全體移動人口)

市道別 市郡部別	人口數(5歲以上人口)				總移動率 $\left(\frac{m^1+m^0}{p}\right)$			
	1970	1975	1980	1985	1965 ~70	1970 ~75	1975 ~80	1980 ~85
서울	4,843,113	6,064,134	7,529,506	8,788,630	55.7	56.8	69.4	62.3
釜山	1,628,471	2,140,933	2,814,725	3,181,867	40.4	42.8	53.8	47.4
大邱				1,847,848				53.0
仁川				1,233,323				48.8
京畿	2,911,309	3,540,490	4,382,930	4,269,380	32.9	37.1	44.5	49.7
市部	790,651	1,433,121	2,091,480	1,946,123	38.1	44.7	50.9	57.3
郡部	2,120,658	2,107,369	2,291,450	2,323,257	31.0	31.8	38.6	43.4
江原	1,581,306	1,618,863	1,603,075	1,567,828	31.8	29.4	37.3	39.1
市部	331,736	369,736	523,064	657,025	45.9	42.4	41.3	41.6
郡部	1,249,570	1,249,127	1,080,011	910,803	28.1	25.5	35.4	37.2
忠北	1,271,677	1,343,615	1,289,593	1,271,998	26.0	25.1	31.7	36.2
市部	201,850	262,108	405,066	512,234	42.6	41.2	42.5	41.8
郡部	1,069,827	1,081,507	884,527	759,764	22.8	21.3	26.8	32.7
忠南	2,465,830	2,591,202	2,663,692	2,745,409	24.3	23.3	29.4	31.0
市部	428,709	527,949	687,870	935,962	37.9	35.9	39.1	38.0
郡部	2,037,121	2,063,253	1,975,822	1,809,447	21.5	20.1	26.1	27.4
全北	2,070,196	2,138,163	1,061,320	2,017,783	23.1	22.1	27.3	31.0
市部	399,807	506,295	606,072	855,417	39.5	34.7	35.0	34.5
郡部	1,670,389	1,631,868	1,455,248	1,162,366	19.2	18.3	24.1	28.3
全南	3,407,918	3,480,865	3,399,989	3,424,640	21.6	21.5	31.1	34.1
市部	769,712	902,573	1,089,507	1,352,150	36.9	33.4	42.8	42.4
郡部	2,638,206	2,578,292	2,310,482	2,072,490	17.1	17.4	25.6	28.8
慶北	3,941,829	4,293,816	4,478,463	2,756,425	27.3	27.5	43.8	37.3
市部	1,214,128	1,508,291	2,048,724	767,650	41.2	38.0	58.0	46.2
郡部	2,727,701	2,785,525	2,429,739	1,988,775	21.1	21.7	31.8	33.9
慶南	2,691,167	2,885,030	2,974,850	3,167,668	24.5	25.4	36.9	37.5
市部	581,882	869,714	1,192,259	1,543,385	39.8	36.1	46.1	43.2
郡部	2,109,285	2,015,316	1,782,591	1,624,283	20.3	20.8	30.7	32.0
濟州	306,293	352,865	413,980	444,298	16.2	22.1	18.1	23.9
市部	89,179	114,741	148,149	256,621	23.6	38.7	23.3	25.7
郡部	217,114	238,124	265,831	187,677	13.2	14.1	15.2	21.4
計	27,119,109	30,451,612	33,612,123	36,717,097	32.3	33.8	45.3	45.6
市部	11,279,238	14,699,595	19,136,422	23,878,235	46.6	46.7	57.0	52.3
郡部	15,839,871	15,752,017	14,475,701	12,838,862	22.1	21.8	29.9	53.1

轉入率(m ¹ /p)				轉出率(m ⁰ /p)				純移動率 $\left(\frac{m^1+m^0}{p}\right)$			
1965 ~70	1970 ~75	1975 ~80	1980 ~85	1965 ~70	1970 ~75	1975 ~80	1980 ~85	1965 ~70	1970 ~75	1975 ~80	1980 ~85
37.5	32.7	37.9	32.7	18.2	24.0	31.5	29.0	19.3	8.7	6.4	3.0
25.7	26.2	32.5	25.1	14.6	16.6	21.3	22.2	11.1	9.7	11.3	2.9
			30.4				22.5				7.9
			32.0				16.7				15.3
16.9	22.1	27.5	31.3	16.1	14.9	17.0	18.4	0.8	7.2	10.6	12.9
24.4	30.7	36.3	40.0	13.7	14.0	14.6	17.3	10.7	16.8	21.7	22.8
14.1	16.3	19.5	24.0	16.9	15.5	19.1	19.3	-2.9	0.7	0.4	4.7
13.3	11.3	13.3	15.0	18.5	18.1	24.0	24.0	-5.2	-6.8	-10.7	-9.0
23.1	19.3	20.4	20.8	22.8	23.1	20.9	20.8	0.3	-3.8	-0.6	0.1
10.7	8.9	9.9	10.9	17.3	16.6	25.5	26.4	-6.6	-7.7	-15.6	-15.5
8.7	9.6	10.6	14.2	17.2	15.5	21.1	22.2	-8.5	-5.9	-10.5	-8.0
21.1	24.0	21.6	23.9	21.5	17.2	20.9	17.9	-0.3	6.8	0.7	6.0
6.4	6.1	5.6	7.6	16.5	15.1	21.2	25.1	-10.1	-9.0	-15.6	-17.5
7.9	8.6	11.6	12.5	16.5	14.7	17.9	18.5	-8.6	-6.1	-6.3	-5.9
21.6	19.6	24.6	24.2	16.3	16.3	14.5	13.8	5.3	3.3	10.1	10.5
5.0	5.8	7.0	6.5	16.5	14.3	19.0	20.9	-11.5	-8.5	-12.0	-14.4
7.9	8.0	8.6	10.8	15.2	14.2	18.7	20.2	-7.3	-6.2	-10.2	-9.4
22.3	18.8	20.4	19.3	17.2	15.9	14.6	15.2	5.1	2.9	5.8	4.1
4.5	4.6	3.6	4.5	14.8	13.7	20.4	23.8	-10.3	-9.0	-16.8	19.3
7.6	7.1	10.5	12.7	14.0	14.4	20.6	21.4	-6.5	-7.3	-10.0	-8.7
20.2	18.4	24.2	22.9	16.7	15.0	18.6	19.5	3.5	3.4	5.5	3.4
3.9	3.2	4.1	6.1	13.3	14.2	21.5	22.7	-9.4	-11.0	-17.4	-16.6
11.6	12.6	20.3	13.1	15.7	14.8	23.4	24.2	-4.0	-2.2	-3.1	-11.1
25.8	22.3	34.3	25.3	15.4	15.7	23.7	20.9	10.4	6.6	10.5	4.4
5.3	7.4	8.6	8.4	15.8	14.3	23.2	25.5	-10.4	-6.9	-14.6	-17.1
8.4	10.1	16.9	18.2	16.2	15.3	20.0	19.3	-7.8	-5.2	-3.1	-1.2
22.8	21.6	31.3	26.2	17.0	14.5	14.8	17.1	5.7	7.1	16.5	9.1
4.4	5.2	7.2	10.6	15.9	15.7	23.5	21.5	-11.5	-10.5	-16.2	-10.9
8.5	9.0	8.4	11.1	7.7	73.1	9.6	12.8	0.8	-4.1	-1.2	-1.7
17.5	15.7	16.2	16.1	6.0	23.0	7.1	9.6	11.5	-7.2	9.2	6.5
4.8	5.8	4.1	4.3	8.4	8.3	11.1	17.2	-3.6	-2.5	-7.0	-12.9
16.1	16.9	22.7	22.8	16.1	16.9	22.7	22.8	-	-	-	-
29.7	27.4	33.3	29.3	16.9	19.3	23.7	22.9	12.8	8.1	9.6	6.4
6.5	7.1	8.6	10.6	15.6	14.7	21.3	22.5	-9.1	-7.6	-12.7	-12.0

表 2-2 5歳以上移動人口の時期別 移動率(市道間移動人口)

市道別 区	人口数 (5歳以上人口)				純移動率 $\left(\frac{mi+m'}{P}\right)$			
	1970	1975	1980	1985	1965 ~70	1970 ~75	1975 ~80	1980 ~85
市 部	4843113	6064134	7529506	8788630	30.6	26.0	26.4	27.6
釜 山	1628471	2140933	2814725	3181867	26.7	25.5	27.0	23.8
大 邱				1847848				27.9
仁 川				1233323				37.3
京 畿	2911309	3540490	4382930	4269380	22.8	26.0	30.5	38.3
市 部	790651	1433121	2091480	1946123	24.8	31.8	35.3	45.8
郡 部	2120658	2107369	2291450	2323257	22.1	22.1	26.2	32.1
江 原	1581306	1618863	1603075	1567828	18.2	17.3	23.7	25.0
市 部	331736	369736	523064	657025	25.8	24.8	24.1	25.4
郡 部	1249570	1249127	1080011	910803	16.2	15.1	23.4	24.8
忠 北	1271677	1343615	1289593	1271998	17.3	16.1	21.8	24.1
市 部	201850	262108	405066	512234	24.2	23.3	27.2	27.0
郡 部	1069827	1081507	884527	759764	15.9	14.3	19.3	22.2
忠 南	2465830	2591202	2663692	2745409	16.4	15.6	18.6	19.5
市 部	428709	527949	687870	935962	24.8	24.2	23.2	22.5
郡 部	2037121	2063253	1975822	1809447	14.6	13.4	17.0	18.0
全 北	2070196	2138163	2061320	2017783	12.5	12.4	16.5	17.8
市 部	399807	506295	606072	855417	19.5	17.7	18.1	18.1
郡 部	1670389	1631868	1455248	1162366	10.9	10.7	15.8	17.6
全 南	3407918	3480865	3399989	3424640	9.8	11.0	15.2	16.1
市 部	769712	902573	1089507	1352150	15.0	15.1	16.4	16.3
郡 部	2638206	2578292	2310482	2072490	8.3	9.6	14.6	16.1
慶 北	3941829	4293816	4478463	2756425	11.3	11.5	14.8	25.8
市 部	1214128	1508291	2048724	767650	17.4	16.1	18.1	29.2
郡 部	2727701	2785525	2429739	1988775	8.6	9.0	12.0	24.6
慶 南	2691167	2885030	2974850	3167668	15.0	15.3	22.8	22.4
市 部	581882	869714	1192259	1543385	22.5	20.6	27.7	25.2
郡 部	2109285	2015316	1782591	1624283	13.0	13.1	19.5	19.8
濟 州	306293	352865	413980	444298	8.7	15.2	10.7	12.8
市 部	89179	114741	148149	256621	12.7	29.8	14.2	8.2
郡 部	217114	238124	265831	187677	7.1	8.3	8.8	10.1
計	27119109	30451612	33612123	36717097	18.1	18.3	22.3	25.7
市 部	11279238	14699595	19136422	23878235	25.3	24.1	25.5	27.6
郡 部	15839871	15752017	14475701	12838862	13.0	12.9	17.9	22.1

轉入率(m'/P)				轉出率(m'/P)				純移動率 $\left(\frac{m'+m''}{P}\right)$			
1965 ~70	1970 ~75	1975 ~80	1980 ~85	1965 ~70	1970 ~75	1975 ~80	1980 ~85	1965 ~70	1970 ~75	1975 ~80	1980 ~85
24.4	17.4	16.4	15.3	6.2	8.6	10.0	12.3	19.3	8.7	6.4	3.0
18.9	17.6	19.1	13.3	7.8	7.9	7.9	10.4	11.1	9.7	11.3	2.9
			17.9				10.0				7.9
			26.3				11.0				15.3
11.8	16.6	20.5	25.6	11.0	9.4	10.0	12.7	0.8	7.2	10.6	12.9
15.4	22.6	26.8	33.3	9.4	9.2	8.5	12.4	6.0	13.5	18.4	20.9
10.5	12.5	14.8	19.2	11.6	9.5	11.3	12.9	-1.1	3.0	3.5	6.3
6.5	5.2	6.5	8.0	11.7	12.1	17.2	17.0	-5.2	-6.8	-10.7	-9.0
9.0	7.3	8.3	10.1	16.8	17.6	15.8	15.3	-7.8	-10.3	-7.5	-5.2
5.9	4.6	5.6	6.5	10.3	10.4	17.8	18.3	-4.5	-5.8	12.2	-11.7
4.4	5.1	5.6	8.0	12.9	11.0	16.1	16.1	-8.5	-5.9	-10.5	-8.0
6.9	9.6	9.9	12.2	17.4	13.8	17.3	14.7	-10.5	-4.2	7.3	-2.5
3.9	4.0	3.7	5.2	12.0	10.3	15.6	17.0	-8.1	-6.3	-11.9	-11.8
3.9	5.7	6.2	6.8	12.5	10.9	12.5	12.7	-8.6	-6.1	-6.3	-5.9
10.8	10.9	12.6	12.6	14.0	13.2	10.6	9.9	-3.1	-2.3	2.0	2.7
2.5	3.1	3.9	3.8	12.2	10.2	13.1	14.2	-9.7	-7.1	-9.2	-10.4
2.6	3.1	3.2	4.2	9.9	9.3	13.3	13.6	-7.3	-6.2	-10.2	-9.4
6.3	5.9	6.7	6.7	13.3	11.8	11.4	11.4	-7.0	-5.9	-4.7	-4.7
1.7	2.2	1.7	2.4	9.1	8.5	14.1	15.2	-6.5	-6.3	-12.4	-12.8
1.7	1.9	2.6	3.7	8.1	9.1	12.6	12.4	-6.5	-7.3	-10.0	-8.7
3.5	3.9	4.8	5.2	11.4	11.2	11.5	11.1	-7.9	-7.2	-6.7	-5.8
1.1	1.1	1.5	2.8	7.2	8.4	13.1	13.3	-6.0	-7.3	-11.6	-10.6
3.6	4.7	5.9	7.4	7.7	6.8	8.9	18.5	-4.0	-2.2	-3.1	-11.1
7.6	7.7	9.1	12.6	9.8	8.3	9.0	16.6	-2.1	-0.6	0.1	-4.1
1.9	3.0	3.2	5.4	6.7	6.0	8.9	19.2	-4.9	-3.0	-5.7	-13.8
3.6	5.1	9.8	10.6	11.4	10.3	13.0	11.8	-7.8	-5.2	-3.1	-1.2
9.6	9.9	17.8	14.6	12.9	10.7	9.9	10.6	-3.2	-0.8	7.8	4.0
2.0	3.0	4.5	6.9	11.0	10.1	15.0	12.9	-9.1	-7.1	-10.4	-6.1
4.8	5.6	4.8	5.6	3.9	9.6	6.0	7.3	0.8	-4.1	-1.2	-1.7
8.2	8.3	8.2	7.9	4.5	21.4	5.9	6.9	3.6	-13.0	2.3	1.0
3.4	4.3	2.8	2.4	3.7	4.0	6.0	7.7	-0.3	0.3	-3.2	-5.4
9.1	9.2	11.1	12.8	9.1	9.2	11.1	12.8	-	-	-	-
16.9	14.6	15.7	15.9	8.3	9.5	9.8	11.7	8.6	5.1	5.9	4.1
3.5	4.1	5.1	7.2	9.6	8.8	12.8	14.9	-6.1	-4.7	-7.7	-7.7

表 2-3 5歳以上移動人口の 時期別 移動率(市道間移動人口)

市道別 又 市・郡部別	人口数 (5歳以上人口)				純移動率 $\left(\frac{m'+m''}{P}\right)$			
	1970	1975	1980	1985	1965 ~70	1970 ~75	1975 ~80	1980 ~85
서울	4843113	6064134	7529506	8788630	26.2	30.7	43.1	34.7
釜山	1628471	2140933	2814725	3181867	13.6	17.3	26.8	23.6
大邱				1847848				25.0
仁川				1233323				11.4
京畿	2911309	3540490	4382930	4269380	10.1	11.1	14.0	11.4
市部	79065	1433121	2091480	1946123	13.3	12.9	15.6	11.5
郡部	2120658	2107369	2291450	2323257	8.9	9.8	12.4	11.3
江原	1581306	1618863	1603075	1567828	13.6	12.1	13.6	14.0
市部	331736	369736	523064	657025	20.1	17.5	17.2	16.2
郡部	1249570	1249127	1080011	910803	11.9	10.5	11.9	12.5
忠北	1271677	1343615	1289593	1271998	8.7	9.1	10.0	12.3
市部	201850	262108	405066	512234	18.4	17.8	15.3	14.9
郡部	1069820	1081507	884527	759764	6.9	7.0	7.5	10.5
忠南	2465830	2591202	2663892	2745409	8.0	7.8	10.8	11.5
市部	428709	527949	687870	935962	13.1	11.7	15.9	15.5
郡部	2037121	2063253	1975822	1809447	6.9	6.8	9.0	9.4
全北	2070196	2138163	2061320	2017783	10.6	9.8	10.8	13.1
市部	399807	506295	606072	855417	20.0	17.0	16.9	16.4
郡部	1670389	1631868	1455248	1162366	8.3	7.5	8.3	10.7
全南	3407918	3480865	3399989	3424640	11.8	10.5	15.9	18.0
市部	769912	902573	1089507	1352150	22.0	18.3	26.5	26.1
郡部	2638006	2578292	2310482	2072490	8.8	7.8	11.0	12.7
慶北	3941829	4293816	4478463	2756425	16.0	16.0	29.0	11.5
市部	1214128	1508291	2048724	767650	23.8	22.0	39.9	17.0
郡部	2727701	2785525	2429739	1988775	12.5	12.7	19.7	9.3
慶南	2691167	2885030	2974850	3167668	9.5	10.1	14.1	15.0
市部	581882	869714	1192259	1543385	17.3	15.5	18.4	18.0
郡部	2109285	2015316	1782591	1624283	7.3	7.8	11.2	12.3
濟州	306293	352865	413980	444298	7.5	6.8	7.4	11.0
市部	89077	114741	148149	256621	10.9	9.0	9.1	10.8
郡部	217216	238124	265831	187677	6.2	5.8	6.4	11.4
計	27119109	30451612	33612123	36717097	14.1	15.5	23.1	19.9
市部	11279238	14699595	19136422	23878235	21.3	22.6	31.5	24.7
郡部	15839801	15752017	14475701	12838862	9.0	8.9	11.9	11.1

轉入率(m'/P)				轉出率(m'/P)				純移動率 $\left(\frac{mi+m'}{P}\right)$			
1965 ~70	1970 ~75	1975 ~80	1980 ~85	1965 ~70	1970 ~75	1975 ~80	1980 ~85	1965 ~70	1970 ~75	1975 ~80	1980 ~85
13.1	15.4	21.5	17.4	13.1	15.4	21.5	17.4	-	-	-	-
6.8	8.7	13.4	11.8	6.8	8.7	13.4	11.8	-	-	-	-
			12.5				12.5				-
			5.7				5.7				-
5.0	5.5	7.0	5.7	5.0	5.5	7.0	5.7	-	-	-	-
9.0	8.1	9.5	6.7	4.3	4.8	6.1	4.8	4.7	3.3	3.4	1.9
3.6	3.8	4.7	4.8	5.3	6.0	7.8	6.4	-1.7	-2.2	-3.1	-1.6
6.8	6.0	6.8	7.0	6.8	6.0	6.8	7.0	-	-	-	-
14.1	12.0	12.1	10.7	6.0	5.5	5.1	5.5	8.1	6.5	7.0	5.3
4.9	4.3	4.3	4.3	7.0	6.2	9.7	8.1	-2.2	-1.9	-3.4	-3.8
4.4	4.5	5.0	6.1	4.4	4.5	5.0	6.1	-	-	-	-
14.3	14.4	11.7	11.7	4.1	3.4	3.6	3.2	10.2	11.0	8.1	8.5
2.5	2.1	1.9	2.4	4.4	4.8	5.6	8.1	-1.9	-2.7	-3.7	-5.7
4.0	3.9	5.4	5.7	4.0	3.9	5.4	5.7	-	-	-	-
10.8	8.6	12.1	11.6	2.4	3.1	3.9	3.8	8.4	5.6	8.2	7.8
2.5	2.7	3.1	2.7	4.3	4.1	5.9	6.7	-1.8	-1.4	-2.9	-4.0
5.3	4.9	5.4	6.6	5.3	4.9	5.4	6.6	-	-	-	-
16.0	12.9	13.7	12.6	3.9	4.1	3.2	3.8	12.1	8.8	10.6	8.8
2.7	2.4	1.9	2.1	5.6	5.1	6.3	8.6	-2.9	-2.7	-4.4	-6.5
5.9	5.3	8.0	9.0	5.9	5.3	8.0	9.0	-	-	-	-
16.7	14.5	19.4	17.7	5.3	3.8	7.1	8.4	11.4	10.6	12.3	9.3
2.7	2.0	2.6	3.3	6.1	5.8	8.4	9.4	-3.3	-3.7	-5.8	-6.1
8.0	8.0	14.5	5.7	8.0	8.0	14.5	5.7	-	-	-	-
18.2	14.6	25.2	12.7	5.7	7.4	14.7	4.3	12.5	7.2	10.5	8.5
3.5	4.4	5.4	3.0	9.0	8.3	14.3	6.3	-5.6	-3.9	-8.8	-3.3
4.7	5.1	7.1	7.5	4.7	5.1	7.1	7.5	-	-	-	-
13.1	11.7	13.5	11.5	4.1	3.8	4.9	6.4	9.0	7.9	8.6	5.1
2.4	2.2	2.7	3.7	4.9	5.6	8.5	8.6	-2.5	-3.4	-5.8	-4.9
3.8	3.4	3.7	5.5	3.8	3.4	3.7	5.5	-	-	-	-
9.4	7.4	8.0	8.2	1.5	1.6	1.1	2.6	7.9	5.8	6.7	5.5
1.5	1.5	1.3	1.9	4.7	4.3	5.1	9.5	-3.2	-2.8	-3.8	-7.6
7.1	7.8	11.5	10.0	7.1	7.8	11.5	10.0	-	-	-	-
12.7	12.8	17.6	13.5	8.6	9.8	13.9	11.2	4.2	3.1	3.8	4.1
3.0	3.0	3.5	3.4	6.0	5.9	8.5	7.7	-3.0	-2.9	-5.0	-7.7

表 3-1. 1980~1985 5歳以上 移動人口の 性別・年齢別 市道間

性 別 年齢	人口数(5歳以上)		市部移動人口			
	市 部 人 口	郡 部 人 口	全 體 移 動 数	市 部 轉 入 数	市 部 轉 出 数	純 移 動 (轉入・轉出)
<總數>						
5-9	2 535 806	1 380 544	704 429	367 901	336 528	31 373
10-14	2 759 167	1 716 818	457 451	267 908	189 543	78 365
15-19	2 924 204	1 392 060	653 145	466 528	186 618	279 910
20-24	2 957 314	1 287 776	1 081 334	677 509	403 825	273 684
25-29	2 984 933	1 085 475	1 447 059	807 633	639 426	168 207
30-34	2 269 380	845 858	891 604	456 732	434 872	21 860
35-39	1 849 691	731 490	665 343	424 240	241 103	183 137
40-44	1 476 361	711 147	249 337	135 527	113 810	21 717
45-49	1 263 907	825 305	166 635	91 032	75 603	15 429
50-54	923 794	771 465	128 097	68 962	59 135	9 827
55-59	651 244	616 513	108 706	58 010	50 696	7 314
60-64	489 210	517 666	92 144	49 456	41 688	6 768
65+	792 902	956 647	145 942	82 656	63 286	19 370
計	23 877 913	12 838 764	6 626 396	3 790 263	2 836 133	954 130
<男子>						
5-9	1 320 469	704 884	366 855	192 879	173 976	18 903
10-14	1 442 253	868 317	240 894	142 718	98 176	44 542
15-19	1 432 734	744 588	294 376	201 107	93 269	107 838
20-24	1 392 732	792 988	393 904	242 519	151 385	91 134
25-29	1 466 292	560 893	661 573	385 829	275 744	110 085
30-34	1 154 816	434 794	492 821	253 487	239 334	14 153
35-39	944 029	380 340	298 357	151 774	146 583	5 191
40-44	762 523	346 162	149 590	79 391	70 199	9 192
45-49	647 474	395 515	89 546	47 896	41 650	6 246
50-54	451 574	358 045	56 290	29 395	26 895	2 500
55-59	288 969	271 811	40 390	20 343	20 047	296
60-64	206 492	233 895	32 058	16 263	15 795	468
65+	271 087	380 992	46 441	25 289	21 152	4 137
計	11 831 444	6 473 024	3 163 095	1 788 890	1 374 205	414 685
<女子>						
5-9	1 215 337	675 660	337 574	175 022	162 552	12 470
10-14	1 316 914	848 501	216 557	125 190	91 367	33 823
15-19	1 441 470	647 472	358 770	265 421	93 349	172 072
20-24	1 564 582	494 788	687 430	434 990	252 440	182 550
25-29	1 518 641	524 582	785 486	421 804	363 682	58 122
30-34	1 114 564	411 064	398 783	203 245	195 538	7 707
35-39	905 662	351 150	203 155	108 635	94 520	14 115
40-44	713 838	364 985	99 747	56 136	43 611	12 525
45-49	616 433	429 790	77 089	43 136	33 953	9 183
50-54	472 220	413 420	71 807	39 567	32 240	7 327
55-59	362 275	344 902	98 316	37 667	30 649	7 018
60-64	282 718	283 771	59 086	33 193	25 893	7 300
65+	510 184	587 286	99 501	57 367	42 134	15 233
計	12 046 469	6 365 740	3 463 301	2 001 373	1 461 928	539 445

移動率(%)

全體 移動數	郡部移動人口			市部移動率				郡部移動率			
	郡部 轉入數	郡部 轉出數	純移動 (轉入・轉出)	總移 動率	轉入 率	轉出 率	純移 動率	總移 動率	轉入 率	轉出 率	純移 動率
258 477	113 552	144 925	-31 373	27.8	14.5	13.3	1.2	18.7	8.2	10.5	-2.3
191 751	57 193	135 558	-78 365	16.6	9.7	6.9	2.8	11.2	3.3	7.9	-4.6
421 920	71 005	350 915	-279 910	22.3	16.0	6.4	9.6	30.3	5.1	25.2	-20.1
573 512	149 914	423 598	-273 684	36.6	22.9	13.7	9.3	44.5	11.6	32.9	-21.3
623 465	227 629	395 836	-168 207	48.5	27.1	21.4	5.6	57.4	21.0	36.5	-15.5
304 526	141 333	163 193	-21 860	39.3	20.1	19.2	1.0	36.0	16.7	19.3	-2.6
166 448	73 571	92 877	-19 306	36.0	22.9	13.0	9.9	22.8	10.1	12.7	-2.6
92 959	35 621	57 338	-21 717	16.9	9.2	7.7	6.3	13.1	5.0	8.1	-3.1
72 063	28 317	43 746	-15 429	13.2	7.2	6.0	1.2	8.7	3.4	5.3	-1.9
56 947	23 560	33 387	-9 827	13.9	7.5	6.4	1.1	7.4	3.1	4.3	-1.3
46 498	19 592	26 906	-7 314	16.7	8.9	7.8	1.1	7.5	3.2	4.4	-1.2
40 086	16 159	23 927	-7 768	18.8	10.1	8.5	1.4	7.7	3.1	4.6	-1.5
68 306	24 468	43 838	-19 370	18.4	10.4	8.0	2.4	7.1	2.6	4.6	-2.0
2 919 958	982 914	937 044	-954 130	27.8	15.9	11.9	4.0	22.7	7.7	15.1	-7.4
134 779	57 938	76 841	-18 903	27.8	14.6	13.2	1.4	19.1	8.2	10.9	-2.7
102 390	28 924	73 466	-44 542	16.7	9.9	6.8	3.1	11.8	3.3	8.5	-5.1
177 054	34 608	142 446	-107 838	19.9	13.6	6.3	7.3	23.8	4.6	19.1	-14.5
197 868	53 367	144 501	-91 134	28.3	17.4	10.9	6.5	25.0	6.7	18.2	-11.5
305 793	97 854	207 939	-110 085	45.1	26.3	18.8	7.5	54.5	17.4	37.1	-19.6
174 127	79 987	94 140	-14 153	42.7	22.0	20.7	1.2	40.4	18.4	21.7	-3.3
99 033	46 921	52 112	-5 191	31.6	16.1	15.5	0.6	26.0	12.3	13.7	-1.4
55 312	23 060	32 252	-9 192	19.6	10.4	9.2	1.2	16.0	6.7	9.3	-2.7
38 434	16 094	22 340	-6 246	13.8	7.4	6.4	1.0	9.7	4.1	5.6	-1.6
25 762	11 631	14 131	-2 500	12.5	6.5	6.0	0.6	7.2	3.2	3.9	-0.7
17 674	8 689	8 985	-296	14.0	7.0	6.9	0.1	6.5	3.2	3.3	-0.1
14 234	6 883	7 351	-468	15.5	7.9	7.6	0.2	6.1	2.9	3.1	-0.2
22 283	9 073	13 210	-4 137	17.1	9.3	7.8	1.5	3.5	2.4	3.5	-1.1
1 364 743	475 029	889 714	-414 685	26.7	15.1	11.6	3.5	21.1	7.3	13.7	-6.4
123 698	55 614	68 084	-12 470	27.8	14.4	13.4	1.0	18.3	8.2	10.1	-1.8
90 361	28 269	62 092	-33 823	16.4	9.5	6.9	2.6	10.6	3.3	7.3	-4.0
244 866	36 397	208 469	-172 072	24.9	18.4	6.5	11.9	37.8	5.6	32.2	-26.6
375 644	96 547	279 097	-182 550	43.9	27.8	16.1	11.7	75.9	19.5	56.4	-36.9
317 672	129 775	187 897	-58 122	51.7	27.8	23.9	3.8	60.6	24.7	35.8	-11.1
130 399	61 346	69 053	-7 707	35.8	18.2	17.5	0.7	31.7	14.9	16.8	-1.9
67 455	26 670	40 785	-14 115	22.4	12.0	10.4	1.6	19.2	7.6	11.6	-4.0
39 647	13 561	26 086	-12 525	14.0	7.9	6.1	1.8	10.9	3.7	7.1	-3.4
33 629	12 223	21 406	-9 183	12.5	7.0	5.5	1.5	7.8	2.8	5.0	-2.1
31 185	11 929	19 256	-7 327	15.2	8.4	6.8	1.6	7.5	2.9	4.7	-1.8
28 824	10 903	17 921	-7 018	27.1	10.4	8.5	1.9	8.4	3.2	5.2	-2.0
25 848	9 276	16 572	-7 296	20.9	11.7	9.2	2.6	16.2	5.4	10.8	-5.4
46 023	15 395	30 628	-15 233	19.5	11.2	8.3	3.0	7.8	2.6	5.2	-2.6
1 555 215	507 885	1 047 330	-539 445	28.7	16.6	12.1	4.5	24.4	8.0	16.5	-8.5

表 3-2. 1980~1985 5歲以上 移動人口의 性別・年齡別 市道間

性 項 年齡	人口數(5歲以上)		市部移動人口			
	市 部 人 口	郡 部 人 口	全 體 移 動 數	市 部 轉 入 數	市 部 轉 出 數	純 移 動 (轉入・轉出)
<總數>						
5-9	2 535 806	1 380 544	660 977	349 148	311 829	37 319
10-14	2 759 167	1 716 818	537 664	298 347	239 317	59 030
15-19	2 924 204	1 392 060	610 367	399 857	210 510	189 347
20-24	2 957 314	1 287 776	666 844	379 760	287 084	92 676
25-29	2 984 933	1 085 475	996 941	535 890	461 051	74 839
30-34	2 289 380	845 858	778 614	406 485	372 129	34 356
35-39	1 849 691	731 490	507 984	266 984	241 030	25 934
40-44	1 476 361	711 147	317 545	167 829	149 716	18 113
45-49	1 263 907	825 305	233 702	123 381	110 321	13 060
50-54	923 794	771 465	170 983	89 483	81 500	7 983
55-59	651 244	616 513	125 511	65 879	59 632	6 247
60-64	489 210	517 666	95 104	50 695	44 409	6 286
65+	792 902	956 647	151 782	83 965	67 817	16 148
計	23 877 913	12 838 764	585 4028	3 217 683	2 636 345	581 338
<男子>						
5-9	1 320 469	704 884	345 189	182 646	162 543	20 103
10-14	1 442 253	868 317	284 117	158 261	125 856	32 405
15-19	1 432 734	744 588	317 581	207 479	110 102	97 377
20-24	1 392 732	792 988	245 497	138 820	106 677	32 143
25-29	1 466 292	560 893	432 147	235 370	196 777	38 593
30-34	1 154 816	434 794	419 308	219 640	199 668	19 972
35-39	944 029	380 340	285 083	148 975	136 108	12 867
40-44	762 523	346 162	177 529	93 340	84 189	9 151
45-49	647 474	395 515	122 513	64 566	57 947	6 619
50-54	451 574	358 045	80 469	41 829	38 640	3 189
55-59	288 969	271 611	52 889	27 373	25 516	1 857
60-64	206 492	233 895	37 292	19 415	17 877	1 538
65+	271 087	380 992	47 420	25 570	21 850	3 720
計	11 831 444	6 473 024	2 847 034	1 563 284	1 283 750	279 534
<女子>						
5-9	1 215 337	675 660	315 788	166 502	149 286	17 216
10-14	1 316 914	848 501	253 547	140 086	113 461	26 625
15-19	1 441 470	647 472	292 786	192 378	100 408	91 970
20-24	1 564 582	494 788	421 347	240 940	180 407	60 533
25-29	1 518 641	524 582	564 794	300 520	264 274	36 246
30-34	1 114 564	411 064	359 306	186 845	172 461	14 384
35-39	905 662	351 150	222 911	117 989	104 922	13 067
40-44	713 838	364 985	140 016	74 489	65 527	8 962
45-49	616 433	429 790	111 189	58 815	52 374	6 441
50-54	472 220	413 420	90 514	47 654	42 860	4 794
55-59	362 275	344 902	72 622	38 506	34 116	4 390
60-64	282 718	283 771	57 812	31 280	26 532	4 748
65+	510 184	587 286	104 362	58 395	45 967	12 428
計	12 046 469	6 365 740	3 006 994	1 654 399	1 352 595	301 804

1) 未詳人口 420名除外

移動率 (%)

郡部移動人口				市部移動率(%)				郡部移動率(%)			
全體 移動數	郡部 轉入數	郡部 轉出數	純移動 (轉入・出)	總移 動率	轉入 率	轉出 率	純移 動率	總移 動率	轉入 率	轉出 率	純移 動率
128 999	45 840	83 159	-37 319	26.1	13.8	12.3	1.5	9.3	3.3	6.0	-2.7
110 967	25 969	84 998	-59 030	19.5	10.8	8.7	2.1	6.5	1.5	5.0	-3.4
258 731	34 692	224 039	-189 347	20.9	13.7	7.2	6.5	18.6	2.5	16.1	-13.6
199 732	53 528	146 204	-92 676	22.5	12.8	9.7	3.1	15.5	4.2	11.4	-7.2
232 735	78 948	153 787	-74 839	33.4	18.0	15.4	2.5	21.4	7.3	14.2	-6.9
134 182	49 913	84 269	-34 355	34.3	17.9	16.4	1.5	15.9	5.9	10.0	-4.1
80 774	27 420	53 354	-25 934	27.5	14.4	13.0	1.4	11.0	3.7	7.3	-3.5
48 227	15 057	33 170	-18 113	21.5	11.4	10.1	1.2	6.8	2.1	4.7	-2.5
36 144	11 542	24 602	-13 060	18.5	9.8	8.7	1.0	4.4	1.4	3.0	-1.6
26 151	9 084	17 067	-7 983	18.5	9.7	8.8	0.9	3.4	1.2	2.2	-1.0
21 223	7 488	13 735	-6 247	19.3	10.1	9.2	1.0	3.4	1.2	2.2	-1.0
17 816	5 765	12 051	-6 286	19.4	10.4	9.1	1.3	3.4	1.1	2.3	-1.2
34 980	9 416	25 564	-16 148	19.1	10.6	8.6	2.0	3.7	1.0	2.7	-1.7
1 330 660	374 661	955 999	-581 338	24.5	13.5	11.0	2.4	10.4	2.9	7.5	-4.5
67 075	23 486	43 589	-20 103	26.1	13.8	12.3	1.5	9.5	3.3	6.2	-2.9
58 567	13 081	45 486	-32 405	19.7	11.0	8.7	2.2	6.7	1.5	5.2	-3.7
130 709	16 666	114 043	-97 377	21.4	14.0	7.4	6.7	17.6	2.2	15.3	-13.1
65 145	16 501	48 644	-32 143	17.6	10.0	7.7	2.3	8.2	2.1	6.1	-4.1
102 225	31 816	70 409	-38 593	29.5	16.1	13.4	2.6	18.2	5.7	12.6	-6.9
75 840	27 934	47 906	-19 972	36.3	19.0	17.3	6.6	17.4	6.4	11.0	-4.6
47 223	17 178	30 045	-12 867	30.2	15.8	14.4	1.4	12.4	4.5	7.9	-3.4
27 897	9 373	18 524	-9 151	23.3	12.2	11.0	1.2	8.1	2.7	5.4	-2.6
20 273	6 827	13 446	-6 619	18.9	10.0	8.9	1.0	5.1	1.7	3.4	-1.7
12 731	4 771	7 960	-3 189	17.8	9.3	8.6	0.7	3.6	1.3	2.2	-0.9
9 121	3 632	5 488	-1 857	18.3	9.5	8.8	0.6	3.4	1.3	2.0	-0.7
6 738	2 600	4 138	-1 538	18.1	9.4	8.7	0.7	2.9	1.1	1.8	-0.7
10 532	3 406	7 126	-3 720	17.5	9.4	8.1	1.4	2.8	0.9	1.9	-1.0
634 076	177 271	456 805	-279 534	24.1	13.2	10.9	2.4	9.8	2.7	7.1	-4.3
61 924	22 354	39 570	-17 216	26.0	13.7	12.3	1.4	9.2	3.3	5.9	-2.5
52 399	12 887	39 512	-26 625	19.3	10.6	8.6	2.0	6.2	1.5	4.7	-3.1
128 022	18 026	109 996	-91 970	20.3	13.3	7.0	6.4	19.8	2.8	17.0	-14.2
134 587	37 027	97 560	-60 533	26.9	15.4	11.5	3.9	27.2	7.5	19.7	-12.2
130 510	47 132	83 378	-36 246	37.2	19.8	17.4	2.4	24.9	9.0	15.9	-6.9
58 342	21 979	36 363	-14 384	32.2	16.8	15.5	1.3	24.2	5.3	8.8	-3.5
33 551	10 242	23 309	-13 067	24.6	13.0	11.6	1.4	9.6	2.9	6.6	-3.7
20 330	5 684	14 646	-8 962	19.6	10.4	9.2	1.3	5.6	1.6	4.0	-2.5
15 871	4 715	11 156	-6 441	18.0	9.5	8.5	1.0	3.7	1.1	2.6	-1.5
13 420	4 313	9 107	-4 794	19.2	10.1	9.1	1.0	3.2	1.0	2.2	-1.2
12 102	3 856	8 246	-4 390	21.1	11.2	9.9	1.3	3.5	1.1	2.4	-1.3
11 078	3 165	7 913	-4 748	20.4	11.1	9.4	1.7	3.9	1.1	2.8	-1.7
24 448	6 010	18 438	-12 428	20.5	11.4	9.0	2.4	4.2	1.0	3.1	-2.1
696 584	197 390	499 194	-301 804	25.0	13.7	11.2	2.5	10.9	3.1	7.8	-4.7

參考文獻

1. 韓國人口保健 研究院, 2000年을 向한 國家長期發展構想: 人口 및 保健醫療 部門, 1985.
2. 韓國人口保健研究院, 人口移動과 社會經濟發展, 1986.
3. 經濟企劃院, 第 6 次 經濟社會發展計劃: 人口部門
4.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人口移動 統計年報, 各年度
5.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人口센서스報告, 各年度
6. 尹鍾周, 解放後의 人口移動과 都市化, 精神文化研究院 人口論文 未刊
7. 尹鍾周, 解放後 우리나라 人口變動의 社會史的 意義, 人口問題論集, 第 77 號, 1986.
8. 崔仁鉉, 人口移動과 出產力 關係의 相關性 研究, 東京大學
9. United Nations, Methods of Appraisal of Quality of Basic Data for Population Estimates, Manual II, 1955.
10. United Nations, Methods of Estimating Basic Demographic Measures from Incomplete Data, Manual IV, 1967.
11. United Nations, Growth of the Worlds's Urban and Rural Population, 1920-2000, 1969.
12. United Nations, Migration, Urbanization and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1980.
13. UN, ESCAP, Comparative Study of Migration and Urbanization in Relation to Development : Framework 1979.
14. Demographic Research and Spatial Policy, H. Willekew, NIDI. Netherland.
15. Research Topics for the Measurement of Population Change, Pop. Lab : University of Northe Carolina.

16. Jerrold W. Huguet, *Impact of Migration on Labor Force Change ESCAP, Bangkok.*
17. E. H. Choe, *International Symposium on National Migration Surveys in Asia, Seoul, Korea, 1985.*
18. E. H. Choe, *Internal Migration and Socio-Economic Development, Seoul, Korea, 1986.*
19. E. H. Choe, *Population Distribution and Internal Migration in Korea, Bureau of Statistics, EPB, Seoul, Korea, 1966.*
20. H. Kang, E. Choe and J. Yoon, *A Study on the Family Type and Family Life Cycle-From the World Fertility Survey data, 1974,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February 1982.*
21. Y. Chang, et al., *Society in Transi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 Population &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2.*
22. Goldstein, S. and others, *Techniques for Analysis of the Interrelations between Migration and Fertility, Guidelines for Analysis, Survey Manual X, United Nations, ESCAP, 1982.*
23. Lee Bun Song and others, *Investigation of the Influence of Rural Urban Migr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Louisiana State University, 1980.*
24. *Population Reports, Migration, Population Growth and Development, Population Information Programs. The John Hopkins University, Series M, No. 7, October 1983.*
25. R. Repetto and others, *Economic Development, Population Policy, and Demographic Transi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 Harvard University, 1981.*

- 26 . H. W. Richardson, Polarization Reversal in Developing Countrie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 A., Papers of the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Vol. 45, 1979.
- 27 . Ueda Kozo, Demographic Urbanization in Asian Countries, SEAMIC, International Medical Foundation of Japan, No. 44, Tokyo, Japan, 1985.
- 28 . United Nations, Population Research Leads No. 6, Comparative Study of Migration and Urbanization in Relation to Development, Population Division, ESCAP, 1979.
- 29 . United Nations, Popul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ountry Monograph Series No. 2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Bangkok, 1975.
- 30 . S. T. Park, Urbanization and Fertility in Korea, 1960–1970.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August, 1978.
- 31 . Kim, Yun. Y. C. Byun, and E. H. Choe, Social Economic and Demographic Differentials by Rural, Urban and Metropolitan Migration Streams in Korea, 1978–1983. Forthcoming Paper for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rbanization and Urban Population Problems, Octer, 1987.
- 32 . Betrand Renaud, National Urbanization Policy in Developing Countries, A. World Bank Research Public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1.
- 33 . P. M. Hauser & Robert Gardner, Population and the Urban Futur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Albany, 1982.
- 34 . Population : Dynamics, Ethics and Policy,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1975.
- 35 . Hyunho Seok, Internal Migration and Socio-economic Moderniz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80.

韓國人の 死亡水準推定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김정근·이승욱

目 次

I. 死亡水準推定과 人口動態統計	363
II. 理論的背景과 研究方法	367
1. 理論的背景	367
2. 研究方法	368
가. 人口센서스에 의한 死亡力の 形態	368
(1) 연속적인 센서스資料에 의한 死亡力の 推定	369
(2) 센서스 總出生兒 / 死亡兒 資料를 利用한 間接推定方法	370
(3) 배우자 死別人口 比率을 이용한 成人死亡率推定	371
나. 死亡原因 統計資料에 따른 死亡原因別 構成比의 差異	372
III. 研究의 結果 및 討議	375
1. 연속적인 센서스資料에 의한 死亡力の 推定	375
2. 센서스 總出生兒 / 死亡兒 資料를 利用한 間接推定方法	378
3. 배우자 死別人口比率을 이용한 成人死亡率推定	380
4. 死亡原因別 構成比 差異	383
附 錄. 統 計 表	387

I. 사망수준추정과 인구동태통계

인구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는 여러가지 방법을 활용한다. 그중의 대표적인 것들은 인구센서스 조사를 통한 방법과 인구동태신고 제도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인구센서스는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 즉 모집단에 속하여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일일이 조사하는 방법으로서 소위 전수조사의 최고봉에 속하는 예가 되며 일반적으로 이보다 더 정확하게 인구수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한편 인구규모가 방대함에 따라 인구센서스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투입되는 시간이나 인력이 가히 기하급수적인 탓으로 우리나라에서는 5년마다 한 번씩 인구센서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센서스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차기 센서스를 실시할 때까지 5년동안에도 인구규모는 끊임없이 변모하게 된다. 그 변모하는 양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올바른 국가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구변동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고안된 방법이 인구동태신고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호적법에 의거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은 우리나라에만 고유한 것은 아니고 전세계 공통적으로 비록 그 방법에 있어 각 국가의 실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인구 구조를 파악하고 있다.

논리적으로는 이러한 방법이 인구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가장 완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인구센서스의 경우 조사대상이 되는 인구규모

는 매우 방대하므로 비록 전수조사라 하더라도 조사방법등에 있어 피치 못할 미비점으로 인하여 집계누락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완벽한 방법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인구동태 신고제도에서는 출생, 사망, 인구이동 및 혼인에 관한 사항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고제도는 이에 속하는 동태사항이 발생하는 당사자나 측근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보고가 되므로 이것 역시 누락되거나 지연신고되는 사례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고자료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하여 역시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

즉 어느 나라이든지 이러한 동태사상은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어 이는 전통적으로 각 민족의 고유한 의식에 지배를 받고 있는 사상이어서 이러한 획일적인 신고체제는 이렇듯 다양한 의식과 화합을 이루기는 어렵다. 따라서 인구동태신고제도는 그것이 기대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신고제도에만 심분의존만은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출생과 사망의 경우에는 생명체의 출현과 사라짐을 의미하므로 인간생활의 응집된 내용을 뜻하는 극히 민감한 부분으로서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전통적의식에 비추어 공개를 꺼리는 내용으로서 인구동태신고에 있어 누락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항목이다. 특히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가 사망하는 경우는 아예 출생신고부터 누락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 경우는 인구동태신고제도에 있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결코 확인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러한 단순한 신고 부진은 결과적으로 통계생산을 위한 사망율을 과소 추정하게 되

며 궁극적으로는 이에 바탕을 두는 국가정책수립에 있어 심각한 오류를 야기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또한 사망이 제대로 신고되었다 하더라도 사망원인의 부정확성 역시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사망통계자료에 있어 사인 분류가 가능한 것은 대체적으로 80%를 약간 상회하고 있는데 그나마 분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의사에 의한 진단은 그 중 불과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사망진단서상에 나타난 사망원인의 기록자가 항상 의사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망진단서는 의사에 의하여 발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의사의 진단을 얻기가 어려운 무의촌 지역등지에서는 이러한 사망진단서의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장허가를 얻을 수 없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상 규정된 사망확인자가 의사이외에도 법률이 지정하는 적절한 공직의 인사이면 사망진단서발급대신에 인후증명등을 통해 매장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의사가 진단하지 않은 사망원인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진단이 부정확하거나 불명확한 것이 되는 경우가 증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에 따른 사망수준의 추정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편 비록 의사가 진단한 사망이라 하더라도 부정확한 진단이 적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사망진단방법의 다양성에서 오는 혼란을 피하고 표준적인 통계적 처리를 위하여 국제질병분류법(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을 제정하고 사망의 진단에 있어 이를 표준적인 것으로서 활용하도록 각국에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 많은 나라는 이에 따라 사망원인의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에서는 이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이의 활용

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 의사들에게 있어 이에 대한 인식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사망원인의 진단에 있어 그가 숙지하고 있는 의학지식에 의해 진단하는 사례가 아직도 태반이므로 진단명의 통일이나 진단방식의 통일등에 있어 문제점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사망통계의 숫자와 그 사망원인들이 불명확한 탓에 사망통계의 자료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신력있는 통계가 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사망력의 분석결과에 의문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빙성있는 자료를 생산하는 것에 노력을 집중적으로 하여 온 결과 사망수준의 추이에 대한 연구는 극히 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왔으며 그 분석은 단편적인 것에 그쳐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비록 완전하지 못한 통계자료라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한 상태에서 사망수준의 추이를 파악하는 것도 사망력에 관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배경과 연구방법

1. 이론적배경

일반적으로 사망수준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분야로 나뉘어진다. 첫째는 사망율의 추정에 관한 것이다.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인구동태신고제도는 누락된 신고가 있게 마련이다. 그 누락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증가의 규모에 비례하여 그 추정사망율의 정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개발도상국일수록 누락의 규모는 커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은 이미 여러 문헌을 통하여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신고된 자료만으로 사망율을 추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에 따라 갖가지 인구학적 요인들을 감안하여 간접적으로 사망율을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구학에서 많이 활용하는 간접추정법이다. 이러한 간접추정법은 그 자체 내에서 비록 결함이 인정되고 있는 바이나 비교적 근사치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두번째 방법은 발표된 사망력을 토대로 사망력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이다. 간단한 예로서 성별, 교육수준별, 그밖에 지역별 사망력의 차이의 정도를 살펴보고 이러한 사망력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기 위한 차별사망력에 관한 연구로서 본격적인 사망력분석의 또 다른 접근방법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의 증가로 선진국의 시대로 진입하게 되는 징후가 많은 곳에서 노출되고 있으나 인구동태신고체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이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어 지극히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다.

이러한 처지에 있어 각종 사망력의 추이에 관한 분석은 간접추정법에 의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간접추정법에 의한 각종지표 역시 공식발표자료로 사용하기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아서 충분히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각종 차별사망력이나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역시 궤도를 찾지 못하고 있기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차제에 1985년도 인구센서스 자료가 발표되었고 이에 따른 각종지표 역시 새롭게 생산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 상황이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축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사망수준의 추정을 주어진 여건하에서 시도하기로 하였다.

- 1) 인구 센서스자료의 성별, 연령별 차별사망력
- 2) 인구동태신고 자료에 따른 사망력추정과 센서스자료에 의한 사망력과의 차이
- 3) 사망원인 통계자료에 따른 사망원인별 구성비의 연도별 추이

2. 연구방법

가. 인구센서스자료에 따른 사망력의 형태

인구의 변화는 출생, 사망, 이동의 세가지 요인에 의하여 변화하게 된다. 그러나 5년 간격으로 이루어지는 인구센서스에서 특정 연령 집단은 차기 센서스에서는 5세가 증가된 연령집단에 이르게 되는데 이를 연계하면 그 인구규모의 변화는 Cohort 형식으로 자료를 관찰하게 되는 결과와 동일하다. 이를 토대로 분석할 때 이러한 인구집단은 출생에 의한 인구증가는 배제된다.

그러나 5세미만의 인구가 5-9세에 이를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유로 지연되었던 신고등이 새로이 포함되어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 사망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가 관찰되지 않는다. 이것은 인구분석에 커다란 문제점이 되고 있다.

한편 이를 지역별이 아닌 대한민국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인구이동의 영향력을 제거할 수 있다. 그 밖에 해외로의 이주나 해외로부터의 이주동에 의한 인구 증감현상을 고려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그에 따른 영향은 극히 미미하여 인구동태율의 추정에 그리 큰 문제는 제기하지 않아 무시하여도 좋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를 지역단위로 구분하게 되면 국내의 이동규모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사망수준을 추정할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이렇듯 전국 인구를 Cohort로 하는 경우 대체적으로 출생이나 인구이동에 의한 효과를 제거하게 되어 사망에만 의한 인구의 변동상황을 관찰할 수 있다.

인구를 성별, 연령별로 분류할 경우 지역별로 관찰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집단들은 상호 배타적인 집단이 되어 특정년도 출생 Cohort의 사망력 추이의 관찰이 가능하다.

이에 따른 사망력추정방법은 간접추정법을 사용하되 산출가능한 여러 방법들에 의해 일단 사망력을 산출한 다음 서로를 비교하여 일반적인 추세를 관찰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활용하였다.

(1) 연속적인 센서스 자료에 의한 사망력의 추정

우선 1980년도와 1985년도의 센서스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인구를 재정리하였다.

- (가) 1980년도 센서스에 나타난 연령별 지역(특별시, 직할시, 도)별 남녀 인구를 기본인구로 한다.
 - (나) 1985년도 센서스에서 응답자가 응답한 5년전의 거주지가 현재의 거주지와 다를 경우 이들 인구는 1980년도의 거주지로부터 이동(Migration)한 것으로 하여 1980년도의 지역별 인구를 조정하여 1985년도에 예상되는 기대인구수를 추정한다.
 - (다) 이렇게하여 가감된 기본인구는 사망이 없는 경우 1980년도 센서스상의 인구에서 1985년도 센서스까지 인구이동의 요인을 제거한 1985년도의 기대인구수가 되며 1985년도 센서스 인구는 사망에 의한 영향을 받는 실제 인구수가 된다.
 - (라) 각 연령간격에 따라 1985년도의 센서스인구를 실제인구로 하고 각 연령간격에 해당하는 1985년도의 기대인구수와 비교한다.
 - (마) 두 개의 인구수를 토대로 Cohort 별 생존율(Survivorship Ratio)을 산출한다.
 - (바) 이렇게 산출된 생존율을 이용하여 U.N. Model Life Table 과 Coale-Demeny Model Life Table에 맞춘다.
- (2) 센서스 총 출생아/사망아 자료를 이용한 간접 추정방법(Children-Ever-Born-and-Surviving Method)

이는 Brass 방법으로 알려져있는 것으로서 15세에서 34세에 이르는

가임여성들의 평균 출생아수, $A(i)$ 와 평균사망아수, $B(i)$ 의 비율 $D(i) = B(i)/A(i)$ 와 1세, 2세, 3세, 4세, 5세 등의 누적사망확률(nqx)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해서 개발된 방법이다.

이때 $D(i)$ 와 nqx 사이의 상관관계는 연령별 출산율 모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수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수정을 위해서 개발된 것이 $P(1)/P(2)$, $P(2)/P(3)$ 혹은 평균출산연령 (m)을 parameter로 하여 선택할 수 있는 Brass(1968)의 수정계수이다. 여기에서 $P(i)$ 는 연령층 (i) 속하는 여성의 평균 parity 또는 평균출산아수를 뜻한다.

이와 같이 선택된 수정계수, $k(i)$ 에 사망아 비율, $D(i)$ 를 곱함으로써 누적사망확률(nqx)을 얻게 된다. 즉,

$$q(x) = k(i) \cdot D(i)$$

이 방법의 적용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가정이 성립하여야 한다.

(가) 최근의 연령별출산율이 적어도 저연령층에서는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나) 최근의 영아 및 유아 사망수준에 큰 변화가 없어야 한다.

(다) 모의 출산연령은 영아 사망율과 높은 상관관계가 없다.

(라) 조사에 있어 생존아수 및 사망아의 누락확률은 같아야 한다.

(마) 영아 및 유아의 사망 모형이 Model Life Table과 같아야 한다.

그런데 이 방법은 센서스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사망아수에 대한 누락경향으로 인하여 사망율이 과소 추정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3) 배우자 사별인구 비율을 이용한 성인 사망율 추정

배우자 사별인구의 구성비를 결정하는 요인은 사망율, 연령별 결혼 모형과 재혼율이므로 만일 다음과 같은 요인에서 오는 영향을 별도로 파악할 수 있다면 이 자료를 이용한 성인 사망율의 추정이 가능하다.

즉 배우자가 결혼 당시에는 생존해 있을 것이므로 결혼기간은 사별배우자의 사망노출기간이 된다. 따라서 응답자의 연령이 사망노출기간을 대표하는 변수로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특정출생 Cohort에서 노출기간과 노출단위당 사망율은 서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모두 감안하려면 응답자와 배우자의 결혼당시 연령분포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자료는 거의 구할 수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같은 연령 즉, 평균 결혼연령에 결혼한다고 가정하여 초혼 연령분포를 얻어 여기에서 배우자 사망확률을 얻는다.

이 방법은 응답오차에서 오는 과소, 과대 추정의 문제가 없다는 것과 사망율과 추정치를 제공하여 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평균 혼인연령의 사용으로 인하여 25세 연령층에서의 편의(bias) 가능성이 높고 혼인율이 정기 변동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에는 적용상 제약이 있다는 단점도 있다.

나. 사망원인 통계자료에 따른 사망원인별 구성비의 차이

정부는 인구동태통계신고 제도를 통하여 신고한 자료를 토대로 사망 통계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이유로 그 통계자료상에는 문제점이 있다. 누락신고된 자료때문에 그것을 바탕

으로 사망력의 추정이 어렵다는 것과 또한 신고자료내용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사인별 분석이 어렵다는 점등이 그러한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를 활용하여 사망의 구성비를 관찰하는 경우 비록 사인별 사망력의 산출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사망의 구성비의 추이를 관찰할 수는 있게 된다.

사실 질병에 따라 보고되는 사인이 그 종류에 따라 그 보고율이나 진단명의 정확도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즉 사고사의 경우나 암과 같은 질환의 경우 그 진단의 정확도는 매우 높을 수 있으나 노쇠로 인한 사망이나 진단이 극히 어려운 내과적 질환 또는 신고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는 전염성질환의 경우에는 그 진단의 정확도나 신고율이 매우 낮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성인의 사망은 비교적 정확하게 보고되고 있으나 영아의 사망은 신고율이 매우 낮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질병에 따른 신고나 진단의 정확도가 일단 연도가 변화함에 따라 그다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면 사망수준이 연도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관찰하는 것은 가능하다. 연령표준화 비례사망비 (Age-Standardized Proportional Mortality Ratio : AS-PMR 또는 PMR)가 이 경우에 적합한 방법이다. 1981년도 사인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1982년도에서부터 1986년도 사인통계자료를 대비하여 보면 사인별분포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1980년도 인구센서스 실시 이후부터 1985년도 인구센서스 실시까지의 사망원인의 구성비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다.

연령표준화 비례 사망비는 어느 기준연도의 사망통계자료를 원인별로 분

류하여 기준년도로 하고 비교대상년도의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들의 발생건수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이는 사망신고자료가 미흡하여 정확한 사망율을 추정할 수 없을 때 백분율 분포를 이용하여 관찰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각 년도별로 인구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구분포에 의거하여 표준화시켜야 한다.

이 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이 뒤따르게 되는데 우선 미신고자료는 원인별로 다를 수 있으나 연도별로는 차이가 나지 않으며, 진단이 불명확한 것은 사인에 따라 차이가 날 수는 있으나 연도별로는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요구되는 가정내용이다.

즉, 사인 i 에 대한 연령 표준화 비례사망비(ASPMR)는

$$ASPMR_i = d_{i.} / \sum_{j=1}^g a_{ij} d_{.j}$$

로 표시되는데 여기에서 $d_{i.}$ 는 사인 i 에 대한 비교대상년도 총사망수이며 a_{ij} 는 $p_{ij}/p_{.j}$ 로서 기준년도의 j 번째 연령집단에서 총사망자($p_{.j}$) 중 사인 i 에 대한 사망수(p_{ij})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리고 $d_{.j}$ 는 비교년도의 j 번째 연령층에서의 전체 사인에 의한 총사망자수를 나타낸다.

즉 이 방법은 연령에 따라 표준화를 하여 연령의 영향을 제거하고 비교년도가 특정사인에 있어서 기준년도에 비하여 몇배정도의 증가 또는 감소가 있었는지를 관찰하는 방법이다.

본 분석에서는 1981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1985년도까지의 사망통계자료 중 의사진단자료를 대상으로 W.H.O.에 의한 55분류 주요 사망원인에 따라 연령표준화사망비를 산출하였다.

Ⅲ. 연구의 결과 및 토의

1. 연속적인 센서스자료에 의한 사망력의 추정

1985년도 센서스에서 5년전의 거주지를 확인하여 5년전 거주지가 현 거주지와 다를 경우 이를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분류하여 전입, 전출로 구분하여 재정리하였다. 우선 남녀별, 연령별 전입, 전출수를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그리고 각도별로 분류하였다. 기타직할시는 인구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으며 또 5년전의 행정계통상 소속의 차이등으로 인하여 해당 도에 포함하였다.

인구의 이동에 따른 지역별 인구증감현상을 살펴 보면 우선 경기도의 경우만이 남자와 여자, 그리고 전연령층에서 공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경상남도, 제주도 등에서 연령층에 따라 증가와 감소현상이 섞이어 나타나고 있었다. 그밖의 지역은 남녀 불문하고 전연령층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향이 가장 뚜렷한 것은 15세에서 29세에 속하는 연령층이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10세에서 14세의 연령층에서도 비교적 큰 폭의 증가가 있었다. 감소의 폭이 가장 큰 지역은 전라남도이고 그밖에 충청남도, 전라북도등의 지역에서 그 다음으로 큰 폭의 인구가 감소하였다.

이를 다시 1980년도 인구센서스자료에 가감하여 산출한 기대인구수와 관찰인구수를 비교하면 사망에 의한 인구의 감소때문에 논리적으로 기대인구수에 비하여 관찰인구수가 줄어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985년도의 관찰인구수가 오히려 많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를 다시 1980년도 인구센서스가 실시된 이듬해인 1981년도부터 1985년 인구센서스가 실시되기

까지 인구동태신고를 통하여 접수된 사망수와 비교해보아도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대체적으로 인구가동에 의한 요인을 제거한 폐쇄형 집단으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가 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 1) 인구센서스기법의 향상으로 과거에 누락되었던 인구가 추가로 조사되었을 것이라는 점.
- 2) 또는 그 반대로 1985년도 센서스에서 응답자의 주거위치상의 불명확으로 인하여 센서스에서 누락되었을 것이라는 점.
- 3) 5년전 거주지는 단순히 센서스에서의 질문에 의한 응답에 의존하기 때문에 응답자의 착각에 의해 정확하게 조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 4) 1985년도의 센서스에서는 5년전의 거주지만을 물었기 때문에 그 기간중에 발생한 이동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점.

1985년도에서의 남녀별 기대인구수와 1985년도 인구센서스에서 실제로 얻어진 인구를 이용하여 5년단위의 **Survivorship Probability**를 계산하면 1.0을 초과하는 것이 많으며 40세 이후에서는 그것이 1.0이하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응답자의 부정확한 응답으로 인하여 오히려 증가하는 기대인구수라든지 이에 따른 인구동태신고상의 사망수와 특히 40세 이하에서 큰 차이가 난다든지하는 자료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실제의 **Survivorship Probability**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 예견된다. 따라서 본 자료로서 실제의 자료를 가지고 **Survivorship Probability**를 구할 때의 문제점의 규모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인구를 대상으로 1980, 1985년

도 센서스 자료와 1981년부터 1985년까지의 인구동태신고에서 파악된 사망신고를 대상으로 신고의 완전성과 이에 따른 연령사망율을 보정하여 Bennett-Horiuchi 방법으로 연령별 사망율을 추정하면 표 1 과 같이 나타난다.

표 1에서 보면 사망신고와 센서스에서 파악된 인구에 비하여 완전성은 40세 이하에서는 1.0을 넘어서고 있으며 그 이상의 인구군에서는 반대로 1.0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중위수에 해당하는 완전성지수를 이용하여 보정한 다음 산출한 사망율과 기대여명을 산출하였다.

먼저 남녀를 모두 전체적인 인구의 완전성지수는 0.976으로 하여 산출한 사망율을 보면 0-5세 구간에서는 0.00163이던 것이 5-10세 구간에서는 0.00082로 감소하고 그 후 점차 증가하여 85세 이상에서는 0.17038에 이르고 있다. 0-5세 사망율은 영아사망율을 포함하고 있다. 평균여명은 5-10세 구간에서는 64.4세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얻어진 연령별 사망율을 $m(x)$ 로 하여 생명표를 구해보면 표 2와 같다. 생명표는 표 2에서와 같이 전체인구, 남자인구, 여자인구 등 3가지를 구하였다. 특히 영아사망율의 경우 Bennett-Horiuchi 방법에 의한 결과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수 없어서 표 6에서 얻어진 0-5세 사망율은 평균치라는 점에서 0세 사망율과 1-4세 사망율을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따라서 4세이하에서의 자료는 평균치개념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얻어진 생명표를 살펴 보면 출생시 기대여명은 남자가 64.16세 여자가 73.368세로 9.2년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전체인구에 대해서는 68.678세가 된다. 이러한 차이는 30세에 이를 때까지는 변동이 없으나 그 이후 그 차이는 점차 감소하였다.

2. 센서스 총출생아 / 사망아 자료를 이용한 간접추정방법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균임신연령 (mean age of childbearing) 을 산출하여야 한다. 연령집단 $5i + 10$ 에서 $5i + 14$ 까지에 속하는 여성들의 출산율을 $f(i)$ 라 표 할 때 평균임신연령 u 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u = \frac{\sum_{i=1}^I a(i) f(i)}{\sum_{i=1}^I f(i)}$$

여기에서 $a(i)$ 는 i 번째 연령구간에서 중앙연령값이고 I 는 가임연령 여성의 가장 높은 연령층을 뜻하는데 여기에서는 15세에서 19세를 최하연령층, 45세에서 49세를 최고연령층으로 하고 50세 이상은 극히 드물어 제외하였다.

이와 같이 산출된 평균연령을 지역별로 살펴 보면 아래표와 같다.

지역별 평균임신연령

지 역	평균임신연령	지 역	평균임신연령
전 국	25.76	충 북	25.41
서 울	26.25	충 남	25.68
부 산	25.61	전 북	25.70
대 구	25.75	전 남	25.70
인 천	25.63	경 북	25.53
경 기	25.57	경 남	25.48
강 원	25.33	제 주	26.36

가장 늦은 평균임신연령은 제주지역으로서 26.36세이고 그 다음이 서울 지역으로 26.25였으며 가장 빠른 임신연령은 강원지역으로 25.33, 다음이 충북지역으로 25.41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평균임신연령의 범위는 1.03세로서 그리 큰 폭의 차이는 보이지 않아 전국적으로 지역에 따른 차이는 별로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출생아/사망아 비율에 의한 영아 및 1-4세 등 아동사망율의 간접적인 추정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을 보면 15세 이상의 여성들의 연령에 따른 출산아들이 x세에 도달할 때까지의 사망율과 기준년도(Reference Date)에 따른 영아와 1-4세 아동의 사망율을 U.N.과 Coale-Demeny에 의한 Model Life Table에 맞추어 제시하고 있다. 이 표는 지역별로는 나타나고 있으나 성별로는 나타나지 못하였다.

이 표에서 비교적 우리나라의 자료에 잘 맞는 General Model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Reference Date를 1984년 9월로 한 영아사망율은 1000명당 24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Reference Date를 1977년까지로 거슬러 올라가도 지역별 차이가 없이 영아 사망율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eference Date를 1974년 또는 1975년까지로 거슬러 올라가면 전국의 영아사망율 추정치는 26으로 상승하였으나 서울, 부산, 대구, 인천과 같은 대도시, 그리고 경남과 제주 등지에서는 24를 유지하고 있었다.

1-4세 사망율의 경우에는 1,000명당 5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역시 지역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이것 역시 Reference Date를 1984년 9월로 하고는 있으나 Reference Date를 197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이

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동일한 사망율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 이전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영아사망율의 경우보다 변화가 덜 한 편이었다.

한편 전국의 출생시 기대여명은 동일한 Reference Date에서 75세였으며 이는 지역별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Reference Date를 1974년 10월로 할 경우 기대여명은 74.2세가 되었다.

3. 배우자 사별인구비율을 이용한 성인사망율 추정

배우자 사별인구비율을 이용한 성인사망율의 추정을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의 평균혼인연령을 산출해야 하는데 그 산출된 결과는 아래표와 같다.

지역별 성별 평균혼인연령

지 역	남 자	여 자	지 역	남 자	여 자
전 국	27.84	24.75	강 원	27.58	23.97
시 부	27.80	24.98	충 북	27.65	24.35
군 부	27.93	24.02	충 남	27.90	24.74
서 울	28.23	25.53	전 북	28.16	24.57
부 산	27.71	24.78	전 남	27.96	24.28
대 구	27.54	24.94	경 북	28.00	24.47
인 천	27.42	24.37	경 남	27.61	23.97
경 기	27.46	24.15	제 주	27.74	25.03

남자의 경우 가장 이른 연령에 결혼하는 지역은 인천지역으로 27.42세, 그 다음이 경기지역으로 27.46세이며, 가장 늦는 지역은 서울지역으로 28.23세, 그 다음이 전북지역으로 28.16세로서 그 범위는 0.81세의 차이밖에 나지 않으며 여자의 경우, 가장 이른 곳은 강원과 경남으로 23.97세 가장 늦는 지역은 서울로서 25.53세, 그 다음이 제주지역으로 25.03세였으며 그 범위는 1.46세였다. 남자보다는 여자의 변화가 크기는 하지만 지역에 따른 큰 차이는 볼 수 없었으며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거의 3세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3.09세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남자의 경우 시부보다 군부는 0.13세가 늦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데 여자는 시부가 군부보다 0.96세로 늦는 편이었다.

이에 따라 배우자 사별인구비율을 이용한 성인 사망력과 평균여명에 관한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를 보면 여자의 배우자 사별율을 이용한 남자의 사망과 남자의 배우자 사별율을 이용한 여자의 사망에 관한 사항을 지역별로 나타내 주고 있다.

우선 배우자 사별율을 이용하여 20세부터 특정연령 x 에 도달할 때까지의 생존율 (Surviving Probability)를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20세에서와 출생시에서의 평균여명을 U.N. 및 Coale-Demeny Model Life Table에 맞추어 적절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번에도 역시 U.N.의 General Model에 맞추어 출생시의 기대여명을 살펴 보았다. 우선 Reference Date는 자료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기대여명을 가장 최근의 자료로 하는 경우 1985년 11월에서 1986년 2월

까지에 속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 역	남 자	여 자
시 부	61.5	75.8
군 부	62.6	71.8
서 울	60.6	75.0
부 산	61.7	75.3
대 구	61.6	76.7
인 천	62.6	77.0
경 기	63.1	75.3
강 원	62.1	72.4
충 북	62.4	72.6
충 남	60.9	73.4
전 북	61.9	71.7
전 남	62.0	72.5
경 북	62.1	73.0
경 남	63.1	75.3
제 주	59.3	73.7

이를 보면 남자의 경우 군부에서 더 긴 기대여명을 여자의 경우 시부에서 더 긴 기대여명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앞에 제시한 생명표에서 얻은 기대여명과 비교하여 볼 때 위 표의 남자는 대체적으로 낮게 추정된 것이고 여자는 높게 추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남자에서 경기와 경남이 63.1세로 가장 기대여명이 길고 제주가

59.3 세로 가장 짧고 서울이 60.6 세로 그 다음으로 짧았다. 여자에 있어서는 인천이 77.0 세로 가장 길고 그 다음이 대구로 76.7 세였다. 가장 짧은 것은 전북으로 71.7 세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살펴 볼 때 지역별 차이는 그리 심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대도시지역이 좀 낮은 편이고 기타지역이 조금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 앞의 전체 자료에서 살펴 본 것처럼 대도시에서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 낮았다.

4. 사망원인 구성비의 차이

1981 년도 사망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1982, 1983, 1984, 그리고 1985 년까지의 사망통계자료에 대한 연령표준화사망비의 산출결과는 표 5-10 과 같다.

우선 표 5 와 표 8 은 인구동태신고를 통하여 접수된 사망신고중에서 의사에 의해 진단된 것들만을 대상으로 W.H.O. 가 제정한 국제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에 의거 분류된 것들로서 주요 55대 사인에 관한 것만을 요약한 것이다.

표 6 과 표 9 는 1982 년도부터 1986 년도의 사망신고내용이 1981 년도와 같은 연령분포에 따른다고 가정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사망수로서 ASPMR 의 산출에 필요한 기대사망수를 나타내고 있다.

표 7 과 표 10 은 이러한 관찰사망수가 기대사망수의 비율로서 ASPMR 을 나타내고 있다. 즉 1981 년도의 사망을 100 으로 했을 때 이에 비해서 어느 정도 증가 또는 감소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로 해석한다. 그러나 사망수가 극히 적은 경우는 ASPMR 이 별 의미를 띄우지 못하므로

ASPMR을 해석할 때는 실제 사망수를 활용하여야 한다.

우선 사망의 보고수가 많은 질병부터 살펴 보면 감염성 및 기생충질환 (001-139)에 있어서는 남녀 공히 유사한 형식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감염성 질환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보고수는 많지 않으나 장관감염병, 결핵등 기타 유사한 형식으로 전파되는 질병에서도 이와같은 추세가 관찰되고 있다. 기타 순환기계질환(390-459), 고혈압성질환(401-405), 징후증상 및 불명확한 병태(780-799), 노쇠(797), 중독 및 독성영향(960-989) 등에서도 감소추세가 보이고 있다. 이는 대체로 남녀 비슷하게 나타나고는 있으나 여자의 경우 순환기계질환과 중독 및 독성영향에서는 감소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감소추세와 질병의 진단명을 위주로 살펴 볼 때 그 감소이유는 이 자료만을 가지고는 확실하게 단언을 할 수 없지만 크게 분류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추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실제로 이와같은 원인에 의한 사망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질병 발생의 빈도가 비록 높다고 하더라도 치료가 가능하여 많은 생명을 발달된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고 환자자신이 질병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든지 하는 사유로 해서 이러한 감소경향이 실제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이다.

둘째, 과학적인 진단기술로 인하여 진단면이 좀 더 정확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노쇠 또는 징후증상 및 불명확한 병태에 의한 사망비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의사의

진단을 통한 사망신고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해서 노쇠라든가 하는 사망원인에 의한 진단사례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감소경향은 위와 같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증가하고 있는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140-208), 뇌혈관질환(430-438), 불명확한 급성뇌혈관질환(436), 만성간질환 및 경변증(571), 손상 및 중독(800-999), 골절(800-829), 그리고 두개내 및 내부손상(신경포함)(850869, 950-957) 등인데 여자에서는 남자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나 만성간질환 및 경변증과 두개내 및 내부손상의 발생건수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특히 악성신생물중 직장 및 항문의 악성신생물만이 남녀 공히 감소하고 있을 뿐 다른 악성신생물은 증가하고 있다. 여자의 경우는 자궁경의 악성신생물이 가장 현저한 증가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남자는 결장의 악성신생물이 가장 현저한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밖에 남자에 있어 허혈성 심질환, 급성 심근경색증, 불명확한 급성뇌혈관질환, 전립선의 비대, 그리고 골절등이 1981년에 비하여 1986년에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었다. 여자의 경우는 급성 류마티열, 허혈성 심질환, 급성심근경색증, 불명확한 급성 뇌혈관질환, 골절 그리고 두개내 및 내부손상이 역시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남녀에 있어 비슷하게 나타나고는 있으나 전립선의 비대와 급성류마티열은 불과 신고건수가 100건 이하이었다.

그러나 위의 사망통계자료는 1981년을 기준으로 하여 1986년까지 6년간의 사망신고자료인 바 이러한 변화가 불과 6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에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만 하다.

附 錄

- 표 1. 1980, 1985년 인구센서스와 사망신고 자료를 이용한 완전성의 추정
- 표 2. Bennett - Horiuchi 에 따른 연령별 사망율에 의한 생명표
- 표 3. 출생아/사망아 비율에 의한 간접추정결과
- 표 4. 배우자 사별인구비율을 이용한 성인 사망율의 추정
- 표 5. 의사진단자료중 55대 사인에 대한 남자의 연도별 사망신고수
- 표 6. 의사진단자료중 1981년을 기준으로 한 연도별 남자 기대사망수
- 표 7. 의사진단자료중 1981년을 기준으로 한 남자의 연령보정 비례사망비 (ASPMR)
- 표 8. 의사진단자료중 55대 사인에 대한 여자의 연도별 사망신고수
- 표 9. 의사진단자료중 1981년을 기준으로 한 연도별 여자 기대사망수
- 표 10. 의사진단자료중 1981년을 기준으로 한 여자의 연령보정 비례사망비 (ASPMR)

표 1 : 1980, 1985 년 인구센서스와 사망신고 자료를 이용한 완전성의 추정 (전체인구)

ESTIMATED COMPLETENESS OF DEATH REGISTRATION AND ADJUSTED LIFE EXPECTANCY (APPLICATION OF BENNETT-HORIOCHI TECHNIQUE)

Total Korean Population

AGE	POPULATION		GROWTH RATE	INTERCENSAL DEATHS		COMPLETENESS (1) OF DEATH REGISTRATION		ADJUSTED LIFE TABLE (2) DEATH RATES APPROX B(x)	
	NOV 1980	NOV 1985		NUMBER	RATE				
0-5	3794692.	3702555.	-0.00492	29834.	.0015900163
5-10	4420946.	3916350.	-0.02424	16618.	.00080	1.084	.00082	64.4	
10-15	4440137.	4475985.	0.00161	22227.	.00100	1.056	.00102	59.7	
15-20	4239729.	4316264.	0.00358	34624.	.00162	1.058	.00166	54.9	
20-25	4053638.	4245090.	0.00923	34890.	.00168	1.065	.00172	50.4	
25-30	3082172.	4070408.	0.05562	30715.	.00173	1.060	.00178	45.8	
30-35	2519241.	3115238.	0.04247	33706.	.00241	1.047	.00246	41.2	
35-40	2223341.	2581181.	0.02986	49282.	.00411	1.012	.00421	36.7	
40-45	2131651.	2187508.	0.00517	67253.	.00623	0.983	.00638	32.4	
45-50	1781813.	2089212.	0.03183	74835.	.00776	0.970	.00794	28.4	
50-55	1325925.	1695259.	0.04915	82414.	.01099	0.968	.01126	24.4	
55-60	1125353.	1267757.	0.02393	100809.	.01688	0.957	.01729	20.7	
60-65	822057.	1006876.	0.04056	112087.	.02464	0.940	.02523	17.3	
65-70	620283.	722817.	0.03060	123653.	.03693	0.929	.03782	14.3	
70-75	425096.	501254.	0.03296	119540.	.05179	0.898	.05304	11.8	
75-80	229236.	312090.	0.06166	88887.	.06646	0.873	.06806	9.6	
80-85	118207.	137660.	0.03047	65253.	.10231	0.866	.10477	7.5	
85+	53242.	75728.	0.07046	52821.	.1663717038	5.9	
TOTAL	37406809.	40419232.	0.01549	1139448.					

(1) FOR CALCULATION PURPOSES, B(85) ASSUMED EQUAL TO 4.816

(2) BASED ON MEDIAN COMPLETENESS OF 0.976

표 1 : -계속- (남자)

ESTIMATED COMPLETENESS OF DEATH REGISTRATION AND ADJUSTED LIFE EXPECTANCY (APPLICATION OF BENNETT-HORIUCHI TECHNIQUE)

Total Korean Male Population

AGE	POPULATION		GROWTH RATE	INTERCENSAL DEATHS		COMPLETENESS (1) OF DEATH REGISTRATION	ADJUSTED LIFE TABLE (2)	
	NOV 1980	NOV 1985		NUMBER	RATE		DEATH RATES	APPROX B(x)
0-5	1963963.	1922758.	-0.00424	15616.	.0016100166	...
5-10	2282813.	2025353.	-0.02393	9566.	.00089	1.090	.00092	59.7
10-15	2293386.	2310570.	0.00149	13293.	.00115	1.062	.00119	55.0
15-20	2186973.	2227322.	0.00366	22990.	.00208	1.063	.00216	50.3
20-25	2067729.	2185720.	0.01110	22889.	.00215	1.071	.00223	45.9
25-30	1540965.	2027185.	0.05485	20490.	.00232	1.075	.00240	41.3
30-35	1293533.	1589610.	0.04122	23153.	.00323	1.063	.00334	36.8
35-40	1127158.	1324369.	0.03225	34970.	.00572	1.013	.00592	32.4
40-45	1080457.	1108685.	0.00516	48570.	.00888	0.975	.00918	28.3
45-50	968659.	1042989.	0.03658	51724.	.01087	0.958	.01124	24.5
50-55	809166.	809619.	0.05639	54971.	.01566	0.957	.01619	20.8
55-60	521737.	560580.	0.01434	68389.	.02529	0.947	.02616	17.3
60-65	373222.	440387.	0.03310	72458.	.03575	0.932	.03698	14.4
65-70	260557.	306710.	0.03259	72405.	.05122	0.924	.05239	11.8
70-75	161867.	190553.	0.03263	61933.	.07053	0.895	.07296	9.6
75-80	74175.	103513.	0.06665	38702.	.08834	0.882	.09138	7.7
80-85	31546.	36163.	0.02732	23958.	.14187	0.908	.14675	5.7
85+	11296.	15140.	0.05858	15011.	.2295723748	4.2
TOTAL	18749302.	20227226.	0.01517	671088.				

(1) FOR CALCULATION PURPOSES, B(85) ASSUMED EQUAL TO 4.610

(2) BASED ON MEDIAN COMPLETENESS OF 0.967

표 1 : -계속- (여자)

ESTIMATED COMPLETENESS OF DEATH REGISTRATION AND ADJUSTED LIFE EXPECTANCY (APPLICATION OF BENNETT-HORIUCHI TECHNIQUE)

Total Korean Female Population

AGE	POPULATION		GROWTH RATE	INTERCENSAL DEATHS		COMPLETENESS (1) OF DEATH REGISTRATION	ADJUSTED LIFE TABLE (2)	
	NOV 1980	NOV 1985		NUMBER	RATE		DEATH RATES	APPROX E(X)
0-5	1830723.	1779797.	-0.00564	14128.	.0015700158	...
5-10	2138133.	1890997.	-0.02457	7052.	.00070	1.079	.00071	69.3
10-15	2146751.	2165415.	0.00173	8934.	.00083	1.051	.00084	64.5
15-20	2052756.	2088942.	0.00349	11634.	.00112	1.053	.00114	59.8
20-25	1985909.	2059370.	0.00726	12001.	.00119	1.061	.00120	55.1
25-30	1541207.	2043223.	0.05639	10225.	.00115	1.045	.00117	50.4
30-35	1225708.	1525628.	0.04378	10553.	.00154	1.031	.00156	45.7
35-40	1096183.	1256812.	0.02735	14312.	.00244	1.013	.00247	41.0
40-45	1051194.	1078823.	0.00519	18683.	.00351	0.991	.00355	36.5
45-50	913154.	1046223.	0.02721	23111.	.00473	0.984	.00479	32.1
50-55	716759.	885640.	0.04231	27443.	.00689	0.980	.00697	27.8
55-60	603556.	707177.	0.03169	32420.	.00992	0.968	.01005	23.7
60-65	448835.	566489.	0.04656	39629.	.01572	0.950	.01591	19.8
65-70	359686.	416107.	0.02914	51248.	.02649	0.934	.02682	16.3
70-75	263229.	310701.	0.03316	57607.	.04029	0.901	.04078	13.2
75-80	155111.	208577.	0.05923	50185.	.05580	0.870	.05649	10.7
80-85	86661.	101497.	0.03161	41195.	.08785	0.851	.08893	8.3
85+	41946.	60580.	0.07354	37810.	.1500015184	6.6
TOTAL	18657507.	20192006.	0.01581	468170.				

(1) FOR CALCULATION PURPOSES, E(85) ASSUMED EQUAL TO 5.113

(2) BASED ON MEDIAN COMPLETENESS OF 0.988

표 2 : Bennett - Horiuchi 에 따른 연령별 사망율에 의한 생명표
(전체)

Total Korean Population

AGE	$h(x, n)$	$q(x, n)$	$l(x)$	$D(x, n)$	$L(x, n)$	$S(x, n)$	$T(x)$	$E(x)$	$A(x, n)$
0	.00163	.00163	100000.	163.	99845.	.99534 /A/	6867770.	68.678	0.047
1	.00163	.00650	99837.	648.	397824.	.99450 /B/	6767925.	67.790	1.648
5	.00082	.00409	99189.	406.	494929.	.99541	6370101.	64.222	2.500
10	.00102	.00509	98783.	503.	492659.	.99350	5875172.	59.476	2.500
15	.00166	.00827	98280.	812.	489457.	.99143	5382513.	54.767	2.605
20	.00172	.00856	97468.	835.	485262.	.99139	4893056.	50.202	2.511
25	.00178	.00886	96633.	856.	481086.	.98976	4407794.	45.614	2.571
30	.00246	.01223	95777.	1171.	476161.	.98385	3926708.	40.998	2.674
35	.00421	.02085	94606.	1972.	468472.	.97388	3450547.	36.473	2.690
40	.00638	.03142	92633.	2911.	456236.	.96492	2982076.	32.192	2.619
45	.00794	.03896	89723.	3495.	440230.	.95398	2525840.	28.152	2.602
50	.01126	.05484	86227.	4729.	419969.	.93213	2085610.	24.187	2.639
55	.01729	.08305	81498.	6768.	391464.	.90022	1665641.	20.438	2.632
60	.02523	.11398	74739.	8891.	352404.	.85569	1274175.	17.050	2.611
65	.03782	.17322	65839.	11405.	301549.	.79735	921772.	14.000	2.576
70	.05304	.23428	54434.	12753.	240440.	.74073	620224.	11.394	2.512
75	.06806	.29082	41681.	12122.	178102.	.65613	379783.	9.112	2.500
80	.10477	.41419	29560.	12243.	116858.	.50962	201681.	6.823	2.473
85	.17038	.58596	17316.	10147.	59553.	.29791 /C/	84823.	4.898	2.336
90	.28372	7170.	7170.	25270.	25270.	3.525	3.525

/A/ VALUE GIVEN IS FOR SURVIVORSHIP OF 5 COHORTS OF BIRTH TO AGE GROUP 0-4 = $L(0,5)/500000$

/B/ VALUE GIVEN IS FOR $S(0,5)=L(5,5)/L(0,5)$

/C/ VALUE GIVEN IS $S(85+,5)=T(90)/T(85)$

표 2 : 계속 (남자)

Total Korean Male Population

AGE	H(X,M)	Q(X,M)	I(X)	D(X,M)	L(X,M)	S(X,M)	T(X)	R(X)	A(X,M)
0	.00166	.00166	100000.	166.	99842.	.99525 /A/	6415982.	64.160	0.047
1	.00166	.00661	99834.	660.	397784.	.99418 /B/	6316140.	63.266	1.648
5	.00092	.00459	99174.	455.	494732.	.99474	5918356.	59.677	2.500
10	.00119	.00593	98719.	586.	492130.	.99194	5423624.	54.940	2.500
15	.00216	.01074	98133.	1054.	488163.	.98885	4931494.	50.253	2.626
20	.00223	.01109	97079.	1076.	482721.	.98864	4443332.	45.770	2.517
25	.00240	.01193	96002.	1145.	477239.	.98617	3960611.	41.255	2.579
30	.00334	.01657	94857.	1572.	470639.	.97772	3483372.	36.722	2.681
35	.00592	.02920	93285.	2724.	460155.	.96294	3012733.	32.296	2.698
40	.00918	.04492	90561.	4068.	443101.	.95031	2552578.	28.186	2.614
45	.01124	.05472	86493.	4733.	421082.	.93514	2109478.	24.389	2.595
50	.01619	.07797	81760.	6375.	393770.	.90106	1688395.	20.651	2.642
55	.02616	.12313	75385.	9282.	354812.	.85472	1294625.	17.173	2.618
60	.03698	.16965	66103.	11215.	303264.	.80027	939813.	14.217	2.570
65	.05299	.23430	54888.	12860.	242693.	.73057	636549.	11.597	2.531
70	.07296	.30779	42028.	12936.	177303.	.66562	393857.	9.371	2.462
75	.09138	.37070	29092.	10784.	118017.	.56103	216553.	7.444	2.455
80	.14675	.53073	18308.	9716.	66211.	.38991	98537.	5.382	2.393
85	.23748	.71361	8591.	6131.	25816.	.20137 /C/	32326.	3.763	2.204
90	.37798	2461.	2461.	6510.	6510.	2.646	2.646

/A/ VALUE GIVEN IS FOR SURVIVORSHIP OF 5 COHORTS OF BIRTH TO AGE GROUP 0-4 = $L(0,5)/500000$

/B/ VALUE GIVEN IS FOR $S(0,5)=L(5,5)/L(0,5)$

/C/ VALUE GIVEN IS $S(85+,5)=T(90)/T(85)$

표 2 : 계속 (여자)

Total Korean Female Population

AGE	N(X,N)	Q(X,N)	I(X)	D(X,N)	L(X,N)	S(X,N)	T(X)	R(X)	A(X,N)
0	.00158	.00158	100000.	158.	99851.	.99532 /A/	7336805.	73.368	0.055
1	.00158	.00630	99842.	629.	397811.	.99503 /B/	7236954.	72.484	1.521
5	.00071	.00354	99214.	352.	495190.	.99613	6839143.	68.933	2.500
10	.00084	.00419	98862.	414.	493275.	.99515	6343954.	64.170	2.500
15	.00114	.00568	98448.	560.	490880.	.99409	5850679.	59.429	2.572
20	.00120	.00598	97988.	586.	487979.	.99415	5359799.	54.754	2.503
25	.00117	.00583	97303.	568.	485124.	.99338	4871820.	50.069	2.552
30	.00156	.00777	96735.	752.	481910.	.99015	4386697.	45.348	2.652
35	.00247	.01228	95983.	1179.	477165.	.98513	3904787.	40.682	2.666
40	.00355	.01760	94805.	1669.	470069.	.97954	3427621.	36.155	2.631
45	.00479	.02368	93136.	2206.	460453.	.97142	2957552.	31.755	2.631
50	.00697	.03429	90930.	3118.	447293.	.95896	2497099.	27.462	2.640
55	.01005	.04909	87813.	4311.	428937.	.93858	2049805.	23.343	2.651
60	.01591	.07671	83502.	6405.	402594.	.90051	1620868.	19.411	2.671
65	.02682	.12612	77097.	9723.	362538.	.84542	1218275.	15.802	2.640
70	.04078	.18552	67373.	12499.	306497.	.78615	855737.	12.701	2.570
75	.05649	.24805	54874.	13611.	240952.	.70156	549240.	10.009	2.545
80	.08893	.36432	41263.	15033.	169044.	.55561	308287.	7.471	2.521
85	.15184	.54370	26230.	14261.	93923.	.32548 /C/	139244.	5.309	2.390
90	.26409	11969.	11969.	45321.	45321.	3.787	3.787

/A/ VALUE GIVEN IS FOR SURVIVORSHIP OF 5 COHORTS OF BIRTH TO AGE GROUP 0-4 = L(0,5)/500000

/B/ VALUE GIVEN IS FOR S(0,5)=L(5,5)/L(0,5)

/C/ VALUE GIVEN IS S(85+,5)=T(90)/T(85)

표 3 : 출생아 / 사망아 비율에 의한 간접추정결과 (전국)

INDIRECT ESTIMATION OF EARLY AGE MORTALITY FOR WHOLE COUNTRY

ENUMERATION OF NOV 1985				PROBABILITY OF DYING BEFORE AGE X									
AGE OF WOMAN	CHILDREN		PROPORTION DEAD	AGE X	UNITED NATIONS MODELS (PALLONI-HELIQHAN EQUATIONS)					COALE-DENNEY MODELS (TRUSSELL EQUATIONS)			
	BORN	SURVIVING			LAT AM	CHILAN	SO ASIAN	PAC EAST	GENERAL	WEST	NORTH	EAST	SOUTH
15-20	.084	.084	.000	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25	.239	.237	.000	2	.010	.016	.010	.010	.010	.010	.010	.010	.010
25-30	1.258	1.248	.000	3	.009	.009	.009	.009	.009	.009	.009	.009	.009
30-35	2.189	2.164	.011	5	.012	.012	.012	.012	.012	.013	.013	.012	.013
35-40	2.755	2.710	.016	10	.016	.016	.016	.016	.016	.018	.019	.016	.016
40-45	3.420	3.333	.025	15	.025	.025	.025	.024	.025	.028	.029	.027	.028
45-50	4.051	3.900	.037	20	.036	.036	.037	.036	.036	.040	.041	.040	.040

AVERAGE AGE AT CHILDREARING = 25.76

CORRESPONDING MORTALITY INDICES

AGE OF WOMAN	REFERENCE DATE	UNITED NATIONS MODELS (PALLONI-HELIQHAN EQUATIONS)						COALE-DENNEY MODELS (TRUSSELL EQUATIONS)			
		LAT AM	CHILAN	SO ASIAN	PAC EAST	GENERAL	WEST	NORTH	EAST	SOUTH	

INFANT MORTALITY RATE

15-20	SEP 1984	LT .028	LT .031	LT .032	LT .015	LT .024	JAN 1985	LT .013	LT .017	LT .016	LT .036
20-25	FEB 1984	LT .028	LT .031	LT .032	LT .015	LT .024	JUN 1984	LT .013	LT .017	LT .016	LT .036
25-30	APR 1983	LT .028	LT .031	LT .032	LT .015	LT .024	MAY 1983	LT .013	LT .017	LT .016	LT .036
30-35	DEC 1981	LT .028	LT .031	LT .032	LT .015	LT .024	DEC 1981	LT .013	LT .017	LT .016	LT .036
35-40	MAR 1980	LT .028	LT .031	LT .032	LT .015	LT .024	MAR 1980	.015	LT .017	.016	LT .036
40-45	SEP 1977	LT .028	LT .031	LT .032	.019	LT .024	NOV 1977	.021	.020	.022	LT .036
45-50	OCT 1974	LT .028	LT .031	LT .032	.024	.026	OCT 1974	.026	.024	.029	LT .036

CHILD MORTALITY RATE

15-20	SEP 1984	LT .008	LT .004	LT .008	LT .002	LT .005	JAN 1985	LT .002	LT .004	LT .002	LT .005
20-25	FEB 1984	LT .008	LT .004	LT .008	LT .002	LT .005	JUN 1984	LT .002	LT .004	LT .002	LT .005
25-30	APR 1983	LT .008	LT .004	LT .008	LT .002	LT .005	MAY 1983	LT .002	LT .004	LT .002	LT .005
30-35	DEC 1981	LT .008	LT .004	LT .008	LT .002	LT .005	DEC 1981	LT .002	LT .004	LT .002	LT .005
35-40	MAR 1980	LT .008	LT .004	LT .008	LT .002	LT .005	MAR 1980	.002	LT .004	.001	LT .005
40-45	SEP 1977	LT .008	LT .004	LT .008	.003	LT .005	NOV 1977	.004	.004	.002	LT .005
45-50	OCT 1974	LT .008	LT .004	LT .008	.005	.006	OCT 1974	.006	.006	.004	LT .005

LIFE EXPECTANCY AT BIRTH

15-20	SEP 1984	GT 75.0	GT 75.0	GT 75.0	GT 75.0	GT 75.0	JAN 1985	GT 75.0	GT 75.0	GT 75.0	GT 75.0
20-25	FEB 1984	GT 75.0	GT 75.0	GT 75.0	GT 75.0	GT 75.0	JUN 1984	GT 75.0	GT 75.0	GT 75.0	GT 75.0
25-30	APR 1983	GT 75.0	GT 75.0	GT 75.0	GT 75.0	GT 75.0	MAY 1983	GT 75.0	GT 75.0	GT 75.0	GT 75.0
30-35	DEC 1981	GT 75.0	GT 75.0	GT 75.0	GT 75.0	GT 75.0	DEC 1981	GT 75.0	GT 75.0	GT 75.0	GT 75.0
35-40	MAR 1980	GT 75.0	GT 75.0	GT 75.0	GT 75.0	GT 75.0	MAR 1980	74.4	GT 75.0	75.0	GT 75.0
40-45	SEP 1977	GT 75.0	GT 75.0	GT 75.0	72.9	GT 75.0	NOV 1977	72.4	74.0	73.0	GT 75.0
45-50	OCT 1974	GT 75.0	GT 75.0	GT 75.0	70.4	74.2	OCT 1974	70.7	72.6	71.3	GT 75.0

표 4 : 배우자 사별인구비율을 이용한 성인 사망율의 추정 (전국 : 남자)

WIDOWHOOD ESTIMATES OF ADULT MALE MORTALITY -- WHOLE COUNTRY

DATE OF SURVEY = NOV 1985

SINGLEMATE MEAN AGE AT MARRIAGE:

MALES = 27.84

FEMALES = 24.75

AGE GROUP OF RESPONDENT	PROPORTION FEMALES NOT WIDOWED	PROBABILITY OF AN ADULT MALE SURVIVING FROM AGE 20 TO AGE X	
		AGE X	HILL-TRUSSELL EQUATION
20-25	.9983	25	.9886
25-30	.9958	30	.9779
30-35	.9858	35	.9644
35-40	.9633	40	.9407
40-45	.9206	45	.8999
45-50	.8567	50	.8410
50-55	.7169	55	.7097
55-60	.4525	60	.4499

CORRESPONDING MALE LIFE EXPECTANCIES

AGE GROUP OF RESPONDENT	REFERENCE DATE	UNITED NATIONS MODELS					COALE-DEMERY MODELS			
		LATIN AM.	CHILEAN	SO. ASIAN	PAC EAST	GENERAL	WEST	NORTH	EAST	SOUTH

MALE LIFE EXPECTANCY AT AGE TWENTY

20-25	NOV 1985	50.5	48.1	46.6	46.0	48.5	49.6	53.2	49.4	50.1
25-30	AUG 1984	51.3	49.3	47.6	46.7	49.2	49.9	53.5	49.6	50.1
30-35	APR 1982	51.3	49.7	47.8	46.8	49.3	49.7	53.2	49.3	50.1
35-40	JAN 1980	50.4	49.1	47.3	46.3	48.6	48.8	51.8	48.4	49.1
40-45	JAN 1978	48.9	47.9	46.3	45.3	47.3	47.5	49.8	47.1	47.1
45-50	FEB 1976	47.4	46.7	45.5	44.6	46.2	46.3	47.7	45.9	46.4
50-55	FEB 1974	43.5	43.2	42.6	42.0	42.8	42.8	43.3	42.5	42.4
55-60	OCT 1970	LT 20.0	LT 20.0	LT 20.0	LT 20.0	LT 20.0	LT 20.0	LT 20.0	LT 20.0	LT 20.0

MALE LIFE EXPECTANCY AT BIRTH

20-25	NOV 1985	62.9	60.9	51.6	61.3	61.6	64.3	69.3	63.1	60.1
25-30	AUG 1984	64.3	62.8	54.0	62.5	62.9	64.8	69.7	63.6	61.3
30-35	APR 1982	64.3	63.5	54.6	62.6	63.0	64.4	69.2	63.0	61.2
35-40	JAN 1980	62.6	62.5	53.2	61.8	61.7	62.7	66.5	60.8	59.3
40-45	JAN 1978	59.7	60.4	50.7	60.4	59.4	60.1	62.5	57.4	56.2
45-50	FEB 1976	56.8	58.4	48.5	59.2	57.3	57.4	58.4	54.3	52.8
50-55	FEB 1974	48.7	52.1	41.0	54.9	50.7	50.2	48.6	45.2	43.8
55-60	OCT 1970	LT 20.0	LT 20.0	LT 20.0	LT 20.0	LT 20.0	LT 20.0	LT 20.0	LT 20.0	LT 20.0

표 4 : -계속- (전국 : 여자)

WIDOWHOOD ESTIMATES OF ADULT FEMALE MORTALITY -- WHOLE COUNTRY

DATE OF SURVEY = NOV 1985

SIMULATE MEAN AGE AT MARRIAGE:

MALES = 27.84

FEMALES = 24.75

AGE GROUP OF RESPONDENT	PROPORTION MALES NOT WIDOWED	PROBABILITY OF AN ADULT FEMALE SURVIVING FROM AGE 20 TO AGE X	
		AGE X	HILL-TEUSSELL EQUATION
25-30	.9985	25	.9975
30-35	.9973	30	.9963
35-40	.9948	35	.9952
40-45	.9901	40	.9916
45-50	.9848	45	.9885
50-55	.9752	50	.9824
55-60	.9593	55	.9715

CORRESPONDING FEMALE LIFE EXPECTANCIES

AGE GROUP OF RESPONDENT	REFERENCE DATE	UNITED NATIONS MODELS					COALE-DENHEM MODELS			
		LATIN AM.	CHILAN	SO. ASIAN	FAR EAST	GENERAL	WEST	NORTH	EAST	SOUTH

FEMALE LIFE EXPECTANCY AT AGE TWENTY

25-30	JAN 1986	58.6	58.1	56.7	56.7	57.7	56.6	59.5	56.6	58.4
30-35	OCT 1983	60.5	60.1	58.3	58.8	59.5	57.8	GT 80.0	57.9	59.8
35-40	JUL 1981	61.8	61.4	59.5	60.1	60.8	58.6	GT 80.0	58.8	60.7
40-45	APR 1979	61.7	61.3	59.3	60.0	60.6	58.4	GT 80.0	58.6	60.3
45-50	MAY 1977	GT 80.0	62.2	60.1	61.0	61.4	59.1	GT 80.0	59.2	60.8
50-55	NOV 1975	GT 80.0	GT 80.0	60.5	GT 80.0	GT 80.0	59.6	GT 80.0	59.6	60.9
55-60	SEP 1974	GT 80.0	GT 80.0	61.0	GT 80.0	GT 80.0	59.9	GT 80.0	59.9	60.9

FEMALE LIFE EXPECTANCY AT BIRTH

25-30	JAN 1986	74.8	74.1	71.1	74.4	74.5	75.1	78.3	74.4	74.1
30-35	OCT 1983	77.8	77.1	74.0	77.1	77.2	76.8	GT 80.0	76.4	76.5
35-40	JUL 1981	79.5	78.9	76.0	78.7	78.8	77.8	GT 80.0	77.6	77.9
40-45	APR 1979	79.4	78.8	75.6	78.7	78.6	77.5	GT 80.0	77.3	77.2
45-50	MAY 1977	GT 80.0	80.0	76.8	79.8	79.7	78.3	GT 80.0	78.2	78.0
50-55	NOV 1975	GT 80.0	GT 80.0	77.6	GT 80.0	GT 80.0	79.1	GT 80.0	78.7	78.1
55-60	SEP 1974	GT 80.0	GT 80.0	78.2	GT 80.0	GT 80.0	79.4	GT 80.0	79.1	78.1

표 5 : 의사진단자료중 55대 사인에 대한 남자의 연도별 사망신고수

ICD	사 인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001-139	감염성 및 기생충질환	2153	2469	2232	2354	2251	2310
001-009	장관 감염병	170	106	177	188	151	134
010-018	결핵	1725	1898	1828	1891	1812	1873
033	백일해	1	1	1	3	-	1
036	수막구균 감염	1	1	5	8	7	1
037	파상풍	12	15	18	16	14	10
038	폐렴	156	240	125	152	188	214
055	홍역	19	55	12	19	8	7
084	홍역	1	1	3	-	1	2
140-208	악성신생물	5585	6357	6562	7313	8229	8961
151	위암	1786	1999	2101	2213	2375	2568
153	결장의 악성신생물	49	102	99	132	151	164
154	직장의 악성신생물	186	99	98	134	167	160
162	기관 및 폐의 악성신생물	623	759	815	940	1163	1246
204-208	백혈병	220	256	271	272	317	338
250	당뇨병	373	512	390	529	670	756
261	당뇨병성 소모증	-	3	38	53	56	35
262-263	기타 단핵갈로리 영양불량	-	-	-	-	2	1
280-285	빈혈	64	58	63	58	51	62
320-322	수막염	161	258	199	160	113	107
390-459	순환기계 질환	10738	11955	10994	11779	12267	11822
390-392	급성심부전	4	8	3	1	1	4
393-398	심혈관계 질환	36	15	54	81	76	73
401-405	고혈압	3852	2328	1667	1692	1559	1322
410-414	허혈성심근경색증	323	456	464	616	816	839
410	급성심근경색증	249	376	339	520	707	725
430-438	뇌혈관 질환	3467	5627	5858	6229	6686	6725
436	뇌출혈	1273	2752	3241	3321	3485	3368
440	뇌경색	136	161	56	85	86	91
480-486	폐암	536	651	555	555	560	551
487	인플루엔자	10	16	26	8	8	11
490-493	기관지염 폐기종 및 천식	626	675	582	631	765	740
531-533	위 및 십이지장 궤양	296	295	240	254	273	230
540-543	충수염	10	17	11	12	11	9
571	간질	2150	2574	2761	3164	3521	3512
580-589	신장 질환	389	390	401	373	454	521
600	신전립선 비대	13	11	12	20	18	37
470-759	선천적 이상	185	246	256	306	361	345
760-779	주산기애기원인어떤병태	39	41	36	29	29	55
780-799	징후증상 및 불명확한 병태	4280	3336	2897	2673	1699	1386
797	노상	1348	1288	1330	1511	1151	1022
800-999	손상 및 중독	9505	10896	11284	12881	13385	13798
800-829	굴절	1345	1992	2545	3052	3568	3926
850-869, 950-957	두개내 및 내부손상(신경포함)	1772	1835	2395	3306	3459	3845
940-949	화상	285	270	249	309	291	336
960-989	중독 및 독성영향	2445	2753	2527	2585	2548	2423
합 계		58598	66153	65821	72425	75510	76666

표 6 : 의사진단자료중 1981년을 기준으로 한 연도별 남자 기대사망수

ICD	사 인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001-139	감염성 및 기생충질환	2153	2415.9	2336.6	2537.4	2614.7	2657.5
001-009	장관 감염병	170	205.5	187.9	205.4	200.5	201.1
010-018	결핵	1725	1908.5	1864.2	2023.7	2107.3	2146.5
033	백일해	1	1.0	1.0	1.0	0.9	0.9
036	수막염	1	1.0	1.0	1.0	0.9	0.9
037	파상풍	12	15.9	14.7	15.8	15.4	15.5
038	폐혈액	156	182.7	173.5	188.0	188.2	190.2
055	홍역	19	24.0	20.5	22.5	20.4	20.1
084	말라리아	1	1.0	1.0	1.1	1.1	1.0
140-208	악성 신생물	5585	6154.4	6010.0	6541.6	6848.8	6946.6
151	위암	1786	1957.8	1919.2	2095.3	2207.4	2243.5
153	결장암	49	53.4	51.7	56.7	58.5	59.6
154	직장암	186	202.5	197.1	214.5	224.1	227.4
162	기관지암	623	682.4	667.1	727.5	765.7	775.2
204-208	내분비계 질환	220	249.7	233.0	250.8	249.2	248.7
250	당뇨병	373	409.0	400.2	435.4	458.2	464.4
261	영양소 결핍	-	-	-	-	-	-
262-263	타닌, 칼로리 영양불량	-	-	-	-	-	-
280-285	빈혈	64	71.2	67.7	73.6	75.3	76.2
320-322	수막염	161	206.6	186.2	201.3	193.3	191.7
390-459	순환기계 질환	10738	11782.1	11482.4	12577.7	13140.6	13355.3
390-392	급성 류마티스 열	4	5.0	4.7	5.0	4.9	4.7
393-398	만성 류마티스 심질환	36	39.9	38.2	41.3	42.5	43.0
401-405	고혈압성 심질환	3852	4195.0	4101.3	4499.6	4737.7	4807.1
410-414	허혈성 심질환	323	354.9	347.8	381.0	399.0	406.9
410	급성 심근경색증	249	272.6	267.0	292.8	306.4	312.8
430-438	뇌혈관 질환	3467	3790.7	3699.6	4058.9	4253.9	4321.3
436	뇌졸중	1273	1384.4	1353.3	1490.0	1567.0	1588.9
440	아테롬성 동맥경화증	136	148.3	145.2	162.5	171.2	175.4
480-486	폐렴	536	632.1	590.8	646.8	645.2	650.8
487	인플루엔자	10	11.2	10.4	10.8	10.6	10.3
490-493	기관지염	626	679.2	659.4	735.8	768.7	785.4
531-533	위십이지장 궤양	296	324.9	318.0	348.0	363.6	369.2
540-543	충수염	10	11.3	10.7	11.8	12.3	12.4
571	만성 간질환	2150	2386.2	2347.2	2549.2	2669.3	2721.8
580-589	신장 질환	389	432.6	419.6	456.0	467.4	477.7
600	전립선 비대	13	13.9	13.6	15.8	16.8	17.2
470-759	선천이 상	185	257.9	222.1	238.9	215.9	210.4
760-779	주산기에 원된 어떤 병태	39	70.4	60.1	63.2	56.2	53.1
780-799	정후증상 및 불명확한 병태	4280	4708.2	4557.3	5026.0	5184.7	5289.0
797	노수상	1348	1538.8	1501.6	1704.1	1772.4	1830.5
800-999	손상 및 중독	9505	10545.0	10154.3	10918.8	11065.0	11273.8
800-829	갈	1345	1497.6	1453.2	1568.6	1603.2	1644.7
850-869, 950-957	두개내 및 내부손상 (신경포함)	1772	1971.3	1912.1	2063.4	2105.4	2158.5
940-949	화상	285	286.4	271.0	295.1	292.4	300.7
960-989	중독 및 독성 영향	2445	2700.5	2622.9	2805.2	2863.8	2912.5
합 계		58598	65095.9	63165.0	68848.1	71222.2	72454.1

표 7 : 의사진단자료중 1981년을 기준으로한 남자의 연령보정 비례사망비 (ASPMR)

ICD	사 인	1981	1982	1983	1984	1985	19
001-139	감염성 및 기생충질환	100.0	102.2	95.5	92.8	86.1	86
001-009	관 감염병	100.0	51.6	94.2	91.6	75.3	66
010-018	결핵	100.0	99.5	98.1	93.4	86.0	87
033	백일해	100.0	96.2	111.1	303.0	-	111
036	수막염	100.0	96.2	555.6	808.1	795.5	111
037	파상풍	100.0	94.1	122.6	101.4	90.7	64
038	폐렴	100.0	131.3	72.0	80.9	99.9	112
055	홍역	100.0	229.1	58.5	84.3	39.2	34
084	말라리아	100.0	99.0	297.0	-	94.3	198
140-208	악성신생물	100.0	103.3	109.2	111.8	120.2	129
151	위암	100.0	102.1	109.5	105.6	107.6	114
153	직장암	100.0	190.9	191.5	232.6	258.3	275
154	기장암	100.0	48.9	49.7	62.5	74.5	70
162	기관지암	100.0	111.2	122.2	129.2	151.9	160
204-208	백혈병	100.0	102.5	116.3	108.5	127.2	135
250	당뇨병	100.0	125.2	97.5	121.5	146.2	162
261	당뇨병성 소모증	-	-	-	-	-	-
262-263	기타 탄수화물 영양불량	-	-	-	-	-	-
280-285	빈혈	100.0	81.4	93.1	78.8	67.8	81
320-322	수막염	100.0	124.9	106.9	79.5	58.5	55
390-459	순환기계 질환	100.0	101.5	95.7	93.6	93.4	88
390-392	급성류마티스	100.0	159.0	63.8	20.2	20.3	85
393-398	만성류마티스	100.0	37.6	141.4	196.2	178.9	169
401-405	고혈압성 질환	100.0	55.5	40.6	37.6	32.9	27
410-414	허혈성심장병	100.0	128.5	133.4	161.7	204.5	206
410	급성심근경색증	100.0	137.9	127.0	177.6	230.8	231
430-438	뇌혈관 질환	100.0	148.4	158.3	153.5	157.2	155
436	불명확한 급성 뇌혈관 질환	100.0	198.8	239.5	222.9	222.4	212
440	아테롬성 경화증	100.0	108.6	38.6	52.3	50.2	51
480-486	폐렴	100.0	103.0	93.9	85.8	86.8	84
487	인플루엔자	100.0	142.3	250.7	74.1	75.6	106
490-493	기관지염 폐기종 및 천식	100.0	99.4	88.3	85.8	99.5	94
531-533	위 및 십이지장 궤양	100.0	90.8	75.5	73.0	75.1	62
540-543	중수염	100.0	150.8	102.9	102.0	89.4	72
571	만성간 질환 및 경변증	100.0	107.9	117.6	124.1	131.9	129
580-589	신신증 후군 및 신증	100.0	90.2	95.6	81.8	97.1	109
600	전립선의 비대	100.0	79.4	88.0	126.4	106.9	215
470-759	선천 이상	100.0	95.4	115.2	128.1	167.2	164
760-779	추상기형	100.0	58.3	59.9	45.9	51.6	103
780-799	장후증상 및 불명확한 병태	100.0	70.9	63.6	53.2	32.8	26
797	노쇠	100.0	83.7	88.6	88.7	64.9	55
800-999	손상 및 중독	100.0	103.3	111.1	118.0	121.0	122
800-829	골절	100.0	133.0	175.1	194.6	222.6	238
850-869, 950-957	두개내 및 내부손상 (신경포함)	100.0	93.1	125.3	160.2	164.3	178
940-949	화상	100.0	94.3	91.9	104.7	99.5	111
960-989	중독 및 독성영향	100.0	101.9	96.3	92.1	89.0	83
합 계		100.0	101.6	104.2	105.2	106.0	105.8

표 8 : 의사진단자료중 55대 사인에 대한 여자의 연도별 사망신고수

ICD	사 인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001-139	감염성 및 기생충질환	1030	1199	1099	1088	994	1012
001-009	장관감염병	141	96	187	182	150	130
010-018	결핵	724	818	749	719	687	689
033	백일해	5	-	1	5	2	1
036	수막염	-	2	7	7	2	2
037	파상풍	8	4	2	5	3	5
038	폐렴	103	151	103	112	112	145
055	홍역	23	35	8	17	8	8
140-208	악성신생물	3578	3919	4032	4452	4905	5299
151	위암	1115	1198	1249	1306	1421	1503
153	직장암	53	97	105	104	129	134
154	직장암 및 항문암	139	103	98	115	150	138
162	기관지암	234	262	293	328	420	459
174	자궁경부암	157	186	195	199	218	288
180	자궁암	49	106	101	134	153	163
204-208	내분비성질환	189	177	208	224	261	282
250	당뇨병	274	376	312	469	546	527
261	영양소 결핍	-	3	27	39	40	27
262-263	기타 단핵 칼로리 영양불량	-	1	1	1	2	1
280-285	빈혈	55	77	54	74	82	63
320-322	수손파손	141	180	120	110	80	80
390-459	순환계 질환	8159	9366	8702	9834	10072	9739
390-392	급성심부전	1	9	6	5	3	4
393-398	만성심부전	69	31	76	109	99	113
401-405	고혈압	2886	1751	1221	1303	1290	1147
410-414	허혈성심근경색증	176	289	251	396	424	472
410	급성심근경색증	136	219	177	340	346	386
430-438	뇌혈관 질환	2716	4445	4855	5368	5724	5849
436	뇌졸중	986	2134	2752	2943	3022	2988
440	아테롬성 경화증	122	162	55	85	103	120
480-486	폐렴	387	490	436	507	434	389
487	인플루엔자	20	20	15	12	15	15
490-493	기관지염 및 천식	545	556	548	571	636	643
531-533	위 및 십이지장 궤양	108	128	89	90	104	129
540-543	충수염	6	10	11	8	11	11
571	만성간질 및 담낭증	641	648	690	806	834	840
580-589	신장질환	332	320	321	382	391	403
630-639	유선암	8	2	8	4	3	5
640-646, 651-676	직접 산과적 사망	126	84	70	60	55	52
470-759	선천이상	164	185	200	238	282	333
760-779	주산기예기원인어떤 병태	27	34	28	21	31	41
780-799	징후증상 및 불명확한 병태	3709	3185	3135	3348	2185	1870
797	뇌증상	2040	1872	2127	2509	1775	1633
800-999	손상 및 중독	3385	3942	3990	4418	4819	4698
800-829	굴절	351	611	754	914	1096	1120
850-869, 950-957	두개내 및 내부손상(신경포함)	505	533	718	965	1088	1090
940-949	화상	148	144	158	183	134	187
960-989	중독 및 독성영향	1422	1608	1459	1518	1590	1453
합 계		37193	41768	41803	46627	46931	46686

표 9 : 의사진단자료중 1981년을 기준으로 한 연도별 여자 기대사망수

ICD	사 연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001-139	감염성 및 기생충질환	1030	1153.6	1081.2	1174.5	1161.0	1135.1
001-009	장관 감염병	141	166.4	157.0	173.0	166.9	165.1
010-018	결핵	724	805.6	760.2	825.4	826.5	807.1
033	백일해	5	6.9	6.0	6.6	5.9	5.1
036	수막구균 감염	-	-	-	-	-	-
037	파상풍	8	11.4	10.4	11.4	10.3	10.1
038	폐렴	103	119.0	108.9	117.6	114.3	111.0
055	홍역	23	29.0	25.3	27.1	24.7	24.1
140-208	악성 신생물	3578	3935.7	3765.3	4145.8	4197.0	4142.3
151	위암	1115	1228.3	1181.0	1309.6	1327.0	1310.5
153	결장의 악성 신생물	53	58.9	56.5	62.7	63.3	62.1
154	직장 및 항문의 악성 신생물	139	153.2	148.2	163.9	165.5	164.4
162	기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234	259.1	249.5	276.8	280.9	277.8
174	여성 유방의 악성 신생물	157	171.1	164.9	179.3	181.5	180.5
180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49	53.3	51.3	56.2	57.4	56.5
208-250	백혈병	189	207.4	189.4	201.0	199.9	195.3
250	당뇨병	274	304.1	293.5	327.4	332.8	328.7
261	당뇨병성 소모증	-	-	-	-	-	-
263	기타 단백질 칼로리 영양불량	-	-	-	-	-	-
285	빈혈	55	60.7	56.9	62.4	62.4	61.4
322	수막염	141	166.6	147.0	157.9	149.3	143.9
359	수근관 증후군	8159	9021.2	8754.7	9799.2	9894.8	9823.4
392	급성 류마티스 관절염	1	1.2	1.2	1.4	1.5	1.5
398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	69	75.8	72.1	77.7	78.3	77.3
405	고혈압성 심질환	2886	3181.0	3094.3	3471.9	3518.8	3495.7
414	허혈성 심근경색증	176	196.5	191.7	214.2	215.4	215.3
410	급성 심근경색증	136	150.9	147.5	164.6	166.0	166.4
430-438	뇌혈관 질환	2716	3002.0	2921.4	3276.9	3316.8	3298.4
436	뇌졸중	986	1091.0	1065.4	1197.6	1213.0	1207.7
440	아테롬성 동맥경화증	122	134.6	133.4	152.2	153.7	153.6
480-486	폐렴	387	448.2	417.9	461.0	445.1	439.0
487	인플루엔자	20	24.8	23.4	26.2	25.0	24.9
490-493	기관지염 폐기종 및 천식	545	638.9	630.5	717.3	722.4	721.7
531-533	위 및 십이지장 궤양	108	119.4	116.6	130.8	131.9	131.4
540-543	중수염	6	6.4	6.0	6.6	6.5	6.3
571	만성 간질환 및 경변증	641	706.0	677.2	749.7	759.3	748.6
580-589	신염 신증후군 및 신증	332	365.4	347.3	380.0	380.8	374.3
630-639	유산	8	8.4	7.9	8.4	8.5	8.2
640-646, 651-676	직접 산과적 사망	126	133.2	124.9	131.0	131.2	128.2
470-759	선천 이상	164	218.9	193.7	208.4	187.9	185.4
760-779	주산기에 기원한 어떤 형태의	27	48.8	44.9	50.0	43.1	44.2
780-799	정후증상 및 불명확한 형태의	3709	4101.8	4022.5	4539.9	4534.1	4520.6
797	노쇠	2040	2209.5	2222.3	2554.4	2559.4	2570.9
800-999	준상 및 중독	3385	3820.8	3517.7	3790.2	3756.4	3635.5
800-829	술 결	351	384.3	356.6	385.7	383.4	374.1
850-869, 950-957	두개내 및						
	내부손상 (신경조합)	505	554.0	511.7	553.2	551.1	536.5
940-949	화상	148	162.3	147.3	158.0	154.8	149.8
960-989	중독 및 독성 영향	1422	1563.2	1448.6	1555.5	1544.4	1485.0
합	계	37193	41506.2	39868.2	44271.5	44415.4	43910.1

표 10 : 의사진단자료중 1981년을 기준으로한 여자의 연령보정비례 사망비(ASPMR)

ICD	사 인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001-139	감염성 및 기생충질환	100.0	103.9	101.6	92.6	85.6	89.1
001-009	장관 감염병	100.0	57.7	119.1	105.2	90.4	78.6
010-018	결핵	100.0	101.5	98.5	87.1	83.1	85.4
033	결핵의 합병증	100.0	-	16.6	75.9	33.8	17.1
038	수막염	-	-	-	-	-	-
037	파라티프종	100.0	35.1	19.3	43.9	29.2	48.8
038	파라티프종	100.0	126.9	94.6	95.2	98.0	130.6
050	두창	-	-	-	-	-	-
055	두창 (마마)	100.0	120.7	31.6	62.7	32.3	33.0
084	라사열	-	-	-	-	-	-
140-208	악성 신생물	100.0	99.6	107.1	107.4	118.9	127.9
151	위암	100.0	97.5	105.8	99.7	107.1	114.7
153	결장암	100.0	164.7	186.0	166.0	203.8	214.4
154	직장암	100.0	67.2	66.1	70.2	90.6	83.9
162	기관지암	100.0	101.1	117.4	118.5	149.5	165.3
174	여성유방암	100.0	108.7	118.2	111.0	120.1	159.5
180	자궁경암	100.0	198.8	196.9	238.4	266.8	288.7
204-208	뇌종양	100.0	85.4	109.8	111.4	130.6	144.4
250	당뇨병	100.0	123.6	106.3	143.3	164.0	160.3
261	암	-	-	-	-	-	-
262-263	기타 단세포암	-	-	-	-	-	-
280-285	빈혈	100.0	126.9	94.9	118.6	131.4	102.6
320-322	수막염	100.0	108.1	81.6	69.7	53.6	55.6
390-459	순환계 질환	100.0	103.8	99.4	100.4	101.8	99.1
390-392	심근경색	100.0	769.2	500.0	352.1	204.1	268.5
393-398	심부전	100.0	40.9	105.5	140.3	126.4	146.2
401-405	고혈압	100.0	55.0	39.5	37.5	36.7	32.8
410-414	허혈성 심장질환	100.0	147.1	130.9	184.8	196.9	219.3
410	심근경색	100.0	145.2	120.0	206.6	208.5	231.9
430-438	뇌혈관 질환	100.0	148.1	168.2	163.8	172.6	177.3
436	뇌졸중	100.0	195.6	258.3	245.7	249.1	247.4
440	아테롬성 동맥경화증	100.0	120.4	41.2	55.9	67.0	78.1
480-486	폐렴	100.0	109.3	104.3	110.0	97.5	88.6
487	인플루엔자	100.0	80.8	64.1	45.9	60.0	60.2
490-493	기관지염	100.0	87.0	86.9	79.6	88.0	89.1
531-533	위 및 십이지장 질환	100.0	107.2	76.3	68.8	78.9	98.2
540-543	췌장 질환	100.0	157.0	183.6	122.1	169.2	176.0
571	만성간질환	100.0	91.8	101.9	107.5	109.8	112.2
580-589	신장 질환	100.0	87.6	92.4	100.5	102.7	107.7
630-639	유방 질환	100.0	23.9	101.4	47.7	35.4	60.7
640-646, 651-676	임신, 분만 및 산과적 사망	100.0	63.1	56.0	45.8	41.9	40.6
470-759	선천이상	100.0	84.5	103.2	114.2	150.0	179.6
760-779	추상기에 기원한 어떤 병태	100.0	69.7	62.4	42.0	72.0	92.9
767	본만 이상	-	-	-	-	-	-
780-799	장후증상 및 불명확한 병태	100.0	77.6	77.9	73.7	48.2	41.4
797	노출성 폐렴	100.0	84.7	95.7	98.2	69.4	63.5
800-999	손상 및 중독	100.0	103.2	113.4	116.6	128.3	129.2
800-829	골절	100.0	159.0	211.5	237.0	285.9	299.4
850-869, 950-957	두개내 및 내부손상 (신경포함)	100.0	96.2	140.3	174.5	197.4	203.2
940-949	화상	100.0	88.7	107.3	115.8	86.8	124.8
960-989	중독 및 독성영향	100.0	102.9	100.7	97.6	103.0	97.8
합 계		100.0	100.6	104.9	105.3	105.7	106.3

참 고 문 헌

1. 경제기획원 (1980, 1985) :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2. 경제기획원 (1981-1985) : 사망원인통계.
3. 공세권 외(1983) 한국의 사망력과 사망원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4. Arthur, WB(1984) : The Analysis of Linkages in Demographic Theory, Demography 21 : 109-128.
5. Arthur, WB and MA Stoto(1983) : An Analysis of Indirect Mortality Estmation, Population Studies 37 : 301-314.
6. Bennett, N and S Horiuchi(1981) : Estimating the Completeness of Death Registration in a Closed Population, Population Index 47 : 207-221.
7. Bennett, N and S Horiuchi(1984) : Mortality Estimation from Registered Deaths in Less Developed Countries, Demography 21 : 217-233.
8. Brass, W et al(1968) : Methods of Analysis and Estmation, Chapter 3 in The Demography of Tropical Africa,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ew Jersey.
9. Ewbank, DC(1982) : The Sources of Error in Brass's Method for Estimating Child Survival : the Case of Bangladesh, Population Strdies 36 : 459-474.
10. Goldman, N(1980) : Far Eastern Pattern of Mortality, Population Studies 34 : 5-19.
11. Hobcraft, JN, N Goldman and VC Chidambaram(1982) : Advances in the P/F Ratio Method for the Analysis of Birth Historieds, Populution Studies 36 : 291-315.

12. Hiriuchi, S and AJ Coale(1982) : A Simple Equation for Estimating the Expectation of Life at Old Ages, Population Studies 36 : 317–326.
13. Manton, KG, E Stallard, and JW Vaupel(1981) : Methods for Comparing the Mortality Experience of Heterogeneous Populations, Demography 18 : 389–410.
14. Martin, LG(1980 : A Modification for Use in Destablized Populations of Brass's Technique for Estimating Completeness of Death Registration, Population Studies 34 : 381–395.
15. Menken, J, J Trussell, D Stempel and O Babakol(1981) : Proportional Hazards Lifes Table Models : An Illustrative Analysis of Socio–Depographic Infulences on Marriage Dissolution in the United States, Demography 88 : 181–200.
16. Palloni A(1980) : Estmating Infact and Childhood Mortality Under Condidtions of Changing Mortality, Population Studies 34 : 129–142.
17. Preston, SH and N Bennett(1983) : Census–based Method for Estimating Adult Mortality, Population Studies 37 : 91–104.
18. Preston, S and AJ Coale(1980) : Estmating the Completeness of Reporting of Adulting Deathes in Populations that are Approxemately Stable, Population Index 46 : 179–202.
19. Preston, S and K Hill(1980) : Estimation the Completeness of Death Registration, Population Stdiss 34 : 349–366.
20. Trussell, TJ (1975) : A Re–estimation of the Multiplying Factors for the Brass Technique for Determining Childhood Survivorship Rates, Population Studies 29 : 97–107.

21. Trussell, TJ and K Hill(1980) : Fertility and Mortality Estimation from the Panama Retrospective Demographic Survey, 1976, Population Studies 34 : 551 – 127.
22. Zlotnik H and K Hill(1981) : The Use of Hypothetical Cohorts in Estimating Demographic Parameters Under Conditions of Changing Fertility and Mortality, Demography 18 : 103 – 122.

老齡人口의 特性 및 變化樣相에
對한 基礎研究

韓國人口學會

안계춘·이규식
신영수·김성이

目 次

I. 老齡人口의 變化趨勢	413
II. 老齡人口의 社會·人口學的 特性	418
1. 年齡 및 性別構造	418
2. 老齡人口의 結婚狀態	419
3. 老齡人口의 教育程度	420
4. 老齡人口의 健康狀態	421
5. 老齡人口의 社會活動參與	424
III. 老齡人口의 經濟的 特性	426
1. 老齡人口의 經濟活動狀態	426
2. 老齡人口의 就業構造變化	431
3. 老人生活實態調查(1987)에 나타난 特性分析	434
4. 老人生活實態의 國際比較	439
IV. 老人福祉實態와 對策	446
1. 老人問題의 原因	446
2. 老人集團과 福祉施策	448
3. 老人福祉對象者와 實態	450
4. 要約 및 建議	458

I. 노령인구의 변화추세

노령인구의 변화추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노령인구의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노령인구는 65세 이상의 인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것은 인구의 연령구성은 대별할 때 14세 이하의 인구를 소년인구, 15-64세의 인구를 생산연령인구, 65세 이상을 노년인구로 구분하는 인구학적 관행에 근거를 두고 있다. 많은 직업의 경우 65세가 정년으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구분은 나름대로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구분이 절대적인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만 60세가 되면 회갑 또는 갑년이라하여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60세를 전후해서 정년을 맞게되는 직업이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60세 이상의 인구를 노령인구로 간주하는 것도 무방하다. 요컨대 우리 사회에서는 인구학적 관행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를 노령인구로 보든 사회적 관습을 고려하여 60세 이상 인구를 노령인구로 보든 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이 두가지 관행을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 그러나 자료이용의 편의상 노령인구의 변동추세를 살펴보는데 있어서는 65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였고, 노령인구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주로 60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65세 이상의 인구를 중심으로 1960년 이후 우리나라 노령인구의 증가추세를 보면 표 1-1과 같다. 우선 1960년부터 1985년까지 우리나라의 노령인구는 그 절대수에 있어서나 백분비 및 노령화지수를 통해서 보니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60년에 노령인구의 비율과 노령화지수

가 1970년에 비해 약간 크게 나타난 것은 1960년도 인구센서스에서는 나이를 만으로 하지 않고 세는 나이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최근 1980년에서 1985년 사이에 노령인구의 연평균성장율은 3.8%로서 같은 기간 전체인구의 성장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노령인구가 이렇게 많이 성장한 것은 사망율의 저하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60년대초 평균 기대수명이 남녀 각각 52.7, 57.7이었던 것이 78-79년에 각각 62.7과 69.1로서 20년 동안에 남녀 모두 10년 이상 늘어났다.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한 신인구추계 결과를 토대로 1990년 이후 2020년까지의 노령인구 추이를 보면 역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0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거의 300만에 이르고 2020년에 가서는 530만이 넘는다. 1990년 이후 2020년 사이의 노령인구의 연평균성장율은 3% 이상으로 역시 전체인구의 성장을 보다 훨씬 더 높다. 노령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990년에 4.7%에서 2020년에는 11.4%나 된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바야흐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표 1-1> 노령인구의 추이 : 1960-2020

연 도 ¹⁾	총 인 구	65세이상인구	노령인구의 백 분 율 (%)	노령화지수 ²⁾
1960	24,982,423	933,342	3.74	9.2
1970	31,435,252	1,039,378	3.31	7.9
1980	37,406,815	1,446,114	3.87	11.43
1985	40,419,652	1,749,549	4.33	14.7
1990	42,793,000	2,026,000	4.73	18.3
2000	46,828,000	2,972,000	6.35	29.3
2010	49,486,000	4,283,000	8.66	44.5
2020	50,193,000	5,746,000	◎ 11.45	69.5

1) 1960-1985 : 인구센서스 자료. 1990-2020: 경제기획원 신인구추계자료

2) (65세 이상인구 / 14세 이하인구) × 100

우리나라 인구의 노령화 정도를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기위하여 관계되는 수치들을 제시하면 표 1 -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평균 기대수명을 보면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 보다 남녀 모두 아직 낮은 편이다. 1982 년도의 우리나라 평균기대수명이 남녀 모두 선진국들의 20 여년 전 수준과 비슷하다. 그러나 지난 20 여년 동안 평균수명이 늘어난 정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향상을 보였다. 20년 후면 우리나라도 오늘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고령화사회에 도달하게 되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1980년의 65세 이상 인구를 100으로 보았을 때 2000년의 우리나라 노령인구는 206으로 다른 선진국들보다 훨씬 더 높다.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어느정도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령화의 속도가 느리고, 우리나라는 이 기간동안에 매우 빠른 노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980년과 1985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노령인구의 지역별 추이를 보면 1980년에는 60세 이상 노령인구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그들의 48%가 면부인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30%만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5년에 와서는 60세 이상 노령인구의 40%가 면부인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47%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 노령인구의 도시농촌별 분포가 역전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기간동안에 60세 이상 노령인구의 연평균 성장율을 보면 도시지역이 8.5%이고, 읍부와 면부를 합한 농촌지역이 1.2%로서 도시지역의 성장율이 훨씬 더 높다. 이는 주로 도시인구의 증가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전체인구에서 60세 이상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각 지역 모두 노령인구비율의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80년이나 85년 모두 면부 농촌지역에서 노령인구의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표 1-2>

주요선진국의 평균수명과 연령구성의 변화

나라	평균기대수명				각 연령층의 상대적 크기 (1980 = 100)					
	남		여		0 - 14		15 - 64		65 이상	
	1960	1982	1960	1982	1960	2000	1960	2000	1960	2000
아일랜드	68	70	71	76	84	105	83	136	85	111
스웨덴	67	71	71	78	85	101	83	116	63	138
이탈리아	67	71	72	78	100	95	91	103	64	118
뉴질랜드	68	70	74	77	89	96	70	118	72	124
영국	68	71	74	77	103	100	95	101	75	108
프랑스	66	69	72	77	99	96	96	104	74	97
일본	65	74	70	79	103	90	76	109	54	174
독일	67	70	73	77	106	98	92	102	80	111
핀란드	65	69	72	78	137	97	85	102	58	121
네덜란드	71	73	75	79	108	96	75	109	65	123
스위스	68	71	74	78	82	106	67	125	65	150
캐나다	68	71	74	79	105	110	66	121	63	153
프랑스	67	71	74	79	100	99	82	110	74	111
서독	67	70	72	77	101	95	92	98	66	104
덴마크	70	72	75	78	107	94	89	104	68	104
미국	67	71	73	78	108	105	72	116	68	125
노르웨이	71	75	75	80	100	97	92	104	68	103
이탈리아	71	73	76	79	101	96	87	108	68	103
스웨덴	69	77	74	81	99	94	84	101	64	113
한국	52	64	56	71	82	103	57	144	56	206

자료 : World Development Report 1984,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도시지역은 도시화의 진전으로 노령인구의 성장율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도시인구의 연령구조가 젊기 때문에 노령인구의 비율은 작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농촌지역은 노령인구의 성장율은 낮지만 젊은 층의 도시이동으로 노령인구의 비율은 높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Ⅱ. 노령인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 연령 및 성별구조

60세 이상 노령인구의 연령구성을 보면 60 - 64세 연령층이 37%로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 그 구성비가 작아지고 있다(표 2 - 1 참조). 남자의 경우에는 60대 노인층의 구성비가 여자보다 더 크고, 7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여자의 구성비가 더 크다. 이는 여자의 평균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표 2-1〉 노령인구의 연령 및 성별 구성 : 1985

연령	전체		남자		여자		성비
	실수	구성비	실수	구성비	실수	구성비	
60 - 64	1,006,876	36.5	440,387	40.3	566,489	34.1	77.74
65 - 69	722,817	26.2	306,710	28.1	416,107	25.0	73.71
70 - 74	501,254	18.2	190,553	17.4	310,701	18.7	61.33
75 - 79	312,190	11.3	103,513	9.5	208,577	12.5	49.63
80 이상	213,388	7.7	51,303	4.7	162,085	9.7	31.65
계	2,756,425	100.0	1,092,466	100.0	1,663,959	100.0	65.65

자료 :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경제기획원, 1985.

60세 이상 노령인구의 성별구성을 보면 쉽게 예상할 수 있는대로 성비가 66으로 여자가 훨씬 더 많다. 60 - 64세 연령층에서는 성비가 78로서 가장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비는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도

주로 여자의 평균수명이 길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75 - 79세 연령층에서는 여자가 남자의 2배가 넘고, 8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여자가 남자의 3배가 넘는다.

2. 노령인구의 결혼상태

표 2 -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60세 이상 노령인구의 결혼상태를 보면 유배우 노인이 55%로서 사별한 노인 44%보다 더 많다. 이혼과 미혼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극히 적다. 연령별로 보면 나이가 들수록 사별이 많아지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표 2 - 2〉 노령인구의 결혼상태 : 1985

성 별	노 령 인 구	결 혼 상 태			
		유배우	사 별	이 혼	미 혼
전 체	2,756,425 (100 %)	55.5	44.0	0.3	0.2
남 자	1,092,466 (100 %)	86.5	13.0	0.3	0.2
여 자	1,663,959 (100 %)	35.2	64.3	0.3	0.2

자료 :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경제기획원, 1985.

그런데 성별로 보면 결혼상태가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남자의 경우에는 유배우가 87%로서 압도적으로 많고, 여자의 경우에는 사별이 64%로서 유배우보다 훨씬 더 높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가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살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배우자를 잃었을 경우 남자는 배우자를 새로이 맞아들이는 경향이 더 많고 여자는 그대로

사는 경향이 더 많은 현상도 결혼상태의 성별 차이를 가져오는 한 요인이 될 것이다.

3. 노령인구의 교육정도

노령인구의 사회적 특성 가운데에서 교육정도는 특히 중요하다. 노령인구를 위한 대책이나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교육정도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1980년과 1985년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토대로 60세 이상 노령인구의 교육정도별 분포를 보면 표 2-3과 같다. 전체적으로 노령인구의 교육정도는 60세 미만의 생산연령층 인구에 비해 훨씬 낮은 셈이다. 1980년 현재 60세 이상 노령인구의 72%가 학교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그 나머지 대부분이 초등교육을 받았을 뿐이다. 전문학교나 대학교육을 받은 노인인구는 1.4%에 불과하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교육정도가 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기회에 있어서 전통적인 남녀의 불평등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1985년에 와서는 1980년에 비해 노령인구의 교육정도가 남녀를 막론하고 현저하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노령인구가 64%나 된다. 교육정도의 남녀간 차이도 여전히 존재한다. 교육수준이 높은 40대나 50대가 노령인구로 진입하게 되면 앞으로 노령인구의 교육정도는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노령인구의 교육정도가 지역별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은 물론이다. 예상되는 대로 도시지역의 노인들이 농촌지역보다 더 높은 교육수준을 보이고 있다. 도시의 노인들이 각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뿐 아니라, 농촌지역에서 교육을 많이 받은

< 표 2 - 3 >

노령인구의 교육정도 : 1980-1985

성 별	1980				
	노령인구	불 취 학	국졸및중퇴	중고졸및중퇴	대졸및중퇴
남 자	912,703 100 %	57.5	28.7	10.8	3.0
여 자	1,355,468 100 %	82.1	15.5	2.1	0.3
전 체	2,268,171 100 %	72.2	20.8	5.6	1.4

성 별	1985				
	노령인구	불 취 학	국졸및중퇴	중고졸및중퇴	대졸및중퇴
남 자	1,092,466 100 %	45.3	34.0	15.7	5.0
여 자	1,663,959 100 %	75.5	20.4	3.6	0.5
전 체	2,756,425 100 %	63.5	25.8	8.4	2.3

자료 :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서 1980, 1985, 경제기획원

노인들이 도시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4. 노령인구의 건강상태

이 절부터는 1987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실시한 한국노인 생활실태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노인들의 몇가지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노인들의 일반적인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의 건강상태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반응을 보면 표 2-4와 같다. 전체적으로 60세 이상 노인들의 60% 정도가 현재의 건강상태가

〈표 2 - 4〉 노령인구의 건강상태

연령	전체			남자			여자		
	실수	예	아니오	실수	예	아니오	실수	예	아니오
60 - 69	452 (100%)	66.6	33.4	215 (100%)	74.0	26.0	237 (100%)	60.0	40.0
70 - 79	268 (100%)	52.6	47.4	108 (100%)	57.4	42.6	160 (100%)	49.4	50.6
80 이상	78 (100%)	38.4	61.6	21 (100%)	28.6	71.4	57 (100%)	42.1	57.9
계	798 (100%)	59.1	40.9	344 (100%)	66.0	34.0	454 (100%)	54.0	46.0

자료 : 1987년 한국노인생활 실태조사, 경제기획원.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40% 정도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건강상태가 좋다는 사람의 비율은 줄어들고 그렇지 않다는 사람의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성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남자의 경우가 여자보다 더 크다. 60대와 70대의 남자들은 같은 연령의 여자들보다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고, 80대에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노인들의 40%가 현재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질병으로 인해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30%에 불과하다. 이 10%의 차이는 현재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약물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을 정도로 질병을 앓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다. 현재 질병으로 인하여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성별로 보면 남자가 25%이고 여자가 34%로서 여자의 경우가 더 높다. 이는 현재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여자의 경우에 더 높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아팠거나 신체적인 보살핌이 필요하였을 때 누가 가장 많이 도와주었는지에 대한 반응을 보면 배우자가 28.2%, 아들과 며느리가 45.1%, 딸이나 사위가 10.3%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역시 노인들은 배우자나 자식들의 도움을 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성별로 보면 매우 현저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남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사람이 63%로서 가장 많고 아들이나 며느리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람이 22%에 불과한데 반해서, 여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2% 아들이나 며느리가 62%를 차지하고 있다. 남자의 경우에는 여자보다 유배우율이 높기도 하거니와 남편이 병이 났을 때는 부인이 일차적인 간호인 역할을 하고, 여자의 경우에는 유배우율이 낮기도 하거니와 배우자가 있어도 남편이 도와주는 경우보다 아들이나 며느리가 도와주는 예가 더 많은 것이 전통적인 우리의 생활습관이 아닌가 여겨진다. 또한 딸이나 사위의 도움을 받는 비율도 남자의 경우에는 4%에 불과한데, 여자의 경우에는 15%나 된다.

5. 노령인구의 사회활동 참여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활동을 ①결혼식, 장례식, 생일파티 등 가족모임 ②연극, 영화, 음악회, 전람회, 각종 경기 관람 ③클럽, 단체 등의 사교모임 ④도서관 이용 ⑤공원 산책 등 5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를 상, 중, 하 세 가지로 구분하여 그 분포를 보면 표 2-5와 같다. 전체적으로 볼때 이러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은 노인의 비율은 4% 정도에 불과하고, 50%가 중정도에 해당하며, 46%가 하 정도에 해당된다. 노인들은 이러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전반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남녀를 막론하고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사회활

〈표 2 - 5〉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도 (%)

연령	전체			남자			여자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60 - 69	3.1	56.6	40.3	2.3	60.0	37.7	3.8	53.6	42.6
70 - 79	4.8	42.2	53.0	4.6	42.6	52.8	5.0	41.9	53.1
80 이상	6.4	36.9	57.7	-	28.6	71.4	8.8	38.6	52.6
계	4.1	49.7	46.2	2.9	52.6	44.5	4.8	47.6	47.6

자료 : 1987년 한국노인생활 실태조사, 경제기획원.

동에의 참여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사회활동 참여가 여자의 경우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낮다는 사실은 그들의 단체 가입상황에도 반영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90%의 노인들이 노인 또는 퇴직자의 단체(모임)에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비율은 나이가 들수록 더 높고,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다.

가족내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비율도 전체적으로 54.3%이고, 남자의 경우가 63%로서 여자의 경우(48%)보다 더 높다. 손자나 손녀를 돌보는 일에 종사하는 경우가 37%에 불과하고, 주위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38%나 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은 우리나라의 노인들 가운데 상당한 부분이 사회활동에서 소외되고 고독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나라의 많은 노인들이 가족안에서 가족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 가운데에도 가족생활로부터 소외되고 그 밖의 사회활동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독가구나 노인들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노인들은 더욱 소외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Ⅲ. 노령인구의 경제적 특성

15세 이상의 인구를 생산가능인구로 하여 이들을 또한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실제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취업자, 현재 직업은 없지만 취업을 하기 위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 및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는데,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하여 경제활동인구로 규정한다. 또한 비경제활동인구라 하면 기사에 종사하는 가정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노자와 심신장애자 및 자발적으로 자선사업 및 종교단체에 관여한 자 등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세가지 유형중에 특히 노령인구의 경제적 상태 변화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1. 노령인구의 경제활동 변화

<표 3 - 1>에 근거하면 60세 이상 인구는 1980~85년간 연평균 3.36%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성별로 구분하여 보아도 역시 별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다.

이중 경제활동인구의 변화를 살펴보면 1970년 441천명에서 1985년 882천명으로 지난 15년간 두배의 증가를 보였다. 이를 기간별로 보면 70년대 전후반기 및 80년대 전반기에 각각 연평균 증가율 6.26%, 3.55%, 및 4.06%로 높은 증가를 보였다. 특히 80년대에 와서 노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규모는 눈에 띄게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노령인구의 높은 경제활동규모 증가를 남녀별로 구분하여 보면 전기간을 통하여 여자가 남자보다 앞서고 있으며 특히 80년대에 와서는

< 표 3 - 1 >

노령인구 (60 세이상) 의 경제활동 변화추이

(단위 : 천명 , %)

	1970*	1975*	1980	1985	연평균증가율		
					1970-75	1975-80	1980-85
1. 60세이상인구							
총 수	-	-	2,546	3,012	-	-	3.36
남 자	-	-	1,026	1,206	-	-	3.23
여 자	-	-	1,520	1,805	-	-	3.44
2. 경제활동인구							
총 수	441	603	720 (28.3)	882 (29.3)	6.26	3.55	4.06
남 자	292	390	463 (45.1)	534 (44.3)	5.79	3.43	2.85
여 자	149	213	257 (16.9)	347 (19.2)	7.15	3.76	6.00
3. 취업 인 구							
총 수	438 (0.7)	598 (0.8)	716 (0.6)	879 (0.3)	6.13	3.60	4.10
남 자	290 (0.7)	387 (0.8)	458 (1.1)	532 (0.4)	5.77	3.37	3.00
여 자	148 (0.7)	211 (0.9)	257 (0.0)	347 (0.0)	7.09	3.94	6.00

주 : 1) 경제활동인구의 ()안은 경제활동 참가율

2) 취업인구의 ()안은 실업률

자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호

* 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가 보고서에서 빠져있음.

연평균증가율이 남자는 2.85%, 여자는 6.00%로 여자의 숫적 증가는 남자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 그러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녀 각각 1980년에 45.1%, 16.9%와 1985년에 44.3%, 19.2%에 전주어 보면 노령여자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와 규모의 증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되리라 보인다. 즉, 아직도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1980~85 기간에 남자는 참가율이 줄고, 여자의 경우는 더욱 높아졌기에 여자의 양적 팽창이 계속되리라는 것이다.

취업인구 측면에서의 통계를 살펴보면, 총수나 남녀 구분에서 전 기간을 통하여 증가율의 변화는 경제활동인구 측면에서의 변화와 거의 비슷하다. 이는 <실업율이 모두 1% 미만으로 대부분의 노령인구는 경제활동참가가 곧 취업을 의미한다>고 말 할 수 있다. 다시말하면, 노령인구는 취업기회 (employment opportunity)가 주어질때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노령인구의 경제적 활용을 위해서는 그들을 위한 직업창조 (jobcreation)가 절실히 요구되며, 앞으로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령인구의 경제활동참여 의욕이 고취되리라는 전망하에서 그들을 위한 고용기회 부여는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이제 표 3 - 2에 의하여 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중 노령인구의 구성에 변화추이를 살펴보자. 전국 총수에서 60세이상 노령경제활동인구의 구성비를 보면, 1970년 10,062천명 중 441천명으로 4.4% 차지하다가 꾸준히 증가하여 1985년에는 총 15,592천명 중 882천명으로 5.7%를 차지하여 지난 15년간 1.3%「포인트」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15~19세 연령그룹이 구성비가 14.0%에서 4.6%로 꾸준한 감소현상과 20~24세 및 55~59세 연령그룹의 비교적 일정수준 유지현상을 감안하면 상당

< 표 3 - 2 >

경제활동인구의 연령계층별 구조변화

(단위: 천명, %)

전 국	1970	1975	1980	1985
총 수	10,062 (100.0)	12,193(100.0)	14,431(100.0)	15,592(100.0)
15-19	1,412 (14.0)	1,528(12.5)	1,194(8.3)	713(4.6)
20-24	1,071 (10.6)	1,425(11.7)	1,974(13.7)	1,868(12.0)
25-54	6,641 (66.0)	7,974(65.4)	9,766(67.7)	11,310(72.5)
55-59	497 (4.9)	663(5.4)	777(5.4)	820(5.3)
60"	441 (4.4)	603(4.9)	720(5.0)	882(5.7)
남 자	6,447 (100.0)	7,822(100.0)	9,019(100.0)	9,617(100.0)
15-19	750 (11.6)	781(10.0)	559(6.2)	314(3.3)
20-24	557 (8.6)	760(9.7)	997(11.1)	839(8.7)
25-54	4,518 (70.1)	5,459(69.8)	6,526(72.4)	7,463(77.6)
55-59	330 (5.1)	432(5.5)	476(5.3)	467(4.9)
60"	292 (4.5)	390(5.0)	463(5.1)	534(5.6)
여 자	3,615 (100.0)	4,371(100.0)	5,412(100.0)	5,975(100.0)
15-19	662 (18.3)	747(17.1)	635(11.7)	399(6.7)
20-24	514 (14.2)	665(15.2)	977(18.1)	1,029(17.2)
25-54	2,123 (58.7)	2,515(57.5)	3,234(59.9)	3,848(64.4)
55-59	167 (4.6)	231(5.3)	301(5.6)	353(5.9)
60"	149 (4.1)	213(4.9)	257(4.7)	447(5.8)
농 가	1970	1975	1980	1985
총 수	5,116 (100.0)	5,578(100.0)	5,163(100.0)	3,847(100.0)
15-19	739 (14.4)	721(12.9)	349(6.8)	120(3.1)
20-24	505 (9.9)	575(10.3)	535(10.4)	300(7.8)
25-54	3,270 (63.9)	3,400(61.0)	3,294(63.8)	2,503(65.1)
55-59	292 (5.7)	444(8.0)	468(9.1)	393(10.2)
60"	310 (6.1)	438(11.9)	520(10.1)	532(13.8)
남 자	2,975 (100.0)	3,251(100.0)	2,933(100.0)	2,188(100.0)
15-19	405 (13.6)	416(12.8)	202(6.6)	75(3.4)
20-24	278 (9.3)	333(10.2)	330(11.3)	191(8.7)
25-54	1,919 (64.5)	1,953(60.1)	1,806(61.6)	1,390(63.5)
55-59	177 (5.9)	272(8.4)	266(9.1)	202(9.2)
60 +	196 (6.6)	277(8.5)	330(11.3)	331(15.1)
여 자	2,141 (100.0)	2,327(100.0)	2,230(100.0)	1,659(100.0)
15-19	334 (15.6)	305(13.1)	147(6.6)	45(2.7)
20-24	227 (10.6)	242(10.4)	206(9.2)	109(6.6)
25-54	1,351 (53.1)	1,447(62.2)	1,487(66.7)	1,113(67.1)
55-59	115 (5.4)	172(7.4)	202(9.1)	190(11.5)
60 +	114 (5.3)	161(6.9)	189(8.5)	202(12.2)
비농가	1970	1975	1980	1985
총 수	4,936 (100.0)	6,615(100.0)	9,268(100.0)	11,745(100.0)
15-19	673 (13.6)	807(12.2)	845(9.1)	593(5.0)
20-24	566 (11.4)	850(12.8)	1,439(15.5)	1,568(13.4)
25-54	3,371 (68.2)	4,574(69.1)	6,476(69.9)	8,807(75.0)
55-59	205 (4.1)	219(3.3)	309(3.3)	427(3.6)
60"	131 (2.6)	165(2.5)	200(2.2)	349(3.0)
남 자	3,472 (100.0)	4,571(100.0)	6,086(100.0)	7,429(100.0)
15-19	345 (9.9)	365(8.0)	357(5.9)	239(3.2)
20-24	279 (8.0)	427(9.3)	667(11.0)	649(8.7)
25-54	2,599 (74.9)	3,506(76.7)	4,722(77.6)	6,074(81.8)
55-59	153 (4.4)	160(3.5)	210(3.5)	265(3.6)
60"	96 (2.8)	113(2.5)	133(2.2)	204(2.7)
여 자	1,474 (100.0)	2,044(100.0)	3,182(100.0)	4,316(100.0)
15-19	328 (22.3)	442(21.6)	488(15.3)	354(8.2)
20-24	287 (19.5)	423(20.7)	772(24.3)	920(21.3)
25-54	772 (52.4)	1,068(52.3)	1,756(55.2)	2,735(63.4)
55-59	52 (3.5)	59(2.9)	99(3.1)	162(3.8)
60"	35 (2.4)	52(2.5)	68(2.1)	146(3.4)

자료: (표 1) 과 동일

한 증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5년간 연소인력(15~19세)의 노동시장 진입은 진학율의 상승으로 늦어지고 있는 반면, 노동인력(60세 이상)의 노동시장으로 부터의 이탈은 오히려 연기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이와같은 연령그룹별 변화양상을 남녀별로 구분하여 살펴 보자. 비교적 노령인구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5년이후에 60세이상 연령그룹에 들어갈 55~59세 그룹의 변화를 보면, 역시 남자의 경우는 5%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여자의 경우는 4.6%에서 5.9%로 15년간 1.3% 「포인트」 증가하였다. 60세이상 경제활동인구의 구성비에서도 지난 15년간 남자는 1.1% 「포인트」, 여자는 1.7% 「포인트」 증가하였다. 그래서 경제활동참가자중 노령인구의 구성비에서도 여자의 경우가 남자보다 빠르게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을 농가와 비농가로 구분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자. 먼저 성별 구분없이 총수 면에서 농가의 경우는 노령경제활동인구의 구성비가 1970년 6.1%에서 1985년 13.8%로 무려 7.7% 「포인트」 증가한 반면, 비농가의 경우는 2.6%에서 3.0%로 0.4%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년도마다 노령경제활동인구의 구성비의 절대치 자체도 농가에서 훨씬 크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연도별 구성비의 변화 폭도 농가에서 훨씬 앞서고 있어서 농촌인력의 고령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결국 노령인구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는 주로 농촌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주원인은 197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의 젊은 인력이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농촌의 인력이 노령인력으로 대체(substitution)되었음을 의미

하는 것이다. 소위 1차노동력(primary labor force)인 25~54세 연령층의 구성비는 농가에서는 1970년 63.9%에서 1985년 65.1%로 미미한 변화에 그친 반면, 비농가에서는 각각 68.2%에서 75.0%로 높은 구성비 증가 현상을 보였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차 노동력인 노동인력의 취업기회는 주로 농촌에서 주어져 그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주도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농가·비농가를 성별로 좀 더 구체적 통계량을 보면, 농가에서는 노령경제활동인구의 구성비가 남자는 1970년 6.6%에서 1985년 15.1%로 여자는 5.3%에서 12.2%로 큰 변화를 보였으나, 비농가에서는 남자는 2.8%에서 2.7%로 전기간에 걸쳐 대동소이하며, 여자는 2.4%에서 3.4%로 1%「포인트」 증가되었다. 그래서, 노령경제활동인구는 구성비 측면에서 농가에서는 남녀 모두 증가한 반면 비농가에서는 여자의 경우에서만 그들의 구성비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농가에서는 여성인력의 경우 노령인구에 국한하지 않고 전인력의 경제활동참여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2. 노령인구의 취업구조 변화

노령인구의 산업별 취업구조 변화를 표 3-3에 나타난 바와 같이 60-64세 연령층과 65세이상 연령층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변화 양상을 전 연령의 분포에 대비하여 알아보자. 우선 전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는 농림어업의 경우 1980년에 37.8%에서 1985년 32.0%로 5.8%「포인트」 감소하였으며 광공업에서도 22.8%에서 21.5%로 1.3%「포인트」 감소하였다. 이는 결국 3차산업 즉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분야의 취업구성

비의 증가를 의미하는데 특히 건설 및 도·소매업의 취업자 구성비가 2.8% 「포인트」 증가하였다.

이와같은 변화형태를 노령인구의 취업구조 변화와 비교해 보자. 60 - 64세 연령층은 농림어업 부문에서 80년 78.0%에서 85년 73.5%로 4.5% 「포인트」 감소하였고, 65세이상 연령층은 84.3%에서 83.2%로 1.1% 「포인트」 감소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구성비 감소는 전연령에서의 5.8% 「포인트」 감소에 훨씬 못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노령인구의 구분에서도 65세이상 연령층의 구성비 감소는 60-64세 연령층의 그것보다 훨씬 적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노령층일수록 더욱 농림어업 즉 1차산업에 취업의 기반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업이나 제조업에서는 어떠한가?

60 - 64세의 노령인구층의 구성비는 1980-85년간 0.5% 「포인트」 증가하였고, 60세이상 노령인구층의 구성비는 0.4% 「포인트」 증가하여 이 부문의 전연령의 1.3% 「포인트」 감소와는 역방향의 변화 현상을 보였다. 건설업 부문에서의 구성비는 60 - 64세 및 65세 이상 연령층의 증가(1.0% 및 0.2% 「포인트」)가 전연령의 증가(1.2% 「포인트」)에 다소 미치지 못하였고, 도소매업 부문에서도 같은 현상이나 65세 이상의 경우는 0.5% 「포인트」 감소되었다.

산업별 취업구조변화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녀 모두 1차산업에서의 감소 현상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 전연령과 60-64세 연령층에서 각각 5.8% 「포인트」와 5.9% 「포인트」 감소한 반면, 여자의 경우는 4.3% 「포인트」와 1.9% 「포인트」 감소하여 60-64세 연령층의 노령인구에서 남자의 1차산업 취업구성비 감소가 여자보다 훨씬

<표 8 - 3>

노령인구의 산업별 취업구조변화

(단위: %)

	1980			1980			1980-85 구성비 증감		
	전연령	60-64	65~	전연령	60-64	65~	전연령	60-64	65~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 립 어 업	37.8	78.0	84.3	32.0	73.5	83.2	-5.8	-4.5	-1.1
광 공 업	22.8	3.6	2.1	21.5	4.1	2.5	-1.3	0.5	0.4
건 설 업	5.2	2.2	1.0	6.4	3.2	1.2	1.2	1.0	0.2
도 소 매 업	16.1	9.4	7.5	17.7	10.2	7.0	1.6	0.8	-0.5
기 타	18.1	6.8	5.1	22.4	9.0	6.1	4.3	2.2	1.0
남 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 립 어 업	32.8	73.7	82.0	27.0	67.8	81.2	-5.8	-5.9	-0.8
광 공 업	23.3	4.7	2.5	23.2	5.5	3.0	-0.1	0.8	0.5
건 설 업	7.7	3.2	1.4	9.1	4.9	1.6	1.4	1.7	0.2
도 소 매 업	15.0	9.5	7.7	15.6	10.0	6.8	0.6	0.5	-0.9
기 타	21.2	8.9	6.4	25.1	11.8	7.4	3.9	2.9	1.0
여 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 립 어 업	46.5	85.7	88.8	42.2	83.8	87.6	-4.3	-1.9	-1.2
광 공 업	21.9	1.7	1.3	18.0	1.8	1.4	-3.9	0.1	0.1
건 설 업	0.9	0.4	0.3	1.2	0.2	0.3	0.3	-0.2	0.0
도 소 매 업	18.4	9.4	7.0	21.9	10.6	7.7	3.5	1.2	0.7
기 타	12.3	2.8	2.6	16.7	3.6	3.0	4.4	0.8	0.4

자료: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1980, 1985.

크게 나타났다. 또한 이는 60 - 64 세에서 남자의 경우는 전연령의 구성비 변화와 유사하나 여자의 경우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구분에서의 또다른 특징은 여자의 경우 모든 산업에서 전연령에서의 1980-85년간 변화가 제일크게 나타났고, 60-64세가 그 다음이고 65세 이상은 그 변화가 가장 작게 나타났다. 이는 노령인구 일수록 산업의 취업구조

개편에 둔감하게 작용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남자의 경우는 60-64세 연령층이 비교적 전연령의 산업별 취업구조변화와 가깝게 나타나고 있어, 노령인구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산업별 취업구조 변화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노인생활실태조사」(1987)에 나타난 특성 분석

분석에 앞서 이 조사의 대상자에 대한 개괄을 하면, 먼저 조사대상자는 피부양자에 속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총조사대상자수는 798명으로 이들의 연령별 분포는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및 80세이상 각각 228명, 224명, 162명, 106명 및 78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344명이고, 여자가 454명이며, 이중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기타 돈벌이 하고 있는 사람은 남자가 29명, 여자가 38명으로 남녀 모두 전체의 8.4%에 해당된다. 이처럼 취업율이 낮은 것은 조사대상자가 피부양자에 속하기 때문이다.

노령인구(60세 이상)의 퇴직행태는 보기 위하여 이미 퇴직하였거나 혹은 앞으로 퇴직하고자 하는 기대퇴직연령은 “언제까지 직장생활을 하였습니까/할 것 입니까”라는 질문의 응답을 근거하여 파악해 보자. 총퇴직해당자 160명중 44.4%가 이미 50세이하에서 퇴직하였으며 70세이상에서 퇴직하였거나 하고져 하는 비율도 10.6%나 되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50세이하에서 퇴직하지 않은 사람은 60세 이상까지 일하게 되는 현상을 엿볼 수 있겠다. 60세이상 인구를 3가지 연령계층으로 나누어 보면, 50세이하에서 이미 퇴직한 비율은 60-64연령층에서 32.8%, 65-69연령층에서 43.5%와 70세이상에서 57.1%로 연령이 높을수록 이미 50세이하에

서 퇴직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앞으로 노령인구(60세이상)에 진입하는 사람은 50세이하에서 퇴직한 비율이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퇴직연령이 점점 높아지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음의 분석에서도 뒷받침 된다고 하겠다. 60-64세 연령층에 있는 근로자가 65-69세에 퇴직하고자 하는 비율이 24.1%이고 70세 이상이 되어서 퇴직하고자 하는 비율도 10.3%나 되어, 60-64세 연령층의 근로자 중 34.4%가 일할 의사를 계속 가지고 있다 하겠다. 또한 65-69세 연령층의 근로자도 15.2%가 70세 이후로 퇴직기간을 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50세 이하에서 퇴직한 비율은 남녀 각각 30.2%와 65.6%로 여자근로자의 조기퇴직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연령별 구분은 표본수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신빙성의 문제가 제기 되기에 구성비 및 분석은 생략하겠다.

다음은 조사대상자 가구의 월평균소득별 분포를 전지역과 시부·군부로 나누어 살펴보자(표 3 - 4 참조). 전지역의 경우 월소득 50만원 미만의 가구에 총 노령인구의 77.2%(19.2%+36.3%+21.7%)가 속해 있으며, 특히 36.3%가 월소득 10 - 30만원의 저소득층의 가구원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시부와 군부로 나누어 보면, 군부의 경우 3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 전체의 85.4%(36.1%+49.3%)가 속해 있을 뿐 아니라 10만원 미만에도 36.1%나 되고 있다. 시부에서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10 - 50만원 사이에 56.1%로 반 수 이상이 이에 속해 있다. 그래서, 역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령인구의 가구소득이 아주 낮기에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도시지역에 비해 가중되고 있음을 엿 볼 수 있겠다.

〈표 3 - 4〉

노령인구의 월평균 가구소득별 분포

(단위 : 명, %)

	계	~ 10만원	10-30	30-50	50-70	70-90	90-110	110~
전지역	798 (100.0)	153 (19.2)	290 (36.3)	173 (21.7)	79 (9.9)	37 (4.6)	22 (2.8)	44 (5.5)
시 부	510 (100.0)	49 (9.6)	148 (29.0)	138 (27.1)	74 (14.5)	35 (6.9)	22 (4.3)	44 (8.6)
군 부	288 (100.0)	104 (36.1)	142 (49.3)	35 (12.2)	5 (1.7)	2 (0.7)	0 (0.0)	0 (0.0)

자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7년 한국 노인생활 실태조사', 1987.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가구주인 장남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노령인구가 전체의 50% 이상을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남이 설령 가구주가 아니더라도 자녀(장남, 장녀, 그외자녀)들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노령인구는 전체의 85.7%나 되어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한가지 이 표에 나타난 특이한 사항은 장남으로부터의 경제적 도움관계는 군부에서 더 강하고, 장녀로부터의 도움관계는 군부 보다는 시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이다. 그외 자녀로부터의 도움은 지역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경제적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노령인구들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취업, 근로활동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는 노령인구들까지 종합적으로 그들의 생활비 또는 용돈의 원천에 대해서 살펴보자(표 3 - 5 참조). 60세 이상 인구중 21.1%가 본인의 취업 또는 근로활동을 통하여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고,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가 35.2%로 여자의 10.4%보다 높게 나타나 있다. 노령인구의 생활비 및 용돈의 해결을 본인

< 표 3 - 5 >

노령인구의 생활비 또는 용돈의 원천

	계	취업 근로활동	개인저축 투자	연금·보험 퇴직금	배우자	장남	장녀	그외 자녀	기타
총계	798 (100.0)	168 (21.1)	48 (6.0)	10 (1.3)	12 (1.5)	296 (37.1)	26 (3.3)	155 (19.4)	83 (10.4)
남자	344 (100.0)	121 (35.2)	21 (9.0)	5 (1.5)	9 (2.6)	98 (28.5)	8 (2.3)	45 (13.1)	27 (7.9)
여자	454 (100.0)	47 (10.4)	17 (3.7)	5 (1.1)	3 (0.7)	198 (43.6)	18 (4.0)	110 (24.2)	56 (12.3)

스스로 해결하는 범위를 개인저축·투자와 연금·퇴직금·보험까지 합한다면 전체적으로 28.4%이고, 남자는 각각 45.7%와 15.2%를 나타내어 남자의 본인 해결 정도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본인의 생활비 충당 이외에 자녀등으로부터 받는 생활비 및 용돈의 원천에 대해서 살펴보면, 장남으로부터의 원천이 37.1%로 제일높고, 이는 여자가 43.6%로 남자의 28.5% 보다 높다. 장녀와 그외 자녀까지 포함시킨다면 남자는 43.9%, 여자는 72.1%를 보여 여자의 자녀 의존도가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노령인구의 경우에 남자의 자립정도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나 특이한 것은 배우자로 부터의 도움은 남자가 2.6%이고 여자가 0.7%로 노령에는 아내로부터의 도움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여러 종류의 생활비 및 용돈 원천중에 소위 사회보장 정도를 의미하는 연금·퇴직금·보험등에 노후 경제생활을 의존하고 있는 비율은 불과 1.3%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정부 및 기업의 적극적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다.

이상에서 언급한 노령인구의 생활비 및 용돈의 원천에 따른 분석과 더불어 그들이 현재 느끼는 경제적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자(표 3 - 6 참조). 전체적으로 충분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8.4%, 적당하다는 응답자 49.1% 및 불충분하다는 응답자는 42.5%로 나타나 많은 노인들의

〈표 3 - 6〉 노령인구의 가구소득별 현재 생활상태

(단위 : 명, %)

	계	~10만원	10-30	30-50	50-70	70-90	90-110	110~
총 계	798 (100.0)	153 (100.0)	290 (100.0)	173 (100.0)	79 (100.0)	37 (100.0)	22 (100.0)	44 (100.0)
충 분	67 (8.4)	4 (2.6)	15 (5.2)	8 (4.6)	11 (13.9)	7 (18.9)	4 (18.2)	18 (40.9)
적 당	392 (49.1)	49 (32.0)	142 (49.0)	100 (57.8)	47 (59.5)	22 (59.5)	16 (72.7)	16 (36.4)
불충분	339 (42.5)	100 (65.4)	133 (45.9)	65 (37.6)	21 (26.6)	8 (9.1)	2 (9.1)	10 (22.7)

자료 : 경제기획원, '1987년 한국 노인생활 실태조사', 1987.

생활에 경제적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이를 가구소득별로 구분하여 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충분하다고 응답한 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10만원 미만의 월소득 가구에서는 2.6%에서, 110만원 이상의 가구에서는 40.9%까지 나타나고 있다. 불충분하다고 응답한자의 구성비는 역으로 10만원 미만에서 65.4%로부터 90-110만원 가구에서는 9.1%까지 감소하고 있어,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에 속한 노인일수록 불만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많은 경제적 도움을 받는

다고 가정한다면 노인들의 실제 받는 용돈의 양은 그들이 느끼고 만족정도와 거의 비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노인의 경제적 상태는 가구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가구수입은 대부분이 가구주의 소득이고 가구주는 장남인 경우가 일반적이기에 장남의 경제적 상태가 노인의 경제적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 노인생활실태의 국제비교

앞에서 우리나라 노인의 생활실태를 살펴 보았다. 이제 외국에서의 노인 생활실태를 살펴 보기로 한다. 그런데 앞 절의 우리나라 노인은 피부양자를 조사대상으로 하였고 외국은 독립생활자나 피부양자를 구분치 않고 조사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료와의 직접 비교는 곤란하다. 다만 여기서는 외국의 실태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소개하는데 그 의미를 부여코자 한다.

본절에 소개되는 국제 조사자료는 일본의 총무처장관 관방노인대책실에서 일본 인구의 노령화에 대비한 정책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일본, 태국, 미국, 「덴마크」, 이태리의 5개국에 대해서 60세 이상 노인인구를 약 1,000명씩 표본추출하여 1986년 1월기간중에 동일한 설문지에 의해서 조사한 결과이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연령별구성비를 보면 표 3 - 7 과 같다.

〈표 3 - 7〉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구성비

(단위 : %)

	일 본	태 국	미 국	덴마크	이태리
60 - 64세	33.5	29.1	25.2	26.7	26.5
65 - 69	29.5	23.4	26.8	22.5	22.8
70 - 74	20.4	20.5	20.6	19.8	20.6
75 - 79	11.2	14.2	12.2	17.7	15.7
80 -	5.4	12.9	15.2	13.3	14.4

「덴마크」, 이태리, 미국, 태국의 순으로 고연령층의 비중이 높다. 특히 「덴마크」는 70세이상 인구층의 비율이 50.8%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남·여별 구성비는 〈표 3 - 8〉과 같다.

〈표 3 - 8〉

조사대상자의 남녀비율

(단위 : %)

	일 본	태 국	미 국	덴마크	이태리	한 국
남	47.5	42.9	42.3	44.2	43.1	43.1
여	52.5	57.1	57.7	55.8	56.9	56.9

일본은 여자가 5% 「포인트」 정도 많은데 비해 다른 4개국은 10% 「포인트」 이상의 차이는 여자들의 비중이 높다.

가족과의 동거관계를 표 3 - 9에서 살펴보면 각국에서 남자의 경우는 기혼배우자와의 동거가 70~90%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그런데 특이한 점

은 여자의 기혼배우자와의 동거율이 남자의 반 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결국 남자는 사별하는 경우 연하의 여자와 재혼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여자는 독신으로 보내는 예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점이라 하겠다. 그리고 일본이나 태국과 같은 동양사회는 자식이나 손자와 같이 동거하는 경우가 많으나 미국이나 「덴마크」는 독신으로 홀로 사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표 3 - 9 > 가족과의 동거 상황

	(%)				
	일 본	태 국	미 국	덴 마크	이 태 리
	69.5	49.4	49.0	51.0	56.9
배 우 자	남 90.2	남 72.7	남 74.4	남 69.8	남 82.1
	여 50.8	여 31.8	여 30.3	여 36.1	여 39.9
기 혼 아 들	40.4	23.0	0.7	0.8	11.1
기 혼 딸	10.2	38.0	2.0	1.0	11.0
자녀의 배우자	34.8	37.9	0.8	0.3	21.2
미 혼 의 자녀	16.0	30.8	10.6	5.0	25.4
손 자 · 손 녀	38.0	68.6	2.3	0.8	16.7
동 거 인 없 음	6.7	4.6	39.6	44.0	18.8

이제 노인인구의 취업생활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표 3 - 10을 통해 과거의 취업경험을 알아보면 미국 95.5%, 태국 88.9%, 덴마크 85.1%, 일본 84.4%, 이태리 71.8%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와 여자의 취업경험을 보

면 미국은 6.9%「포인트」의 차이로 남녀간에 큰 차이가 없었는데 반해 이태리는 43.6%「포인트」의 차이로 남·녀간의 취업경험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3 - 10〉 과거의 취업경험

(%)

	일 본	태 국	미 국	덴마크	이태리
평 균	84.5	88.9	95.5	85.1	71.8
남 자	96.4	94.2	99.5	94.0	97.8
여 자	73.5	85.0	92.6	78.1	54.2

취업자가 취업을 계속코자 하는 이유를 표 3 - 11에서 살펴보면 태국과 같은 후진국에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취업을 계속 희망하는율이 83.9%로 가장 높았는 반면에 미국, 「덴마크」, 이태리와 같은 서구 선진국은 일 자체에 대한 의욕 때문에, 그리고 일본과 같은 동양 선진국은 육체의 건강유지를 가장 큰 취업계속이유로 들고 있다.

〈표 3 - 11〉 취업을 계속코자 하는 이유(현취업자)

(%)

	일 본	태 국	미 국	덴마크	이태리
수 입 목 적	38.9	83.9	36.8	17.9	30.8
일 에 대 한 의 욕	8.1	13.6	40.4	61.8	48.1
일 을 통 한 사 교	7.6	0.0	3.1	8.1	5.8
육 체 의 건 강 유 지	42.0	1.4	17.6	8.9	13.5

노인인구의 실제 퇴직연령은 표 3 - 12와 같다. 60 대전반 이전에 퇴직하는 비율을 보면 일본이 60.0%, 태국 64.5%, 이태리 66.0%로 나타나는 반면에 미국은 55.6%, 「덴마크」는 53.5%로 이들 나라의 퇴직연령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겠다.

<표 3 - 12>

실제의 퇴직연령

(%)

	일 본	태 국	미 국	덴마크	이태리
50 세 대	26.0	26.5	22.0	14.4	30.5
60 - 64	34.0	38.0	33.6	39.1	35.5
65 - 69	19.0	14.5	22.4	27.0	11.4

한편 표 3 - 13을 중심으로 희망하는 퇴직연령을 보면 실제 퇴직연령보다 높아서 노인들은 조기퇴직을 아쉬워 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65세이상에서 퇴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일본 66.6%, 미국 54.1%로 높은 반면에 태국은 35.8%, 이태리는 23.2%로 상대적으로 퇴직희망연령이 낮다. 그리고 남·녀간에 비교를 해보면 일본, 미국, 「덴마크」는 남자보다 여자가 조기퇴직을 희망하고 있으며, 태국에서는 남·녀간에 큰 격차가 없음을 볼 수 있다.

< 표 3 - 13 >

희망 퇴직연령 (남녀별)

(%)

	일 본	태 국	미 국	덴 마크	이 태 리
60세이상남	13.2	40.5	17.8	33.4	54.1
여	29.1	40.9	25.9	39.7	29.1
65세이상남	37.9	14.5	36.5	33.5	21.1
여	18.4	10.0	30.3	18.0	5.8
70세이상남	28.7	21.3	17.6	8.8	2.1
여	10.8	13.8	10.5	3.2	0.4

표 3 - 14 에서 노인인구의 현재 생활량의 수입원을 살펴보면 태국을 제외한 4개 선진국은 공적연금의 비중이 제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후진국인 태국은 자녀의 도움이 선진국의 공적연금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볼 수 있다. 일본은 공적연금 다음으로 취업을 통한 수입이 34.3%나 되며 태국도 자녀의 도움 다음으로 취업을 통한 수입을 들고 있어 동양사회가 서양사회와의 차이를 느끼게 한다. 즉 미국, 덴마크는 공적연금 다음으로 중요한 수입원이 재산수입이며 이태리는 저축금입을 볼 때 취업이라는 근로활동을 통한 수입을 제 2의 수입원으로 보는 동양사회가 좋은 대조가 된다고 하겠다.

<표 3 - 14>

현재 생활비의 수입원

(%)

	일 본	태 국	미 국	덴마크	이태리
취업통한수입	34.3	33.2	24.0	14.0	12.1
공 적 연 금	77.0	5.5	84.7	76.5	82.5
사 적 연 금	5.4	0.2	29.7	13.2	10.6
저 축 금	16.6	5.4	24.0	11.4	24.5
재 산 수 입	14.5	15.7	49.4	20.0	7.4
자녀의 도움	21.8	77.9	2.2	0.2	10.8

IV. 노인복지실태와 대책

1. 노인문제의 원인

사회문제는 어떤 사회적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단정된 상황이 있어야 사회문제가 성립된다.¹⁾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인구구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어떤 조치는 노인자체보다는 노인이 문제로 생각하는 측면에 대해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현재 노인이 문제시하는 것들을 종합해 보면 ①가부장적 가족제도의 붕괴 ②사회구조와 생활양식의 변화 ③평등주의의 확산으로 전통주의의 위축 ④긴 여가시간 ⑤역할상실 ⑥수입전감 ⑦건강의 약화 ⑧부양 및 보호문제 ⑨소외감등의 각종 형태이다. 이렇듯 여러 측면에서 노인들의 문제를 다양하게 보고 있으나 모든 연구사들이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①가족구조의 변화와 ②시장경제 형태의 변화로 크게 나뉘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다.²⁾

(1) 노인과 노동참여

인간은 일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 있다는 존재를 확인하게 된다. 인간은 일없이 아무런 육체적 지적 발전도 기할 수도 없다. 일은 특권이

1) Downie, L., Jr, Mortgage on America, Praeger Pub, New York, 1974, pp.14-32.

2) Woodroff, D.S and Birren J.E 1975 Aging, D.Van Nostrand Cnm, New York, pp.3-14.

며 인간생활의 수단이며 문화의 척도이다.³⁾

산업화가 진전되자 가족의 경제적 기능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노동의 댓가로 상대적 평가를 받게 되었다. 즉, 한 집단에서의 지위는 다른 집단에서도 동등히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1985년도 조사⁴⁾에 의하면 전 연령층의 산업별 취업구조는 농림어업이 32%이고 기타 산업에, 취업하는 경우가 68.0%인데 그 중 65세 이상의 연령층에 있어서는 농림어업에 83.2%가 취업하고 있고, 기타산업에 16.8%가 취업하고 있어 농림어업이외의 업종에서는 대부분이 은퇴하고 일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자유경쟁체제하의 시장경제하에서는 노인의 취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일 즉 노동에 대한 참여기회의 감소현상을 가져온다. 이런 현상은 경제적 소득과 노동의 향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2) 노인과 가족구조

다음으로 가족구조변화는 노동경제시장에서 추출된 노인에게 유일하게 남은 안식처마저도 빼앗아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족유형의 변화를 보면 1960~1985년간에는 5.6명의 가족 규모가 4.2명으로 감소하고 있어 가족규모가 그 자체가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분화의 핵가족화가 병행되고 있다. 가족구성에서 3세이상 가족은 1960년대초기 약 29%를 차지했으나 이는 최근에 16%로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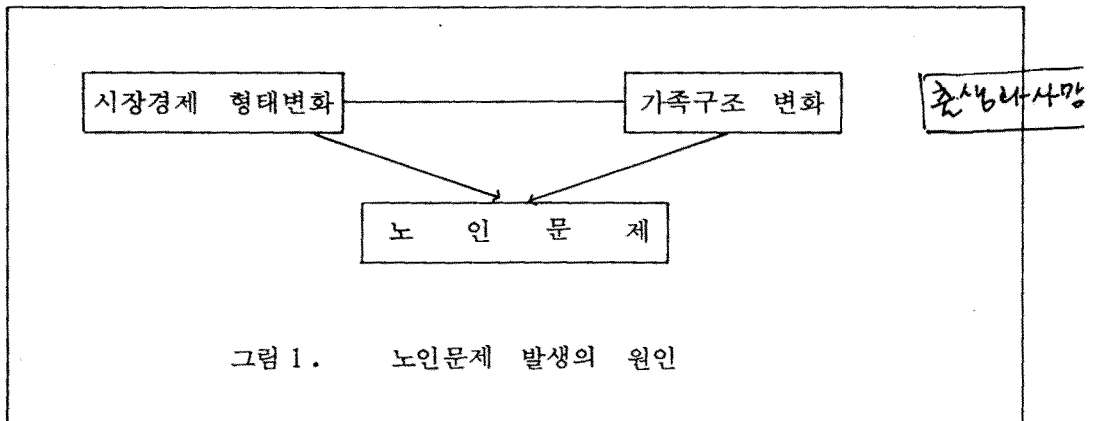
3) Gold, J.G., Eutman, B. and Earlix, P., "Work and the Elderly in a Home for the Aged", Social Welfare of Aging, ed. Jerome Kaplan and G.A. Aldridge, Columbia Univ. Press. New York, 1962. p.34.

4)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되었고, 196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중심의 산업화에서 농촌인구는 도시에 유출되면서 농촌가족의 분화현상은 뚜렷해졌고 도시에서의 1~2세대 가족의 증가로 부부중심의 가족형성을 가져왔다.

특히 노년인구층 결혼상태를 보면 세이상 남자노인의 13.0%가 사별한 반면에 여자노인층의 64.3%가 사별한 경우이므로 여자노인의 가족구성상에서 오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우리사회구조가 시장경제형태로 변화하고 가족구조가 핵가족화 되어 감에 따라 노인문제가 사회문제화하는 경향을 띄게 되는 것이다(그림 1 참조).



2. 노인집단과 복지시책

1) 노인집단의 구분

앞에서 규명한 노인의 사회문제화된 2개의 주요원인인 ①시장경제적 측면과 ②가족구조적 측면을 2개의 축으로 해서 노인집단을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I 집단 : 가족없고 소득도 없는 노인들

Ⅱ집단 : 가족없으나 소득은 없는 노인들

Ⅲ집단 : 가족없으나 소득은 있는 노인들

Ⅳ집단 : 가족있고 소득도 있는 노인들

<표 4 - 1 > 노인집단의 구분

시장 경제적 측면 가족구조적 측면	가 족 없 음	가 족 있 음
	소 득 없 음	I 집 단
소 득 있 음	Ⅳ 집 단	Ⅲ 집 단

2) 노인집단과 복지정책

노인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여러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다음 4가지로 분류한다. ①주택문제 ②소득문제 ③질병 ④고독 역할상실등이다.⁵⁾

이러한 4개의 주요문제를 가족구조와 시장경제적 측면에 관련시켜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노인문제는 가족구조적 측면으로 부터는 ①주택문제, 시장경제적 측면으로 부터는 ②소득문제, 가족구조와 시장경제의 복합적인 면으로 부터는 ③질병과 ④고독, 역할상실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노인들에게는 ①주거보장 ②소득보장 ③의료보장 ④사회적 서어비스가 각각 필요하게 된다.

5) 박재만, 1988. 우리나라 노인문제의 특성과 전망, 서울, (비발간논문임) p.15.

3. 노인복지대상자와 실태

1) 노인집단별 추정인구

앞의 표 1에 의거 우리나라 노인집단별 인구수를 추정하기로 한다.
 노인인구수를 추정하기 위한 집단 구분의 개념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이 없다”라는 것은 부양할 가족이 없다는 뜻이므로 단순히 혼자 살고 있는 단독가구는 물론 2,3,4세대 이외의 모든 노인가구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물론 2세대 가구에서도 해체형가구중에 노인과 그의 손·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예상할 수 있으나 큰 부분이 아니어서 무시해도 될 것이다.

〈표 4 - 2〉 노령가구수의 세대구성 (1985)

가 구 구 성	전체가구수	노령가구수
가족이 있는 집단 (2, 3, 4 세대 가구)	81.8 %	66.5 %
가족이 없는 집단 (1세대, 단독, 비혈연가구)	18.2 %	33.5 %
계	9,571,361	1,217,289
%	100.0	100.0

자료 : 1985년도 인구센서스 2%표본 (경제기획원)

위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의 부양이 미약하리라고 생각되는 1세대, 단독 비혈연가구가 33.5%나 되는 상태로 나타내고 있다. 즉 노

령가구 중에서 66.5%는 어떤형태로든 부양적 의미에서 가족이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33.5%는 가족이 없는 집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소득이 없다”라는 것도 부양의 의미에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소득은 현재 취업하고 있는가, 연금등의 수입이 있는가, 자녀등이 지원하는가의 여부에서 보기 보다는 노인들이 가구별로 소득의 만족도로 기준을 삼아야 할 것이다. 즉 소득이 충분하다고 할때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 없으며 소득이 불충분하다고 할때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서 소득이 없다고 분류해야 할 것이다.

노인인구의 가구소득별 생활만족상태는 표 3 과 같다.

〈표 4 - 3〉 노령인구의 가구소득별 현재 생활상태

(단위 : %, N = 798)

내 용	분 포
충 분	8.4
적 당	49.1
불 충 분	42.5
계	100.0

자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경제활동 인구연보”, 1985.

이 자료를 바탕으로 4개 집단의 노인인구수의 분포도 가족상태와 소득상태간에 상호관계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표 4 - 4 >

집단별 노인인구수 요약

집단구분	내 용	실 수 (명)	%
I 집 단	가족도 없고, 소득도 없는 노인들	135,328	7.7 %
II 집 단	가족은 있으나 소득이 없는 노인들	608,231	34.8 %
III 집 단	가족은 있으나 소득이 없는 노인들	183,090	10.5 %
IV 집 단	가족도 있고 소득도 있는 노인들	822,900	47.0 %
계		1,749,549	100.0 %

2) 노인복지 종류별 대상인구 추정

앞의 도표에서 제지했던 바와 같이 각 노인집단별 사회복지 제도는 다양하다. 즉 가족도 없는 노인집단에는 주거보장 소득보장 의료보장 사회적 서서비스가 모두 주어져야 하고, 가족은 있으나 소득이 없는 집단에는 주거보장을 제외한 소득보장 의료보장 사회적 서서비스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가족은 없으나 소득이 있는 집단에게는 주거보장책과 아울러 의료보장 사회적 서서비스가 주어져야 하며 가족있고 수입도 있는 노인집단에게는 사회적 서서비스가 주어져야 한다.

이상의 원칙을 바탕으로 노인복지종류별 수혜대상인구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복지종류	인 원 수	전체노인에 대한 백분율	산출근거 : 대상집단
1. 주거보장	318,418	18.2	I, III집단
2. 소득보장	743,559	42.5	I, II집단
3. 의료보장	926,649	53.0	I, II, III집단
4. 사 회 적 서어비스	1,749,549	100.0	I, II, III, IV집단

3) 노인복지 실시상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책은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연유한 가정보호로 말미암아 아직까지는 노인문제를 그다지 중요시하게 보아오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무의무탁한 노인만을 양호시설에 수용하여 보호하는데 불과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노후의 생활을 국가가 보호하여야 할 당위성으로 말미암아 노인에 대한 복지시책이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마련되기 시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1) 주거보장 실태

주거보장시책으로는 ①노인의 편의주택개발 ②2, 3, 4세대 동거주택개발 ③노인 집단주택개발 ④양로원 시설확충과 질의 개선 ⑤유료양로원의 확대 ⑥노인보호시설확대 등의 방안을 들 수 있다.

지금현재 ①②③에 해당되는 주택개발 정책은 일부 사기업수준에서 부분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실시한 경우는 서울시에 3세대 동거형주택을 360세대 만들어 실시한것이 전부이다.⁶⁾

6) 보건사회부 '88 주요업무자료 1988. p.45.

(2) 소득보장 실태

소득보장 시책으로는 ①생활보호 대상자 확대와 개선 ②국민연금제도의 확대 ③노인가족에 대한 세제혜택 ④노인취업의 강화 ⑤퇴직준비교육과 재취업교육 강화 등을 들수 있다.

①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 6> 생활보호대상자 수

구 분	시설보호	거택보호	자활보호	계
인원(천명)	2,310	318	1,917	2,310

자료 : 보건사회부, 보건사회 1988, p.165

전체 생활보호대상자 231 만명 중에서 거택보호대상자들은 대부분이 노인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들은 노인생활보호대상자로 보면 32 만명이 생활보호법에 의해 생계보장을 받고있다 할수 있다.

②국민연금제도 면에서는 1986년에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의해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현재에는 연금각출료를 받고 있는 상태로서 실익이 노인층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③노인부양가족에 대한 세제혜택 부문에서는 1987년부터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④노인취업 부문에 있어서는 대한 노인회 및 산하지부에 노인능력 은행을 설치하여 노인들에게 희망에 따라 취업을 알선하고 있으며, 87년도에

취업알선실적은 장기 3,015, 단기 104,893으로 도합 107,908명의 노인이 장·단기 취업을 하고 있다.⁷⁾

⑤퇴직준비교육과 재취업교육 부문에서는 선진국에서 강조되고 있는 퇴직준비교육과 재취업교육도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부문의 전체수혜인원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32만명, 연금제도에서 14만명, 노인취업 부문에서 10만명 그리고 노인부양세제혜택에서 상당수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직접적 수혜자 56만명으로 소득보장 요구노인 74만명의 75%가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3) 의료보장 실태

의료보장 시책으로는 ①의료보장 대상자의 확대 ②의료보험 제도의 확대 ③노인 전용병원의 증설 ④재가노인 진료제 실시 ⑤노인의 시한부 수양치료시설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①의료 보호 대상자는 88년 현재 13만명이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있다.

②의료보험 제도의 혜택은 약 70만명 정도가 되고 있다.

③노인전용 병원의 증설은 정부에서 설치한 통계는 없다.

④재가노인 진료제는 1983년 부터 노인건강 진료사업은 노인질환에 따라 1, 2차에 걸쳐 기본적 검사와 정밀검사를 전국의 국공립병원·보건소에서 설치하고 있다. 87년도 노인건강진료를 받은 수는 1차진단 177,989

7) 보건사회부, '88주요업무자료, p.46.

명과 2차진단 13,347명 포함 191,336명이 된다.⁸⁾

⑤노인수양 치료시설은 노인만을 위한 시한부 수양 치료시설이 10개소가 있다.⁹⁾

진료 수혜인원은 의료보호나 의료보험제도에서 보호받고 있는 인원이 대부분이므로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의료보호와 의료보험 수혜인원 83만명은 의료보장의 수혜인원으로 본다면 의료보장 요구인원 93만명의 90% 정도가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임을 알수 있다.

(4) 사회적 서어비스 실태

사회적 서어비스의 시책으로는 ①재가서어비스 실시 ②노인교육 여가 프로그램 다양화 ③노인 조직체 구성 ④노인의 자원 봉사자 확대 등을 들수 있다.

①재가 서어비스 부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세대중 약 22.6%가 노인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세대중 저소득층이나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자원 봉사자를 활용 정기적으로 방문케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건강보호 지원(Health care support) 서비스,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서비스, 접근 원조 서어비스(access and assistance service) 등 각종 서어비스가 주어져야 하나 이중에 접근·원조 서어비스 분야의 교통편의 제공, 경로 우대제가 실시되고 있다.

1987년말 현재 경로 우대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은 1,526,000명이다.¹⁰⁾

8) 보건사회부, 보건사회, pp.239-240.

9) 보건사회부, '88주요업무 자료, p.47.

10) 보건사회부, 보건사회, p.239.

②노인교육 여가 프로그램은 노인을 위한 놀이, 스포츠, 음악, 관광, 문화 활동 그림, 심리적 치료, 집단교육 등이 15개소의 노인대학과 251개소의 노인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다.

③노인 조직체 구성은 노인에게 다목적의 사회적 서어비스로 주로 조직체로는 노인복지 회관과 경로당이 있다.

노인복지 회관은 다목적 서어비스를 유료·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87년말 현재 전국에 14개소에서 5,605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경로당은 우리나라 특수한 사회제도 중의 하나로서 전국에 5,000개소 정도가 있으며 정부에서는 87년도에 239개소의 경로당을 모범 경로당으로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다. 이 경로당의 활용 인원은 15,000명으로 추산된다.¹¹⁾

④노인의 자원 봉사자 확대로서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위한 자원 봉사자 운영은 대한 노인회 등의 노인 단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통계는 없다.

지금까지의 사회적 서어비스 수혜 인원을 모아보면 경로 우대제 수혜자 153만명, 노인복지 회관 6만명, 노인대학 경로당 1만5천명으로서 약 160만명이 수혜를 받고 있다.

사회복지 서어비스 수혜 요구인원 1,749천명의 90%정도의 수준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검토한 노인복지 종류별 실시 상태를 요약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11) 보건사회부, 보건사회, p.241.

<표 4 - 7 >

노인복지 실시 상태

단위 : 천명

노인복지종류	복지요구인원수	수혜인원수	수혜내용
1. 주거보장	318	6	시설보호자
2. 소득보장	744	560	{ 생활보호대상자 연금수혜자, 취업자
3. 의료보장	927	830	{ 의료보호 의료보험
4. 사회적서비스	1,750	1,600	{ 경로우대수혜자 복지기관이용자

4. 요약 및 건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175만명의 노인복지 실태를 부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주거보장이 필요한 복지 요구 인원은 38만명으로 추산되나 정부에서는 6천명 정도를 시설에 보호수용하고 있어 크게 부족한 형편이다.

더우기 노인의 주거문제를 시설보호차원에서만 해결하려고 했지 가족과의 연계하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노인편의주택이나, 다세대 동거주택 및 노인집단주택 개발 등의 가족 통합적 노력이 미비하다.

앞으로 가족과 사회에 노인이 어울려 살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측면에서의 주거보장 정책이 필요하다.

②소득 보장의 요구인원은 74만명인데 56만명이 보호를 받고 있다. 생활보호와 연금지급 이외에 취업 기회 확대와 취업 교육과 재취업훈련면이 크게 부족하므로 노인들의 취업 교육과 기회 확대사업이 확장되어야 하겠다.

③의료 보장의 요구인원은 93 만명인데 의료보호나 의료보험 등으로 83 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어 노인복지 분야중 가장 높은 수혜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아직 10 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므로 의료보호 인원의 지속적인 확대 실시가 요망된다.

④사회적 서어비스는 모든 노인들에게 필요한 시책이다. 175 만명 노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사회적 서어비스는 경로 우대제의 수혜가 대종으로 이루고 있다.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어비스 즉 건강보호 사업, 사회적 지원사업 및 접근 원조 사업 등이 더욱 실시되어 내실 있는 사회적 서어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밝혀진 자료는 소득과 가족구조면에서 기본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추정하여 본 것으로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보다 정밀한 정책 개발을 위하여 노인집단별 사회복지 요구와 수혜실태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연구가 실시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경제기획원, 최근 인구동태현황 및 신인구추계 결과, 1988.
- 경제기획원, 한국의 생명표(1978-79), 1982.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 공세권·유호신, 한국인구의 노령화에 관한 고찰, 인구문제논집 25호,
인구문제연구소, 1984.
- 공세권 외저, 한국가족구조의 변화. 한국인구보건연구원 서울, 1988.
pp.77-78.
- 박재만, 우리나라 노인문제의 특성과 전망, 서울, (비발간논문임), 1988,
p.15.
- 보건사회부, 보건사회, pp.239-240.
- 보건사회부, '88 주요업무자료, p.47.
- 임종권(외),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한국 인구보건연구원, 1985.
- 유비각, 고령화사회와 노인문제, 일본 동경, 1978.
- 윤종주, 노령화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전망, 인구문제논집 26호, 인구문제
연구소.
- 영남대 & 미쉬건대, 노화노인문제, 1985.
- 총무처장관관방노인문제대책실, 노인의 생활과 의식, 일본 동경, 1988.
- 최인현(외) 편저, 핵가족화와 노년복지, 세미나보고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2.
- 최인현·조병구, 고령화사회의 세계적인 경향, 인구문제논집 24호, 인구문제
연구소, 1983.

Atchley, R. C. *The Social Forces in Later Lives*, Wadsworth Pub. Co. Inc, Belmont California, 1975 p. 235.

Clark, R. L, *Retirement Policy in an Aging Society*, Duke Univ. Press. N. C. p. 52.

Downie, L. Jr, *Mortgage on America*, Praeger Pub, New York, 1974, pp. 14-32.

Gold, J. G, Eutman, B. and Earlix, P., "Work and the Elderly in a Home for the Aged", *Social Welfare of Aging*, ed. Jerome Kaplan and G. A. Aldridge, Columbia Univ. Press New York, 1962. p. 34.

Woodroff, D. S and Birren J. E *Aging*, D. Van Nostrand Com, New York, 1975. pp. 3-14.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84*, Oxford University Press, 1984.